금주의 법구–〈법구경〉
항상 새벽처럼 깨어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86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4월 4일) 2022년 5월 4일 수요일



불기 2566년 연등회가 성황리에 봉행됐다. 코로나19 유행 이래 3년만에 대규모 연등회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후 첫 연등회여서 의미를 더했다. 사진은 조계사 연희단원들이 달등을 들고 율동을 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3년만에 재개한 연등회, 희망·치유 법석되다

4월 30일~5월 1일 대면 대규모 행사로 성료

송지희·임은호 기자

코로나 사태 이후 3년만에 재개한 '불기 2566년 연등회'가 불자와 시민들의 폭발적인 관심 속에 성료됐다. 올해 연등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불교계가 처음으로 봉행하는 대면대규모 행사이자, 2020년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법석이기도 하다. 이에 3년만에 만나는 이번 연등회에는 수많은 불자와 시민들이 운집해 부처님 오심을 찬탄했다.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원행)가 4월 30일~5월 1일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를 주제로 봉행한 올해 연등회는,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희망과 치유의 법석으로 마련됐다. 특히 연등회의 시작은 봉축연희단의 축하무대를 중심으로 한 어울림마당으로 펼쳐졌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처음 선보이는 어울림마당은 연희단의 신명나는 율동을 통해 침체된 우리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연출됐다. 각 사찰과 불교단체의 어린이·청소년·청장년들은 음악에 맞춘 활기찬 율동으로 대중들을 축제의 장으로 이끌었고, 참석대중들은 연희단의 신명나는 무대에 환호로 화답했다.

이어 봉행된 연등법회는 온 인류의 건강과 평화를 기원하는 법석이었으며, 연등회의 하이라이트인 연등행렬은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향하는 희망과 치유의 여정에 다름 아니었다. 연등행렬을 위해 종로 일대 도로가 전면통제된 것 역시 코로나 사태 이후 3년만의 일이다. 서울 도심을 환희 밝힌 연등의 물결 속에서 저마다 행렬등을 손에 들고 장엄등을 뒤따르는 참가자들의 얼굴은 환희로 빛났고 이를 반기는 시민들의 환호성은 다시 돌아온 일상을 실감케 했다.

밤하늘을 수놓으며 동대문에서 종각으로 도착한 연등행렬은 수많은 인파의 환영을 받으며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회향한마당은 시민과 불자, 내국인과 외국인, 남녀노소 구분을 뛰어넘은 대화합의 법석이었다. 부처님을 찬탄하는 흥겨운 찬불가에 맞춰 손과 손을 잡았고 눈과 눈을 마주했다.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한 채였지만, 거리두기의 간격이 좁아진 만큼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어우러졌다.

1만여 명 동참한 연등법회
연등행렬, 불자·시민 호응
규모감소에도 관람객 증가
전통문화마당 참가자 북적

마지막날인 5월 1일에는 한국 불교의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 '전통문화마당'이 대한불교 총본산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펼쳐졌다.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단위 참가자, 외국인 등은 다양한 전통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특별한 추억을 쌓았다.

봉축위원장 원행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코로나가 끝나가고 연등회가 빛을 밝혔다. 이제 인류는 다시 한번 성찰하고 변화해야 할 때"라며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국가와 세계를 위해 함께 정진해 나가자.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가르침"이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A5면〉



2022년 봉축특집호
A·B·C 섹션 80면 발행

데스크 초대석 A2·3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인터뷰·테마人 C1·2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



봉축특집 기획
A13·14·15·18·19·20



다시 절로 B3·4·5·8·9
각 종단 봉축법어·봉축사 A7·8·9
연등회 화보 C10·11
봉축동화 B17

부처님오신날 종정예하께 여쭙다

“平常心是道의 진리는 살면서 지켜야할 상식”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지난 3월 30일 서울 조계사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제 15대 종정 추대 법회가 열렸다. 법상(法床)에 오른 종정 성파 스님은 미리 준비한 법어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즉석에서 이해하기 쉬운 말로 즉설법문을 했다. “오늘을 기점으로 과거를 다 잊고 초발심으로 돌아가 새로 출발 합시다”라고. 조계종 최고 권위와 존엄을 상징하는 종정 추대 법회에서 이러한 즉석 법어는 매우 드문 일종의 파격이었다. 조계사 마당을 가득 채운 3천여 참석자들은 순간 놀랐고 즉석 법어에 웃음과 박수로 답했다.

이날 성파 스님의 법문은 초심으로 돌아가 그동안의 기억들을 싹 지워버리고 우리 마음과 가정, 사회, 국가 모두 새 출발을 한다면, 세상의 모든 갈등을 마무리하고 화합과 통합의 새 시대를 열 수 있지 않겠냐는 의미로 들렸다.

봉축을 앞둔 지난 4월 26일 종정 스님이 주석처인 양산 통도사 서운암을 찾아가 다시한번 법을 청했다. 춘화가 만발한 서운암 도량에는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는 신록과 갖가지 꽃들이 물감을 풀어놓은 것처럼 한폭의 수채화를 연상케 했다. 성파 스님은 대뜸 코로나로 쉽지 않았을텐데 “먼길 오느라 고생 많았다”며 반갑게 맞아 주셨다. 세상에 모두 회자된 얘기들이지만, 그래도 종정 큰스님께 육성으로 직접 듣고 싶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예술세계와 선수행담, 살아오신 인생역정까지. 그 내용들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양산 통도사/글=김주일 기자, 사진=노덕현 기자

△지난 종정 취임법회 때 즉석 법문이 대중들에게 화제였습니다. 어려운 한문으로 된 선지식들의 조사어록을 일절 언급하지 않고 쉬운 일상언어로 말씀해서 신선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역대 종정 스님들 법어가 사회적 울림이 컸다고 저한테도 그런 반향이 있는 말이 나오면 좋겠다고 하더라구요. 작정한 건 아닌데 현장에 가보니 많은 사람들이 우중에 오셨고, 특히 문대통령 내외도 맨 앞에 앉아 계신데 미리 쓴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읽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그래서 나오는 대로 말한 거지 다른 뜻은 없어요. 어렵다 쉽다로 언어를 굳이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쉽게 가르치고 말해도 모르면 어려운 것이고, 또 어렵다는 것도 알고 나면 쉬운 겁니다. 사과로 유명한 충주 것도 먹어보고 청송 것도 먹어봐야 사과라는 것인 줄 알게 되잖아요? 사과란 과일의 존재를 알면 그만이지, 맛이 어떻다 당도가 어떻다 굳이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즉석에서 제가 한 법문도 쉽고 좋고 신선하다고 겉만 평하지 말고, 그 의미나 뜻을 알고 실천하면 그게 좋은 법문입니다. 이 세상서 가장 훌륭한 법문은 그 법문이 끝난 뒤의 행동에 있는 겁니다. 말에 끄달리기 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고 보여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종정 임기를 시작하신 지 이제 어느덧 한달 정도 됐는데 요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코로나로 위험한 상황인데도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이야기 하다보면 시간이 빠르게 흐르죠. 우선 새벽에 일어나서 예불하고 공양하고 대중 스님들 만나서 사중 이야기도 듣고요. 공식 일정이 잡혀 있으면 참석하고, 시간 남으면 거의 작업실에 올라와서 계속 작업을 합니다. 종정 됐다고 달라진 거라면 사람들 만나는 횟수가 좀 늘어난 것 이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수행자가 정치가도 아닌데 달라질 것이 뭐 있겠습니까? 평소 생활하는 그대로 사는 것이지 특별히 격식을 차리고 싶지 않아요. 봉축 법어도 평소 생각하던 걸 말했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례적으로 종정예경실을 꾸리지 않아서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때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일반 사회에서는 비서실이 있고 비서실장이 있다고 하는데 조계종은 종교단체이니 예경실, 예경실장이라고 직함을 주고 사서가 있어 종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다른 곳에 거처하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통도사에 살고 있기에 본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필요하면 본사 주지가 예경실장 역할 하면 되고, 또 사중 스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되지요. 굳이 번거롭게 별도의 조직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예로 봐도 예경실도 또하나의 권력으로 승화될 수 있어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많다고 봅니다.

△서운암에 들어서니 장을 담근 수백개의 항아리들이 장관입니다. 1980년대부터 버려진 장독을 수집해 간장, 된장을 담그신 걸로 아는데요. 이런 만행(?)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독만권서(讀萬卷書) 행만리로(行萬里路)’란 말이 있지요. 강원과 선원에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소임을 살았으니 이젠 다른 방향 즉 전통을 되살려보자는 쪽으로 만행을 해보자는 생각이들었습니다. 그러던중 1970년대 말 우리나라의 주거문화가 아파트로 바뀌면서 주택가 골목마다 항아리가 넘쳐 났어요. 청자 백자와는 비교가 안 되지만 전통 옹기 항아리는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우리민족 생활문화의 정수인데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고물상을 찾아다니며 50년 이상 된 항아리를 모아달라고 부탁해서 모은게 5천개가 넘더라구요. 그때는 그 항아리로 특별히 뭘 하겠다는 계획이 없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항아리 덕을 톡톡히 봤죠. 1980년대 초반 부산을 시작으로 일본의 간장과 된장이 상륙했어요. 아파트에서 직접 담가 먹지 못하니 일본 제품이 마구 들어온 거죠. 우리가 왜정 때 그 고생을 했는데, 된장까지 일본 것을 먹어서야 되겠나 싶었지요. 그래서 그동안 수집한 항아리에 전통 방법으로 된장과 간장을 담가 보급 했습니다. 매스컴에서 소개되니까 전국서 전통 장 담그던 분들이 다시 만들어 보급하더라구요. 그 덕에 왜간장, 왜된장은 물러갔지요.

△사찰의 전통옻칠을 복원하는 등 전통문화 보존과 발전에 힘쓰시는 이유가 있으시다면요.



부처님오신날 종정예하께 여쭙다



성파 스님은 지난해부터 울주 반구대암각화를 실물 크기의 나전 옻칠로 제작해 통도사 서운암 장경각 앞 수조에 담가 선보였다. 사진은 반구대암각화 앞에 선 성파 스님.



16만 도자대장경과 장경각을 10여 년에 걸쳐 조성한 성파 스님이 도자대장경 앞에서 활짝 웃고 있다.

"'관대할 寬' 마음 새기면 갈등 싹뚝 잘라져"

〈관〉

=사실 사찰 문화에는 우리 전통 문화의 보고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전통 문화인 셈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통문화를 연구 복원하고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에 불교가 나라를 지키는 시대적 소명인 것입니다.

출가 초기부터 그런 정신으로 살았죠. 〈초발심자경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음수성독(蛇飮水成毒) 우음수성유(牛飮水成乳)'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즉슨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되는 것이고,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는 거란 의미죠. 바로 그겁니다. 수행자에겐 옻칠 작품을 만들던 울력을 하든 그 모든 게 수행인 겁니다. 전통문화 보존 발전도 그런 차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옻칠 문화를 계승할 후학 스님들이 없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우리나라 글인 한글을 연구하는 데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몇년 전부터 '책 모으기' 운동을 벌이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얼핏 들으면 수행하는 것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책은 인류의 지식들이 총 망라된 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핸드폰 등 첨단 기기들에 밀려서 책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다시 책이 필요한 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50만 권 조금 안되게 모았는데 어느 정도 모이면 종류별로 나누고 분류해서 통도사 경내 곳곳에 서 언제든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게 남은 원입니다. 물론 앞으로의 미래는 IT와 기술 문명 시대가 지속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정신문화는 빈곤과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죠. 이는 약으로 절대 안 고쳐집니다. 마음을 바로 닦아 자기 본래의 참나를 찾는길 이외엔 별다른 치유 방법이 없습니다. 기술 문명에만 의지한다면 인간의 마음은 고저가 생겨나 평상심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럴때 독서도 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즉 책은 미래를 대비하는 비밀병기인 셈이죠. 제가 책을 많이 모아 놓으면, 그 책들을 후학들이 유용하게 여러 사람들에게 사용되도록 노력할 거라 믿습니다.

△은사이신 월하 스님도 '평상심이 도(道)'라는 걸 많이 강조하셨다는데요. 은사 스님은 어떤 의미로 그 말씀을 평소에 강조하셨는지요?

=우리 은사 스님께선 늘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를 말씀하셨어요. '평상심이 도'인데 그걸 벗어나지 않으면 중노릇 잘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상식이 바로 도이자 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잘 지키라는 경책이셨죠. 저는 무슨일을 하든지 수행자로서 평생 그 교훈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생과 부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부처에서 부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중생심에서 부처의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범부와 부처가 둘이 아닌 이치죠. 바로 그걸 깨달으면 평상심이 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어렵나요?(웃음)

역기능 많은 종정 예경실 설치 안해
전통문화 보존 발전은 내 평생의 원
'平常心이 道' 은사 가르침 항상새겨
선과 예술은 하나로 일맥 상통 한다

△종정 스님께서는 수행자인 동시에 예술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16만 도자대장경과 장경각을 10여 년에 걸쳐 조성하셨고, 지난해부터는 울주 반구대암각화를 실물 크기의 나전옻칠로 제작해 장경각 앞 수조에 담가 선보이셨습니다. 이렇듯 선예(禪藝) 일치의 경지를 보여주신 셈인데요. 선과 예술은 어떤 점에서 일맥 상통하는지요.

=일과 수행, 삶과 예술, 자연과 문화가 결코 둘이 아니듯 선과 예술도 역시 둘이 아닙니다. 붓을 잡는 순간, 무념무상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그림을 그리려면 참선과 수행으로 마음을 비우고 맑은 기운을 그림에 배어들게 해야 하죠. 그래야만 보는 이로 하여금 맑은 기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기(禪氣)가 없는 불화(禪畵)는 선화가 아닙니다.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불교 수행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선과 예술은 일맥 상통한 것이죠.

수행자가 그림을 그리는 목적은 일반인들과 다릅니다. 무념과 무아, 즉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림 속에 나를 투영해 나를 잊는 만큼 그림을 통해 무념과 무아가 드러나기 때문에 붓을 잡는 것 자체가 수행인 동시에 포교인 것입니다.

△대선 후 정치적 갈등이 더욱더 극에 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갈등을 봉합시키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 역사를 돌이켜 보면 '자중지란(自中之亂)' 때문에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제자들 간에 갈등이 많았어요. 그러나 부처님은 그런 갈등을 넘어섰습니다. 넓은 마음이 극복하신 비결이죠. '소선난감중재(小船難堪重載)'라는 말처럼 작는 배로는 무거운 짐을 못싣고 다닙니다. 호연지기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사실 누구와 시비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견이 안 맞을 땐 부딪히고 싸울 일도 많았지만 전 안 싸웠어요. 때론 좀 비겁해 보일수도 있겠지만, 부딪히고 싸우고 이기려고 하는 게 더 힘들지 참는 건 오히려 힘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통도사 주지 시절 오해로 저를 몰아내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 비결은 관대할 관(寬) 글자를 마음에 깊이 새겼기 때문이죠. 그거 하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멋집니까? 자기는 물론 타인들에게 너그럽고 관대해 질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깨달음이요 수행의 결실 아니겠습니까? 타인과의 갈등에 봉착할때마다 그 산을 넘는 비결인 '관대할 관' 글자를 마음에 되뇌이세요. 그러면 행복의 미소가 절로 쏟아져 나옵니다. (웃음)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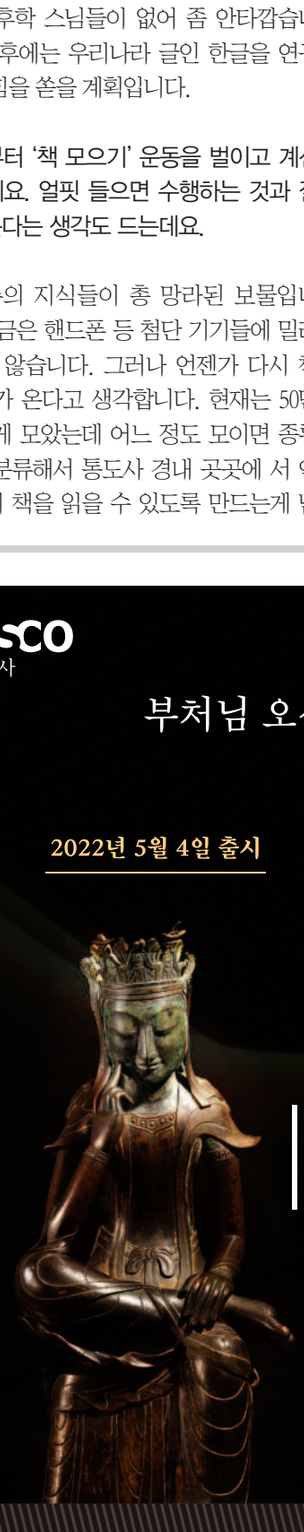
성파 스님은 1939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20대 초반에 통도사에서 출가했다. 일제강점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해 5학년때 6.25전쟁이 터졌다.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게 되자 서당에서 명심보감과 사서삼경 등의 한학을 공부했다. 그러다 마음의 실체가 궁금해 1960년 통도사로 출가했다. 조계종 종정을 지낸 월하 스님(1915~2003)이 은사다. 1970년 월하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고 1971년 통도사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1975년 경북 봉암사 태고선원에서 첫 안거에 든 이래 26안거를 선방에서 지냈다.

통도사 주지, 제5와 8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교무부장과 사회부장을 역임했다. 2013년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선출됐으며, 2014년에는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받았다. 성파 스님은 전통 옻칠을 개발해 한국의 전통 민화를 되살렸다. 고려와 조선의 모든 불화를 옻칠로 제작했다. 장장 10년에 걸쳐 650t에 달하는 도자기를 구워서 팔만대장경판을 만들었다. 이는 현재 통도사 서운암 장경각에 모셔놓았다. 또한 2018년부터는 영축총림 방장으로서 총림을 이끌고 있으며, 지난 3월 26일에는 조계종 제 15대 종정으로 추대되었다. 임기는 5년이다.

KOMSCO 한국조폐공사

부처님 오신날 기념 국보 반가사유상 지폐형 기념메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022년 5월 4일 출시



국보 78호
삼국시대, 금속(금동)
높이 81.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반가사유상 지폐형 기념 금메달



한정수량 200개

판매가격 : 2,640,000원
순금(Au999) / 20g / 154X68mm / UNC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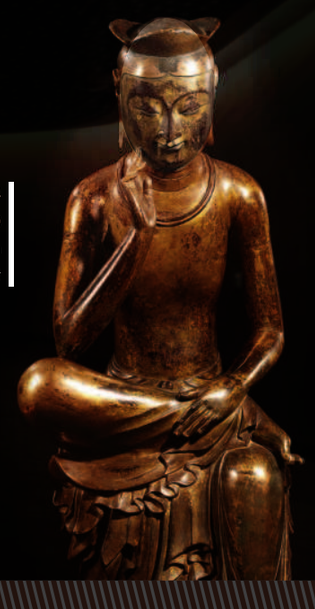
반가사유상 지폐형 기념 은메달



한정수량 2000개

판매가격 : 110,000원
순은(Ag999) / 10g / 154X68mm / UNC급

2022년 7월 중 출시



국보 83호
삼국시대, 금속(금동)
높이 90.8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선착순 예약접수> 5.9.(월)-5.27.(금), 21일간
※ 배송 · 교부 : 8.29.(월) - 9.2.(금)

온라인 판매: KOMSCO 한국조폐공사 / POONGSAN 희동양행 / Hmall THE HYUNDAI.COM / LOTTE ON 롯데백화점
오프라인 판매: KOMSCO ORODT & DIYUM
협력 기관: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제조 및 판매 주관: KOMSCO 한국조폐공사 www.koreamint.com 문의: 1577 - 4321

KOMSCO ORODT & DIYUM 한국조폐공사 오롯·디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66 (6호선 광흥창역 5번 출구 / 주차 가능)

“한 마음 담긴 가르침, 여여하게 이어갈 터”

한마음선원, 5월 1일 ‘대행 선사 10주기 다례재’ 봉행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000여 사부대중 가르침 기려
열반10주기 맞아 게송집 봉정
추모 영상선 ‘관법’ 요체 전해

법산 스님 헌시 등 추모 열기
혜수 스님 “변함없는 정진 감사”


한마음선원은 5월 1일 안양본원에서 ‘묘공당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열반 10주기를 맞아 선사의 향훈과 가르침을 되새기는 추모다례재가 봉행됐다. 기나긴 코로나19기간을 뒤로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사회 상황에 맞춰 이번 다례재는 대행 선사가 남긴 중생 제도에 대한 서원의 장이 됐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은 5월 1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묘공당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속에 열린 이번 다례재는 국내외 25개 지원 신도 및 주요 임원을 포함한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다례재는 식전 사부대중 의식으로 시작됐다. 주지 혜솔 스님을 법주로 대중들은 천수경을 봉독하고 축원, 뜻으로 푼 반야심경 봉독을 진행했다.

이어진 다례재에는 이사장 혜수 스님과 주지 혜솔 스님, 청백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의 헌다와 헌향, 헌화가 이어졌다. 또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에 맞춰 편찬된 게송·선시모음집 〈일체제불의 마음은 내 한마음〉이 스님 영전에 봉정됐다. 이밖에 본원과 각 지원 신도회장, 임원들도 각령전에 헌화하며 대행 선사를 향한 추모와 가르침을 실천해갈 것을 다짐했다.

다례재에서는 열반 10주기 추모특집 영상 ‘믿고 놓고 관(觀)하라’가 상영됐다. 이 영상에서 대행 선사는 대중들에게 관법수행의 요체를 전했다.

영상에서 대행 선사는 “모든 것들을 스스로 믿고 맡겨놓으라”며 “관한다는 것은 내가 이 사물을 지켜보고 용도에 따라 딱 맡겨놓고,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행 선사는 “마음이 둘이 아닌 까닭을 알아야 한다. 마음에 불이 들어온다면, 서로의 마음에 불이 들어오는 것은 매한가지니, 그 이치를 알면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며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길은 나부터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체 만물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는 까닭에 서로가 서로를 위한 공덕도 자연스럽게 쌓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행 선사는 마음 씀에 대해서도 “스스로 의심 하는 것과 ‘너만이 할 수 있어’라고 믿고 맡기는 것은 다르다. 마음을 좀 더 넓게 쓰라”고 했다. 대행 선사는 “매번 잘되는 것만 있으면 진리가 아니다. 종점과 시점이 둘이 아닌 이치”라며 “만약 일이 안풀릴 때는 ‘아, 이 안되는 것은 나를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되기 위한 것이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한 생각이 굴려 나오는 것이기에 엉키고 성킨 것도 한 생각이 풀 수 있다”고 전했다.

다례재에서는 본원 선법합창단이 ‘우리들의 마음’ 선법가를 부르며 가르침을 내린 대행 스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다례재에는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 조계종 前포교원장 혜총 스님이 참석해 추모사와 추모시를 낭독했다.

혜총 스님은 추모사로 “대행 스님은 일체 제불의 마음은 내 마음이라고 설하셨다. 대행 스님이 설한 아픔과 즐거움, 시작과 끝이 한마음이라는 가르침에는 생로병사를 여의는 법이 들어있다”며 “오늘 스님 영전에 올린 꽃에 담긴 마음을 뭇생명에게 올리는 공양의 마음으로 삼자”고 당부했다.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은 열반 10주기를 기리며 추모하는 마음을 담은 추모시 ‘오월의 아침’과 ‘서산정’을 대중들에게 전했다.

스님은 ‘오월의 아침’에서 “먼동이 트면 산새들 노래하고/아침 햇살에 미소 짓는 들꽃/서산정 창가에서 푸른 하늘 보며/두볼에 피어나는 그윽한 법향/주인 없는 빈 동산 백화가 만발하고/접동새 선법가에 벌 나비 사뿐사뿐/서산정 추녀 끝에 울리는 풍경소리/두 손에 든 찻잔에 그려보는 미미소”라고 읊었다.

법산 스님은 “선원 스님들과 대중들이 한마음으로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어 흐뭇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가르침을 잊지 말고 정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큰스님 관법에 대한 가르침은 수십 번을 들어도 또 놓치는 게 있고, 관하고 관해도 놓치는 것이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더 깊어지고 커진다”며 “큰스님 열반 이후에도 함께 해준 사부대중에게 감사드린다. 사부대중이 신도들이 함께 정진해주고 큰스님 계실 때와 변함없이 걸어가 주셔서 여여하게 정진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날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등 많은 대중들이 다례재 전 안양본원을 찾아 헌화 분향했다.


분황사 대웅전 모습.

印 분황사 대웅전 준공 백만원력 첫 성과

조계종, 5월 21일 준공식 인도 현지서 공식 행사

조계종 제36대 집행부 핵심종책 사업인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첫 성과가 인도 부다가야에서 결실을 맺었다.

조계종 백만원력결집위원회는 5월 21일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대웅전 준공식 및 부처님 점안법회’를 인도 현지에서 봉행한다. 준공식에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종회의장 정문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삼혜 스님, 호계원장 보광 스님, 교구본사 주지협의회장 덕문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등 종단 주요소임자 스님 등 국내 15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현지 기준 500여명 규모로, 법회 당일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발공양도 진행된다.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건립불사는 백만원력결집불사 사업의 첫 성과로 주목된다. 특히 부처님 성도지인 인도 부다가야에 한국사찰을 건립해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돼 의미를 더한다.

백만원력결집위원회는 “불자들의 뿌리인 부처님의 성도지 인도 부다가야에 건립되는 한국 전통 양식의 대웅전은 한국불교의 전통문화가 세계에 널리 펴져 나갈 수 있는 공간, 순례자들을 위한 참배의 공간인 동시에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복합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준공식을 포함해 5월 17일~24일 일정 동안 동참자들은 부다가야(성도지), 바라나시(초전법륜지, 갠지스강), 영축산, 죽림정사, 나란다대학 순례도 이어간다. 특히 5월 20일에는 마하보디대탑에서 부처님 복장의식을 비롯해 고불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인도 분황사 건립불사는 2019년 12월 통도사 청하문도회가 인도 현지에 부지 약 2000평을 기증하면서 시작됐다. 설매·연취보살이 50억 원을, 백천문화재단이 보건소 건립기금 3억 원을 쾌척한 가운데 불자들이 십시일반 기금모연에 동참했다. 이후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도 인도 현지 물라상가 이사장 부다팔라 스님이 총도감을 맡아 불사를 지속해 왔다.

송지희 기자

금강산 신계사 홈페이지 개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월우, 이하 민추본)가 금강산 신계사 홈페이지(www.singyesa.org)를 제작했다.

민추본은 4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불교도가 함께 이룬 신계사 복원의 의의를 계속해서 알리고 남북불교교류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 금강산 신계사 홈페이지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계사 홈페이지는 큐알코드로도 접속 가능하다.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 등을 달 수 있다. 02)720-0531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건학위 출범 1주년…학비·취업 걱정없는 동국대로

4월 29일 기념식서 비전 선포
동국건학장학회, 35명에 증서
건학이념 구현 출판위원 위촉



건학위원회는 4월 29일 동국대 본관 중강당에서 출범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모든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하고 100% 취업할 수 있는 명문사학으로 거듭날 것을 선포했다.

건학위원회는 4월 29일 동국대 본관 중강당에서 출범 1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난 1년의 성과를 토대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일신하고자 원력을 모았다. 특히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가운데 ‘동국발전 불교중흥’의 비전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최고의 교육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하겠다는 포부다.

고문 자승 스님은 돈관 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지난 1년간 건학위원회가 유익한 발전을 지향하고 다양한 변화에 대응해 온 성과에 치하의 마음을 전한다”며 “사라진 것을 찾아내고, 숨어있던 것을 보이게 하고, 시대에 맞추어 새롭게 만들어 내는 노력과 정성들은 변화하는 시대를 읽어내고 바르게 대응하는 건학이념의 유용한 실천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님은 동국학원을 인재양성의 보고로 이끌고 있는 장학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스님은 “건학위원회의 1년의 노력으로 불교계는 여느 때보다 장학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산하학교 학생들의 높은 학업성취, 등록금 걱정없는 대학, 모든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이 가능한 대학으로 거듭나는 동시에 교원은 연구와 교육에서 사회발전의 속도에 발맞춰 괄목할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건학위원회를 중심으로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동국건학장학의 장학증서 수여식도 진행됐다. 동국건학장학은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장학제도로, 서울캠퍼스 30명, 경주캠퍼스 3명, 의료원 2명 등 35명이 1기 장학생으로 선정됐다. 장학생 신청자는 330여명 가운데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신행활동, 학업수행, 역량수행, 미래발전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학생들이다.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도서출판위원 위촉식도 진행됐다. 〈불교사전〉 편찬을 위한 책임편찬위원에는 황순일 서울캠퍼스 불교대학장이, 〈부처님의 생애〉 책임편찬위원에는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장 혜명 스님이 위촉됐다. 또 김경래 서울캠퍼스 불교대학 교수, 이자랑 서울캠퍼스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윤재웅 서울캠퍼스 다르마칼리지 학장, 박기련 동국대 출판문화원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관련기사 B13면〉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봉축



2566(2022).05.08
부처님 오신 날

나누면 따뜻해요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JOGYESA / 02.768.8500 / www.jogyesa.kr



4월 30일 진행된 연등행렬에서는 장엄등 150여개와 수만개의 행렬등이 서울 밤하늘을 수놓는 장관을 연출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연등회 관심 고조…일상회복 신호탄되다

4월 30~5월 1일 불교계 첫 '대면 대규모' 행사

부족한 준비 일정에도 성황
예상 넘어선 폭발적 관심도
도심속 수놓은 연등에 '호응'
가족단위·외국인 참여 눈길

글=송지희 · 임은호 기자

'불기 2566년 연등회' 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재개된 불교계 대면대규모 행사다. 갑작스레 변경된 방역지침에 대면규모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까닭에 준비 일정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봉행위원회를 비롯한 각 소임자와 참가자들의 열정은 3년만에 재개된 연등회가 예전의 모습으로 대중과 만나는데 큰 힘이 됐다는 평가다. 특히 어울림마당과 연등행렬 등에 직접 참가하는 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관람객과 현장에서 참가한 시민수가 급증해 일상회복을 향한 열망을 엿볼 수 있었다.

연등회는 4월 30일 어울림마당을 시작으로 연등법회와 연등행렬, 회향한마당에 이어, 5월 1일 전통문화마당으로 진행됐다. 연등법회는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각종단 지도자들과 조계사 · 봉은사 등 주요사찰, 포교사단 · 국제포교사회 등 사부대중 1만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아기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불의식으로 시작한 연등법회는 개회선언, 삼귀의, 우리말 반야심경 봉독, 봉축위원장 원행 스님의 개회사,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의 경전봉독,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과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의 기원문 낭독,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의 평화기원 메세지로 진행됐다.

봉축위원장 원행 스님은 개회사에서 "오늘은 환희와 자비가 넘치는 날"이라며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요익케 하고 구제하고자 했다. 연등행렬에 참가하는 불자들의 환희심이 널리 전달돼 국민의 마음속에 희망으로 깃들기를 발원한다"고 밝혔다.

연등회의 메인법석인 연등행렬은 시작부터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해가 저물고 한층 추워진 날씨에도 연등행렬 구간의 거리마다 행렬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이 가득했다. 갑작스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예전에 비해 준비 기간이 부족한 상황에도, 서울 주요사찰과 불교계 단체 50여곳에 소속된 불자들이 직접 제작한 장엄등 150여개와 수만개의 행렬등이 서울 밤하늘을 수놓는 장관을 연출했다.

어린이를 위한 장엄등도 단연 인기의 중심이었다. 관음종의 폴리등, 로보카 로이등, 로보카 엠버등, 로보카 헬리등을 비롯해 한마음선원의 스누피와 연등놀이등이 올해 주목받는 대표적인 연등으로 꼽혔다. 장엄등이 지나는 곳곳에서 박수소리가 이어졌고, 연등행렬 참가자들은 행렬등을 흔들며 환한 웃음으로 인사를 전했다.

발우등과 코끼리 등을 들고 석가모니정근을 하는 중앙승가대학교와 석림회 스님들의 뒤를 이어 등장한 어린이 · 청소년들은 시민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동자 · 종녀 장엄등 뒤로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와 조계종립 은석초 · 부여중 · 부고 등 종립학교 학생과 한국스카우트연맹 어린이들이 태극초롱등과 별등, 오색팔모등을 들고 환한 웃음을 보이면, 거리에 앉아 행렬을 기다리던 시민들도 환호했다.

아들과 함께 연등행렬을 찾았다는 박은혜(40)씨는 "아이가 좀 걸어다닌 후로는 코로나 때문에 연등회를 보여주지 못했다. 올해는 연등회가 열린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꼭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 기다렸다"며 "날이 생각보다 너무 춥긴 했지만 거리에서 함께 행렬을 기다리고 또 함께 환호하면서 모두가 한 마음이라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오랜만에 했다"고 전했다.

밤하늘을 수놓으며 동대문에서 종각으로 도착한 연등행렬은 수많은 인파의 환영을 받으며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오후 9시 종각사거리 특설무대에서 펼쳐진 회향한마당은 시민과 불자, 내국인과 외국인, 남녀노소 구분을 뛰어넘은 대화합의 법석이었다. 부처님을 찬탄하는 흥겨운 찬불가에 맞춰 손과 손을 잡았고 눈과 눈을 마주했다.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한 채였지만, 거리두기의 간격이 좁아진 만큼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어우러졌다. 손을 맞잡고 신나게 축제를 즐기던 대중들은 사회자의 안내에 맞춰 강강술래로 신명을 나눴다. 쏟아지는 꽃비 아래 마주한 웃음에 마음은 하나로 모였다.

프랑스 출신 파비앙 씨는 "한국에 온 지 2개월이 지났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내가 정말 한국에 와있음을 실감했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모양의 빛나는 등을 가지고 지나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특히 서로 모르는 사이에도 인사하고 웃고 즐기는 순간이 인상적이었다"고 환한 미소를 전했다.

다음날인 5월 1일 서울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는 '전통문화마당' 이 진행됐다. 100여개 부스에서 이색적인 체험 프로그램으로 가득한 '전통마당' 은 아이들을 대동한 가족들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었다. 컵으로 작은 연꽃등을 만들고 사진이 새겨진 도자기 컵을 만드는가 하면 색색의 구슬로 합장주를 직접 만드는 프로그램이 진행돼 관람객들의 발길을 모았다.

한편 올해 연등회는 불교계 방송사상 최초로 불교TV와 BBS불교방송이 공동생중계를 통해 실시간 영상을 송출했다. 이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전국 불자들도 온라인 방송을 통해 연등회를 함께 즐기며 감동과 환희의 소감을 남기는 등의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조계사, 목조여래좌상 첫 보물 지정 환영법석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법어 가치 · 의미 전해 눈길
지현 스님 "대중 원력 감사"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 목조여래좌상이 보물로 승격됐다. 목조여래좌상은 오랜 세월 '조계사 작은 부처님' 으로 불리며 사부대중의 염원을 모아온 만큼, 이를 축하하는 법석이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4월 28일 대웅전에서 '목조여래좌상의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 지정 경축법회' 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등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원행 스님은 "조계종 총본산 법당의 건립역사와 함께해 온 조계사 목조여래좌상은 일제 치하에서 조선불교 자주성과 정통성을 품은 상징적인 불상으로 자리를 지켜왔다"며 "역사적, 예술적 의미와 상징성, 아름다움을 갖춘 것은 물론, 조계사 대웅전에서 기도하는 수많은 신도 여러분의 희노애락과 함께 해오면서 오랜시간 불자들의 신행의 중심에 자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오늘 법회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법석으로, 한국불교 총본산 조계사의 위상도 함께 높이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계사 목조여래불상은 조선중기 왕실 불사로 도갑사 대웅전에 봉안됐던 불상이다. 1938년 조선불교 총본산 건립에 맞춰 조계사 대웅전으로 이운됐고, 이후 도갑사 화재로 불상들이 소실되면서 유일하게 화마를 피한 불상으로 남아 그 상징성을 계승해 왔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목조여래좌상이 그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되기까지 원력을 함께 해준 많은 분들게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그 가치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서울 조계사 목조여래좌상을 비롯한 조선시대 전적 등 5건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예고했다"고 4월 26일 밝혔다. 신성민 · 송지희 기자

인류평화 위한 방생순례…월정사서 시작

상월결사, 4월 27일 명상마을부터 상원사까지

오대산 선재길 등 12km 행선
순례 最多 1500여 대중 참여



인류평화를 기원하고 불교중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두 번째 평화 순례가 '방생' 을 주제로 펼쳐졌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4월 27일 평창 월정사와 상원사 등 오대산 일대에서 '평화 방생순례' 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순례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전 종전 및 평화 기원을 주제로 열린 대흥사 순례에서 한걸음 더 확대된 '세계평화를 위한 마음방생' 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에 스님 300여명, 재가자 1200여명 등 순례 최다 인원인 1500여명이 참여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순례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우리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던 불교의 현실을 극복하고 실천하는 장"이라"고 말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마음이 곧 국토를 맑게 한다는 불교정신에 입각해 이 시대 불교가 새로운 중흥을 이끌자는 원력으로 순례를 준비했다"고 순례단을 환영했다.

입재식 후 1500여 대중들은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에서 출발하여 전나무숲길에서 행선, 월정사에서 한암대종사 탄신다례재를 지내고, 상원사까지의 오대산 선재길을 따라 걸었다.

한편, 상월결사는 '평화 방생순례' , 백양사와 법주사에서 이어간다.

평창=노덕현 기자

올 한해 만사형통한 한해를 발원합니다.

불기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사부대중일동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삼성동 73번지) | www.bongeunsa. org | 전화 02)3218-4800 | 팩스 02)544-2141

불교유산 보수·관리 담당할 전문시설 첫 삽

조계종, 4월 26일 불교문화재연구시설 착공식

백만원력결집불사 주요사업
양평일대 2024년 완공 목표

양평=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불교 문화유산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수리를 담당할 전문 연구시설이 첫 삽을 떴다. 조계종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주요사업으로 추진된 '불교문화재연구시설 건립불사'는 종단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4월 26일 양평시 양평읍 공흥리에 위치한 건립부지에서 '백만원력결집불사 양평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덕조 스님,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을 비롯한 종단 부실장 등 소임자 스님들과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양평사암연합회장 오원 스님, 김현모 문화재청장, 지역 정관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불교문화재연구시설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직결된 전통문화재 보존과 복원, 전승을 담당할 중요한 거점을 마련하는 중요한 불사"라며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된 후 대외환경의 변화와 어려움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종단의 숙원사업이 이제야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전통문화재 보존과 활용은 민족의 정신문화 향상과 직결돼 있기에 단순히 종교문화재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며 "오늘 건립에 착수한 불교문화재연구시설은 일차적으로 우리 민족문화의 보고인 불교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를 담당할 뿐 아니라,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 영역까지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격 스님은 환영사에서 "조계종 중점사업인 불교문화재연구시설이 양평에 건립된에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며 "소중한 불교문화유산은 그간 사찰을 중심으로 큰스님과 불자들의 노력으로 보존 전승했으나 그 노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제라도 사찰을 중심으로 한 보존의 한계에 대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종단 차원에서 나선 것은 거룩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전했다.



조계종은 4월 26일 양평시 양평읍 공흥리에 위치한 건립부지에서 '백만원력결집불사 양평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 착공식'을 개최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전통문화유산을 향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불교는 지정문화재 뿐 아니라 수백년 전에서 근대에 이르는 많은 문화유산이 함께하고 있는 문화재의 보고"라며 "오늘 착공하는 불교문화재연구시설은 불교문화유산 전승체계를 새롭게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미를 전했다.

불교문화재연구시설 건립불사는 사찰에 소장된 불교문화유산을 진단하고 보존·복원·연구 등 전승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전통사찰에 소장된 문화유산의 보존환경 연구와 과학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예방적인 문화재 보존 및 복원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방치되고 있는 다량의 미지정 사찰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2013년 처음 계획이 수립된 후 좀처럼 진전되지 못했으나 용문사가 부지를 제공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9년만에 비로소 첫삽을 뜬 불교문화재연구시설은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45-22번지 대지면적 5019.00㎡ 부지에, 건평 1889.19㎡, 연면적 6769.28㎡ 규모로 건립된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지하 2층, 지상 2층 건물로, 불교문화유산 연구는 물론 성보의 수리와 보수, 복원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설립된다.

상월결사 중심 '상월선원' 대웅전 상량

서울 봉은사, 4월23일 위례서 상량식 봉행해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엄동설한 속 천막정진이 이뤄진 위례 청량산 상월선원 자리에 그 정신을 널리 펼 대웅전의 대들보가 올려졌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4월 23일 상월선원 불사 현장에서 '백만원력 결집불사, 상월선원 대웅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도심포교와 선풍진작의 터전이 될 위례 상월선원은 2019년 아홉스님들의 천막정진 이래 조계종 36대 집행부가 백만원력 결집불사 중점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불교계 원력이 하나로 모인 곳이었다. 험난한 과정을 거쳐 이뤄진 상량식에 100여 불자대중이 참여해 의미를 되짚었다.

이날 상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들과 위례 상월선원 사찰인 서울 봉은사의 주지 원명 스님 등 관계 스님 및 봉은사 신도 대중, 상월선원 만행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과 천막정진 아홉 스님 중 진각·도림·성곡 스님 및 결사 대중이 참석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상량과 함께 불교중흥을 발원하고 있다.

이날 상량식에서는 상월결사와 상월선원 의미를 담은 상량문이 봉안됐다. 상량문에는 상월선원이 호국도량이자 불교중흥 및 세계평화 근본도량으로의 원력을 담고 있음이 실렸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상량보에 '불일증휘(佛日增輝) 법륜상전(法輪常轉) 백만원력성취(百萬願力成就)' 휘호로 그 뜻을 전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상량식에서 "오늘 한국불교 백만원력 결집의 큰걸음을 내딛는다. 8년의 긴 기다림 끝에 위례신도시 상월선원 대작불사 출발을 전할 수 있어 감개무량하다"며 "2019년 겨울 아홉 선지식들이 동안거 결제에 들어가며 고한 서원 결실이 이뤄진 것이기에 그 감동은 더욱 크다"고 말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2019년 겨울 석달 동안의 천막결사를 통해 불교중흥 원력과 의지를 보여주고, 전국을 순례하는 만행결사로 국민에게 희망의 등불을 밝힌 상월결사 전통이 이 곳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량식은 참석 대중들의 "한국불교와 온 인류의 평화를 위해 목숨 바쳐 정진한 아홉스님의 상월결사 정신을 이어 받아 더욱 정진하겠다"는 발원 낭독과 함께 상량으로 회향됐다.

한편 봉은사 수미산원정대는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보은 법주사에서 3기 성주순례를 진행했다. 위례=노덕현 기자

동국대 경주캠 명칭, 'WISE 캠퍼스'로 변경

학교법인 동국대, 4월 26일 이사회서 결의

1979년 개교 이래 첫 변경
대학 브랜드 구축 위한 조치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명칭이 '동국대 와이즈(WISE)캠퍼스'로 변경된다. 1979년 '동국대 경주대학'으로 개교한 이래 명칭이 변경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성우)는 4월 26일 교내 로터스홀에서 제344회 이사회를 열고 경주캠퍼스 명칭을 '와이즈(WISE)캠퍼스'로 바꾸는 정관과 정관 시행세칙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동국대 와이즈(WISE)캠퍼스'로 캠퍼스 명칭이 변경됐다.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와이즈(WISE)캠퍼스'로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는 대학 브랜드 구축을 위해 캠퍼스 특성과 미래 발전 가능성을 반영한 새로운 명칭이 필요해서다. 실제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지방캠퍼스 명칭을 새롭게 변경하고 있다. 고려대 조치원캠퍼스는 세종캠퍼스로, 한양대 안산캠퍼스는 에리카캠퍼스로, 건국대 충주캠퍼스는 글로벌캠퍼스로,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미래캠퍼스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

명칭 변경을 위해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지난해 3월 사업 계획안을 수립, 네이밍 전문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모를 진행했으며, 2차례 선호도 조사를 거쳐 명칭 변경안을 수립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새로운 명칭인 '와이즈(WISE)'는 '지혜'라는 의미며, 'Wise Innovation, Smart Evolution(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혁신하고, 스마트하게 융합해 발전하는 캠퍼스)'이라는 의미도 담겼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는 김정훈 감사를 재선임했다. 김정훈 감사의 임기는 3년이다. 신성민 기자

김용태 교수, 제12회 원효학술상 대상

학술서 '조선불교사상사'로
공만식 교수, 특별상 수상



제12회 원효학술상 대상에 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사진〉가 쓴 〈조선불교사상사〉가 선정됐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는 4월 20일 종합심사회의를 열고 제12회 원효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학술 부문 대상에 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가 저서 〈조선불교사상사〉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특별상은 공만식 동방문화대학원대 대우교수가 저서 〈불교음식학〉으로 수상했다.

학생 부문 금상은 동국대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인 서담 스님이 논문 '실차난타 譯 〈대승기신론〉 서문의 편찬 배경과 법장의 영향'으로 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5월 3일 열리며, 학술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3000만원,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15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학생 부문 금상에게는 500만원 은상에게는 400만원이 주어진다. 신성민 기자

불기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
봉녕사승가대학·금강율학승가대학원
주지 진상
사부대중일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6-54
전화 031)256-4127 www.bongnyeongsa.org


희망이 꽃피는 환희가 대지에 넘쳐 흐르네

본래 지닌 如来의 德性으로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성파 스님
조계종 종정



진리(真理)의 새벽을 열어서
현전면목(現前面目)을 보이니
일월(日月)은 하늘의 공덕(功德)을 빛내고 산과 들은 초록등을 밝혀 법계(法界)를 장엄합니다.

곳곳에서 현묘(玄妙)한 기틀을 갖춘 이가 신령(神靈)스러운 빛을 놓으니
이르는 곳마다 굴레에서 벗어나는 도탈(度脫)의 문(門)이 열리고 비로소 보고 듣는 기틀을 얻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시방법계(十方法界) 문(門)을 다 열어놓고 찾아보아도 부처님 계시는 곳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재재처처(在在処処) 즉위유불(即為有佛)인데 어디에 계시는지 있는 곳을 알 수 없습니다.

생멸(生滅)이 없고 거래(去来)가 없이 법계(法界)에 충만하여 꽃피고 새가 울고 물이 흐르는 곳에 드러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은현자재(隱現自在)하여 중생의 고통이 있을 때는 사랑과 자비로 그 모습을 나투고 적정삼매(寂靜三昧)에 들 때는 자취를 감춥니다.

부처님은 구세(救世)의 덕(德)과 무연대비(無緣大悲)를 갖추고 있어 중생의 고통이 있을 때는 구세대비(救世大悲)로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대비(大悲)는 베풀수록 구제(救濟)의 덕화(德化)는 더욱 넓어지고 나눌수록 중생을 요익(饒益)케하는 이타적(利他的) 덕행(德行)은 깊어집니다.

비록 중생이 무명(無明)을 지니고 있지만 무명(無明)은 도(道)를 이루는 바탕이요, 번뇌(煩惱)는 살아있는 부처를 이루는 살림살이입니다.

빈녀(貧女)는 본분겸추(本分鉗鎚)로 막혀있던 관문(関門)을 열어 중생의 가슴에 천지(天地)를 밝히는 비원(悲願)의 정(灯)을 밝히 듯 불자(仏子) 여러분도 삼독(三毒) 속에 갇혀 자기를 잃지 말고 본래부터 지닌 여래(如来)의 덕성(德性)으로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동체대비로 불국정토 이루세

법공 정사
총지종 종령



오늘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인류의 스승이시며 뭇중생의 구원자이신 부처님의 탄신을 봉축하오며 불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충만하기를 서원합니다.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가 간 갈등으로 인한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도 북한 핵문제로 동족 간의 긴장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시기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의 무연대자 동체대비(無緣大慈 同體大悲)의 정신으로 가진 자가 더 베풀고 나누어 준다면 이 사회는 더욱 화목하고 살기 좋은 불국정토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사회는 인연의 굴레에 함께 묶여 있는 공업(共業)의 세계인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행복을 바라는 이기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회가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보시와 이타의 보살정신으로 이웃의 고통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할 때에 극락정토가 이루어지며 나의 무명과 고통도 저절로 소멸될 것입니다.

국가 간의 갈등, 민족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미움은 미움으로서 풀어지지 않고 미움을 내려놓을 때에 풀어진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각 가정과 이 사회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일상이 지혜 자비 충만할 때 날마다 부처님오신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희망이 꽃피는 환희로움이 산하대지에 가득한 부처님오신날입니다. 사부대중은 한마음으로 서울시청 광장에서 봉축탑등을 밝히면서, 부처님오신날에는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을 기원했습니다. 정관계와 의료계, 그리고 전국민적인 참여와 헌신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 엔데믹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은 인류에게 큰 희망이었습니다. 존재의 실상 가운데 하나는 의지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탄생 일성으로 천상천하유아독존을 선언하셨습니다. 존재의 실상을 깨달은 최상의 지혜를 갖추고, 온 생명을 위해 자비를 실천하는 삶이 가장 훌륭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할 때 날마다 부처님오신날이며,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그대로 늘 룸비니 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계가 하나로 꽃피는 세상이 되길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 을 맞아 온 겨레와 사회에 부처님의 지혜 광명과 자비가 충만하고,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고통을 내가 마땅히 해결하여 편안케 하리라"라는 탄생게(誕生偈)를 읊으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그 정신대로 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온 세상이 탐진치 삼독으로 불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은 물론 우리 모두가 공존과 상생의 공동체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이기적 욕망과 분노, 갈애와 질투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라는 올해 부처님오신날 표어처럼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고통과 괴로움을 딛고 나 자신과 우리는 물론 온 세계가 하나로 꽃피는 일화(一花)의 세상이 되길 발원합니다.

이땅에 연화정토를 구현합시다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



천상천하 유아독존, 룸비니 동산에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셔서 처음 걸으신 일곱 걸음으로 이 땅에는 새로운 광명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다섯 가지 번뇌가 세상을 더럽히는 진흙 같은 세상이지만 이미 모든 만물은 부처의 성품을 갖추었으니, 깨어있는 눈으로 바로 보아 무명의 어둠을 떨쳐내고 고해의 실상을 밝혀야 합니다.

존경하는 천태종도 여러분, 우리 모두 밝힙시다. 상생과 공존의 등불을.

거리마다 오색 연등이 불을 밝히고, 법당에서는 스님의 목탁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처마 끝 풍경소리가 새로운 세상을 깨우고 눈을 뜨게 합니다.

진흙 속에서 맑고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나듯, 혼탁한 세상일수록 부처님의 지혜를 등불로 삼고 부처님의 염화미소를 마음껏 친견하시기 바랍니다.

인류 평화와 생명 행복의 한해로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맞아 법석(法席)을 열고 봉축의 환희와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며 팬데믹을 일으켜 인류를 유린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기세도 아직은 여전합니다.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이 많습니다. 고통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도 있습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며 봉행하는 우리들의 불작불행(佛作佛行) 인연공덕(因緣功德)으로 생명 잃은 희생자들은 열반락을 얻어 영원한 안락을 누리며 고통 속에서 헤매는 이들은 하루 빨리 고통을 여의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서원합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으며 부처님의 가없는 자비와 지혜광명으로 국가와 인류에 평화가 깃들고 모든 생명체가 나날이 행복하기를 서원합니다.

영원한 빛으로 오신 부처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5월이 되면 어김없이 거리에 오색등이 걸리고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중생들의 무명을 밝히기 위한 연등 행렬은 장관을 이루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미망을 깨우쳐주고자 육신을 나투시어 미래의 영원한 생명체인 법신의 참모습을 보이셨고, 생사 해탈을 통해 대자유인, 참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진여의 법신을 갖추고 있음을 선언하시고 깨달음에는 너와 내가 없으며, 삼라만상 모든 생명이 하나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참 생명의 가치는 그 내밀한 진여의 빛으로 새롭게 산하대지에 새 생명처럼 소생해야 합니다. 인천의 스승이신 부처님을 따라 정법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온 인류 해탈구원문 열자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 정사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불자 여러분들과 함께 봉축 드리며, 대일여래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 광명 속에서 편안하기를 서원합니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삼계에 고통 받는 모든 존재들을 위해 팔만사천 가지 해탈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나가고 들어가는 문이 아니니 마음버릇 하나 고치면 바로 부처님의 장엄적멸궁입니다.

하지만 무량한 세월동안 탐욕 속에서 부처님의 대자비의 문을 외면하고 더 나아가 화택문 안에서 윤회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다시 한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우리의 본심(本心)인 자비의 마음이 온 세상을 밝히고,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안녕이 대일여래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깃들기를 서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믿고 따르는 고운 마음 부처님 닮아가네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강에 물이 맑으니
달이 와서 머무르며
믿고 따르는 고운 마음
부처님을 닮아가네.

여래의 자리는
오고감이 없으나
다만 일대사인연이라.

중생의 부름에 응하시어 사바에 나투시니
그 은혜 깊이 감사하며
지극한 정성으로
법의 등불 공양 올리세.

생사의 윤회는 고통이요,
부처님 세계는 안락이니
일심으로 귀의하여 찬탄하며
국운 융창과 인류의 행복을 지심 발원하고

지혜와 자비로 만나는 부처님
탄신을 봉축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며
성불의 길을 향해
용맹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생각 합니다

경정 정사
진각종 총인



오늘은 사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룸비니 동산에 꽃비 흩뿌려 봉축하고 푸른 하늘 넓은 벌판이 함께 기뻐하니 때와 장소 가림 없이 부처님이 오시도록 마음 맑은 선남선녀들 손 모아 받듭니다.

셀 수 없는 생애 동안 쌓아온 원력으로
하늘과 땅 일곱 걸음 온 세상 살피시고
힘들어 신음하는 뭇 생명을 보듬으며
사람 사는 청정국토를 그토록 그리시니
오늘 또 정성을 바쳐 그 길을 새깁시다.

사람의 목숨은 높고 낮음을 가릴 수 없고
사람살이 귀하고 천함이 본래 있지 않다며
평등과 정의의 목소리 저잣거리 넘쳐나도
허공에 메아리처럼 빈 소리로 흘러가니
사람 사는 그 세상이 다시금 그립습니다.

입고 먹고 머무는 생활이 풍요를 누리고
사람을 넘어설 듯 기술문명의 끝은 몰라도
공평과 공정은 늘 제 자리에 머문다며
나날이 아프고 볼멘 투정이 높아가지만
지구촌은 그래도 살고 싶은 곳입니다.

인생살이 복잡하여 이래저래 주장해도
이 길을 다시 살펴 저 길과 맞추어 보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너와 내가 어울리고
깊은 갈등 힘겨운 질병 더 무거운 문제도
끊는 물에 얼음 녹듯이 만사가 형통합니다.

자기를 바로 보고 옆 사람을 보살펴라.
참회 지혜 자비는 늘 그대로 진실이거늘
지금 나부터 실천하고 사회를 돌아보며
사람 사는 멋진 사회 여기서 열어갑시다.

우리 모두 다시금 부처님오심을 봉축합시다.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광명의 빛, 자비의 빛이 온누리에

신뇨엔(眞如苑)
교무장 니시가와 세지



지금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이 전쟁과, 질병 ,재해 등으로 인해 도탄에 빠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신뇨엔은 매일 전쟁 종식과 코로나극복기념, 희생자회향을 비롯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울 때 저는 '南無眞如'라는 진언을 외울 것을 권유해봅니다. '眞如' 란 지혜와 자비, 삼보의 공덕을 담은 구제의 힘이자, 귀의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에 깃드는 광명의 빛입니다. 열반경에 광명의 빛은 팔만사천 모공으로 들어가 구제된다 하시듯이,부처님오신 날' 이 자비의 빛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모든 대중에게 위로와 희복, 희망과 행복 그리고 평화로운 삶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님으로 태어나는 해방의 날

대한불교 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불기 2566년 오늘은 부처님오신날입니다. 너와 나를 가르는 것은 대립과 분쟁을 부르게 됩니다. 자연을 정복하려는 인간의 탐심과 무지가 질병과 재난을 만듭니다.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고, 너와 내가 함께 어울리는 세상은 보시(布施), 애어(愛語), 이행(利行), 동사(同事)의 실천이 따를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자연과 더불어 하나로 어울리는 세상을 만들어 환희와 축복의 세계를 열어나간다면 부처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위한 희망의 등, 코로나와 전쟁 종식을 염원하는 화엄의 등, 세상의 미래를 밝혀주는 광명의 등을 밝혀 진심으로 부처님오신날을 다함께 찬탄합시다.

나와 다름이 아님 부처님 큰 뜻

(사)대한불교 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모든 불제자 여러분과 함께 2566년 부처님오신 날을 봉축합니다. 광대한 우주를 두루 보아도 부처님 존재 아님이 없으며 부처님 나라 아님이 없어서 모든 불행은 자취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영원한 행복만이 있을 뿐입니다. 선악과 귀천의 모든 모습은 껍때기일 뿐 그 참모습들은 거룩한 부처님과 같아서 일체가 거룩하며 숭고합니다. 이는 나와 다름이 아니며 곧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뿐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아픈 이웃을 돌아보며 부처님 오심의 큰 뜻을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하늘 땅 가운데 내가 유일하네"

대한불교 삼론종
종정 각몽 혜승



生時靈瑞事 不可具言設
생시연서사 불가구언설
天雨花散地 龍噴水浴身
천우화산지 용분수욕신
生已蓮承足 四方各七步
생이연승족 사방각칠보
兩手指天地 卽作獅子吼
양수지천지 즉작사자후

태어나실 때 신령 상서로운 일은 말로 갖추어 말할 수 없으니
하늘에서 비 오듯 꽃을 땅에 뿌리고 용은 물을 뿜어 몸을 씻겼네
태어나시자 연꽃이 발을 받들어 사방으로 각각 일곱 발짝을 걷고
두 손으로 하늘 땅을 가리키며 곧 사자의 목청으로 외치시었네.

우리 모두 자비로운 마음으로

(재)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장 명안



불기256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불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은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몸소 보여주시고 실천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맺어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이란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은 대자비의 가르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우리들의 세상에 가득 비쳐 일체중생의 고통을 소멸하고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진리 추구하며 잘 삽시다.

(사) 대한불교 율사조계종
총무원장 청파



이기와 독선이 지금의 우리 시대를 어둡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오직 '나' 만의 이익을 탐하고 안일을 추구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편견과 아상은 다른 이를 미워하며, 해치고자 하는 무서운 몰이해의 장벽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촌이라는 곳을 아름답게 가꾸느냐 아니면 파경으로 이끄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불자로서 참답게 살려는 노력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크나큰 자비광명이 두루 하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佛性은 마음에 있다

(사)대한불교 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청운



佛性은 마음에 있다. 행행본처(行行本處) 요 지지발처(至至發處)라 왔다갔다. 하지만 본래 그 자리요 왔다 갔다. 하지만 떠났던 그 자릴세. 진리는 아득히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두두물물(頭頭物物)이 진리의 현현(顯現)입니다. 진리는 내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눈을 떠야 합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 53 선지식로 찾아 선재동자, 그러나 진리의 보살이 화현한 곳은 그가 출발한 바로 그 자리 였습니다.

일체유심(一切唯心)이며, 만법유심(萬法唯心)

대한불교 삼보종
종정대행 법장



임인년 부처님오신날 우주법신불 위신력으로 국내국제 각나라에 안녕과 평화를 기원드리오니 지구촌 세상 사람들이여 !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십시요, 일체유심(一切唯心)이며, 만법유심(萬法唯心)입니다. 마음밖에 무슨법이 또 있겠습니까 ? 이 심령이 본래의 자리를 한 물건이라 합니다. 소소영영해서 모양을 그릴수도 없고, 이름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알면 그대가 주인공입니다. 이 세상 평화위해 마음속 전쟁심을 모두다 버리시고, 다음 생 기다리지 마시고 ! 금생에 꼭 성불하십시오.

활기와 에너지가 넘치는 세상

(사)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운



거룩하신 부처님 이 땅에 오신 날을 찬사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조금씩 일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일수록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자연을 아끼며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무사히 안착되어 곳곳에 활기와 에너지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오신 날을 맞으며 일상의 행복을 위해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을 열어갑시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도선



불기2566년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부처님오신 날을 감축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나투신 이유는 중생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소 수행을 통해 행복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묵묵한 마음과 꿋꿋한 정신으로 그간 어려움 모두 잘 이겨내신 불자님들께 찬탄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시시 자비 마음이면 처처가 연꽃 세상입니다. 행복은 혼자만의 행복이 아닌 모두의 행복입니다. 본심의 따뜻한 마음과 자비심으로 이웃과 정을 나누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불국토를 만들어 갑시다.

희망의 등불로 밝은 세상 낙원

(사)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총무원장 대봉



부처님의 지혜로운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향 올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명의 자유와 행복, 모든 중생의 미혹과 무명을 환하게 밝히시고자 이 땅에 나투셨습니다. 개인과 가정, 국가와 세계는 결국 나 자신과 연결돼있습니다. 모두가 주인이 되는 삶으로 지혜와 자비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희망의 등불이 되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매회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 세상 모든 이의 행복과 세계평화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정신으로 불국정토 이룩하자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석성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불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불법 홍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불자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내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 속에 있는 중생에게 무명을 밝히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세상은 경제적 위기와 양극화로 많은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사회적 갈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 힘들고 고통 받는 중생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정신이 절실한 때입니다.

불기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

회 주 연암 현해
주 지 퇴우 정념

사부대중일동



주소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전화 033-339-6600 팩스 033-332-6915
홈페이지 www.woljeongsa.org 오대산 월정사

“나누면 따뜻해요”

생자필멸(生者必滅) 회자정리(會者定離)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성현과 옛 조사님들이 세상 넘칠 만큼 좋은 말씀을 많이 해 놓았건만 어디 부처님 말씀이 모자라서 중생세계가 이 모양인가?
생자필멸(生者必滅) 회자정리(會者定離), 모든 생명은 반드시 태어나면 죽음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다는 무상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괜히 허송세월 보내다 나중에 죽음에 임박해서 후회하지 말고 세상사 모든 현상이 다 무상한 줄 알아서 마음의 집착과 아상을 버리고 부처님의 진리 말씀을 자신의 등불로 삼아 깊이 믿고 수행실천 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나와 다름이 아님 부처님 큰 뜻

현대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동화



모든 불제자 여러분과 함께 2566년 부처님오신 날을 봉축합니다. 광대한 우주를 두루 보아도 부처님 존재 아님이 없으며 부처님 나라 아님이 없어서 모든 불행은 자취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영원한 행복만이 있을 뿐입니다. 선악과 귀천의 모든 모습은 껍때기일 뿐 그 참모습들은 거룩한 부처님과 같아서 일체가 거룩하며 숭고합니다. 이는 나와 다름이 아니며 곧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경건한 마음으로 아픈 이웃을 돌아보며 부처님 오심의 큰 뜻을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법등 밝혀 평등 세상 이루길

(사)대한불교 법화종
종정 도선



부처님 법은 평등합니다. 부처님의 거룩하신 가르침을 수지하고 지혜를 모으면 번뇌는 사라지고 법은 청정하여 모든 중생이 자비롭고 평등한 세계에서 살며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불도를 이룰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고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온 세계가 그대로 극락정토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 전에 법등을 공양하여 평등세계를 이루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불도를 이루어 다 함께 성불합시다.

상생과 공존의 등불

(사)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관효



부처님께서는 오직 일대사(一大事)의 인연(因緣)에 의해 중생계에 나투셨습니다. 중생들로 하여금 불지견(佛知見)을 열고(開), 보여 주고(示), 깨닫게 하고(悟), 그 길에 들게 하기(入) 위한 것이 부처가 출현한 근본 목적입니다. 서로의 마음 장벽을 허물고 반목과 질시의 울타리에 갇혀 있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공멸의 길에서 벗어나 공존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상생과 공존의 등불’ 을 온 누리에 밝힙시다. 심신과 원력으로 내 안의 성품을 탁마 합시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탐·진·치를 등불과 같이 밝히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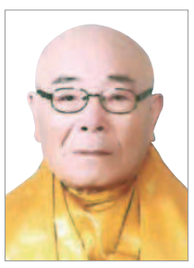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불멸등혜장명등(不滅燈兮長明燈)이여 장명등혜불멸등(長明燈兮不滅燈)을 인인개개인인등(人人皆皆人人燈)로 세세년년세세등(世世年年世世燈)이어라 언제까지도 꺼지지 않을 등불이여 영원토록 밝아 꺼지지 않을 등불을 사람 사람마다 밝아 꺼지지 않는 등불로 세세 년 년이 밝게 비치니 영원한 등불이어라 부처님 오신 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구족한 지혜를 등불과 같이 밝히시고 탐 진 취 삼독에 물든 중생을 제도하소서.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 처럼 살아갑시다.

(사)대한불교 금강조계종
종정 법두 수암



사월이라 초파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전국방방곡곡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우주의 주인이요. 인천의 스승이며 사생육도의 어버이시고 만고광명의 등불이신 부처님께서 애민중생 제도하고자 이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귀천한 사람이라도 인간은 부처와 부모와 같이 모셔서 서로존경하고 서로사랑하며 가진자는 남을 도와주고 살아갑시다. 중생들이 서로 싸우고 침해하는 것은 일심동체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니 서로의 마음을 알고 보면 싸울래야 싸울 수 없으며 해칠래야 해칠 수도 없습니다.

염불과 선

(사)대한국불교조계종승가회
총무원장 호산 성보



선 은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 는 부처님의 말 이니 경전의 말과 문자에 걸리지 않고 마음을 밝힐 때 선과 교는 본래 둘이 아닌 진여자성의 체용인 것이다. 또한 일체 만유의 근본 자성이 아미타불이요, 극락세계 역시 같은 자성인 청정심으로 이루어진 경계이니, 마음이 오염되면 그에 상응한 삼계육도에 윤회하는 고뇌를 벗어날 수 없으며,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오면 금생과 내세를 가리지 않고 상락아정 한 극락세계의 청정한 행복을 수용 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부처님은 바로 법계를 몸으로 하는 것이니, 일체 중생의 마음 운데 들어 계시느니라.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일체처(一切處)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관



人生苦樂從心起, 活眼照來萬事康, 사람의 고와 낙이 마음을 좇아 일어나고 산 눈이 비추어 올 때 온갖 일이 다 편안하네.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의 대의가 약인욕료지(若人欲了知) 삼세일체불(三世一切佛), 응관법계성(應觀法界性),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일체처(一切處)에 마음으로서 짓는다. 마음 하나 잘 쓰도록 해야 되는데 마음 잘 쓰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사람이 얼굴마다 바를 정(正)자를 써 가지고 있는데 마음은 비뚤어지게 쓰고 있다. 시익권수(示益勸修)라. 착한 것을 힘드려 잘 닦도록 권하는 말인데 온전한 마음으로서 삼매(三昧)를 닦는 자는 현세에 항상 열가지 이익을 얻는다.

칠성봉(七星奉)에 칠보등(七寶燈) 밝히고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춘풍(春風)에 삼독(三毒)을 가미(加味)하니 처처(處處)에 화마(火魔)로다 심성(心性)이 극강(極强)하니 천하(天下)가 거칠도다. 광풍(狂風)에 화무삼일홍(花無三日紅)이요 업화(業火)에 세무삼년과(勢無三年過)라 백년조림(百年造林)이 일조재(一朝灰)로다 흑호(黑虎)가 좌용산(坐龍山)하려니 용호상박(龍虎相博)으로 고질병(苦疾炳)에 백약(百藥)이 무효로다. 오호라 처방(處方)은 있으되 약재(藥材)가 없구나. 지리산 칠성봉(七星奉)에 칠보등(七寶燈) 밝히고 소원이나 빌어보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마음등불을 밝히시기를

(사)대한불교 대승종
종정 동건 법경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어두운 것은 가고 밝은 것이 오리라는 염원의 등불을 밝혀 일체중생이 이고득락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을 마음속으로 불러봅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들을 부처님 세계로 인도해 주십시오! 쓰라린 상처를 부처님의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껴안아 주십시오! 감사하고 베푸는 마음으로 한걸음 한걸음 정진하면 언젠가 부처님전에 닿으리라는 믿음 속에 살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산다면 마음속에 행복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힘으로 생사의 물결을 건너야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종정 혜강당 석능인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합니다. 부처님께서 믿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하여 설법하셨습니다. 아무런 재능도 능력도 없지만 믿음의 힘 하나로 사나운 물결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생사의 물결도 그와 같이 건너야 한다고 설법하셨습니다. 우리가 장애를 극복하고 어떤 일을 성취 시키는 데 있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굳건한 믿음과 맑은 눈을 지니고, 남편을 대하든, 아내를 대하든, 자식과 부모를 대하든 언제나 부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섬기고 받드십시오. 이러한 지혜의 눈을 가진 보살이 진정으로 현명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귀의불 양족존 귀의법 이욕존

(사)대한선불교 원효종
종정 성우 자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의 생명 가진 모든 것에

함께 하기를 기원 합니다.

사성제(고.집.멸.도.) 부처님께서는

초전법륜에서 집착의 멸함을 설 하셨습니다.

대중은 보배와 같이 지니고 일상의 수행을 합시다.



불기2566년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부처님오신날

韓國佛教太古宗

宗正指墟 禮敬室長 印 峯

僧正院

僧正 慧雲, 知足, 錦龍, 圓默, 智山

元老會議 議長 道光
首席副議長 大隱
次席副議長 雪雲
議院 德山,錦龍,鏡潭,覺林,南坡,保惠,靑山,明月,智弘,雪山,法宣,智性,智山,丘霞,智玄,東佑,雪峯,觀正

中央宗會 議長 法潭
首席副議長 法信
次席副議長 法輪

護法院長 慧日
副院長 法性
委院 惺應,晩愚,六和,松憲,淸虎,慧學,智峰

初審院長 錦潭
副院長 明願
委院 法能,古潭,羨覺,杲峰,蓮虛

中央選擧管理委員長 九山
副委員長 凰峰
委院 法一, 智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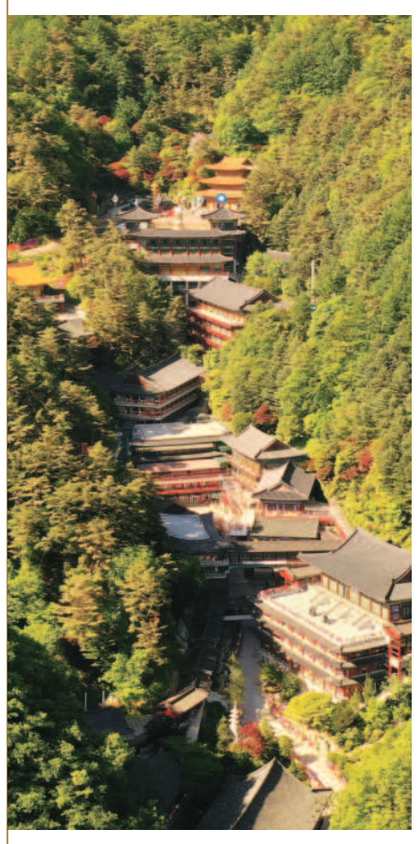
總務院長 虎溟

善一 慧蘆 院長
能道 解惺 副院長
正曉 眼能 副院長
圓現 悟潭 部長
晴眞 空華 部長
心羨 圓覺 部長
法師室長
智弘 宗策委員長
法眼 教育院長
京弘 布教院長
才慧 考試委員長
周完 法規委員長
休完 社會福祉院長
常眞 東邦佛教大學學長
羨覺 教學處長
錫瑩 全國信徒會長
承潤 靑年會長

行政副部長
教育副部長
經務部長
財文 化會部長
社弘 報正·傳劃部長
糾任·傳劃部長
校企劃室長

종 도 일 동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
전화 02) 739-3450, 팩스 02) 739-3470



밝히자 상생과 공존의 등불
부처님오신날
종정 김도용 대종사

총무원
총무원장 김무원
총무부장 김갈수
교무부장 서덕재
교육부장 구성해
재무부장 정장호
사회부장 정도웅
규정부장 박거홍
기획실장 이갈지

종의회
종의회의장 대행 이덕해
종의회부의장 황세열

감사원
감사원장 조진덕
감사위원 곽수산

원로원
원로원장 주정산
원로간사 김도산

종정 사서실
사서실장 박덕수
금강대학교 총장 정용덕

대한불교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총본산 구인사
전화 (043)423-7100 / 팩스 (043)420-7399 / www.cheontae.org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3길 17 | 전화 (02)913-0751~4 | 팩스 (02)913-0755

불기2566년 부처님 오신날



깨달음의 빛으로 오신 부처님께 합장하고 봉축합니다.

대한불교관음종 사부대중 일동 서울 종로구 종로63가길 31 www.kwanum.kr T 02) 763-0054 F 02) 763-5851



공익법인 대한불교 화엄종

총무원장 화 응 중앙종회의장 대 휴
종무처장 양위찬(원당)
대본산 약사사(약사사추모관운영) 희망다문화협동조합
재단법인 화엄승가장학재단 이사장 화 응
공익법인 대한불교화엄종장학회 이사장 화 응



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 48(간석동 12-3) T.(032)429-4441 FAX (032)429-4445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32-5(청진동 삼선빌딩 406호) T.(02)730-0798 FAX (02)730-0799

불기2566년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부처님오신날

(사)전통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월운스님**

종도일동

(사)전통불교 태고종 총무원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54번길 183-101
전화 031)847-9338 / **팩스** 031)842-9337
총무원장실 직통 010-6242-6664

(재)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장 **명안** (총본산 회주)

원로원장 **석산** 종회의장 **일연**

행정부원장 **혜안** (성남 약사사 주지)
포교부원장 **무극** (용인 구만사 주지)
교육부원장 **혜광** (제천 도원사 주지)
호법부원장 **성현** (여주 여래사 주지)

전국 인왕 문도회장 **묘선** (영월 천문사 주지)
총 무 **보인** (단양 약사사 주지)

총무원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로1길 28-1 금강대약사사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앞산)
전화 : 043)731-2261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불성평등 자유의지의 천부적 권리 우리불자들이 지켜 나갑시다.

(사) 현대불교조계종

종 정 **벽운 해광** 대종사
부종정 **성주** 부종정 **혜원**

총무원장 **동화** 종회의장 **법진** 원로원장 **효덕** 교육원장 **해인**
포교원장 **도선** 예술문화원장 **원욱** 비구니원장 **정철**

각지역 종무원, 종회의원 및 종도 일동

◈ 입종서류 ◈

• 주민등록등본 사본 • 반명함판 사진 • 신행 이력서

현대불교조계종 종단입종 환영합니다.

입종시 : 사암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발행

총무원 보광사 신도일동

총무원 : 대전광역시 동구 은어송로 86-100 식장산 보광사 / 전화 042)284-3929
총무원장 동화 010-8552-7108

奉 불기2566년 부처님오신날 祝

(사)대한불교 원융종

圓融宗 四大綱領

圓融無碍 一O相 眞理體得
우리종도는 원융무애한 일원상의 진리를 스스로 체득한다.

圓滿融通 人格完成
우리종도는 원만 융통한 대인상의 인격을 수련 성취한다.

圓通融和 道義社會建設
우리종도는 원통융화한 이상 사회의 실현에 적극 헌신한다.

圓融會通 理想世界實現
우리종도는 원융회통의 참된 평화 세계건설에 이바지한다.

원융종 종도일동

총무원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180-6 (구로동)
총본산 : 원융사 전화 02)853-0430~1 팩스 02)857-5094

※원융종 종도 여러분 사.암 등록증과 임명장, 신분증에 유효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등록증, 임명장, 승려증은 필히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삼론종

종 정 **혜승** 종정사서 **보명**
전계화상 **혜공** 승정원장 **진봉**
승정위원 **인봉, 은곡, 지민, 지운, 지심, 명재, 지공**

총무원장 **해불** 원장사서 **성화** 사정원장 **명산** 사정부원장 **성우**
종회의장 **지경** 종회부의장 **혜인** 포교원장 **해인** 포교부원장 **지연**
총무부장 **근혜** 교무부장 **자원** 수선원장 **응진** 수선부원장 **성혜**
사회부장 **도일** 재무부장 **성덕** 교육원장 **법지** 교육부원장 **묘현**
문화원장 **혜관** 문화부원장 **마애**

각 교구 종무원장
서울·경기 종무원장 충 북 종무원장 **정연** 충 남 종무원장 **성현**
대구·경북 종무원장 **지화** 경남·울산 종무원장 **무간** 전라·남북 종무원장 **도암**
강 원 종무원장 **혜인**

중앙종회 종회의원 **지학 성현 성화 근혜 보명 묘현 성우 정연 성각 혜원 지화 응진 지연 자원 혜송 무영 해산 성덕 해인 무간 도암 도일**
중앙신도회장

종도일동

총무원 주소 : 충남 서천군 문산면 문고길203번길 103 천용사 전화 043)878-0109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귀의삼보하옵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불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불법홍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스님, 법사님 및 종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을 창종하시고 세계불교 초대법왕을 역임하시면서 세계 곳곳을 종횡무진하시며 오직 불교포교와 세계평화, 민족평화통일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평생을 바치신 일붕(서경보)존자의 제26주기 추모다례재를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 세계초대법왕 일붕존자 열반 제26주기 추모다례재 ※

■ **일 시** : 2022년 6월 7일(음 5월 9일, 화요일)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일붕선원대법당
■ **행사식순** : 1부 추모다례재, 2부 추모대법회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석 성**

서울시 종로구 세검정로 6길 76-9, 일붕선원 1층 전화 02)991-8175,8904 팩스 02)991-8176

불기2566년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부처님오신날

(사)대한불교 금강조계종

종 정 **법호 서호**
부종정 **법두 수암**

승조원원장 **법상 심곡**
원 로 원 장 **법두 수암**
총 무 원 장 **법응 정관**

연수원장 **용정 일월** 교육원장 **월화 법봉** 포교원장 **금화 백담**
문화원장 **법경 월명** 복지원장 **법수 청운**
기획실장 **진명** 고시원장 **보화 원도**
총무국장 **무화 무경** 사회국장 **용화 해월**
부산교구종무원장 **보화 원도** 경남동부종무원장 **법경 월명** 경남서부종무원장 **진명**

총무원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조산1길 58-6
전화 055)532-4414 휴대전화 010-3507-2837

(사)대한불교대승종

종 정 **동건 법경**
총무원장 **법보 일봉**
종회의장 **탄 영**

감찰원장 **법운 성연** 연수원장 **가원 성각**
포교원장 **법전 법현** 고시원장 **벽산 혜암**

강원종무원장 **영 명** 서울종무원장 **감 우** 경기종무원장 **혜 암**
충청종무원장 **진 산** 전라종무원장 **덕 운** 군산종무원장 **덕 일**
경북종무원장 **탄 영** 경남동부종무원장 **진 공** 경남서부종무원장 **진 성**

총무부장 **진 공** 사회부장 **진 성** 호법부장 **진 각** 포교부장 **진 산**
재무부장 **지 안** 연화부장 **정 해** 문화부장 **공 덕** 교무부장 **진 문**
포교부장 **태 천**

종도일동

총본산 : 서울시 중구 신당동 333-250번지 흥도사
총무원 : 경남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 796번길 62-12 천지암

◈ 불.법.승 ◈

(宗) 대한불교 삼보종

1세종정 滅空대종사 법주 正覺대종사

원로원장 **금산** 부 종 정 **회천** 원로부원 **정공. 정민**
호법원장 **호신** 총무원장 **법장** 종회의장 **법융**
고시원장 **해룡** 부 원 장 문화원장 **법등**
감찰원장 **법도** 교육원장 **홍인** 염불원장 **원명**
사무총장 **평산**

종회의원 **법성. 법공. 용인. 보각. 해곤. 평산. 도오. 지일. 해봉**
외 각원장(15인)

총무부장 **지일** 교육부장 **도오** 규정부장
호법부장 **청파** 교무부장 **청암** 포교부장 **혜수**
문화부장 **진각** 재무부장 **도능** 교화부장
총무국장 포교국장 **도원** 홍보국장 **강천**
전산실장 **진행** 기획국장 **청붕** 사서국장 **도율**
사회국장 예술국장 **보인** 사 무 장 **목련해**

교구원장 **수산. 법인. 보산. 불광. 해원. 용현. 법송. 지원. 청광. 정륵**
(전국 16개 교구)

■ 삼보조계종 총무원 : 경남 김해시 호계로499번길 4
전화 055-338-0089 / 팩스 055-333-1880

(사)대한국불교조계종 승가회

총무원장 **호산 성보**

원로위원 **법계석산 석법신 석진석 석무각 석종천 석법우 석보해**
자문위원 **석종천 석법신 석무각 석지우 석진석 석일불**
호법원장 **석상원** 감찰원장 **석지상** 교육원장 **석지선**
문화원장 **석승태** 포교원장 **석무덕** 호계원장 **석성산**
총무부원장 **석덕운** 사정원장 **석법성**
서울종무원장 **석성산** 경기종무원장 **석지연** 경북종무원장 **석보해**
대구종무원장 **석일불** 통영종무원장 **석덕운** 밀양종무원장 **석법성**
창녕종무원장 **석지우** 창원종무원장 **석승태** 김해종무원장 **석은호**
울산종무원장 **석연화** 김천종무원장 **석자운** 진주종무원장 **석상원**

사)대한국불교조계종 총본산 불광사 : 창원시 마산회원구 광려천북로208
전화 055)232-7819, 010-8540-8209

봉 축

옛 부처 나기 전에 한 모양 둥근 뜻은…

元曉

사단법인 대한선불교 원효회

대한불교 원효종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 및 국가기관 등: 본점>

총 무 원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도량

종 정 **성우 자윤** 원로원장 **혜륜 법진**
종회의장 **청산 태일** 호법원장 **영민 현응**

종회의원 및 종도일동

요 산 정 사

요 산 청 암

법률고문 **곽 태 철** 현 법무법인 대서양 대표 변호사
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

전화 052)238 8010
팩스 052)238 7010

※ 종도 등록 안내 : 분담금 및 등록비 없음. 등록 수 제한 있을 예정
※ 2022년 금강계단 수계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일자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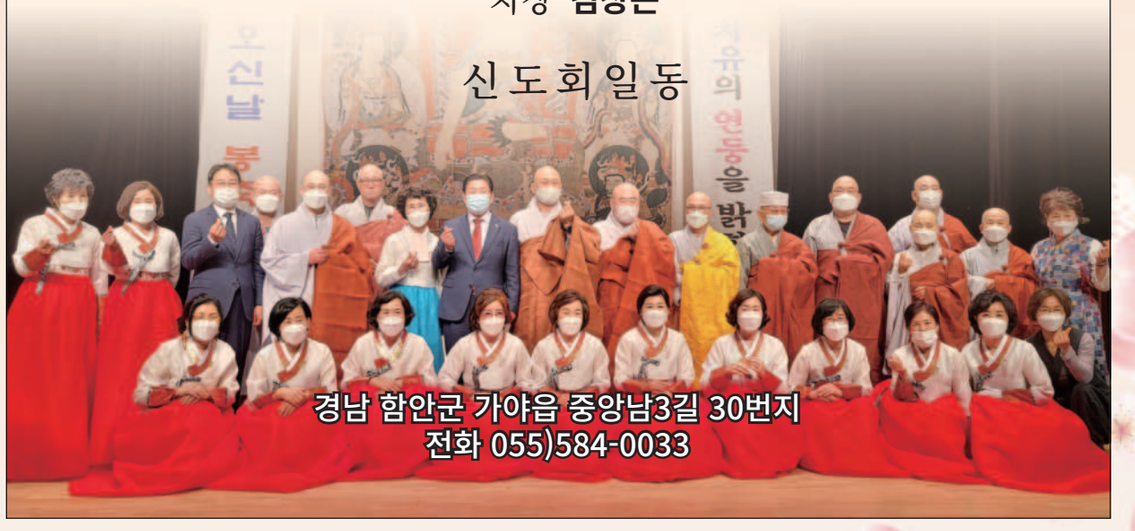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옵니다.

함안불교연합회신도회

신도회장 **조용찬**
부 회 장 **박성하**

총무 **신현숙**
차장 **김상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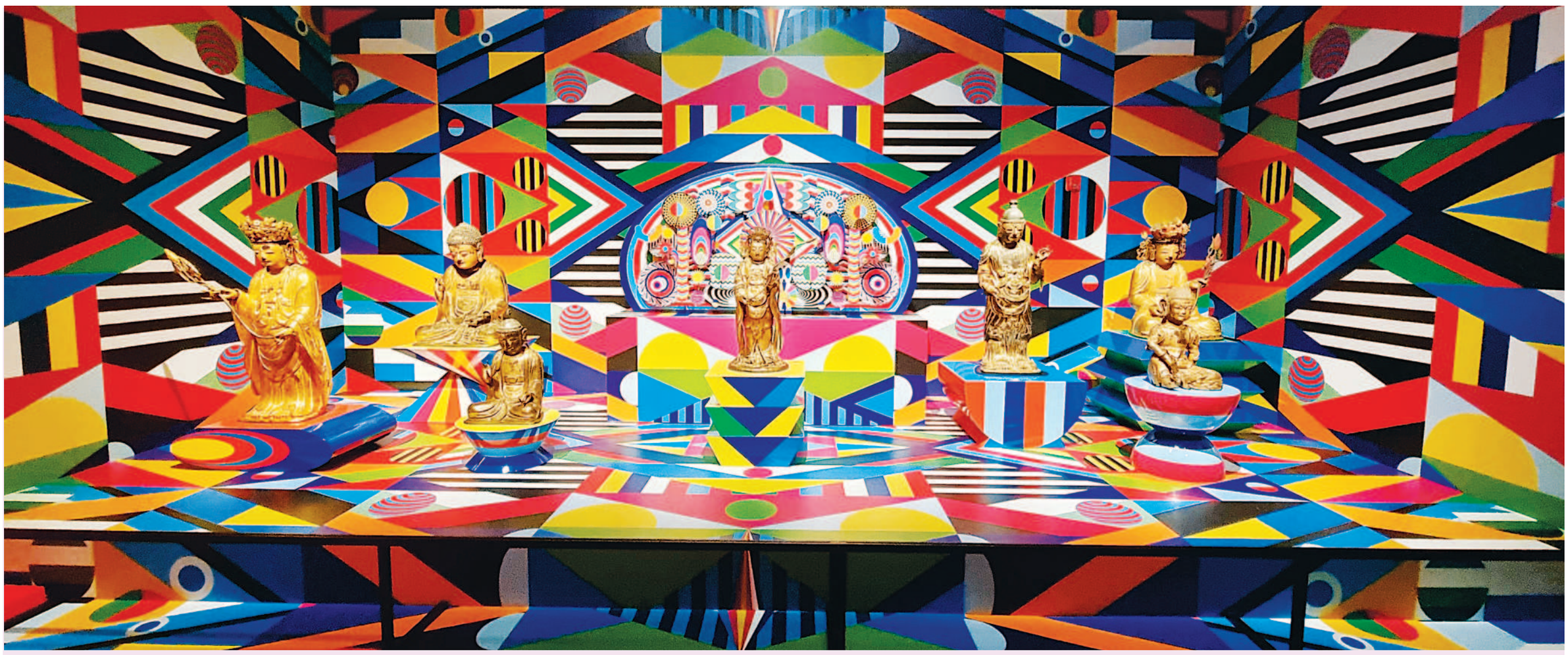
신도회일동



경남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3길 30번지
전화 055)584-0033

문화, 불교를 입다

PROLOGUE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해 3월 6일까지 진행된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조선의 승려 장인'의 마지막 전시물. 원봉안처를 모르는 박물관 소장 불상들을 활용해 현대시각미술가 빠키(vakki)가 전시공간을 꾸몄다. "불상과 어우러진 공간 전체가 하나의 만다라와 같다"는 평가를 받았다.

'K-컬쳐' 전성시대… 이젠 불교로 선도하자

음악 · 웹툰 · 요리 등서 'K 열풍'
MZ세대 약진, 韓문화 발전 요인
불교 기반한 콘텐츠들 '인기몰이'
韓불교의 창의적 콘텐츠 고민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세계 선도하는 K-문화

바야흐로 'K-문화(Curture)' 전성시대다. 보이그룹 BTS를 필두로 한국의 아이돌 그룹들은 세계 팝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OTT플랫폼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일으켰고, '킹덤'은 'K-좀비물'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다. 심지어 '킹덤'에서 등장한 갓과 호미는 해외쇼핑몰에서 판매가 되고 있을 정도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였다.

한국의 웹툰 플랫폼들은 세계 만화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실제 2004년 설립된 '네이버 웹툰'은 세계 75만 명의 작가와 82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세계 최대 웹툰 플랫폼이 됐다. 만화왕국 일본의 웹툰 시장은 한국의 '네이버 웹툰'과 '다음 카카오페이지'가 1, 2위를 독식하고 있다.

'K-문화'의 확장은 시장의 성장으로도 이어졌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 수출액이 약 12조 원으로, 2018년 대비 8% 이상 증가했으며 한국 주요 수출 품목 중 12위였다. 또한 'K-문화'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0조 원 이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전통서 개성 찾는 MZ세대

'힙(HIP)'함을 추구하는 MZ세대의 약진도 한국 문화 발전을 이끌었다. 그들은 유행에 민감하면서도 자신만의 고유한 개성과 감각을 고수한다. 그렇기에 MZ세대 트렌드에는 한국 전통문화가 한 축을 담당한다.

MZ세대는 특별한 날 한복을 입고 고궁에 가거나 '범이 내려온다' 같은 퓨전국악에 열광한다. 전통 문화가 접목된 유니크한 굿즈(Goods)를 사기 위해서 박물관 뮤지엄샵을 방문하기도 한다.

어느 세대보다 환경문제에 민감한 MZ세대는 먹거리와 여가에 있어서도 환경을 생각한다. 실제, MZ세대는 '비건'에 대한 관심이 많다. 단순히 음식뿐만 아니라 뷰티, 패션, 여가 생활 등에서도 '비건'을 추구한다. 네이버 예약을 통해 사찰음식전문점 '발우공양'의 예약이 늘어난 것은 이에 대한 방증이다. 최근에는 사찰에서 명상하며 근처 쓰레기를 줍고, 자연을 만나는 '클린 절패킹' 실험도 한 하이킹 아티스트에 의해 시도된 바 있다.

'K-문화' 속 불교문화

약진하는 'K-문화' 속 불교문화는 매력적인 아이템이다. 몇몇 사례들에서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대표적인 것이 국보 반가사유상(78, 83호)이다. "국보 반가사유상을 브랜드화 하겠다"는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해 11월 전용 전시공간인 '사유의 방'을 조성했다. 미디어 아트와 독특한 전시실 구조는 명상 공간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이는 일방적인 지식만을 전달하던 기존 박물관 전시에서 획기적인 변화로, 개인의 경험과 체험을 중요시 하는 MZ세대에게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개관한지 약 6개월 동안 25만 여 명의 관람객이 찾을 정도로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반가사유상 브랜드 사업은 가상공간으로도 확대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해 10월 한국형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가상박물관을 구축하고 월드맵 '힐링동산(feat.국립중앙박물관 반가사유상)'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했다. 개관 4일만에 전 세계 95만 명이 '힐링동산'에 방문했으며, 이중 93%가 해외 방문자였다.

굿즈계의 레전드가 된 국립중앙박물관의 반가사유상 피규어는 'MZ세대 반가사유상 열풍'의 시발점이었다. 특히 BTS멤버 RM이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며, 반가사유상 피규어는 입고하기가 무섭게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웹툰 시장에서도 주호민 작가의 〈신과 함께〉를 필두로 불교를 소재로 하거나 불교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작품들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여성이 서사 구조를 이끌어가는 여성 서사 장르에서 불교적 작품들이 강세다.

불교계 바깥에서는 불교를 원형으로 한 여러 문화콘텐츠들이 생산되고 있지만, 정작 원천 소스가 무궁무진한 불교계에서는 이 같은 콘텐츠 제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문화콘텐츠 개발은 앞으로 불교가 이끌어야 할 분야다. 단순히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사상과 정신, 요체를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유무형의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포교이자 전법이기 때문이다.

이는 '문화를 통한 호국'을 강조했던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의 종정 취임 법문에서도 잘 나타난다. 중봉성파 대종사는 "우리 불교는 옛날부터 건축을 비롯해 조각, 미술과 생활문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문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좋지만, 뿌리 깊은 우리 역사와 문화를 잘 지키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설했다.

종정예하의 법문처럼 민족문화에 대한 미래지향적 계승 · 발전은 한국불교계가 가지는 화두이자 숙제이다. 이는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세방화(世方化 , glocalizatio)'의 개념과 궤를 같이 한다. 한국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세계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재진 동명대 글로벌콘텐츠학과 교수는 "K-문화 전성시대에 동아시아 문화의 보고를 담고 있는 불교문화는 다양한 원천소스를 지니고 있다"면서 "'세방화'의 의미가 불교문화의 활용에 적용될 수 있다면 세계문화계에서 불교문화의 가치는 더욱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K-문화, 이젠 불교가 나서서 주도할 때이다.

불기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팔공총림동화사 방장 진제 법원
회 주 임담 의현
주 지 능 종

동화사 사부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1(도학동 35) / www.donghwasa.net
전화 053)980-7900 / 팩스 053)985-4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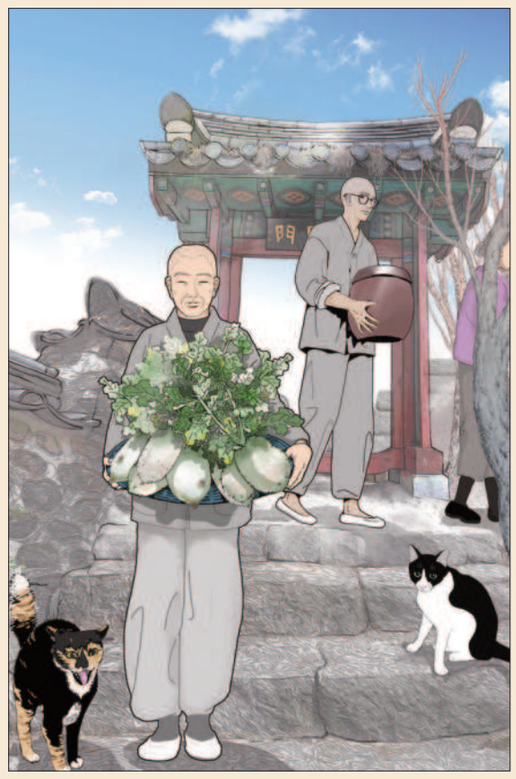


문화, 불교를 입다

WEBTOON



〈극락왕생〉의 한 장면. '불교 판타지' 장르의 새 장을 열었다. 〈문학동네 제공〉



〈세화, 가는 길〉 사찰음식을 통한 치유가 담겼다. 〈거북이 북스 제공〉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단행본 외전 한 장면. 〈문학동네 제공〉

치유 · 여성 · 禪… '불교+웹툰' 가능성 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신과함께'로 불교웹툰 유명세
백초월 등 독립운동가 일대기
주요 포털사이트서 웹툰 제작
'여성서사+불교' 작품들 화제
에끌툰 등 기독 플랫폼 성황
창작 '불교웹툰' 플랫폼 필요

'불교 소재 · 불교적 웹툰'의 시작

급성장한 한국 웹툰 시장에서 불교를 소재로 하거나 불교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웹툰은 왕왕 찾아 볼 수 있다.

가장 대중적 인기를 누렸던 것은 불교 군종병 출신으로 알려졌던 주호민 작가의 〈신과 함께〉다. 네이버 웹툰에서 2010년 1월 8일부터 2012년 8월 28일까지 약 2년 7개월 가량 연재된 〈신과 함께〉는 불교적 지옥 세계관을 현대적으로 변화시켰고, 그 안에 인과관계를 촘촘하게 엮어내 대중들의 호평을 받았다. 일본에서도 주목을 받아 2011년 〈영 간간〉에서 리메이크 판을 새롭게 연재했다.

〈신과 함께〉는 불교를 소재로 한 웹툰 중 가장 성공적인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use)'의 사례로 손꼽힌다. 웹툰 〈신과 함께〉는 영화 〈신과 함께- 죄와 벌(2017)〉, 〈신과 함께- 인과 연(2018)〉로 제작됐으며, 각각 1441만 · 1227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큰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불교의 깨달음을 주제로 한 웹툰도 연재됐다. 케이툰(舊 올레웹툰)에서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연재된 〈화작작 조남남(花灼灼 鳥喃喃)〉이다. 총 31화로 완결된 이 작품은 승려 양수가 세간과 출세간의 경계에서 번민하다가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그려냈다. 수묵 형식으로 그려진 작화도 작품에 몰입감을 높이기 충분하다.

불교계 독립운동가 일대기 웹툰화

다음 카카오웹툰과 카카오페이지를 통해서는 일제강점기 활약한 독립운동가 스님들의 일대기가 담긴 브랜드 웹툰이 제작되기도 했다. 은평구는 2018년 3.1절을 맞아 다음웹툰컴퍼니와 함께 관내 사찰인 진관사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백초월 스님의 일대기를 담은 웹툰 〈초월(初月 · 이현세 作)〉을 선보였다.

카카오페이지에서는 (재)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 지원으로 독립운동가 100인에 대한 웹툰을 제작했다. 이 중에는 만해 한용운 스님, 운암 김성숙(태허 스님). 나혜석의 일대기를 다룬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불교계 독립운동가 관련 웹툰은 지속적으로 제작되고 있다. (사)운암김성숙기념사업회(회장 민성진)는 광복 77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충칭임시정부에서 활약했던 부부독립운동가 운암 김성숙 선생과 중국인 부인 두쥔훼이(杜君惠)의 혁명과 사랑을 그린 웹툰 〈우단사련〉을 선보인다. 정한별 시인이 시나리오를 담당했으며, 웹툰 작가 이루다가 작화에 참여했다.

여성서사와 불교의 만남

최근 불교 웹툰으로 주목할 것은 '여성서사' 장르다. 버프툰에서 연재되고 있는 공명 작가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와 딜리헙을 거쳐 카카오웹툰 · 카카오페이지에서 연재 중인 고사리박사의 〈극락왕생〉은 이미 많은 팬 층을 확보한 여성 서사 웹툰이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어머니의 태몽에 나타난 부처님이 지어주신 이름 '해송'을 빼앗긴 주인공 숙이가 여러 인물들을 만나고 연대하는 이야기를 그려낸다.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에 대한 통렬한 비판은 작품의 큰 물줄기이지만, 주인공의 성장과 치유는 불교적 성찰과 사찰에서 이뤄진다. 또한 주인공이 꿈속에서 지장보살을 만나는 장면 등은 마치 한 폭의 불화를 보는 듯 아름답다.

〈극락왕생〉은 '불교 판타지 드라마'로서도 매우 훌륭한 작품이다.

〈극락왕생〉의 이야기는 당산역 귀신으로 배회하던 박자언이 관음보살의 가피를 입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해를 다시 살게 되며 시작된다. 앞선 생에서 서로 상처주며 소원해진 사람들을 다시 만나며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하고 있다. 모든 등장인물이 여성이고 여성주의를 바탕에 두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우리의 삶 속에서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이야기들이기에 공감하며 읽기 충분하다.

한혜연 작가가 카카오페이지를 통해 연재하고 있는 〈세화, 가는 길〉도 매력적인 여성 서사 작품이다. 주인공 세화의 애인 재윤을 사찰 세화사에서 떠나보내고 다시 세화사를 찾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 담고 있다. 세화는 사찰에서 음식을 통해 자신의 번뇌들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치유한다.

궁금할 정도로 인물 간의 인과관계가 있지만, 작품에서 이를 설명하지 않는다. "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차 한잔 하는 거예요. 딱 그것만 하십시다"라는 세화사 주지 스님의 말처럼 깊은 침묵으로서 위로를 전한다.

한혜연 작가는 "강인선 거북이북스 대표와 가장 한국적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기획하다가 마지막에 나온 것이 사찰음식이었다. 사찰음식에 관심이 있고, 배운 적도 있어서 자연스럽게 〈세화, 가는 길〉을 구상하게 됐다"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이어 "'먹는다'는 행위는 절대 혼자 이뤄지지 않는다. 타인과 함께 하는 삶에서 치유는 이뤄진다. 작품 속 사찰음식을 통해 전하고 싶은 이야기도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위로"라고 밝혔다.

척박한 불교계, 이제 씨 뿌릴 때

웹툰 시장에서 불교적 작품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정작 불교계 내부에서는 이 같은 창작 작품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 지찬 스님, 김동범, 양경수, 배종훈 작가가 '만만한 뉴스'라는 불교 카툰 플랫폼을 만들기는 했지만, 현재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반면 기독교계는 자체 창작 플랫폼들이 만들어지며 '기독 웹툰'을 통한 선교가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플랫폼이 '에끌툰'이다. '에끌툰'에서 연재됐던 〈비혼주의 마리아〉는 교회 내 가부장적 구조에 대한 비판으로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

불교 웹툰 창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계종 포교원에서 작가 템플스테이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작가들이 불교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1세대 불교 카툰 작가 지찬 스님은 "한두 컷으로 모든 것은 보여주는 카툰 장르는 선(禪)과도 맞닿는다. 불교 문화포교에 중요한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전문 작가들이 자유롭게 연재하며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신인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은 분명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문화, 불교를 입다

굿즈, 불교를 입다

GOODS



국립중앙박물관을 '굿즈 맛집'으로 만든 국보 반가사유상 피규어 시리즈. 특히 MZ세대의 호응이 컸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전통문화상품 브랜드 '본디나'가 출시했던 합장주USB.

GOOD한 '불교 굿즈', MZ세대 '취향저격'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반가사유상 피규어' 완판 행진
국립중앙博 '굿즈 맛집' 입소문

불교굿즈 작가들 온라인 활동도
"종교 색채 줄이고 대중 접근을"
문화사업단 '본디나'도 호응 UP

"박물관에 전시 보러 가요? 우린 쇼핑하러 갑니다."

박물관은 문화재를 보며 학습을 하던 공간이었다. 하지만 요즘 박물관은 MZ세대에게는 일종의 소비공간이자 놀이공간이 됐다. 어렵고 딱딱했던 박물관의 이미지를 한 번에 바꿔준 힘은 바로 '굿즈(Goods)'에 있다.

'연예인이나 기관, 단체, 기업의 파생상품'으로 정의되던 굿즈는 일종의 기념품 정도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브랜드 고유의 특성을 살린 굿즈들이 제작·출시되며 소비자의 구매욕을 자극하고 브랜드 충성도를 확보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RM도 반한 반가사유상 피규어

현재 굿즈 열풍의 중심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있다. 2020년 10월 처음 출시된 '국보 반가사유상(83호) 피규어'는 출시되자마자 완판되는 기염을 토했다. 온라인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서버가 마비될 정도였다. 특히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RM이 반가사유상 피규어를 직접 구매한 것이 알려져 인기에 날개를 달았다.

지난해 '사유의 방' 개관을 맞아서는 굿즈를 리뉴얼했다. 기존 반가사유상 피규어는 강렬한 원색이었지만 리뉴얼하며 우아한 파스텔톤으로 색상이 바뀌었고, 기존 국보 제78호 반가사유상을 추가했다.

최근에는 반가사유상 방향제(스탠드형·차량형), 반가사유상 인센스 홀더(향꽂이), 반가사유상 만다라 리버서블 에코백으로 제품군을 확장시켰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반가사유상 피규어 이후에도 전통문화를 모티브로 한 다양한 굿즈로 흥행을 이어가며 '굿즈 맛집'으로서 면모를 확고히 했다.

고려청자 문양을 넣은 에어팟 케이스는 "내 손 안의 고려청자"라는 호평을 받았고, 자개소반 무선 충전기는 적지 않은 가격에도 날개 돋힌 듯 팔려나갔다. 전통 디자인의 스카프 등 패션·생활 소품들도 인기다.

올해에는 국립박물관 상품들을 통합 브랜드화 하는 작업도 이뤄졌다. 지난해 박물관 상품 브랜드 명칭 공모전을 통해 후보를 선발했고, 최종적으로 '뮷즈(MU:DS)'가 선정됐다. '뮷즈(MU:DS)'는 박물관 상품을 의미하는 '뮤지엄 굿즈'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국 13개 국립박물관 굿즈를 통칭하는 브랜드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처음부터 '굿즈 맛집'이었던 것은 아니다. 관내 뮤지엄샵은 전시도록이나 마그넷, 문구류 같은 가벼운 기념품을 판매해왔다. 하지만 2016년 출시된 윤동주 시인의 '별 헤는 밤'이 새겨진 유리컵이 많은 인기를 끌며 전략도 수정했다.

김미경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상품기획팀장은 "당시 젊은 세대들은 유리컵 구매하기 위해 박물관을 찾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기념품 같았던 상품들을 생활 소품 위주로 변화시켰고,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이 호감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들로 변화시켰다"고 설명했다.

반가사유상 피규어나 인센스 홀더 등에 대해서는 "종교적 색채를 조금 지우고 대중들의 성향과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젊은 작가들 '불교 굿즈' 만들다

'불교 굿즈'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힙(Hip)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행과 트렌드에 민감하면서도 자신의 개성을 찾는 MZ세대에게 불교 소재 굿즈는 이를 충족시켜줄 중요한 아이템이다. 젊은 작가들도 직접 '불교 굿즈'를 제작·판매하기도 한다.

네이버스토어에서 '붓띠'라는 브랜드로 불교 굿즈를 제작하는 정아현 붓띠 대표는 2020년부터 브랜드를 론칭해 운영해왔다. 동국대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하며 박사학위까지 수료한 정 대표는 꾸준히 약사여래 도상을 그려왔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며 약사여래 도상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 자연스럽게 굿즈를 제작하게 됐다. 초반에는 본인이 디자인한 약사여래 도상을 활용한 액자·인테리어 시계·차량용 걸이·수면등이 주력 상품이었으나 최근에는 상품군을 더욱 확장했다.

정 대표는 "최근에는 약사여래부처님과 약사여래 12대원이 각인된 머그컵과 2줄 부엉이·코끼리·거북이 염주 팔찌, MZ세대 감성의 경전·염주 파우치가 인기"라면서 "어린이용 합장주를 만드는 DIY키트도 호응이 좋다. 파스텔톤 오색 염주알과 코끼리, 연꽃들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찰에 가면 불교용품점이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상품들에 선뜻 손이 가지는 않는다. 디자인도 10년째 똑같다"면서 "제 작품들은 대중성에 주안점을 두고 너무 불교적이지 않게 디자인한다. 그러면서도 불교적 가치를 담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불교계에는 '본디나'가 있다

불교계도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문화상품 개발에는 꾸준한 노력을 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전통문화상품 브랜드 '본디나(VONDINA)'다.

2014년 5월 론칭된 '본디나'는 '본디 나로 돌아가다'는 의미를 가졌다. 한국 사찰의 문살과 단청들을 패턴화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 관련된 굿즈들을 개발해왔다. 관련 상품들도 △본디나 단청, 꽃살문 트래블백 세트 12종 △본디나 단청, 꽃살문 다이어리, 수첩 30종 △본디나 꽃살문 우산 △본디나 단청, 꽃살문 여권케이스 9종 △본디나 단청, 꽃살문 네임택 8종 △본디나 꽃살문 명함집권 케이스·네임택·소프트 노트 등 다양하다.

또한 불교문화상품 공모전 수상작인 합장주 USB와 사천왕 페이퍼토이는 교계 안팎에서 호평을 받았다.

정미자 문화사업단 문화콘텐츠팀장은 "합장주 USB에 이어 출시된 목어 USB도 인기가 많다. 필함·메모패드·명찬케이스는 인기 상품"이라며 "본디나의 상품들은 전국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기념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판매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8차에 걸쳐 한국 사찰의 꽃살문, 단청, 각종 지물을 통한 디자인들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어떤 상품을 제작하는가가 관건"이라며 "상품의 수요와 시대 트렌드를 분석하며 굿즈들을 개발하려 한다"고 밝혔다.

불기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2로 40-6 해운정사 TEL 051)746-2256, 744-4812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금송로 245-7 성담사 TEL 055)867-9999

불기2566년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부처님오신날

(사)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승정원장 **월해**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감찰원장 **성호** 종회의장 **법륜** 호법원장 **해월**
포교원장 **덕해** 교육원장 **영호** 규정원장 **혜성**

감찰부장 **경오** 호법부장 **문경** 포교부장 **장문**
규정부장 **성철**

서울교구원장 **법혜** 대전교구원장 **수진** 충남교구원장 **혜성**
울산교구원장 **정오** 부산교구원장 **법진** 경남교구원장 **불해**
경북교구원장 **천호**



"천안 청룡스님 입종을 환영합니다."

한마음 108종도 일동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서울 총무원 : 전화 02)739-4780, 010-3870-0021

(사) 대한불교율사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청송 청파**

교육원장 **동담 백천** 기획실장 **대비** 종 회 **의장**
감찰원장 **동암 원효** 사서실장 **동판** 사 무 국 장 **동석 우석**
문화원장 **덕일 금산** 총무부장 **동봉 태공** 창원교구원장 **동백 지원**
고시원장 **도진 동영** 복지원장 **동법 혜조** 포 교 원 장 **동우 영산**
사회원장 **덕진 도광** 수선원장 **동성 혜각** 의 전 원 장 **동민 경오**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 등본 3통, 사진(3×4) 3장, 이력서 3통

종회위원 일동

총무원 50809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417번길 83-17 시례마을
TEL : 055-336-0108, 335-0178
FAX : 055-336-7070 / H·P : 010-3595-6522, 010-8939-6522

(사) 대한불교 종단진흥총연합회

회 장 대한불교율사조계종 총무원장 **청송 청파**

고 문
대한불교 해동종 총무원장 **송산** 중앙불교 조계종 종정 **우담**
한국불교 대불종 총무원장 **만주**

소속명단

대한불교 통일조계종 총무원장 **무각** 한국불교 법안조계종 교육원장 **도문**
한국근본불교 해동종 종 정 **정일** 한국불교 미륵선종 종 정 **해일**
대한불교 법보조계종 종 정 **향운** 대만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대명**
사)함께 가는 길 이사장 **혜상** 일산 자비원원 장 **도일**
생활실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광** 대한불교율사조계종 감찰원장 **동암**
해동자비원원 장 **만호** 대한불교율사조계종 고시원장 **동영**
한국불교 법상조계종 종회의장 **법장** 대한불교율사조계종 경기종무원장 **동일**

◉ 각 종단 총무원장님 : 종단 입종을 환영합니다.

종단연합회 :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417번길 83-17 우)50809
전화 055)336-0108. 335-0178, 323-0108 팩스 055)996-7070 HP : 010-3595-6522, 010-8939-6522

(사)한국대승불교조계종

종 정 **효산현각**
총무원장 **지호혜관**

사정원장 **성군**, 사회부장 **향광**, 재무부장 **선혜**, 교무부장 **보명**,
사정부장 **자공**, 비구니원장 **덕심**, 울산종무원장 **향광**, 서림사 **현각**,
지장사 **광영**, 금정사 **덕심**, 법성사 **인덕**, 천광정사 **취운**, 연화사 **일허**,
운고사 **운고**, 동방사 **법운**, 용연사 **취암**, 천운사 **현장**, 동방원 **법운**,
동방원 **효혜**, 불심정사 **혜관**, 쌍암사 **덕산**, 미륵사 **혜각**, 미륵정사 **혜월**,
미정사 **선혜**, 무심사 **보명**, 보우선원 **성군**, 칠성암 **무설**, 관음사 **월명**,
용덕미륵정사 **영주**, 계령미륵정사 **계령**, 보광정사 **자공**, 약불암 **무여**,
천심정사 **진토**, 쌍암사 포교원 **향광**, 무심사포교원 **임야**, 백련암 **문정**,
화성암 **성화**, 금강사 **금강**.

■ 총본산 : 부산시 사하구 다대로 384-3 서림사
■ 총무원 : HP. 010-4590-5539 FAX. 052)275-5539
■ 사정원 : HP. 010-5061-8300
■ 울산종무원 : HP. 010-4546-1100

(사)대한불교무량종

종 정 **혜안**
원로원장 **해초** 사서실장 **보인**

총무원장 법정 교육원장 **보산** 감찰원장 **보공** 포교원장 **보아**
중앙종회의장 **법우** 부의장 **자운 보우** 사무총장 **보성**

총무부장 **정운** 재무부장 **보혜** 교무부장 **보림** 포교부장 **보월** 호법부장 **정목**

총무국장 **보임** 재무국장 **보영** 교무국장 **정향** 포교국장 **법산** 사서국장 **보륜**

■ 총 림 :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티로11(괴정동) 은암천불정사 전화 : 051-292-4586
■ 총본산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삼화실로 748-8 칠보정사 / 전화 055)883-7771, 7790

(사) 대승불교조계종
The Mahayana Buddhist Jogye Order

이사장 **현 담**

총무이사 **인각** 교무이사 **만법** 재 무 이 사 **대전**
교육이사 **도각** 포교이사 **법공**
총무국장 **현무** 교무국장 **선행** 재 무 국 장 **자은**
교육국장 **현덕** 포교국장 **자경**
경남서부교구장 **만법** 중부교구장 **도혜** 경남동부교구장 **동준**
부산교구장대행 **인각** 직할교구

이 사 **화산 경월 법광 연지 정혜 법성 법혜**
감 사 **대성 혜원**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 사찰등록신청서, 기본증명서, 신상명세서, 증명사진 2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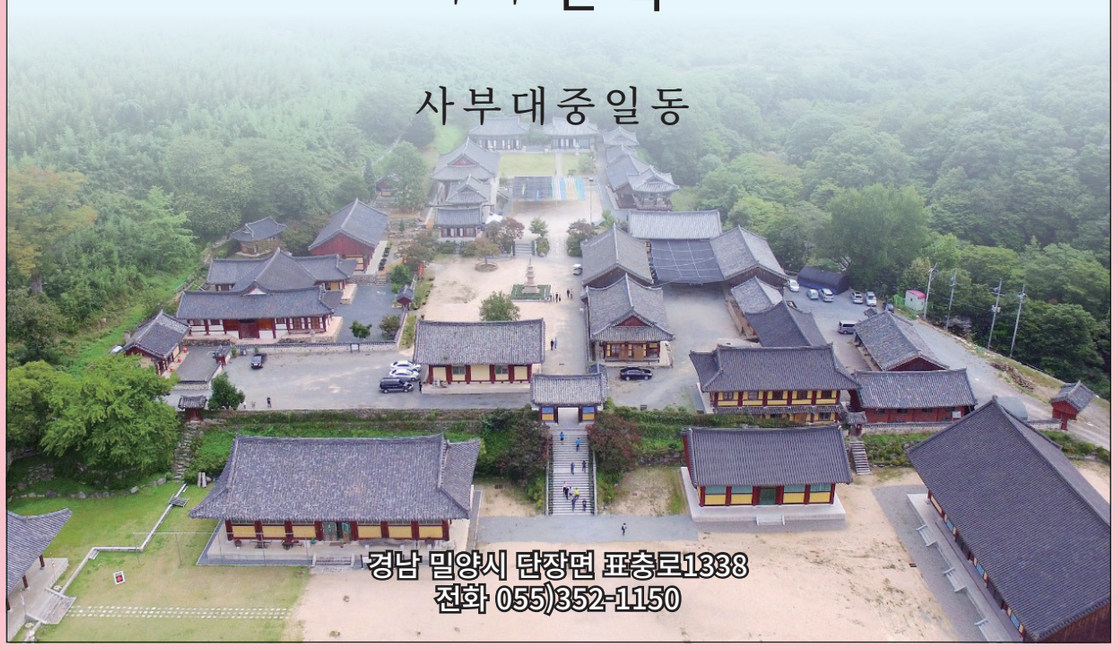
법인사무국 : 경남 사천시 백천길 234-34 백룡사
전화 055)832-8367 / 팩스 055)832-8368

불기2566년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표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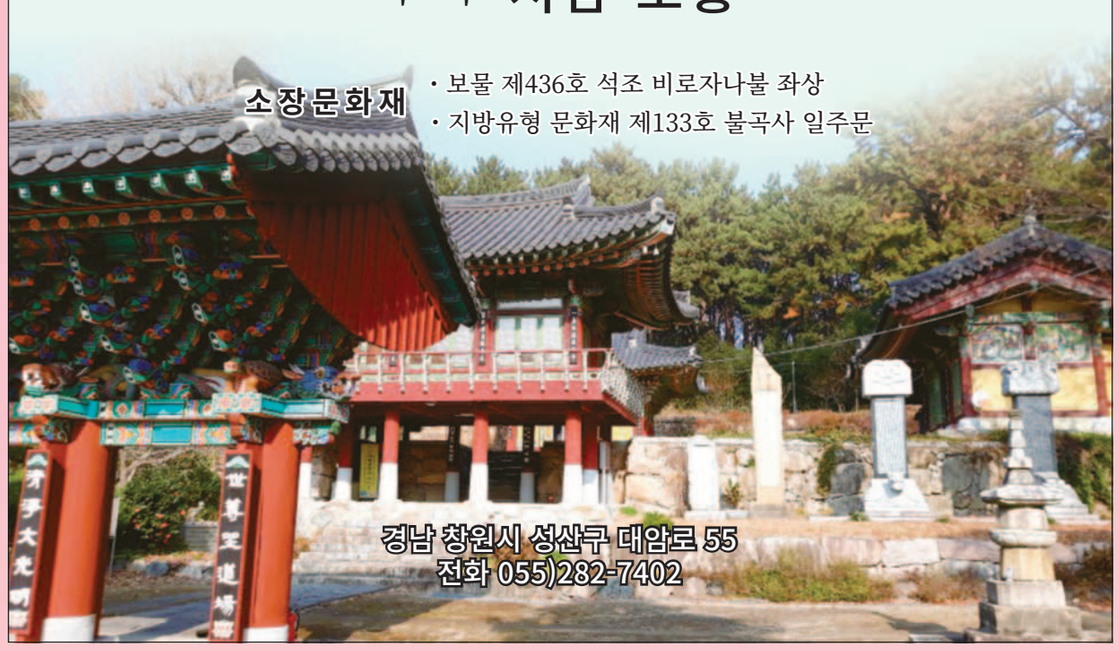
주지 진각



대한불교 법화종

신라고찰 비음산 **불곡사**

주지 서암 도홍



해인삼매 속에 펼쳐지는 바로 지금 여기 이곳 원각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본사

법보종찰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벽산 원각 대종사
주지 연암 현응 대화상

사부대중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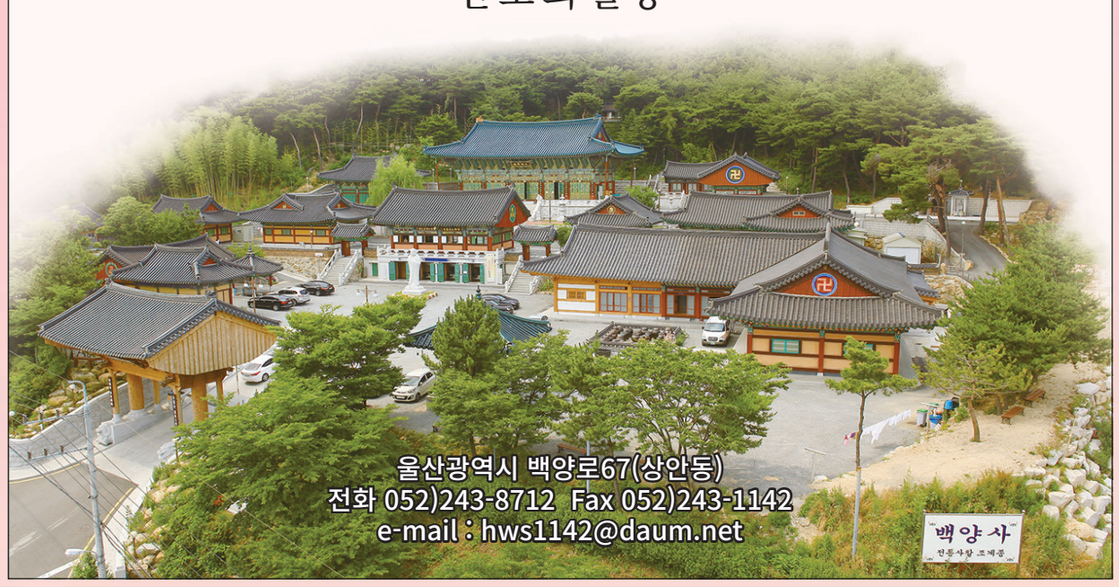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함월산 백양사

주지 지은 산옹

신도회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호국도량

울산 신흥사

주지 종현

사부대중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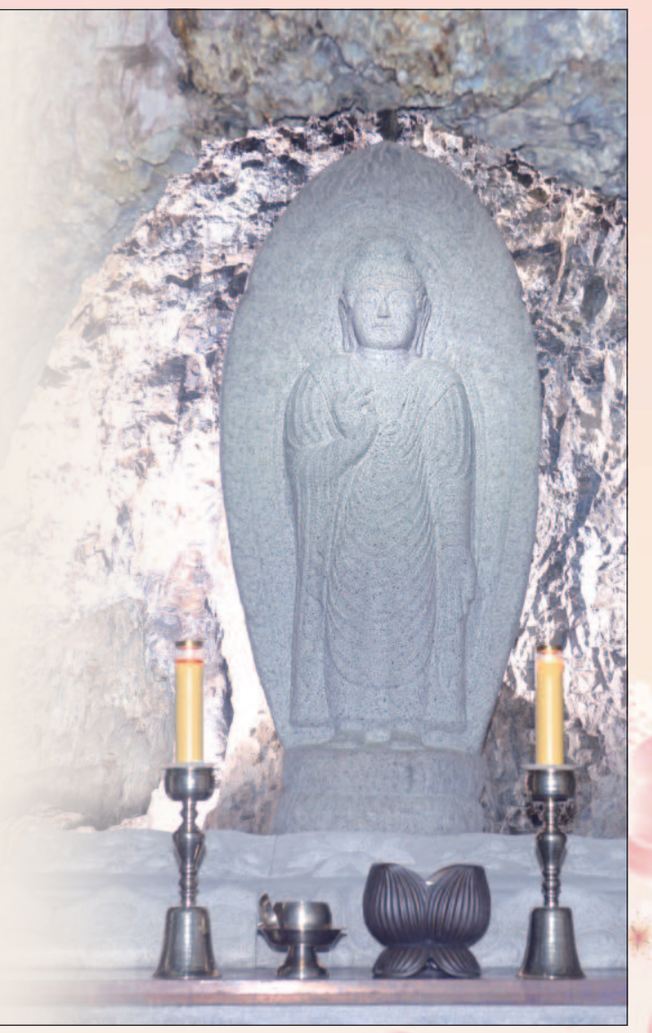


영남최고의 관음기도도량

천성산

미타암

사부대중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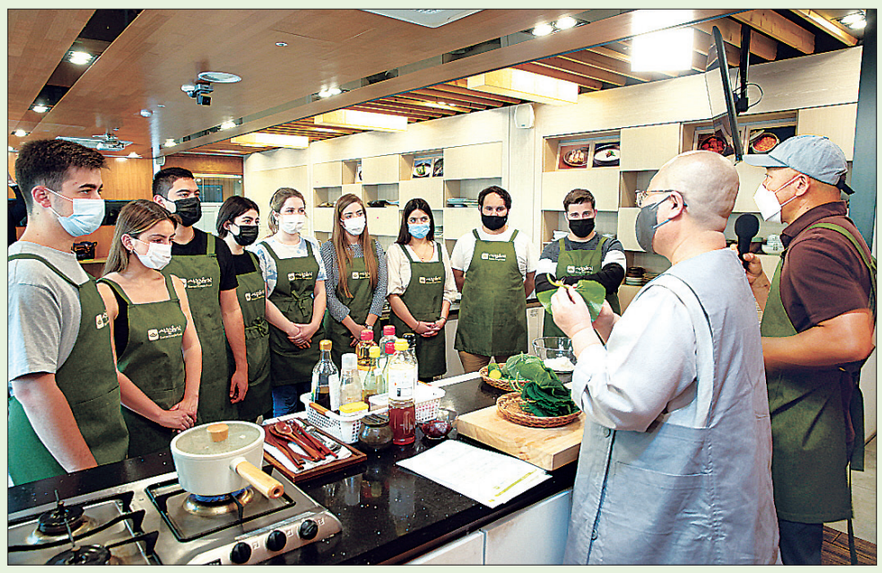


경남 양산시 주진로 379-61
전화 055)365-4184

문화, 불교를 입다

음식, 불교를 입다

FOOD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사찰음식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찰음식 시그니처 메뉴 나물구절판과 연밥. 사진제공=마지



20 · 30 세대에 인기 좋은 배냉면. 제철배를 사용, 다양한 맛과 질감을 경험할 수 있다. 사진제공=마지

채식에 빠진 2030…'핫플'된 사찰음식 전문점

건강 · 환경 관심 높아지며
MZ세대 윤리적 소비 관심
'비건', 문화 트렌드로 소비

사찰음식은 유행도 좋지만
불교콘텐츠로도 이어져야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천연비누 공방을 운영 중인 조민영(33세) 씨는 서울 영등포에 있는 비건(Vegan) 빵집 단골이다.

민영 씨가 우유, 계란, 버터 등과 같은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곡물가루와 식물성 오일 등을 기본재료로 사용해 만든 비건빵을 선호하게 된 것은 천연비누 공방을 운영하며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부터다. 최근에는 이와 함께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면서 식습관에도 변화가 일었다. 평소 채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고 있다는 민영 씨는 "식습관을 고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채식은 미래를 위해 가치로운 부분을 실천하는 일 중 하나라는 생각"이라며 "나의 건강을 살리고 동물을 죽이지 않으며, 하나뿐인 우리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채식 위주의 식단을 의식하고 꾸준히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식'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 고기 없는 식단이 외면받았던 것과 달리 건강과 환경 등을 이유로 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 사이에서 코로나19와 이상기후 등으로 윤리적 소비와 비건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다.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념에 따른 가치 소비를 중시하게 된 것이다.

한국채식연합에 따르면 2008년 15만 명이었던 국내 채식 인구는 2018년 150만 명으로 10년 만에 10배가 늘었다. 2020년 200만 명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250만 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채식 트렌드에는 20 · 30대가 주축인 MZ세대가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의 지난해 4월 조사에 따르면 MZ세대 중 95.6%가 환경을 위해 식습관을 바꿨다고 답했다. 그중 27.4%는 채식과 육식을 병행하는 간헐적 채식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Z세대 사이에서 '비건'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비건(Vegan)은 고기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Vegetarian) 중에서도 육류와 생선은 물론 우유 · 계란 · 꿀 등 동물에서 나오는 식품을 일절 거부하는 사람을 뜻한다. 그러나 빠르게 증가하는 채식 인구 중 채식만 엄격하게 하는 이들은 5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를 제외한 상당수는 '유연한' 채식주의자인 '플렉시테리언(Flexitarian)'으로 분류된다.

'비건' 트렌드가 이어가면서 최근에는 한국 고유의 비건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사찰음식 또한 최신 유행처럼 소비되고 있다. 스님들 건강을 생각해 고안된 사찰음식이 이제는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음식이 된 것이다. 사찰음식점이 20 · 30 세대들이 붐비는 서울 종로나 강남 인기 거리인 일명 '핫플레이스'에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만 봐도 MZ세대들에게 사찰음식의 인기를 가늠할 수 있다.

실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서울 종로구에서 운영하는 '발우공양'은 코로나19 이후 최근 1~2년 사이, 20~30대 이용객이 급격히 늘어났다. 발우공양에 따르면 최근 평균 이용객의 40% 정도가 20~30대다. 예약 건수도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통한 예약이 전체의 약 50%에 이르는 데, 이는 젊은 층들의 이용이 반수 이상이라는 증거다.

박준규 발우공양 매니저는 "최근 젊은 커플들이 기념일에 맞춰 예약하고 케이크를 들고 방문하는 경우도 많이 늘었다"면서 "사찰음식이라는 희소성, 유니크한 다이닝이라는 점이 한몫한다는 점과 더불어 채식에 대한 관심이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에 발우공양은 MZ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SNS활용과 다양한 메뉴개발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발우공양에는 특히 젊은 서양인들도 자주 눈에 띄는 데 "외국 손님들은 파 · 마늘 · 부추 · 달래 · 무릇 등 오신채(五辛菜)를 사용하지 않는 사찰음식이 양념이 강한 일반 한식보다 오히려 접근하기 쉽기 때문"이라는 게 발우공양 측의 설명이다. 비건 문화가 자리 잡힌 서양인들 눈에 그동안 한국은 삼겹살과 치맥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곳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사찰음식 전문가들은 MZ세대들의 사찰음식에 대한 관심이 새로운 문화 트렌드라고 말한다. 사찰음식점 '마지' 김현지 대표는 "채식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하고 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지면서 비건 음식으로 대표되는 사찰음식에도 호감을 갖는 사람들이 확실히 늘었다"고 말했다.

마지의 경우 이 빠진 그릇이나 잔을 버리지 않고 다듬어 음식을 내고 물티슈도 사용하지 않는다. 자투리 야채와 껍질까지 모두 사용해 야채수를 만든다. 음식물 쓰레기를 내지 않고 일회용품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다. 때문에 환경문제와 같은 문화 트렌드에 관심이 있는 MZ세대들이 스스로 사찰음식을 찾아온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김 대표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 '마지'의 단골 또한 중장년층에서 청년층으로 완전히 바뀌었으며 약 80% 정도가 20 · 30세대다. 김 대표는 "이전에는 부모가 예약해 가족식사를 하는 테이블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자녀가 예약을 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러 오는 형태로 변했다"면서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콘텐츠로서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채식에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사찰음식이 문화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지만 단순한 채식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채식은 오계를 일상의 음식선택을 통해 실천하는 것으로, 발우공양 정신을 현대에 맞게 대중화한 삶의 방식이기에 불교 그 자체이지만, 의미를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불교는 사라지고 채식만 남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사찰음식을 통해 채식의 가치뿐 아니라 본연의 의미도 접할 수 있게 된다면 불교를 좀 더 친근하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단순한 사찰음식 체험을 넘어 이를 배우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국불교문화콘텐츠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 사찰음식 전문가는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미 수년 전 '비건의 해'를 통해 동물윤리, 생태계보호, 윤리적 소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비건채식을 실천하는 20 · 30세대들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전망했다"면서 "훌륭한 잠재적 불자들을 불교계가 모범을 보임으로써 적극적으로 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불교태고종

청 련 사

조 실 해 경
원 로 도 암
주 지 상 진
총무(원주) 벽 산
교 무 거 진
교 무 보 효 진
재 무 심 곡
서 무 효 능
서 무 보 보 휴

대 중 일 허, 일 겸
지 휴, 혜 명

종무소 직원
총무과장 정태우(일소)
업무국장 이진미(소봉)
업무계장 최진호(무착)
경리주임 성진희(소담)

청련사 불교문화연구소
소 장 곽승훈(동광)
실 장 인용민(법정)

현장관리직원
소 장 허대형
실 장 김인철(혜광)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

이사장 상 진
이 사 해 경, 심 곡, 벽 산, 거 진
효 능, 최종남, 이종수
감 사 최인귀

청련사 두도엔지니어링
(종합건설회사)
건설본부장 김호영
이 사 김유영

청련사 극락원 (추모관)
전 무 고영민 상 무 장진우 이 사 박광수
홍 보 박범경 부 장 유성민 과 장 김선진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69 전화 031)836-2439, 1080 / 팩스 031)836-1081 홈페이지 : http://www.bluelotus-temple.co.kr

문화, 불교를 입다

전시, 불교를 입다

EXHIBITION



지난해 11월 개관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사유의 방' 전경. 반가사유상 전용 전시공간으로 건축가와의 협업으로 조성됐다.



올해 3월 6일까지 열린 조선 승려 장인전에서 소개된 용문사 목조아미타여래설법상.

체험 · 감성에 중점…전시, 진화하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박물관 전시가 진화했다. 진화한 전시의 면모는 국보 반가사유상(78 · 83호) 전용 전시공간으로 지난해 11월 12일 개관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사유의 방'과 올해 3월 6일까지 진행된 '조선 승려장인' 특별전을 통해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모두 불교 관련 전시다.

'사유의 여정' 담아낸 전시 공간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 전시실을 보러 프랑스 파리를 가듯 국립중앙박물관의 두 국보 반가사유상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브랜드화 하겠다."

2021년 2월 3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밝힌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은 기존 관람 동선에서 과감히 벗어나 상설전시관 2층에 439㎡ 규모의 새 전시실을 조성하고, 명칭도 '사유의 방'으로 변경했다. '사유'는 새로운 관람 경험을 위한 키워드였다.

과거의 반가사유상 전시 방식을 완전히 바꿔 새롭게 꾸민 전시실은 건축가 최욱 원오원 아키텍스 대표와의 협업으로 완성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전시실을 조성하며 건축가와 협업한 것은 '사유의 방'이 처음이다.

최욱 대표는 소극장 크기의 전시 공간에 어둠을 통과하는 진입로, 미세하게 기울어진 전시실 바닥과 벽, 아스라한 반짝임을 주는 천정 등을 구상했다. 이를 통해 현재를 벗어나 다른 차원에 있는 듯 한 추상적이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반가사유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장 입구와 출구의 미디어 아트는 프랑스 다큐멘터리 감독 장 줄리앙 푸스가 맡았다. 물의 이미지를 통해 '순환'을 표현한 그의 작품은 공과 연기의 가르침을 곰곰이 사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박물관에서 흔히 보이는 문화재 정보를 적은 설명문은 최소화했다. 대신 QR코드를 통해 자세한 전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설명에 의존하지 않고 관람객 스스로 직관적으로 감상과 사유에 몰입할 있도록 돕는다. 전시 입구에서 반가사유상을 친견하고 나오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문화재 관람이라기보다는 '사유의 여정'에 가깝다.

이 같은 '사유의 방'의 감성은 대중들의 호응으로 이어졌다. 개관 6개월여 만에 25만 명이 다녀갔다. 신소연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이전 박물관은 학습의 공간이었다. 가족들이 와서 문화재나 미술품을 보고 수첩에 적기 바빴다"면서 "MZ세대들은 자신의 체험과 경험을 중요시 한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들은 이 같은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제부터 전시 구성까지 완벽한 '승장전'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올해 3월 6일까지 진행

반가사유상 전용 '사유의 방'
개관 후 25만명 관람 '인기'

지난해 '조선 승려 장인展'
韓미술사 이정표 새로 세워
미디어아트 등 활용도 눈길

됐던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선의 승려 장인' 특별전은 '한국미술사 이정표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전시 주제부터 전시 구성까지 완벽했다.

숭유억불의 조선시대에 조성됐던 불화와 불상은 그간 주목받지 못했으나 임진왜란 이후 조선 중후기에 불상과 불화는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제작됐다. 현재 전국 사찰에 전해지는 적지 않는 불상과 불화는 이 시기 작품들이다. 조선 중후기, 활발한 불사들이 이뤄질 수 있던 것은 승려 장인들의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국미술사에서 변두리에 있던 조선 중후기 불교미술을, 그보다도 더 변방에 있던 '승려 장인'을 다시 현대로 불러와 그 가치를 조명한 것이 '조선의 승려 장인전'의 매력이었다.

전시 구성도 눈길을 끌었다.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초에 활동한 조각승 단응(端應)이 1684년(숙종 10)에 불상과 불화를 결합하여 만든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보물)은 이번 전시를 위해 337년 만에 처음으로 사찰 밖으로 나왔다. 크기가 3m에 달하는 대작인 만큼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 공간 하나를 활용해 오롯이 설법상을 친견할 수 있도록 했다.

유수란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승려 장인이 어떤 스님인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위치에 계셨던 스님들인지를 조명하기 위해 전시를 구성했다. 이를 위해서 미디어아트, 설치미술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면서 "종교를 넘어서 문화예술이 줄 수 있는 공감과 위안을 전시를 통해 느끼게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시 과정에서 중요한 승장(僧匠)들 중 한명정도는 관람객들이 알고 갔으면 했고, 이 의도가 반영된 것이 단응의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전시공간이었다"며 "불자들은 300여 년전 선조들이 느꼈던 감정과 동일한, 혹은 더 신실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고 불교신자가 아니라도 '불교의 이상향 세계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를 확인하도록 전시에 신경을 썼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 유튜브… '박물관 멀티버스'

전국 13곳의 국립박물관은 전시만으로 관람객들을 모으지 않는다. 메타버스 · 미디어아트 · 유튜브 등 가용한 모든 매체들을 활용하고 있다. 국립박물관들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변화는 보존에서 활용으로 전환하고 있는 문화재 정책과도 궤를 같이 한다. 또한 변화한 대중들의 니즈들 빠르게 파악하고 이를 적용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21년 2월 불교회화실 괘불 전시공간에 높이 12m, 폭 6m의 6K 초대형 괘불 미디어아트를 처음 선보였다.

또한 불교회화실 휴게공간에는 과거 고승과 현재 관람객이 영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실시간 인식 센서로 관람객이 다가오면 화면 속 고승 진영이 반응하며 관람객에게 대화를 건네고, 영상 속 고승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진귀한 풍경이 펼쳐진다. 2010년 10월에는 K-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국립중앙박물관 가상박물관을 구축하고 월드맵 '힐링동산(feat.국립중앙박물관 반가사유상)'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했다. 개관 4일만에 95만명이 '힐링동산'에 방문했고, 이중 93%가 해외 유저였다.

반가사유상 전용 전시공간 '사유의 방', 메타버스 '힐링동산', 반가사유상 굿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브랜딩 사업의 일환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소연 학예연구사는 "전시 1년 전부터 국립중앙박물관은 '반가사유상을 어떻게 브랜딩할 것인가'를 고민했다"며 "메타버스와 연계한 콘텐츠나 관련 굿즈들도 반가사유상을 통한 브랜딩과 연계된다"고 말했다.

불기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
영산불교 현지사

초 대 교조 광명 만덕 큰스님
제2대 교조 자재 만현 큰스님

장로원의장 성광 교정원장 일도
감찰원장 범행 포교원장 행원
교육원장 대원 불교대학장 일도

춘천본사 주지 대원 제주제2본산 주지 범행
부산분원 주지 보문 대전분원 주지 행원
고성분원 주지 성범 대구분원 주지 정대
김해분원 주지 성광 일본분원 주지 성도

영산불교 현지사 사부대중 일동

홈페이지 http://hyonjisa.co.kr

• 춘천본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 033-243-1787
• 제2본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11 ☎ 064-783-5355
• 부산분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325 이센타워 15층, 14층 ☎ 051-554-5150
• 대전분원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42-525-5325
• 고성분원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길 7 ☎ 033-681-5515
• 대구분원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9길 20 ☎ 053-654-5557
• 김해분원 경남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739-157 ☎ 055-327-0055
• 일본분원 일본 야마구찌켄 이와쿠니시 오츠죠 3-3-10 ☎ 81-827-31-1611
• 영산불교대학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42-525-5325

문화, 불교를 입다

제언 불교문화콘텐츠 발전 방향은

모든 것이 문화…융·복합적 창작 나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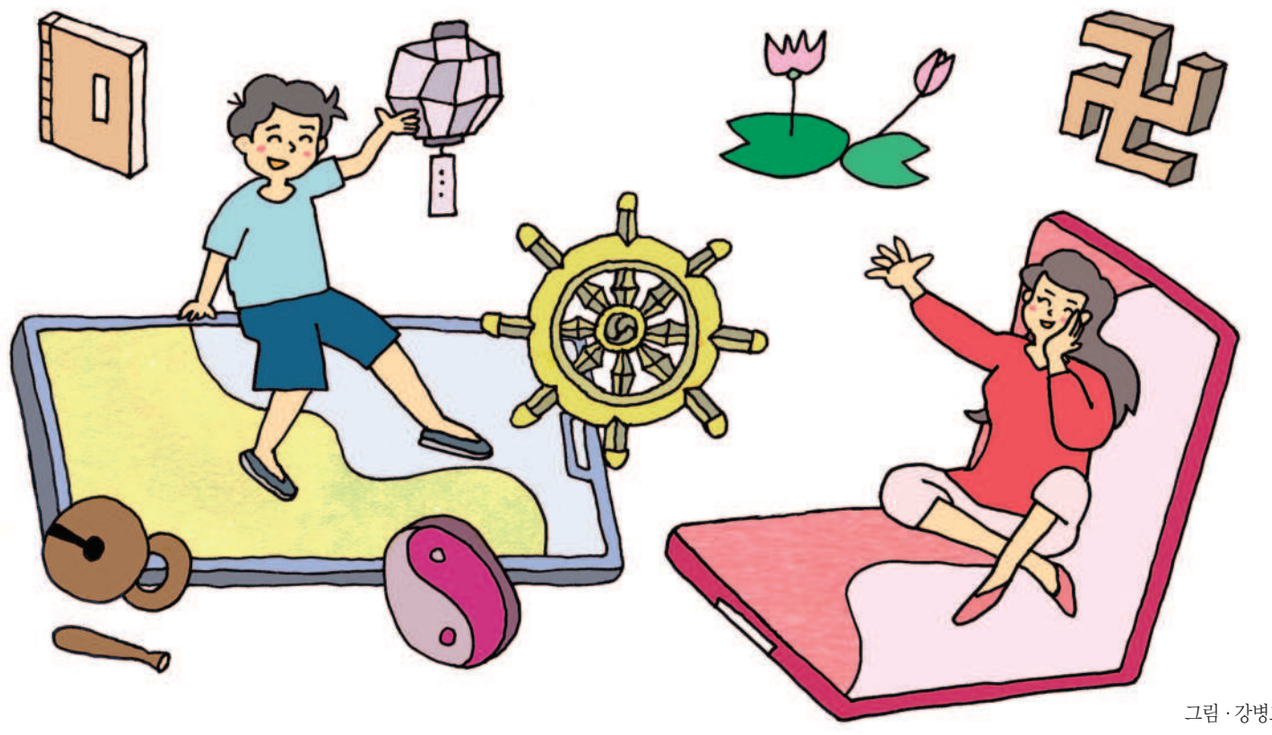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문화는 인류 역사 이래로 특정한 공간이나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속적으로 인간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생활의 활력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명이 있는 곳엔 어김없이 문화가 함께 했다. 인간 삶의 저변에 자리한 문화가 표면적으로 문화콘텐츠라는 트렌드로 부상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문화원형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새로운 콘텐츠의 활용은 '원소스-멀티유즈(OSMU)'와 '멀티소스-멀티유즈(MSMU)'라는 새로운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이와 함께 다양한 창작물이 탄생해 미디어 시장의 변화를 초래했다.

문화계 전반에서의 변화는 종교계의 패턴에도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다. 미디어 분야에 새로운 버전의 등장은 디지털시대의 도래가 큰 역할을 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는 상황은 종교계 전반에도 커다란 파장을 남겼다. 따라서 불교문화의 영역에서 자리하고 있는 '문화콘텐츠'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인식의 변화와 새로운 방법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불교계는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에 나름 잘 적응해서 문화영역의 각 분야에서 변화의 흐름을 잘 담아내고 있다.

글로컬리제이션, 불교와 적용

K-문화의 전성시대에 동아시아 문화의 보고를 담고 있는 불교 문화는 다양한 원천소스를 지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상당히 많다. 불교 문화를 세계적인 보편의 문화로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 더 가까이 다가온 것 같다. 세방화(世方化, glocalization)의 의미가 불교문화의 활용에 적용될 수 있다면 세계문화계에서 불교문화의 가치는 더욱 빛날 것이다.

다른 어떤 세대보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에 잘 적응하여 이색적인 경험 추구에 활발한 세대가 MZ세대이다. 이들이 불교문화를 향유하고 담는 방법은 아날로그 시대의 패턴과 사뭇 다르다. 이 세대가 열광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에서 불교가 성공적으로 녹아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방안에 대해서 다섯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원형 기반한 창의적 콘텐츠를

첫째, 불교문화 원형에 기반한 지속적이고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이다.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한 콘텐츠 개발이 지속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련되고 최신 트렌드를 주도할 만한 창작물은 여전히 부족하다. 감동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다. 따라서 MZ세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 새로운 콘텐츠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원석을 가지고 있어도 아름다운 보석이 나올 수 없다.

기성세대의 눈높이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새로운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포교가 어려울 것이다. 무한 확장성을 지닌 스토리텔링의 특성을 감안하면 창의적 창작물이 가져올 파급효과는 예상 밖으로 클 수 있다. '영산재'를 모티브로 제작된 '49일의 약속'은 웹툰을 통한 창의적 콘텐츠개발 사례이다. 외연이 넓어진 굿즈의 활용에 부합하는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하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활용을 위한 콘텐츠 개발이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다.

엔터테인먼트 기술 · 콘텐츠 관심을

둘째, 앞서가는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에서 발생하는 기술과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이고 빠른 적응이 필요하다. 2021년 11월 미국 뉴욕 타임스 기사에 "한국은 어떻게 문화콘텐츠 강국이 됐나"의 내용이 나왔다. 여기서 'BTS에서 오징어게임'까지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 배경과 한국인 특유의 감성 도입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MZ세대는 모바일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으며 SNS 기반의 유통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소비 주체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대의 성향에 맞는 콘텐츠의 변용이 필요하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온라인 전시관은 좋은 사례이다. 주제전, 기획전의 영상미가 돋보이고, 전통불교문화상품전의 의 · 식 · 주 사례는 더욱 눈에 뜨였다. 삶의 풍경과 구도를 바꾸는 틀로 등장한 엔터테인먼트의 적극적인 활용은 '붓디테인먼트(Buddhitainment)'라는 새로운 가치를 치솟게 할 가능성이 있다.

'원소스 멀티유즈' 기본인 시대
창의적 불교문화콘텐츠 요구돼

먹거리, 의류 등에 '불교' 접목
新 IT기술 적극적 도입 · 활용
불교적 엔터테인먼트도 관심을

시대 부합 기술 활용 나서야

셋째, 메타버스(Metaverse)와 인공지능(AI)가 일상화되는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기술 활용이다.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라이프로깅(Lifelogging), 거울세계(Mirror Worlds)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미디어다.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활용한 불교문화콘텐츠 개발을 넘어서서 메타버스 환경에 걸맞는 최적의 콘텐츠개발이 필요하다.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불교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한다. 기존에 있는 기술을 활용하는데 머물기보다는 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SK텔레콤 월드IT쇼 2022전시관에서 'Borderless World, Hyper Experience'를 주제로 진행된 볼거리와 체험공간은 메타버스(Metaverse)와 인공지능(AI)의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4D 메타버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지금 구현되고 있는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의 영향을 실감하게 해준 사례이다.

불교 가치 담긴 대중 콘텐츠 양산을

넷째, 아무리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부합하는 불교 전통문화콘텐츠의 개발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불교와 관련된 많은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좋은 창작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수천 년 저장된 불교문화의 보고가 불교 전통문화콘텐츠의 개발이라는 가교를 통해서 재생산된다면 MZ세대는 물론 그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예술은 '무형'의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장치이다."라는 말이 있다. 사극의 경우 역사에 대한 변형을 통해서 대중에게 다가간다. 역사적인 진실에만 얽매인 작품이 대중의 흥미를 도출하기 힘든 것처럼, 불교 문화원형에 대한 적절한 변형이 가져올 수 있는 흥미는 나름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스토리텔링이 바로 변형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교 설화나 불교 전설 등에 담긴 다양한 스토리의 변형을 통한 새로운 콘텐츠에 시대정신을 담으면서 구성된 창작물은 불교정신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또한, 불교 정신과 가치가 담긴 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대중성으로의 변형이다. MBSR(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의 경우는 불교적인 것을 오히려 보편적인 것으로 변형한 것 중의 하나이다. 또한, 불교적인 마인드로 접근한 창작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작품에 불교적 가치를 담고 있는 창작물을 발견해서 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불교문화라고 단정할 수 없어도 불교적으로 해석 가능한 다양한 문화를 불교문화로 수렴해서 활용하는 것이다. 수동적인 접근이 아니라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새로운 트렌드 창작 필요해

다섯째, 입을 거리, 먹거리, 사찰공간, 명상 등의 활용을 통한 새로운 트렌드 창작이 필요하다. 입을 거리는 이미 불교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창작물이 다양하게 나와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MZ세대에게 큰 호응과 관심을 끌 수 있는 디자인은 아직 출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먹거리는 다도(茶道)와 동반된 음식문화 개발이 필요하다. 곡류와 채소로 이뤄진 식단은 대만의 불광대학교에서 2013년 '건강 · 채식산업학과'를 신설하면서 진행된 사례가 있다. 이 학과에서 개발한 메뉴는 불광산사 산하채식 식당인 적수방(滴水坊)의 운영과 연구 ·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서울국제불교박람회 붓다스테이지 코너에서 사찰음식 레시피의 유튜브 탑재는 눈에 뜨인다. 전통적인 다도(茶道) 문화의 전승을 기반으로 하면서 신세대의 기호에 맞는 먹거리 개발은 '비건'에 관심이 많은 MZ세대에게 호응을 얻을 것이다.

사찰공간이 불교문화의 정체성을 표상하는 물리적 실체이므로 전통적인 공간을 유지하면서 도심 속의 융 · 복합적 공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신축 또는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불교미술은 종합예술이다. 이러한 예술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면 더욱 활용가치가 높을 것이다. 이 공간이 아날로그적인 것과 최첨단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것으로 다도와 명상, 포교를 위한 교육, 힐링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되기를 바란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언택트(Untact) 시대를 넘어 온택트(Ontact) 시대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것을 충족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문화가 불교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동아시아 문화의 약 70%가 불교문화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양하고 풍부한 원천 소스를 지닌 불교가 이미 문화를 입고 왔기에 새 시대의 문화 트렌드가 다시 불교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장재진 교수는 동국대 대학원에서 인도철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한국해양대에서 국제지역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명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인도학회 · 한국멀티미디어학회 부회장, 대통령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 부산시 문화예술 · 문화관광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불기2566년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부처님오신날

경남고성군불교사암연합회

직전회장 **이암**(문수암)
회　　장 **수운**(약수암)
부 회 장 **원각**(청련암)
감사 **현제**(장위사) **선현**(운흥사) 총무 **진각**(청수암)



대한불교조계종

민족의 빛나는 문화유산을 이어가는 성철스님 기념관

산청 겁외사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불국정토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주지 **원택스님**
총무 **일학스님**

겁외사
사부대중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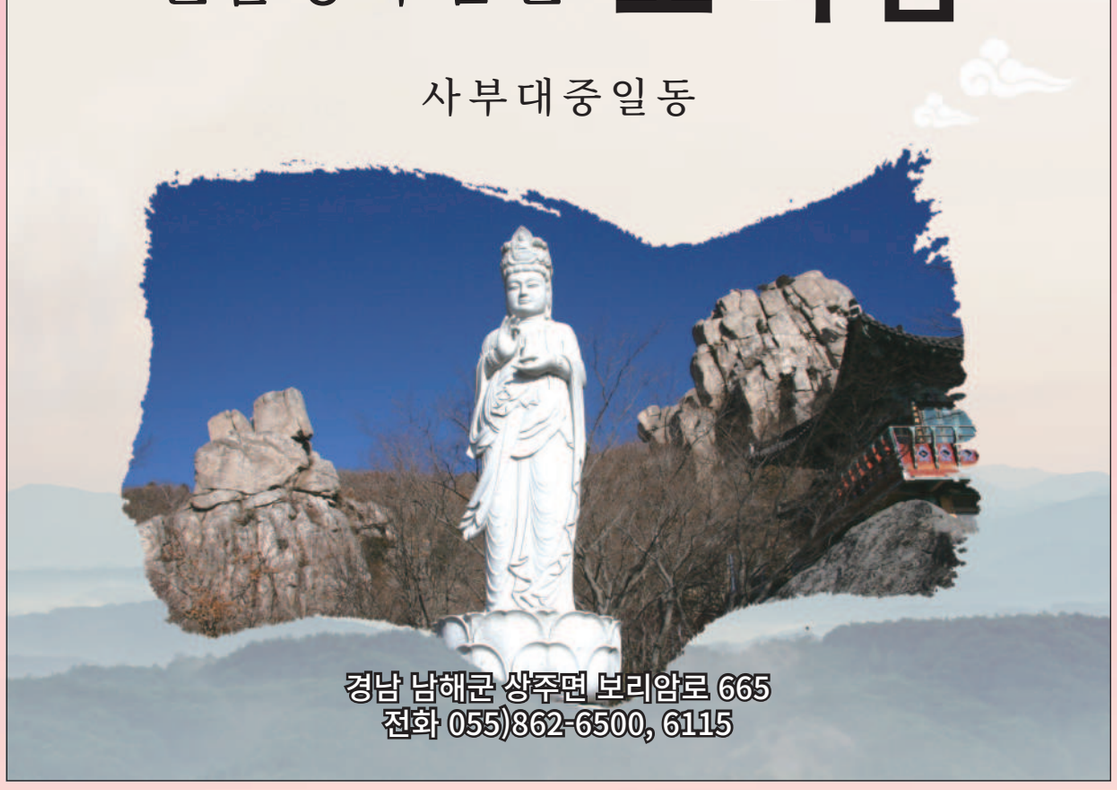
경남 산청군 단성면 성철로125
전화 055)973-1615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성지 금산 보리암

사부대중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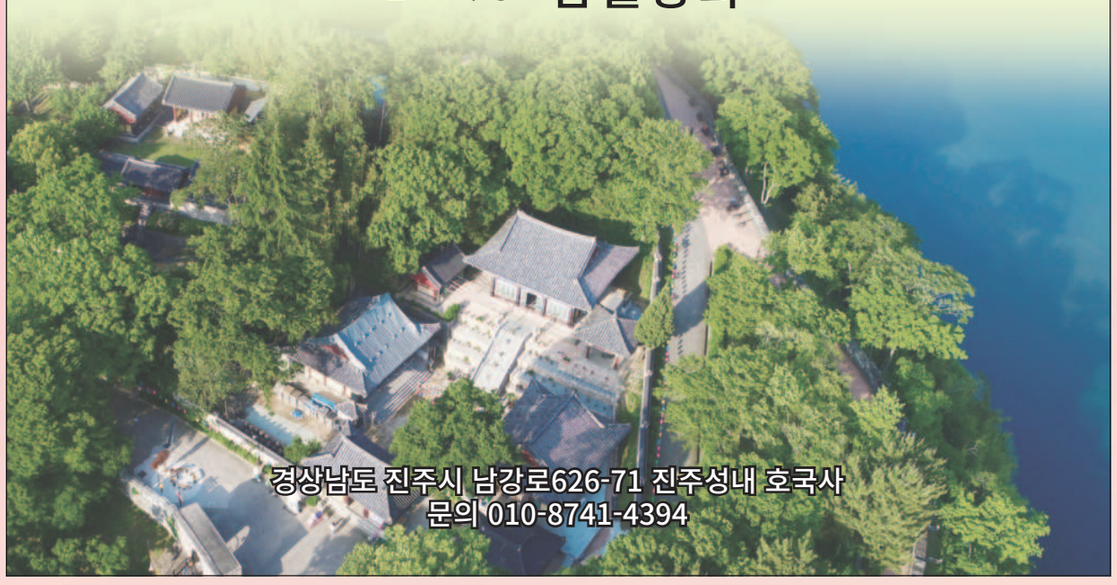


경남 남해군 상주면 보리암로 665
전화 055)862-6500, 6115

"금강경 기도 정진 도량"

진주 호국사

주　　지 **적민스님**
총　　무 **적음스님**
신도회장 **김월광화**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626-71 진주성내 호국사
문의 010-8741-4394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주지 **우현 광우**

사부대중일동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몽고정길46
전화 055-246-8393
영축불교대학 055-242-8393 / 대자유치원 055-245-0108

마음으로 함께하는 **참다운 기도도량**

화개산 반야사

주지 **종오 혜명**

신도회일동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로 134-354
전화 055)231-0994, 221-1072 팩스 055)242-1072

불기2566년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부처님오신날



방 장 지 유 대종사
주 지 경 선
신도회장 박수관

범어사 사부대중 합장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www.beomeo.kr 종무소 (051)508-3122

개교 40주년

부산불교교육대학

승려 연수 교육 [비대면 ZOOM]

- 과 목 : 뇌과학적 사실로 이해하는 붓다의 깨달음과 마음의 구조
- 일 정 : 2022년 8월 22일(월)~26일(금) 5일간 13:30~16:30
- 교 수 : 동국의대 해부학 교수 문일수 (서울대학원 · 캐나다UNB박사)
- 교육비 : 10만원
- 특 징 : 2600년전 붓다의 깨달음을 현대의학으로 규명하는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 제공

지안스님의 법화경 [유튜브 병행]

- 개 강 : 2022년 9월 8일(목)
- 일 정 : 6개월간 매주 목요일 오후7시~9시
- 대 상 : 일반 불자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 범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신동아오피스텔 5층(서면 롯데백화점 맞은편) Tel. 051-711-0700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천년고찰

대한불교 조계종 불광산 장안사

주 지 무 관
신도회장 여 원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482 전화 051)727-2393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화엄사 말사

해수관음 기도도량

부산 해동 용 궁 사

신도회장 권보성

사부대중합장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86(기장읍, 해동용궁사) 전화 051)-722-7744 www.yongkungsa.or.kr

---

대한불교조계종

쇠미산 금용암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연제구 성지곡로111(거제동) 전화 : 051)501-6300

재 단 법 인
부산동명불원 東明佛院

이 사 장 김경조
상임이사 박희채

이 사 김성규 이인수 안수근 강석진 이재동 조성두
정종원 이희태 홍철우 이욱태 김기환
감 사 황주환 권성열
신 도 회 장 성재곤
부 회 장 이원옥 이상수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 57(용당동) www.btbf.kr
전화 051)626-4337, 624-7667 팩스 051)626-4330

불도 부산, 3년 만에 모여 연등축제

제등행렬 등 부산연등축제 개최
4월 22~30일, 송상현 광장 등서

'다시 희망~일상으로' 기원하며
희망과 치유 상징하는 등 밝혀
전통문화체험, 소원등 달기 등


부산불교연합회가 4월 22일부터 4월 30일 부산 송상현 광장 및 부산시민공원 일대 에서 '부산연등축제'를 개최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가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부산 송상현 광장 및 부산시민공원 일대에서 '부산연등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부산연등축제는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3년 만에 정식으로 열렸으며 사부대중이 함께 모여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를 기원하며 희망과 치유를 상징하는 등을 밝혔다.

4월 22일 점등법회 및 연등회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 수석부회장 영제 스님, 상임부회장 진광정사, 마나 스님을 비롯해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신상해 부산시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백종헌 국회의원, 이헌승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행사는 불교TV 염불공양회의 육법공양으로 시작해 부산영산재보존회의 영산재가 이어졌다. 이어 사부대중은 삼귀의 및 반야심경으로 마음을 모았으며 상임부회장 진광정사의 고불문에 맞춰 함께 기도했다.

고불문에서 진광정사는 "지극한 정성으로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혀 부처님께 간절히 바라오니 일상을 회복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루 빨리 고통을 여의고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기도했다.

이어 상임부회장 마나 스님의 축원이 진행됐으며 부산불교대상 수상 및 부산불교합창단 연합 감사패 및 임명패 수여가 이어졌다. 내빈들의 봉행사 및 봉축사, 축사가 진행됐으며 선재동자 문화전승단 어린이들의 전통 호기놀이 후 점등으로 마무리됐다.

회장 경선 스님은 점등사를 통해 "우리는 지난 몇 해간 '코로나'라는 역경의 어둠 속에 갇혀있었다. 비록 코로나 종식을 이루어내지는 못했지만, 희망의 문턱에 다다르고 있다"며 "오늘 부산 시내를 밝힐 장엄한 빛의 향연이 부산 시민들에게 희망으로 나아가는 반가운 소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멈추었던 제등행렬을 다시 시작한다. 멈추었던 삶이 전진하듯, 부산 시내를 가로지를 빛의 걸음이 회복으로 나아가는 치유의 행진이 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연등행렬은 4월 30일 부산시민공원에서 출발해 하마정교차로와 양정교차로를 지나 송상현 광장에서 회향했다.

한편, 부산불교연합회는 4월 22일부터 5월 8일까지 송상현 광장에서 부산연등문화제를 개최한다. 부산연등문화제 기간에 송상현 광장에서는 전통문화체험 한마당, 소원등 달기, 무차만발공양, 무료사진 체험 등이 전개된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부산불교대상' 시상식

양재생 · 정창교 회장 공동 수상
4월 22일, 부산연등축제서 시상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가 4월 22일 부산 송상현 광장에 설치된 부산연등축제 특설무대에서 '제4회 부산불교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회장 박수관)가 4월 22일 부산 송상현 광장에 설치된 부산연등축제 특설무대에서 '제4회 부산불교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상은 양재생 ㈜은산해운항공 회장과 정창교 ㈜국제식품 회장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사단법인 미소원이 받았으며 우수상은 광명사 관음회, 사단법인 동련, 부산개인택시 반야회가 수상했다. 이번 해 특별공로상은 이현주 범어사성보박물관 부관장이 수상했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는 대상 수상자에게 상금 1000만 원과 상패를 전달했으며, 최우수상에게는 상금 500만 원과 상패, 우수상에게 상금 각 300만 원과 상패, 특별공로상에게는 상금 500만 원을 수여했다.

대상 수상자 양재생 은산해운항공 회장은 불교 나눔 철학을 바탕으로 40년 동안 꾸준한 기부 및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부산불교총연합회신도회 수석부회장, 대한불교조계종 흥법사 신도회장으로 활동하며 불교발전은 물론 불교가 사회에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봉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공동 대상 수상자 정창교 국제식품회장은 삼광사 나눔 재단 초대 공동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 2019년 부산불교문화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등 불교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통해 사랑의 쌀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매년 5월 '어르신과 함께하는 따뜻한 밥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매년 연말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한우 곰거리를 15년 이상 기부하고 있으며, 지역 인구의 역외 유출과 출산율 저하로 부산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상황에서 저출산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세자녀출산지원재단 출산축하금을 기탁했다.

코로나19로 코호트 격리된 요양병원 환자와 직원을 위해 갈비탕을 전달하는 등 사회 환원과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공헌점이 높이 평가됐다.

부산불교대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범적으로 실천함과 동시에 지역과 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를 실천하는 불자를 발굴하는 데 목적을 뒀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가 공동주최하고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가 주관한다.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회장은 "오늘 수상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범적으로 실천함과 동시에 지역과 사회를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이어왔다"며 "불교 발전에 기여한 공을 높이 평가하며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경남 지역, 봉축 점등식 봉행

해인사, 기장군사암연 등



부산과 경남 지역 곳곳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봉축 점등식이 봉행됐다. 부산 기장군사암연합회(회장 정오)가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4월 23일 장안사 일대에서 기장군사암연합회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다.

점등식에는 기장군사암연합회장 정오 스님, 장안사 주지 무관 스님, 해동용궁사 주지 연규 스님, 해광사 주지 태공 스님, 청량사 주지 보혜 스님 등 연합회 소속 스님들과 성환필 기장군사암연합회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밀양불교사암연합회(회장 진각)는 4월 22일 밀양역 광장에서 '불기2566년 봉축등'을 밝히고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했다.

밀양불교사암연합회는 '진리의 등, 광명의 등, 생명의 등'을 밝히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회복하기를 기원했다. 점등식에는 밀양불교사암연합회장 진각 스님, 삼양사 지설혜 스님, 약수암 환명 스님, 용궁사주지 정무 스님, 수덕사 성정 스님 등을 비롯한 소속 회원 스님들과 박일호 밀양시장, 황걸연 밀양시의회의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는 4월 22일 합천군 야로면 월광로타리에서 불기2566년 봉축탑 점등식을 개최했다. 〈사진〉

부산남구불교연합회(회장 지원)는 4월 22일 남부경찰서에서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 성낙두 경남지사장

통도사 창원포교당 안국사, 주지 취임식

4월 30일, 성오 스님 취임



통도사 창원포교당 안국사(주지 성오 · 사진)가 4월 30일 대웅전에서 주지 취임 고불식 및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안국사 주지 성오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허성무 창원시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안국사가 창원 최고의 명품 포교당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불사가 원만 성취하여 창원 도심을 대표하는 명품 문화법당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지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임 주지로 취임한 성오 스님은 "불사를 위해 함께 노력 봉사해준 모든 사부대중에게 감사하다"며 "함께 화합하고 지역 사찰과 상생 발전해 신도들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안국사는 육군 제35사단의 호국법당이었다. 2015년 군부대 이전에 따라 안국사 존치위원회와 창원시 간의 협의로 기존법당 인근에 종교용지를 확보해 통도사 창원포교당으로 등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대불련부산동문회, 14·15대 회장 이취임식

4월 28일 소림사 법당서



대불련부산동문회(회장 전정순)가 4월 28일 부산 소림사 법당에서 제14 · 15대 회장 이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전정순 15대 신임회장〈사진〉과 최은희 14대 회장 등 대불련부산동문회 소속 회원들이 동참했으며, 조석주 대불련 중앙회장, 유선재 서울지부장, 윤소연 대불련 중앙집행위원을 비롯한 부산 대불련 대표 이동규(부산대), 최문봉(동아대), 김동영, 양자원, 변제환(동명대)이 참석했다.

전정순 신임 회장은 "어깨가 많이 무겁고 책임감에 마음이 천근이나 되는 것 같다. 저에게 주어진 것이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처럼 여러 선후배님들 믿고 시작해본다"며 "혼자서는 잘할 수 없지만, 함께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회장 박 수 관

수석부회장 양재생 정창교

■부회장
국제교류부회장 최금식
사회문화부회장 박수곤
불교경제사회부회장 조용국
대외협력부회장 이수태
정치교류부회장 신상해
사찰문화부회장 최삼섭
섭외부회장 최영호
홍보부회장 이경신
법률부회장 박명진
사회교육부회장 정종원
사회공헌부회장 박형연
재무부회장 김원용
총무부회장 박종문
기획부회장 이희태
경조부회장 신기열
행정교육부회장 최대경
행정법률부회장 박도영

■무임소부회장
김진수 이오상 윤종경 김영주 김홍종 김선조 문 호
박효섭 최태식 이종우 유영남 강경희 장호익 김정화
김영도 공정근 최상곤 손정원 류길자 백영선 김옥희

■고 문
김재진 박원양 장복만 조효식 박정오 전광수 설동근 이윤희 김수현 하정선

■자문위원
정홍섭 이장호 박홍대 전호환 박태학 고영립 박한일

■집행부
사무총장 장병주
기획이사 김기호 김민성 노현주
경조이사 오세룡
교육이사 이륭우 김윤희
국제교류이사 이윤희
문화이사 이영숙 김민성
법률이사 성원석 홍재석
사찰협력이사 강갑균
사회공헌이사 정진우 강미영
섭외이사 이만수
재무이사 이근욱
총무이사 배도정 이현수
친목이사 문종현
홍보이사 손정현
집전 류상영

■이 사
강근순 강길주 류강렬
성재곤 심인택 안천일
유지호 이동진 이명학
송재린 정순천 하승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날
경축
5월 10일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불기2566년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부처님오신날

주경야선 관음수행도량

대한불교 천태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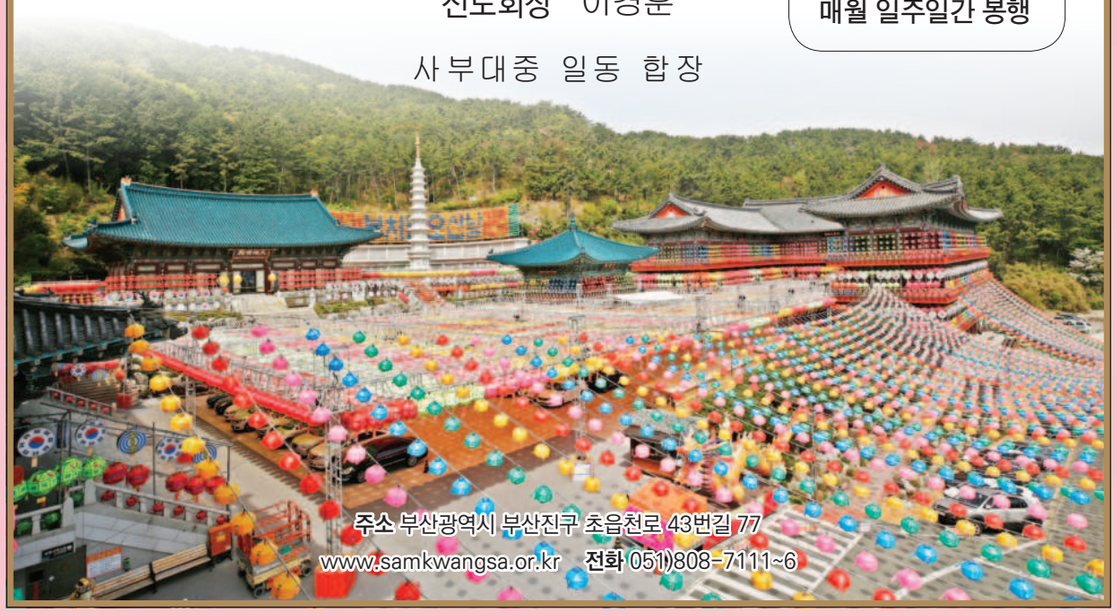
삼광사

주 지 영 제
교무 덕 중 재무 성 화
신도회장 이경훈

사부대중 일동 합장

불기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전야점등식
5월 7일 오후 7시
봉축법요식
5월 8일 오전 11시

정기법회
매월 1일 · 2일
오전 10시 30분
금강경전법회
매월 세 번째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철야기도
매월 일주일간 봉행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천로 43번길 77
www.samkwangsa.or.kr 전화 051)808-7111~6

홍법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복지화!
세계화를 위한 도약의 첫 걸음은
대한불교조계종 홍법사와 함께

심산 深山 주지
양재생 신도회장
이영숙 수석부회장
사부대중 일동
신도회 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로33번길 202
전화 : 051-508-0345
팩스 : 051-508-6561
E-mail : 5080345@hanmail.net
www.busanbuddhism.net

대한불교 조계종 弘法寺

國際佛光會 韓國釜山協會 (사)한나래문화재단 (사)한나래교육재단 한나래평생교육원
한나래지역아동센터 HANNARAE COMMUNITY CHILD CENTER
smile! 금정구자원봉사센터 Geumjeong Volunteer Center
국민행복실천 운동본부 행복드림센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문화가 시작되는 곳
복합문화공간, 피아크

PARK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195번길 180 051-404-9200

한마음선원은
불법의 궁극적 목표인 한마음을 깨닫게 하는 도량으로서
모든 중생이 본래로부터 지니고 있는 불성을 밝혀
성불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부설 한마음유치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전화 051)403-7077
전화 051)403-6701 www.한마음유치원.kr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법 합창단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법합창단은
한마음의 도리를 이르신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선법가로
전하는 음성 포교단입니다.
음성공양을 통하여 스스로를 닦고 밝히며
나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생활 선법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합창단 단장 010-9599-2095 거사합창단 단장 010-3860-4258



KUmuda
문화를 넘어 행복을 만들어가는 곳

'당신의 삶에 작은 쉼표 하나'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사단법인 쿠무다가 함께합니다.

KUmuda Healing Village
지하 2층, 지상 8층 850평 규모

옥상 SKY BUDDHIST SANCTUARY 하늘법당
8F Res.Maison KUmuda 관광숙박시설 레스메종
7F Res.Maison KUmuda 관광숙박시설 레스메종
6F Res.Maison KUmuda 관광숙박시설 레스메종
5F EDUCATION CENTER/FRONT DESK/MEDITATION & TEA
4F LABXXIV [랩24] by KUmuda
3F Eat:多 [잇:다]
2F cafe KUmuda 갤러리
1F 로 비
B1 문화예술 쿠무다 콘서트홀
B2 사무국/베이커리 교육공간

부산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41
Tel. 051-702-1300



‘불교다맥 계승’ 선차문화대축전 열리다

4월22일 쌍계사 일대서 개최
제 20회 다맥 전수식도 봉행

역대 불교 다맥 계승 의미
불교 안팎 단체 다수 참여
108헌다 등 僧俗헌다 눈길

성낙두 경남지사장



쌍계총림 하동 쌍계사와 고산문화재단은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쌍계사 괘불전 및 쌍계사 일원에서 ‘진감 초의 만허선사 선차문화대축전’ 및 제20회 다맥 전수식을 개최했다.

쌍계총림 하동 쌍계사(주지 영담)와 고산문화재단은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하동 쌍계사 괘불전 및 쌍계사 일원에서 ‘진감 초의 만허선사 선차문화대축전’ 및 제20회 다맥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을 비롯해 쌍계사 유나 종성 스님(옥천사 주지), 보리암 주지 성조 스님, 쌍계사 강원 대각 스님, 쌍계총림 본·말사 회장 이암 스님, 쌍계사 사중 스님, 수원 봉령사 회주 스님, 각 지역 선다회 회원 및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첫날 행사는 입재식,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임연득 한국선다회장 인사말, 쌍계사 본·말사 회장 이암 스님 축사, 한국선다회 이사장 영담 스님 격려사, 육법공양 시연(쌍계사 선다회 백수자 허혜정, 혜원정사 선다회 김경희 회장, 석왕사 선다회, 부산선향다례, 울산다도예절법회, 금당차 문화회, 봉녕사 차문화연구원, 강릉 용연사 선다회), 108헌다례(금당), 두리차회(차인회 일동), 신라다례시현(대구 종정차문화회), 조선정통다례시현(혜원정사선다회), 진감, 초의, 만허, 고산 다맥 전수식, 회향순으로 진행됐다.

임연득 한국선다회 회장은 “차의 역사가 시작된 시배지가 있는 하동 쌍계사에서 차맥을 이어간다는 것은 당연하다”며 “고산 큰스님께서는 불자라면 누구나 차도를 배워 우리 차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야한다고 하셨다. 큰스님 열반 후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께서 한국선차회 이사장으로 추대 됐다. 한국선차회 차맥이 수만년 잘 이어지도록 여러 차인들께서 큰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이암 스님은 축사로 ‘봄이 오니 만물이 약동한다. 봄이 오니 만물이 봄기운을 피할 수 없구나’는 고산 스님 열반송과 법문을 전하며, “지리산이 왕성한 생명의 에너지를 느끼는 계절에 스님들과 다인들의 축전에 감사드린다. 선은 정신적인 체험이라면 차는 육감이 동원된 체험이라 할 수 있다. 쌍계사는 차와 불교가 이어지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지키는 자랑스러운 종가 사찰”이라고 말했다.

한국선다회 이사장 영담 스님은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해 못하다가 진감 초의 만허 선사 선차문화대축전을 시작하게 되었다. 괘불도 10년 만에 설치해 축전에 모시게 됐다”며 “스님과 다인들이 함께 108헌다를 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쌍계사 선차문화대축전은 쌍계사 차나무의 시배지 역사를 기리고, 다맥 계승 발전을 위해 열리고 있다.

2022울산 태화강 연등축제 법요식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개최, 23일 법요식



울산불교종단연합회는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태화강 둔치 일원에서 2022 울산 태화강 연등축제를 개최했다.

4월 23일 진행된 법요식에는 울산불교종단연합회회장(산옹, 백양사 주지),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정관암 대활 스님, 정지심인당 선덕 정사, 벽선암 혜진 스님, 현광사 동광 스님, 정토사 덕진 스님, 해남사 혜원 스님, 성불사 혜안 스님, 목련암 향운 스님, 대연사 대연 스님, 여여선원 효암 스님, 한마음선원 혜안 스님, 지역스님, 이병호 신도회장, 백양사 다회 및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 삼귀의례, 내빈소개, 발원문(봉행부위원장 대활 스님), 봉행사(봉행위원장 선덕정사), 봉축사(봉축위원장 산옹스님), 격려사(이병호 울산신도회장), 축사, 청법가, 법어(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봉축가(봉축연합합창단), 사홍서원, 폐회로 진행됐다. 식전행사에서는 울산지역문화 예술인 공연을 시작으로 부처님 이운행렬, 108헌다례, 법요식, 초청가수 시민축하공연 및 지역문화 공감콘서트가 진행됐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저 태화강 물이 모든 생을 품어 큰 바다에 도달하듯 장엄한 봉축의 향연이 펼쳐져 봉축의 기쁨과 함께 서로에게 전해지게 하자”고 법문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이리불교대학, 2022년 입학 및 수계법회



이리불교대학(학장 덕림, 관음사 주지)은 4월 24일 익산 관음사에서 2022년 32기 불교대학 입학식 및 수계법회를 봉행됐다. 이날 입학식에는 학장 덕림 스님, 송동기 부학장, 이택회 익산신도연합회 회장,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오창록 동문회장, 최형수 마한거사림회장 등 이리불교대학 관계자들과 익산 가릉빈가 합창단 등 신행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 달여간 조계종 신도기본교육과정을 수료한 신입생들은 계사 덕림 스님으로부터 신도5계를 받았다. 학장 덕림 스님은 “처음 발심한 때의 신심을 잃지 않고 불교대학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고 수행과 전법의 원력을 가지고 활동하는 모범적인 불자가 되어 달라”고 말했다. 한편, 1982년 개원한 이리불교대학은 그동안 1200여 졸업생을 배출했다. 올해는 코로나19사태 속 어려움을 극복하고 23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고 입학식을 가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창 선운사 봉축탑 점등법회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가 고창지역에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대형 봉축탑과 가로연등을 점등했다. 고창읍 선운교육문화회관 앞 광장에 설치된 높이 10m규모의 고창 부처님오신날 봉축탑은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라는 올 봉축주제와 함께 부처님 오신 날까지 불 밝히게 된다.

4월 22일 선운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점등법회에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내장사 주지 대원 스님,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 등 본말사 스님들과 지역 스님들, 유기상 고창군수, 최인기 군의회의장, 윤준병 국회의원 등 지역 기관장들과 선운사 합창단 등 불자 300여명이 동참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김해 동림선원 개원 4주년 기념법회

4월 23일 대법당에서…
장학금 전달식도 진행



김해 동림선원이 개원 4주년을 맞아 4월 23일 3층 대법당에서 법회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김해 동림선원이 개원 4주년을 맞아 4월 23일 3층 대법당에서 개원기념법회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안 스님, 주지 신공 스님, 김수원 신도회장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헌공불공(동림선다회), 개원법회, 육법공양(선다회), 개회사, 삼귀의례, 찬불가(동림불모합창단), 내빈소개, 연혁보고(김진영 거사), 주지스님 인사말, 청법가, 꽃다발 공양(김수원 신도회장), 입정, 법문(지안 스님), 은암장학금전달식, 음성공양, 공지사항, 사홍서원 순으로 회향됐다.

동림선원 주지 신공 스님은 “4주년을 맞아 기도와 교육으로 한 단계 성숙되도록 하겠다. 좀 더 장학기금을 모아 많은 이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스님은 이어 “‘문화, 교육, 수행’ 3가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서 한국불교 미래를 밝히는 변화를 이끌 것”이라며 “행복과 이익을 줄 수 있는 도량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통도사 반야암 회주 지안 스님은 이날 법문으로 “사찰에서의 배움은 기도를 하면서 내가 나를 가르치는 것”이라며 “성장과 변화 속에서 남으로부터 배운 지식은 많지만 가장 기본이다. 마음속에 진정한 뜻을 모아서 자기 정성을 높여가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은암장학금으로 10명에게 100만원씩 정륜 스님 외 3명, 성균관대 김기주 학생 외 5명 등 총 10명에게 1천만 원이 전달됐다.

은암문화재단은 회원들의 후원금과 동림선원 내 북카페 수카파의 수익금을 더해 매년 장학금 전달할 예정이며 지역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동림선원은 장유 불모산 자락인 현 위치에 2018년 5월 13일 문을 열었다. 개원 전 4월 30일부터 1차 천일기도에 입재했으며, 2021년 1월 2차 천일기도를 진행하여 올 6월 6일 천일기도 600일 회향을 앞두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낙산사와 무산복지재단, 자비나눔 행사

양양군 6개읍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380명
상품권과 쌀 8kg 등 5천만원 상당 물품 전달



양양 낙산사와 산하 복지재단인 무산복지재단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마련한 자비나눔 행사가 4월 30일 양양군 양양읍 무산사 앞 광장에서 열렸다.

낙산사 주지 금곡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저의 은사이신 설악 무산 대종사께서는 생전에 항상 양양군민 한 분 마다 모두를 부처님이라 받들고 보살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오늘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우리 이웃의 부처님들에게 자비나눔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행복하고 큰 보람이 있다”고 즐거움을 피력했다. 이날 발대식 후 금곡스님과 자원봉사자 120명은 양양지역 6개 읍면을 돌며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홀로 어르신들,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 380명에게 상품권 10만원과 쌀 8kg 등 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김주일 기자

불기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사)대한불교법화종·대한불교법화종
종정 청암도선 대종사
원로원
(원로의원 일동)
총무원
총무원장 도월 관효
(실·부장·국장 임원 일동)
중앙종의회
의장 서안
(중앙종회 의원 일동)
전국교구종무원장
경북교구종무원장 서리 도광
충북교구종무원장 대행 도수
부산교구종무원장 상백
경주교구종무원장 혜문
강원교구종무원장 서리 승일
마산교구종무원장 대행 현진
창녕교구종무원장 법상
전라교구종무원장 복규
전국 사암 주지 및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법화종총무원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392번길 17(성남동) 전화 02)762-2678 팩스 042)627-50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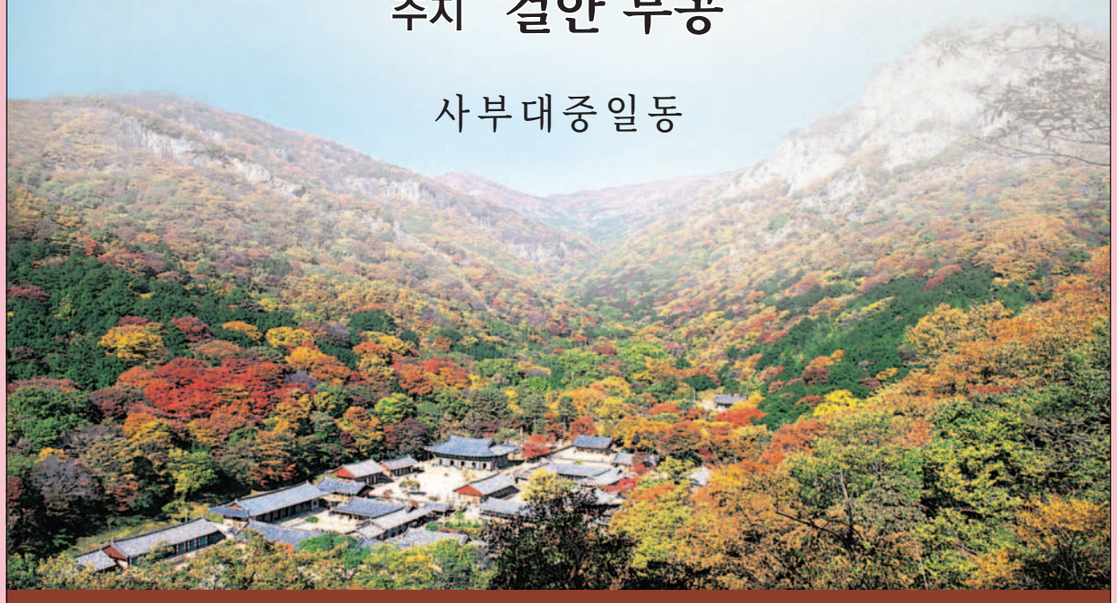
불기2566년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참사람 수행도량

白巖山 白羊寺

주지 걸안 무공

사부대중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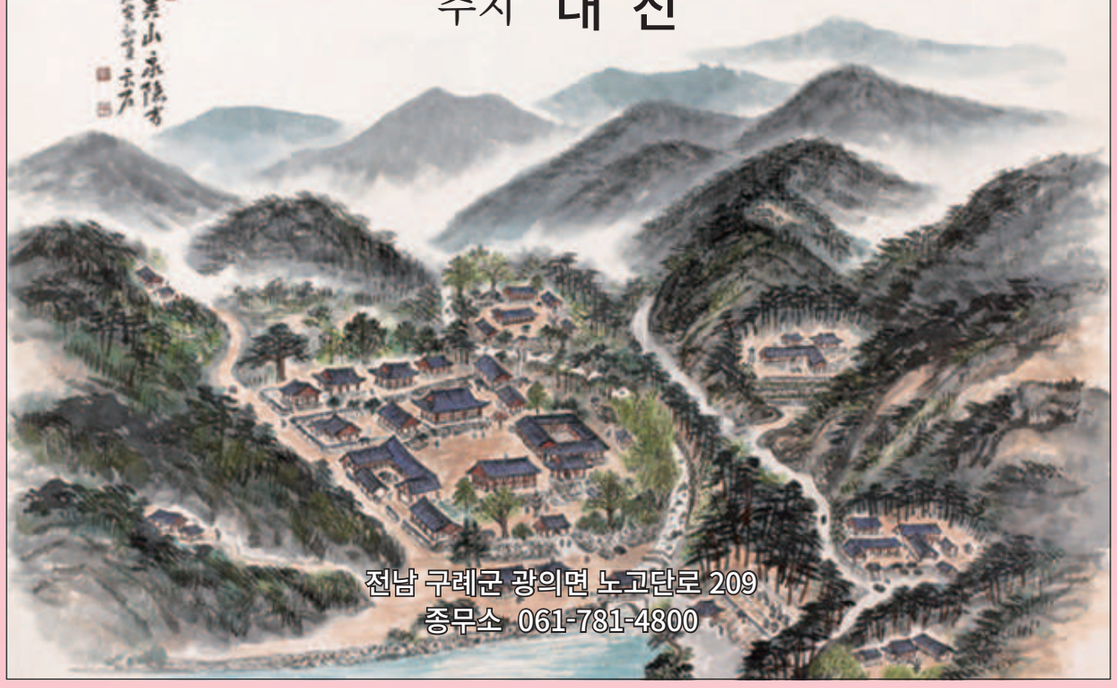


주소 :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 http://baekyangsa.templestay.com/
전화 061)392-7502 기도접수처 061)392-0100 팩스 061)392-2081

대한불교조계종

지리산 천은사

주지 대 진



전남 구례군 광의면 노고단로 209
종무소 061-781-4800

대한불교조계종 화엄사

빛고을포교원

주지 연 성

사부대중일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봉로 113번길 11
전화 062)961-1080

한국불교태고종 광주·전남교구

승 정 원
승 정 금 용

중앙원로회
부의장 금 용
의 원 지 암
의 원 지 허
의 원 남 파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 원 일
문사분과위원 여 허
법사분과위원 풍 암
재경분과위원 지 공

지방원로회
의 장 금 명(태평사)
의 원 금 용(장원사)
의 원 원 명(학림사)
의 원 도 수(봉정사)
의 원 성 천(흥국사)
의 원 설 봉(관음사)
의 원 남 파(오봉사)
의 원 현 호(학천사)
의 원 수 진(용화사)
의 원 혜 림(동곡사)
의 원 혜 령(율곡사)
의 원 호 산(세심정사)
의 원 혜 공(수명사)
의 원 혜 광(용화정사)

종 무 원
종무원장 월 인
부 원 장 지 공
재무국장 명 휴
교무국장 정 각
규정국장 도 허
종무주임 연화심

지방종회
의 장 보 응
수석부의장 풍 암
차석부의장 승 휘 전법사
의 원 대 응
의 원 자 원
의 원 도 우
의 원 영 휴
의 원 현 응
의 원 원 일
의 원 도 안
의 원 법 성
의 원 도 광
의 원 도 원
의 원 대 안
의 원 법 진
의 원 선 주
의 원 혜 양
의 원 해 원 전법사

종무원 공찰
광주 운천사 법 진
천운사 도 안
대원사 법 용
강진 금곡사 도 허
연화사 대 안
나주 일광사 원 공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운천길 85-15
전화 062)375-1820 팩스 062)381-0944

사)대한불교 연조계종 종도모집

총무원장 지명 혜광

사서실장 현월 호계원장 범정 포교원장 정각 감찰원장 승훈 교육원장 법성
기획원장 지호 법사원장 덕행 대한불교 연조계종 대학 총장 공덕

부처님 지혜광명 시방세계 무명중생 온 누리를 두루 밝게 비추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포교와 기도 불사에 전념하시는 대중스님께 社)大韓佛敎 蓮曹溪宗에서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입종서류

①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2매
④ 사, 암 내외 사진첨부
⑤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 전법사증] 발급
⑥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세무서 고유번호등록)

社)大韓佛敎 蓮曹溪宗

총무원장 : 지명 혜광 HP : 010-7109-3111
총 본 산 : 경북 구미시 옥성면 선상동로 465-11 **전화** : 054-481-3110 **팩스** : 054-481-3123

문화관광부 등록 종단임 | 본종단 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사업, 장례문화사업, 요양원 등

(사) 한국불교선조계종

종 정 호림당 혜원
부 종 정 법륜
방 장 의석당 지 선
명예종정 법 경

장로원장 정 광
종회의장 혜 관
감사원장 보 덕
호법원장 홍 일
비구니원장 진 언
비구니부원장 무 상
총무부장 법 일
총무원장 법 성
교육원장 도 원
포교원장 법 성
비구니부원장 광 명
사서실장 벽 산

종 도 일 동

총무원 : 대구광역시 북구 작원길9 성불사
전화 053)322-0567 팩스 053)322-0567

열반은 한 맛이며 평등한 것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⑰ 무명주지

"만일 일체의 고(苦)를 알고, 일체의 집(集)을 끊고, 일체의 멸(滅)을 증득하고, 일체의 도(道)를 닦았으면, 덧없이 부서지는 세간과 덧없이 병드는 세간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그대로인 상주열반(常住涅槃)을 얻을 것이며, 보호해 줄 이가 없는 세간과 의지할 데가 없는 세간에서 보호해 줄 이가 되고 의지할 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 자체는 우열이 없기 때문에 열반을 얻고, 지혜가 평등하므로 열반을 얻고, 해탈이 평등하므로 열반을 얻고, 청정함이 평등하므로 열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열반이란 한 맛이며 평등한 맛이라 하니, 해탈의 맛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무명주지를 끊지 못하고 끝내지 못한 이는 일미평등한 밝은 해탈의 맛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명주지를 끊지 못하고 끝내지 못한 이는 갠지스강의 모래알 수보다 많은 끊어야 할 법을 끊지 못하였고 끝내지 못하였으니, 갠지스강 모래알 수보다 많은 끊어야 할 법을 끊지 못하였기 때문에 갠지스강의 모래알 수보다 많은 법과 마땅히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하였고, 마땅히 증득하여야 할 것을 증득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명주지가 쌓여서 온갖 수도하는 지위에서 끊을 번뇌와 상번뇌(上煩惱)를 일으킵니다. 마음을 닦는 위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지(止)를 닦는 위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관(觀)을 닦는 위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선(禪)을 닦는 위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정수(正受)를 닦는 위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방편(方便)을 닦는 위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지혜를 닦는 위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과위(果位)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얻음(得)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힘(力)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무외(無畏)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갠지스강의 모래알 수보다 많은 상번뇌는 여래의 보리 지혜로만 끊을 수 있는 것이니, 이 온갖 것이 모두 무명주지를 의지하여 세워진 것이며, 온갖 상번뇌가 일어나는 것도 모두 무명주지로 인한 것이며, 무명주지를 반연한 것입니다."

일체의 번뇌가 모두 무명주지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말하고 있는 대목이다. 수도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도 무명주지 때문이라는 것이다. 상번뇌(上煩惱)란 무엇을 하는 과정상에서 일어나는 번뇌라는 뜻인데 근본번뇌인 10대혹(十大惑) 곧 오둔사(五鈍使)와 오리사(五利使)가 지말번뇌로 일어나면서 강성해지는 것을 말한다. 구역에서는 수번뇌(隨煩惱)라고 말했다. 〈승만보굴〉에서는 삼계 수혹(修惑)인 사주지무명(四住地無明)에 의해 일어나는 거칠고 강성한 것을 상(上)이라 한다 하였다. 또 〈기신론〉에서는 "진여는 본래 하나지만 한량없고 끝없는 무명은 본래부터 차별되어 두텁고 엷은 것이 같지 않다. 그러므로 갠지스강 모래알 수보다 많은 상번뇌가 무명에 의하여 차별을 일으킨다."하였다.

모든 번뇌의 근원이 되는 근본무명(根本無明)에서 지말무명(枝末無明)이 파생되는데 생사의 근본 원인이 이 무명주지에 의해서 있게 된다. 무명이란 어두운 번뇌의 마음에는 지혜의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을 뜻하는 말로 쓰이면서 동시에 무지(無知)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다. 갠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 많은 번뇌의 의지처가 되는 것이 무명주지이므로 〈승만경〉에서는 이 무명주지의 힘이 가장 크다는 것을 강조하여 오직 부처님의 지혜로서만 끊을 수 있다 하였다.

성문(聲聞)들은 고(苦), 집(集), 멸(滅), 도(道), 사제(四諦)를 닦으면서 삼계의 번뇌를 끊어가는 것을 수행의 과정으로 여긴다. 그래서 번뇌를 끊는 것이 수행의 중심이 되어 아공(我空)을 증득하여 해탈을 얻는다고 한다. 이러한 수행관을 대승에서는 탈피, 번뇌가 곧 보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다. 번뇌가 보리를 장애하는 데는 아집에 의하여 일어난 번뇌가 번뇌장(煩惱障)이 되고 법집에 의하여 일어난 번뇌가 소지장(所知障)이 되는데 이 두 장애를 없애려면 아집 법집의 집착을 부수어 없애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대승에 와서는 번뇌를 끊는다는 말을 집착을 끊는다는 말로 바꾸어 말한다. 그리고 성문의 번뇌 끊은 경지를 아공(我空)만 증득했을 뿐 아직 법공(法空)을 증득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관음신행의 목표는 성불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㊵ 관세음보살 염불수행 올바른 수행법 2

불자 여러분! 관음신행은 수행자의 보살도 완성과 성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음신행의 염불수행은 단순한 신앙 행위가 아니라 성불의 과정인 것입니다.

초기불교에서는 구호(救護)나 가피 위주로 관음신행이 이루어졌지만 대승불교로 발전되면서 관음신행의 염불수행은 더욱 발전하여 성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심을 바탕으로 한 중생구제의 수승한 대승보살도 수행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관음신앙의 염불수행은 염불을 통해 자성을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중생들은 항시 마음을 외부 경계에 빼앗기기 마련입니다. 이때 염불수행을 통해 외부 경계에 빼앗긴 산란한 마음을 끊고 안으로 되돌려 가라앉혀서 진여본성과 상응하게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염불수행은 유가행의 지관수행과 함께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이 된 것입니다.

염불수행의 목적

불자 여러분! 염불수행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설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기불교의 염불수행의 목적은 현세이익과 내세에서의 정토왕생입니다. 그러나 대승불교로 오면서 염불 수행의 목적은 변화되어 자성을 깨달아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성불을 이루는 것입니다.

염불수행을 통해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을 염하면서 중생의 마음을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처럼 변화시켜서 성불에 이르게 하는 수행법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항상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을 마음에 두고 염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 바뀌고 결국에는 운명이 바뀌어 중생이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무자성(無自性) 공성(空性)이기 때문에, 선을 생각하면 선한 행동을 하게 되고, 악을 생각하면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불 수행하는 마음에는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며 존경하는 마음을 일으켜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부처님과 주파수가 맞아서 가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을 염(念)하면, 현세에서 참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익을 얻고, 내생에는 윤회하는 고통에서 빠져나와 정토에 왕생할 수 있으며, 정토에 왕생한 후 불교의 궁극적 목표인 성불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염불수행의 이익입니다.

불자 여러분! 관세음보살 염불수행을 올바르게 신행하기 위해서는 염불이 무엇인지, 염불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염불 수행을 하면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등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염불(念佛)이란 한마디로 '자각각타 각행원만' 하신 부처님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불에서의 '염(念)' 이란 의미는 '억념(憶念)', '작의(作意)' 등의 의식작용을 뜻하고 있습니다. 환언하면 마음이 향하는 객관의 대상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의식적 작용이 염(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세음보살 염불수행에서의 '염(念)' 은 '관세음보살님의 공덕과 대비심을 항상 잊지 않고 끊임없이 기억하는 의식적 작용이다' 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念)' 이란 단어 속에는 관념(觀念), 심념(心念), 사념(思念), 억념(憶念), 칭념(稱念) 등이란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⑰ 사자후에 대한 큰 경 ③

언어에는 是非心이 없다

"그 말을 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 견해를 놓아버리지 않으면, 던져지듯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싸리뿟다여, 예를 들어 계율을 갖추고, 삼매를 갖추고, 지혜를 갖춘 수행승은 지금 여기에서 궁극적인 앎을 성취한다. 그 결과에 대해 이와 같이 '그 말을 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 견해를 놓아버리지 않으면, 던져지듯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고 나는 말한다."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가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에서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버려질 수 없다. 만약 눈이라는 것이 정말로 있다면 눈이 볼 때, 그 보고 있는 것에 의식 작용이 생겨나면 안 된다. 의식 작용이 생기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이 정보를 얻어 의식에게 전달하고, 의식은 받은 정보를 분석하여 결과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얻은 결과가 참인지, 참이 아닌지를 의식조차도 알지 못한다. 눈은 전달하고 분석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기능을 다른 곳에서 처리하도록 넘기지만 다른 기관도 모르기는 마찬가지라 그 기관들 속에서 계속 돌고 도는 것이다.

지혜를 갖춘다는 것은, 이렇게 도는 것에 대한 멈춤을 가진다. 부처님께서 팔만사천법문을 말씀하신 것 같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알아야 하는 어떤 언어가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교본은 전체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하나에 대한 해석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온전한 나의 조건으로 그 원리가 나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똑같이 따라함은, 똑같이 따라 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기 위함임을 잊으면 안 된다.

언어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이 단순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 엄청난 괴로움에 휘말리게 된다. 아무리 많은 학문을 배우더라도 이 진실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 '행복하다' 는 말 속에 옳음과 옳지 않음이 있는가? '불행하다' 는 말도 똑같다. '행복하다' 는 말은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부합하게 되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을, 그것이 '옳다' 라고 잘못 인식하는 것이지 '행복하다, 불행하다' 라는 언어 속에 시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언어 속에 시비심(是非心)이 있다면 계율과 삼매와 지혜를 얻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어렵다. 그러나 언어 속에 시비심이 없는 줄 알게 되면 계행을 갖추고, 언어 속에 시비심이 없는 줄 알게 되면 삼매를 갖추고, 언어 속에 시비심이 없는 줄 알게 되면 지혜를 갖추게 된다. 그러한 갖춤이 생겨나면 언어로 탐을 내지 않고, 언어로 화를 내지 않고, 언어로 어리석음을 내지 않으니, 마음속에 대상이 생겨날 수 없고, 대상이 생겨나지 않으면 견해가 생겨날 수 없다.

마음이 지옥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나의 마음' 과 '너의 마음' 이라고 할 때, 그 때의 마음이 진짜 마음일까? 마음이 아니라 견해다. 견해 이전에는 언어에 대한 자신만의 시비심일 것이며, 언어 이전에는 나라는 상(像)일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늘 '마음, 마음' 하지만 마음이 아니라 견해에 대한 지옥을 겪는 것이 전부다.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고집하고 있는 언어와 견해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고통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버린다' 는 언어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버린다는 것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버린다는 것은 미끼이다. 미끼를 물으려고 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 이 자를 알게 되면 무엇을 버리는 줄 알지만, 자신이 미끼를 물게 되면 바늘에 의에 고통스러워진다. 진정으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미끼를 요리조리 분석하여 결론을 내려하는 그 자의 면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찰라 지간에 일어났다가 사라져, 다른 곳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빼앗기면 맛을 보았지만 정확한 맛을 모르게 되니 참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불기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사) 法불교조계종

종 정 철허 만원(봉은정사)

원로원장 설봉 성인(대덕사)

총무원장 능허 혜운(흥안사)



법불교조계종 종정 만원

종회의장 조허 혜윤(금강사)
교육원장 인륜 보현(보광사)
선 원 장 진보(법등사)
규정원장 백봉 성관(대성사)
포교원장 혜선(효암사)
문화원장 일락(중산정사)



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운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31길 5-44 전화 02)762-2459 팩스 02)742-2344

불기2566년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부처님오신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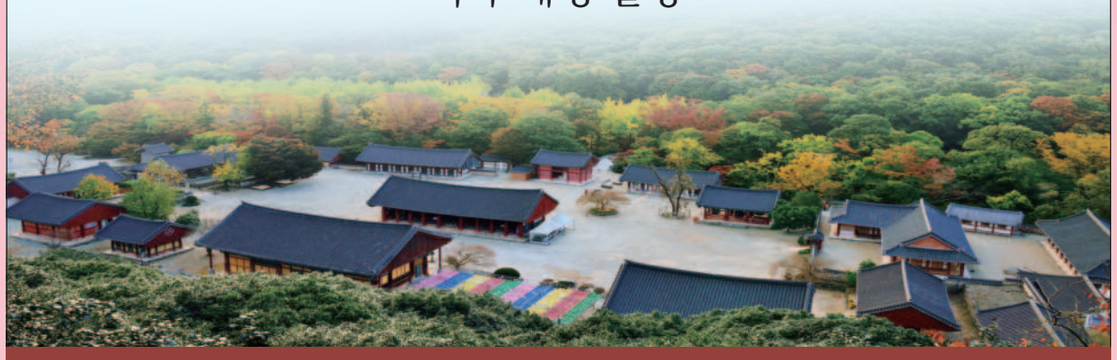
기도와 수행, 복지와 문화공동체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복지재단
- 승려노후수행마을
- 고창 푸드마켓
- 선운기초푸드뱅크
- 고창군 건강 · 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선운사 템플스테이
-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 고창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 고창군 노인복지관
- 선운사 불교체험관
- 고창군 노인복지센터
- 선운교육문화회관
  - 고창 시니어클럽
  - 갤러리 리유
  - 명상학교 '보리수 아래'
  - 공동육아나눔터
  - 고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반야스터디 카페
  - 담마 북까페

주지 **경 우**

사부대중일동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 063)561-1422 http://www.seonunsa.org

유가종찰·미륵성지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본사 모악산 금산사

조	실	태	공	월	주	총 무	화	평	사 회	우	림
회	주	금	산	도	영	기 획	광	진	포 교	제	환
주	지	월	강	일	원	교 무	석	초	호 법	덕	림
부주지		시	산	원	혜	재 무	여	찬			

17교구 사부대중 일동



전북 김제시 금산면 모악 15길 1
Tel. 063)548-4440~2 Fax. 063)548-1390
www.geumsansa.org

부설 전북불교회관 | 서원노인복지관 | 룸비니 어린이집
전주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주지 **청파 진성**스님

총	무	정원스님	전북 나누우리 봉사단장	이재현	수 암	재)갑룡장학회 상임이사	남상준	강 암
원	주	김연심화	교도소 교정 봉사단장	박성균	진실행	사)장엄 상임이사	김성규	혜 전
교	무	보문스님	소년원 어머니 회장	정해자	혜안행	사)착한벗들	주춘매	센터장
사	회	대련스님	소년원 어머니 위원장	김도은	청 운	사)전북베트남우호교류증진협의회 상임이사	박성웅	일 여
포	교	추파스님	탑밴드 봉사단장	천순희	천수행	사)진안자원봉사센터장	최주연	
홍	보	정이 손채림 전법사	사랑나눔행복을 붓다 복지관장	김경은	금강행			
전국총신도회장		윤복길 감로수	해외구호 복지단장	심용운	다 인			



전북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남로 367
대표전화 063)433-0012 www.maisantapsa.com

한국불교태고종 전북종무원

종회의장		법	전			종무원장	진	성
수석부의장		청	명			부 원 장	연	수
부 의 장		혜	일			총무국장	현	진
종회의원		법	륜	원	경	교무국장	법	성
		송	월	혜	담	재무국장	지	오
		도	홍	법	윤	문화국장	법	진
		혜	신	혜	경	사회국장	영	전
		원	만	정	수	주재기자	문선희	
		보	경	법화심				

전북종도일동

영산작법보존회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8호

회 장	영산 혜안(작법보유자)	조교수	대경 법정	감 사	송월 법원·원경 정수
부회장	벽담 도홍	총 무	원각 법진		
교육원장	도정 정호	재 무	공보 지오		

영산 작법 보존 회원일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인봉1길 전화 063)285-9700 팩스 063)282-1536

세계법화수행법음협회

법화전법도진 성불도량 기청사

주지 **묘혜공**

법화원도회
법화경 독송회

사부대중일동

부산 동래구 상룬덕화사
부산 사상구 법만묘화사



경남 양산시 하북면 삼덕로77
전화 055)383-1256, 1292

(주)보광석재

(주)보광석재는 1983년 창립한 이래로 우리 불교의 우수한
전통 석조 문화를 계승·발전하고자 기획에서부터 설계, 제작, 설치까지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매순간 최고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찰 및 문화재 전문의 석조회사입니다.

대표이사 **김한열** 합장



본사 : 경북 고령군 다산면 석재단지길 38 전시장 : 경북 고령군 운수면 운용로 523
전화 : 054-955-8888~9 팩스 : 054-955-8890 E-mail : bkstone601@naver.com



대행 스님

영원한 오늘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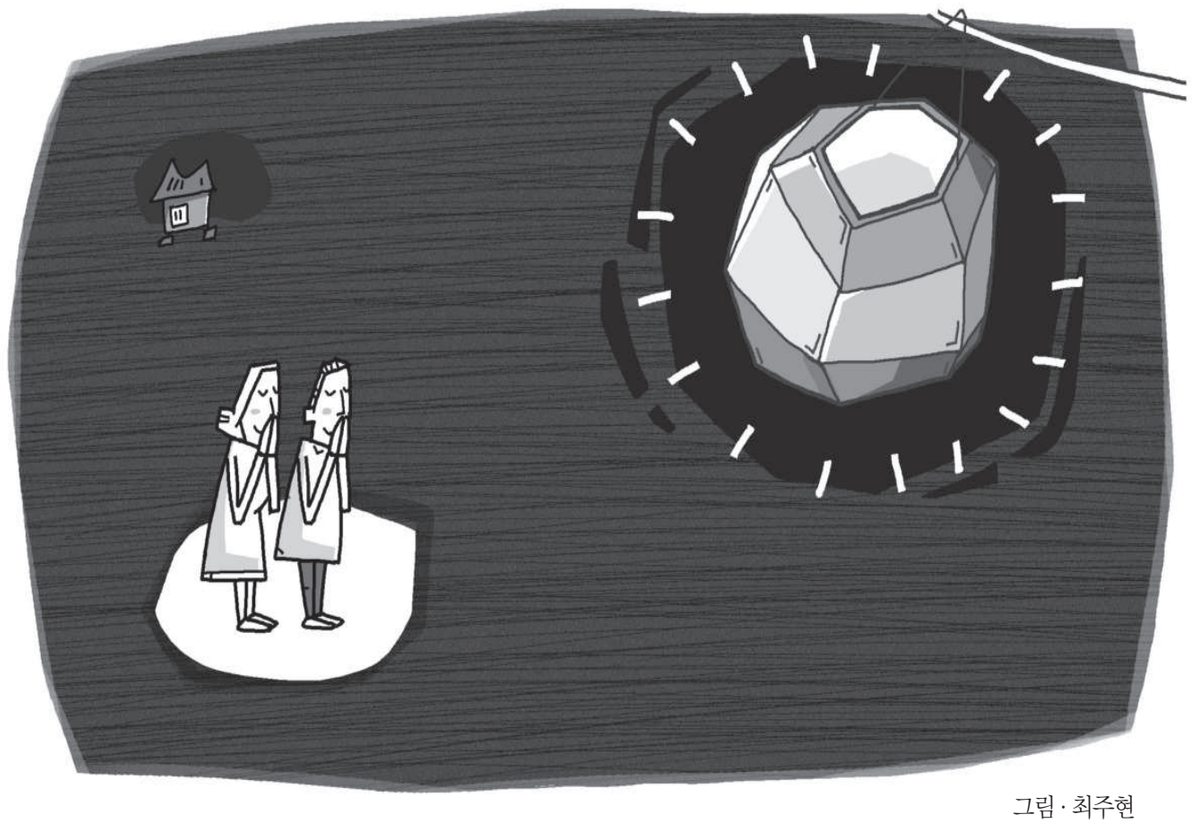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부처님 오신 날 영원한 오늘일세

질문 해마다 초파일을 맞이하여 밝은 연등도 밝히고 있지만 선법가 가사에도 있듯이 "부처님 오신 날 영원한 오늘일세"라는 뜻이 잘 와닿지 않아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 우리가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어떠한 생각으로 이날까지 살아왔던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항상 마음의 인등을 켜면서 꺼지지 않도록 하고 왔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일 년을 하루로 축소할 수 없다면 하루를 일 초로 축소할 수 없는, 영원한 오늘이라는 이 도리를 여러분은 잘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우리 마음과 말과 뜻을 한 번 더 다져 보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전에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법회를 하는데, 석사나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 부부들과 천주교인, 기독교인을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법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그 분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그중 하나 기억나는 것이, 법회 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이어서 그랬는지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기를 "부활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기 이전부터 생명은 있었으니 초 초마다 부활절이 아니겠느냐. 여러분이 생각을 일으키는 대로 부활절이지 달리 부활절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항상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부처님께서 오신 뜻이고, 인등을 켜는 것이고, 또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작년의 초파일이나, 다가올 초파일이나, 내년의 초파일이나, 삼천 년 전 오늘이나 똑같은, 영원한 오늘의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러니 부처님 오신 날이라 하면 그 나신 날을 기리기 위해서, 그 뜻을 배우기 위해서,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모든 면에서 그 배움의 고마운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모두 이 마음을 조아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정해 놓았겠지만 부처님은 나신 날도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부처님 자체는 따로 생일도 없고, 따로 부처님이라는 이름도 없고, 우주 세계가, 전체를 비춰볼 때 여러분이 만 명이라면 그 만 명이 부처님이 다 되니깐,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항상 부처님이 결부돼서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한마음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한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주간 법계에 우리가 같이 통하면서 같이 움죽거리면서 같이 한자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마음이라는 것은 전체 우주와 더불어 같이 한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불교라는 것은 어느 한 종교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진리로서 일체와 더불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佛)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을 말하고, 교(敎)라는 것은 일체 만물만생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풀 한 포기도 불교 아닌 것이 없죠.

그렇듯이 우리들의 일상이 그대로 불법인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며 움직이는 것이 참선이며, 그 경계가 모두 공부할 수 있는 재료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며 그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일 년에 한 번 오는 사월초파일만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라, 영원한 오늘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내가 있으니 항상 부처님 오신 날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열반에 드신 적이 없습니다. 열반이라 함은 돌아가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아 항상 여여함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몸을 가지고 살아 있으면서 열반에 드는 도리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순간순간 주인공 놓치지 않으려면

질문 마음공부를 하다 보니 주인공이라는 반야줄을 놓치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순간순간 놓치지 않을 수 있을는지요.

답변 아, 놓치고 안 놓치고가 어딨습니까. 아니, 자나 깨나 그냥 자기 주인공, 그냥 주인공이지 놓칠 게 어딨습니까. 그거는 사람의 얕은 생각일 뿐이에요. 놓쳤다 안 놓쳤다 이런 생각일 뿐이라고요. 본래 그냥 나를 이끌어 가고 줄창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간사해서 '아이구! 요 줄을 꼭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할 텐데….' 이거는 군더더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맘 턱 놓고 '내가 하나하나 움죽거리고 보고 듣고 사는 것이 그대로 주인공에서 굴리는 거로구나. 그냥 살게 하는 거로구나.' 하면은 바로 제 나무에서 제 뿌릴 믿는 게 되는 겁니다, 그냥. 제 나무에서 제 뿌릴 믿어야 모든 것을 에너지로 올려보내고 그러죠. 나무에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 열매가 제 나무에서 무르익고 그래야만이 그 맛이, 과일 하나에서도 만 가지 맛이 나올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붙들고 꼭 쥐고선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건 자기 개별적인 생각뿐입니다. 본래 놓치고 안 놓치고가 없어요. 본래 그냥, 그냥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그 반야줄이라는 게 자기 마음줄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재사를 지내거나 천도를 지내거나 이런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반야재지, 거북상스럽게 천도재니 뭐, 이렇게 할 것도 없이 그냥 우리는 반야재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재사를 지내거나 이래도 감사재고, 모든 게 감사한 줄 알아야, 모두 감사한 줄을 알고 살아야 충분히 주어집니다, 나한테. 감사한 줄 모르고 살면은 충분히 주어지질 않아요. 그건 정말입니다.

우리가 단 몇 시간도 물 없으면 못 살고 불이 없어도 못 살고 바람 공기가 없어도 못 살고 흙이 없어도 못 살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줄을 모르니…. 모든 일체 만물이 다 스승 아닌 게 없습니다. 왜? 내가 혼자 독불장군은 없어요. 내가 나와 보니까 모두 있더라. 내 스승이에요, 다. 움죽거리는 것들, 보이는 것들, 모두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내가 그걸 보지 않았으면 배울 수가 없을 텐데 모두 있어 줬으니까 내가 알고 배우고 모두, 자연의 세계라든가 모두 충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 한 쪼가리도 내 스승 아닌 게 없다 이 소립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둘 아니게 살아라 이겁니다, 감사한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산다면 우주도 아주 세고 버리게 흔한 게 우주예요. 흔한 게 우리 몸뚱이 하나 개별적인 혹성이고 말입니다. 혹성이라고 그래도 되죠. 그러나 한 은하계가 살듯이 우리 이 몸속에는 은하계의 샛별처럼 그냥 돌아가고 있어요. 그게 다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고 세상에 이 모두 수레가 돌듯이 우리가 돌아가는 것도 다 직결이 돼 있고 연결이 돼 있고 가설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린 개개인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그냥 보이지 않으면은 자기가 말한 것도 남이 못 들었으니까 다 아주 모르려니 이렇게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를 이루면은 모두 전체가 다 통신이 된단 얘기죠. 하나서부터 열까지 말입니다.

내가 왜 마음공부를 해야 하는지

질문 제가 몇 년째 공부를 해 왔는데 요즘 갑자기 '내가 내가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되

☞ A30면으로 계속

생활 불교 · 실천 불교 · 효행 불교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총무원장 석도선 고 문 석암도

승정원
승정원장 석벽봉

원로원
원로원고문 석법령 위 원 석일우, 석도명, 석청산, 석체법, 석일두, 석혜천, 석혜암, 석진공

총무원
총무원장 석도선 / 교육원장 석남산 / 기획원장 석담허 / 법계고시위원장 석일두
호법원장 석종허 / 의전원장 석법도 / 어산장 석도암 / 감찰원장 석원허
비구니회장 석경호
부원장 석대공 / 총무부장 석성덕 / 감찰부장 석성현 / 조사부장 석성도
수행부장 석보각 / 사회부장 석자광 / 사회부장 석성우 / 조직부장 석성각
종무부장 석법민 / 문화부장 석성원 / 포교부장 석보현 / 연수부장 석원희
총무국장 석성민 / 지원국장 석해인 / 봉사국장 석성운 / 포교국장 석혜진
포교국장 석법정 / 포교국장 석성원 / 의전국장 석균중 / 수행국장 석성오
종무국장 석성안 / 문화국장 석원종 / 의식국장 석성혜 / 사서국장 석성

비구니회
부회장 석효성 / 부장 석지현 / 국장 석충효

종무원
김해중앙종무원장 석천각 / 칠곡중앙종무원장 석혜천 / 부천중앙종무원장 석원해 /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학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 영주중앙종무원장 석문교 / 속초중앙종무원장 석태성 / 영천중앙종무원장 석도명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 천안중앙종무원장 석함월 / 시흥중앙종무원장 석지일 / 경남중앙종무원장 석일현
태백중앙종무원장 석일현 /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암 / 대구중앙종무원장 석성담 / 제천중앙종무원장 석진공
제주중앙종무원장 석의공 /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 강릉중앙종무원장 석성만

법인 임원
이사장 도선 이 사 체법 일두 성만 성우 감 사 성덕 성민
운영이사 남산 학산 성원 일현 도명 청암 혜천 의공

법률자문위원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 교보생명 16층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 이경우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석도선

종립미래로봉사회
회장 학산(이종길) / 부회장 진불심(이순임) / 총무 대각심(김경숙) / 임원 혜명심(박현숙) / 임원 보덕심(박경남)

종립종합예술원
원장 묘각(이재인) / 부원장 혜정(이영숙) / 국장 불심화(정형숙) / 무용 무애심(박순애) / 연출 원각심(도지연)

법사승단임원
법사고문 도혜 / 울산원장 법광 / 종무원장 성종 / 법사원장 목암
홍보부장 원명 / 부산부장 혜성 / 경기부장 자운 / 전남부장 혜명
구미부장 혜진 / 대구부장 혜련 / 청주부장 혜원 / 충북부장 상학
경남국장 성광 / 사업국장 종현 / 포교국장 덕운 / 종무국장 도연 / 서울국장 명덕
포교국장 청운 / 통영국장 덕인 / 포교국장 혜림 / 봉화국장 혜정 / 화순국장 보정
삼척국장 정허 / 영천국장 원명 / 통역국장 정연 / 포교국장 혜경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총본산 경북 영양군 수비면 절터길 54-39, 전화 054)682-5808 / 팩스 054)682-9848
총무원 서울시 은평구 증산서길 91 2층, 전화 02)303-5612

죽든지 살든지 진짜로 믿으세요, 내 마음의 선장을

☞ A29면에서 계속

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나를 찾는 공부를 계속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누구나가 다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이유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자기를 형성시킨 근본 자아가 있거든요, 자기를 형성시킨. 자기는 부모의 정자 난자를 빌려서 자기 영혼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된 업식, 그 악업 선업이 전부 같이 혼합이 돼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문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 업식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업식을 다스리면서 내 마음의 근본 자아를 진짜로 자기 뿌리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업식 속에서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를 나오는 자리에다 '너만이 참나가 있는 거를 알게 할 수도 있고, 나를 물리가 터지게 할 수도 있고, 지혜를 내게 할 수도 있어.' 하고 되맡겨서 일임한다면 참자기가 거기에서 발견이 돼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말입니다, 밑에 앙금이 가라앉아서 시뻘겋게 물이 들어 있는 병에다가, 저 뭡니까, 퐁퐁을 조금 넣어서 씻어 가지고서는 맑은 물을 거기다가 받았어요. 받으니깐 그 거품이나 뭐나 그냥 쫙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더니 나중에는 그 나쁜 물이 다 없어지고 맑은 물이 채워지더라고. 연방 맑은 물이 채워지면서 흘러 내려오더라고요. 그와 같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공부를 해야 하나? 왜 이렇게 답답한가?' 하는 생각이 나오는 것도 그 구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로 인해서 그 생각이 나게끔 하는 거니까 없애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거기에 되맡겨라 이겁니다. 이 세상에 답답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생각하기에 달렸으니까. 금방 누가 뭐, 하혈을 하고 죽는다고 해도 답답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믿고 힘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답답할 게 없어요.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일수록 방방방방 뛰죠. 배 안에 탄 중생들이 그냥 일어나서 아우성을 치면 배가 뒤집히듯이 말입니다. 그건 꼭 뒤집히고 만다구요, 하하하.

생활을 벗어나서 내가 없고, 나를 벗어나서 생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거부터 죽는 거, 사는 거, 뭐, 생활하는 거, 나라가 움죽거리는 거, 전체가 모두 바로 부처님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모두 응용하세요. 자기부터 알아야 세계를 알고, 세계를 알아야 삼천대천세계를 알죠.

하여튼요, 제가 부탁드릴 얘기는 우리가 인간이라면 다섯 가지만큼은 누구한테도 기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섯 가지 아시죠? 죽는 거, 아픈 거, 먹는 거, 똥 누는 거, 자는 거 이 다섯 가지는 제아무리 재주가 훌륭해도 대신 못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다섯 가지 오신통이라는 것도 도가 아니니라' 한 것이 거기에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길에, 지금 한 철 나는 길에, 세세생생 돌아가는 거를 전체 집어 먹어야 된다이겁니다, 지금 한 생에. 한 찰나에 집어 먹듯이….

이런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고자 한다면 되는 일이죠, 안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는 사람들은 "문을 찾아서 다니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즉 "학문을 따져서 책을 보고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겁니다. 책을 찾아서 다니는 건, 글자를 보고 알아서 깨치려고 하는 거는 저런 문 찾아다니는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없는 문을 찾아서, 문이 없는 문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문 없는 문을 찾아서 성불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무척 쉬운 건데 모두들 그래요. 그냥 뭐, 자든지 깨든지, 일어나든지 앉았든지, 일을 하든지 모든 게 그놈이 움죽거리게 하니까 하는 건데 '네놈이 주인이 돼서 움죽거리게 하는 거니까 네 몸뚱아리 네가 가지고 가라.' 이러면 아주 편안하죠, 그냥 아주! 일생이 다 편안해요, 그냥. 그런 건데 뭐가 그렇게 사는 게 괴롭습니까? 왜 한 철 놀다 가는데 즐거웁게 놀다 가지, 왜 그렇게 궁상으로 살다가 가야 되느냔 얘깁니다.

그리고 옷만 벗어 버리고 또다시 옷을 입고 나올 텐데 그까짓 옷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요다음에 아주 그냥 세련되게 샘플을 해 가지고 내가 그냥, 하하하, 아주 거룩하게 탄생을 시켜서 나라를 그냥 휘어잡을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는데, 아니, 왜 그렇게 아둥바둥합니까? 그럴 것 없어요. 그저 춤추고 놀다 가는 거와 같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천천히 되느냐 일찍 되느냐가 문제지,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돈도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는 거라 그냥 요렇게 들여다보다가 '아휴, 저 집에 들어가서는 내가 고통스러워. 쪼개고 쪼개고 아이고, 구찮어.' 그러면서 달아나간다고요. 그런데 화목하고 웃고 즐기면서 '이거는 이렇게 쓰고 이거는 이렇게 쓰고 그러자.' 이렇게 하면 '아, 그러면 요게 참 편안하겠구나.' 그러고 그 집으로 들어간다구요. 이게 사실입니다. 내 그런 거 봤는데요? 하하하.

내 뜻과 상관없이 일들이 벌어져요

질문 저는 불자로서 항상 착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일이 벌어지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인연과보로 그냥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돌려놓아야 하는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방향이 제대로 나가지 않는 것은 이렇게…, 맷돌축 있죠? 축을 갖다가 제대로 꽂지 않으면 물건을 넣고 갈아도 제대로 갈려 나오지가 않습니다. 딴 방향으로 나갑니다. 마구 그냥 쏟아집니다. 그와 같습니다. 똑바로 끼워야죠. 아래 위가 똑바로 심봉이 끼워져야 제대로 일하며, 전자와 전자 줄이 한데 제대로 이어져야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대로 끼워져 있는 거니까 그대로, 저 나무뿌리가 있으니까 나무가 있듯이, 그대로 돼 있으니 그대로 철저하게 믿어라 이겁니다. 왜 자기 뿌리를 안 믿어요? 그렇다면 형상을 믿을 겁니까? 그래, 형상도 내 몸과 저 형상이 둘이 아니다, 부처님 형상이 내 형상과 둘이 아니요,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과 둘이 아니요, 또 부처님의 생명이 내 생명과 둘이 아니니 그저 둥글게, 모나게 하지 않고 둥글게, 일정례를 하더라도 둥글려서 일심으로써 진실하게 일배를 올려도 올려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딴 데로 나가는 거는 잘못 끼웠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마음 내기 이전의, 내 마음의 선장을 올바로 투시를 못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욕심대로 나가는 생각이 80%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건 3%밖에 안 되니까, 비중이 더 큰 데로 돌아가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크게 먹으려면 진짜 여기서, 뿌리에서 그 싹을, 전체를 살리고 있으니까 '너밖에 할 수 없다!' 하고 다 맡기고 심부름꾼으로만 사세요. 시자, 관리인!

사실 따지고 보면 관리인입니다, 심부름꾼이고. 따지고 보면 속의 생명들의 심부름꾼이기도 합니다. 또 이 사람 전체 몸뚱이의 심부름꾼이기도 합니다, 여러 생명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또한 둘이 아니죠. 그러니 마음 쓰기에 달려 있으므로 이 몸뚱이 속의 모든 의식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아주 고정적으로 입력이 돼 있는 의식들이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바로 화해서 달라진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을 따라 주게 해야, 내 마음 하나로 돌아가게끔 돼야 업보성, 인과성, 유전성, 영계성, 세균성 이 모두가 무너져서 딴 데로 흩어지질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부처님이 되지 못한 사람이지만 다 같이 이름해서 부처죠. 나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랬죠? 분수를 알아서, 내가 얼마만 한 그릇이란 거를 알고 해라 이겁니다. 내가 내 그릇에 이만한 걸 담아도 손색이 없을까 하는 걸 미리 알아차려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분수도 모르고 요만한 컵에다가 드럼통으로 하나를 갖다가 집어넣는다면 이게 담겨집니까? 그러니까 첫째, 분수를 알고, 진짜로 믿는다면 그냥 믿는다 안 믿는다도 없이, 진짜로 믿는다면….

나는 내가 하려고 한 것에서 벗어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얘기했지요? 처음에 여기 왔던 해에 김장할 다라이가 없어서 '다라이가 없으니 어떡하나? 김치를 해서 오는 사람들을 모두 줘야 할 텐데….' 하니까, 그 이튿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라이가 열 개가 들어왔어요. 왜냐. 그게 이심전심이에요. 이 모두가 이심전심으로 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내 마음 내기 이전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난처하게 생각 마시구요, '왜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번연히 알고도 이렇게 딴 데로 가나?' 이러지 마시고, 죽든지 살든지 진짜로 믿으세요. 아니, 더 잘 살려고 아무리 해 봐도 그렇다면 차라리 아예 '이젠 너 알아서 해!' 하고, '나는 부지런히 뛰어줄게, 너 알아서 해!' 하고 거기다가 맡겨 놓는 게 더 상책이 아닐까요? 더 살기가 편안하구요.

이거는 '내가 한다, 내가 짊어지고 내가 산다, 내 거다, 내가 망했다' 이런다면 어휴, 그거 사람이 한 생 사는 데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푹 쉬고 저 세 살, 다섯 살 먹은 어린애처럼, 또는 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믿고 그냥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 보세요. 책이 없어도 '아, 아버지가 사 줄 테지.' 하고 말이에요. 공책이 없다면 '공책이 없어, 아버지!' 그러면 사 주듯이, 이렇게 편리하게 사세요. 그러면 딴 방향으로 안 갈 것입니다.

> 배낭 속에서 과거의 업이 나오는 것을 녹이려면
> 무조건 한마음 주인공에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세요.
> 이열치열이란 말도 있죠?
> 거기다 놓으면 거기서 해결이 나는 것입니다.
> 모든 게 녹아지고요.

과거 업연 때문인지요

질문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허약해서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을생각하면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인연도 과거 전생에 지은 업연으로 온 것인지요.

답변 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부부 사이에서 몸 하나를 받아서 내 영혼과 인연의 줄을 다 끌고 한데 합쳐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 됩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인연들이 전부 내 배낭 속에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그러니 과거는 없어요. 그래 배낭 속에 있어 가지고 배낭 속에서 과거에 지은 업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몸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괴로움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애고로 반영되기도 하고, 유전성으로도 되고 영계성으로도 되고 아주 뭐,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녹이려면 모든 것에, 무조건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거기서 나온 거니까 무조건 거기서 해결할 수밖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맡겨 놓고, 거기서만이 해결을 할 수 있고, 거기서만이 낫게 할 수 있고, 낫게 해서 끌고 다니는 것도 거기서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자기 한마음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세요. 이열치열이란 말도 있죠? 거기다 놓으면 거기서 해결이 나는 겁니다. 모든 게 녹아지고요.

그것이, 즉 말하자면 인과로 인한 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두 관습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게. 업이 달리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모두 살아온 관습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도 세포 하나하나에 중생들이 들어 있으면서 악이면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선이면 선으로 갚으려고 두서없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중생들의 의식은 좋고 나쁜 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스려야 된단 얘깁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한마음이다. 한마음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다.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해결을 한다.' 이러면 원수졌던 마음이 그냥 까맣게 잊혀지고 그냥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뭐, 특별히 우뚝 솟는 거는 없다 하지만 차차 차차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이지 밝은 세상을 사시게 됩니다. 어저께가 따로 있고 오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그대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종도모집
구비서류, 입종신청서(총무원), 증명사진3매, 주민증복사본, 사·암사진(안,밖)
문의 : 010-4162-2900 팩스 : 055)972-2902
이메일 : Gongdeoksa@naver.com

불기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정산당 석 청봉

사서실장 석달오 예경원장 홍반야행 공보실장 석무오

원로의회 -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원장 석보행 원로의장 석수오 승정원장 석원명

총무원장 석지혜 감찰원장 석법경 종회의장 석설산 포교원장 석법주
호법원장 석도언 호계원장 석법원 기획원장 석지광 행정원장 석범정
총무부장 석보명

각교구 종무원장
경남마창종무원장 석법경 부산종무원장 석법오 경남진주종무원장 석법원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충남종무원장 석진공 강원종무원장 석담행

비구니원
회장 석능현 부회장 석지현(경주) 총무 석법성 감사 석정현 포교부장 석지현(부산)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로 205, 천성산 불광사 전화 055)364-4747

奉祝隨想

행복의 길, 부처님 오신 길

하림 스님
부산 미타선원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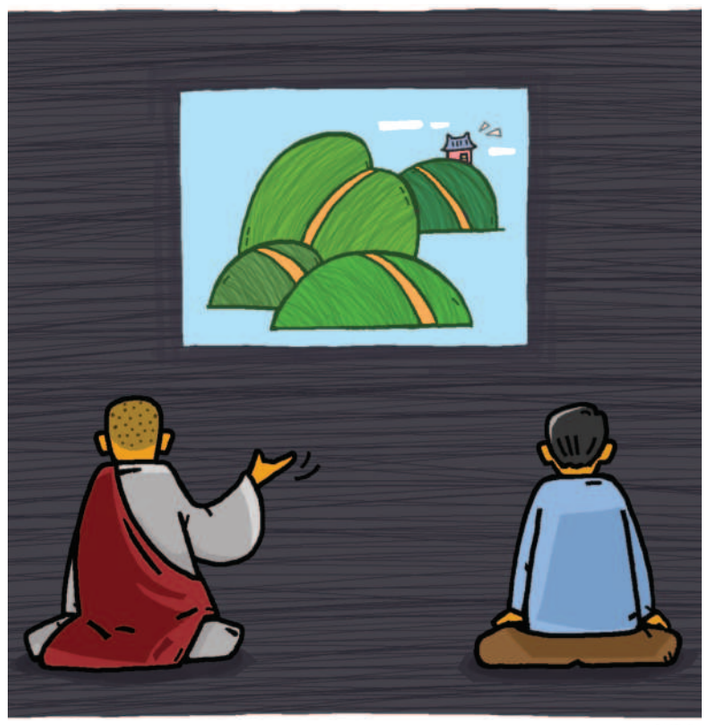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코로나19로 3년동안 우리 사회 혼란스러워
누군가 행복의 길 밝혀주는 등불 켜줬으면
부처님, 모든 애욕에서 벗어나는 길 설파해
비난보단 칭찬, 의지하되 서로 겨누지 말자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마음의 번민이나 생활의 불편함은 견딜 만하신지요."

부처님이 제자나 신도들에게 문안을 갔을 때에 질문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같은 안부를 여쭙니다. 아침에 하루의 눈을 뜨는 순간에 정신이 돌아오면서 어제의 일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갑니다.

우리 사회는 한동안 코로나로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전에 없던 일이지만 그래도 적응해 나가면서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가고 있습니다. 한 동안 긴 잠을 자듯이 멈추었던 우리는 이제 어디로 발걸음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마치 벌판에 수많은 소들이 누군가가 뛰면 그곳을 향해 뛰어가듯이 서로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사찰도 마찬 가지입니다. 대중들의 관심이 움직이는 곳을 향해 함께 뛸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같은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느 곳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 스스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도 그 가운데에 움직이는 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절에 누군가가 길을 밝혀 주는 큰 등불을 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이 길이야! 여기로 가면 행복으로 가는 길이 있다"라고 큰 소리로 외쳐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곳을 향해서 신나게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류에게 행복으로 가는 길을 몸소 찾아내 그 길을 45년간 우리에게 일러주고 가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을 경축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길을 찾지 못해서 답답해하던 인류에게 안내자가 돼주고 불을 밝혀서 길을 열어 주신 스승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후 숲에 계실 때에 야사라고 하는 청년이 괴로움에 빠져 뛰어다니며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사이 즐겁게 놀다가 아침에 눈을 떠 보니 엉망이 된 파티장과 아름다웠던 여인들의 헝클어진 모습을 보고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청년은 "아! 이 무슨 재앙인가"라며 탄식합니다. 이를 보고 부처님은 "야사야, 여기에는 재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야사는 이 말을 듣고 기뻐서 그때부터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도 매일 고통과 번뇌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신문에서 갈등과 고통의 글과 사진이 나오고 방송에서는 그 장면과 목소리들이 들립니다. 야사의 괴로움이 매일 아침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때 이 고난이 없는 길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반가운 말인가요.

부처님은 고난이 없는 길을 "보시를 실천하고 계율을 준수하면 하늘에 태어나게 된다. 애욕에는 환난과 공허가 있기 마련이다. 애욕에서 벗어나면 큰 공덕이 드러난다"라고 안내해 줍니다.

우리가 아는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부처님이 제시한 길은 분명합니다. 보시는 '나의 고집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 이고, 계율은 '내 행실과 언어를 잘 관리하는 것' 입니다.

저마다 건강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건강의 개념을 몸과 정신 그리고 영성의 건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본다면 마음의 고통은 누군가의 태도나 말에 의해서 상처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나의 친절한 말과 태도는 나와 상대를 건강한 삶으로 안내하는 길잡이입니다.

아프리카의 누우 떼들이 대이동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밀치고 밟아서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적을 방어하고 서로가 힘이 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서로를 해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찾는 길은 함께해서 행복한 세상입니다. 그런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나의 고집과 집착은 소의 뿔과 같습니다. 그 뿔을 나를 겨눠도 크게 상처가 되지만 남을 향해 겨눠도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부처님이 말한 하늘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는 주변의 인연들과 서로서로 힘들 때는 힘이 되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사회가 우리가 하늘에서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애욕은 날카로운 뿔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달리는 한은 우린 서로가 서로에게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칫하면 상대에게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자신의 선택이 결국 우리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갑니다.

며칠 전에 가까운 분에게 화가 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친절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곤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몸에 열이 나고 화가 일어났지만 지나고 나니 진정이 됩니다. 다시 그 분을 만났습니다. 막상 얼굴을 보니 그 모습도 그 마음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자칫 뿔을 들이 밀 뻔 했습니다. 상처는 순간이지만 치유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구나' 했습니다.

한편, '남의 잘못은 왜 꼭 고치려고 하고 기억해 두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다' 는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남에 대한 칭찬은 가볍게 지나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경책보다는 칭찬이 더 소중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허물은 남이 덮어주면 고마워하고, 칭찬은 누군가가 더 해줬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그것을 바라면서도 남에게는 인색합니다. 칭찬은 아무리 들어도 넘치지 않습니다.

비난은 이상하게 영향력이 큽니다. 열 마디 칭찬을 들어도 한 마디 부정적인 말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자신을 봅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두려움이 있어서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은 해침을 당할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생명 있는 존재 모두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감정입니다. 백번 평화롭다가도 한 번의 위험에 목숨을 잃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혼자가 되면 약해집니다. 이런 저런 불안과 우울감의 공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누우 떼처럼 함께 의지하되 서로를 겨누지 않아야 안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70대 노부부가 어둠이 내린 해변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차로 지나가다가 얼핏 보니 잘 아는 신도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기까지 오기에는 여러 난관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의 걸음에 어둠은 더 이상 두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 펜데믹을 겪어내고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어느 삶의 길로 가야 행복한 사회가 기다릴지 찾고 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이 우리에게 "여기에 함께 행복하게 사는 길이 있다"라는 큰 울림으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社說

다시 빛난 연등, 환희로웠다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하는 마음들이 담긴 연등이 서울 밤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4월 30일 서울 동대문에서 조계사까지 진행된 연등회에는 10만 연등이 밤하늘을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올해는 연등회가 2020년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무대였다. 연등행렬 구간의 거리마다 행렬을 기다리는 가득 찬 시민들의 모습에, 불자들의 정성으로 꾸며지던 연등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축제임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3년 만에 메인무대로 선보인 연등회이기에 장엄등 행렬을 따르는 참가자들의 얼굴은 환희로 빛났고 이를 반기는 시민들의 환호성은 다시 돌아온 일상을 실감케 했다. 봉축 메시지인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3년을 기다려서일까. 서울 주요사찰과 불교계 단체 50여 곳에 소속된 불자들이 직접 제작한 장엄등과 행렬 등이 형형색색 다양한 모습을 선보였다. 인로왕번과 오방불번이 선두를 외호하는 가운데 사천왕등과 범천등, 육법공양등에서부터 어린이를 위한 폴리등, 스누피 등과 연등놀이등까지 다채로웠다.

모양이 무엇이든 행렬에 나온 10만여 개의 등을 우리는 '연등' 이라고 한다. 燃燈. 심지를 태워 어두운 세계를 부처님 지혜로 밝게 비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자신의 심지를 태웠다는 건, 세상을 밝힌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다.

연등회에서 우리가 스스로 어둠과 번뇌를 물리치고 영원히 진리의 광명을 밝혀낼 연등을 든 건, 세상을 밝히려 한 서원의 표출이었다. 내가 빛날 때 세상도 빛나진다는 걸 다시 한번 되새기는 5월이 되길 기대한다.

불교문화재연구시설 착공에 부쳐

불교 문화유산 전반에 대한 보존관리 및 수리를 담당할 전문 연구시설이 첫 계획을 수립한지 9년여 만에 4월 26일 첫 삽을 떴다. 조계종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주요사업으로 추진된 불교문화재연구시설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된다.

'불교문화재연구시설 건립불사' 는 종단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2013년 계획 수립후 부지 선정으로 난항을 거듭하며 좀처럼 진전되지 못했으나 용문사가 부지를 제공하며 실행될 수 있었다.

이번 건립불사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직결된 전통문화재 보존과 복원, 전승을 담당할 중요한 거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불교문화유산은 그간 사찰을 중심으로 스님과 불자들의 노력으로 보존전승 했으나 그 노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보존, 복원, 연구할 수 있도록 조계종 차원에서 나선 것은 거룩하고 감사한 일이다.

전통문화재 보존과 활용은 민족의 정신문화 향상과 직결돼 있기에 단순히 종교문화재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사찰의 역사문화 환경은 물론 사찰을 둘러싼 자연문화유산을 포함해 보존유지를 위한 통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제 막 건립에 착수한 불교문화재연구시설이 우리 민족문화의 보고인 불교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를 담당할 뿐 아니라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 영역까지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 이와 함께 불교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연구시설을 통해 우리 문화재가 어떻게 수리되고 보존처리 되는지를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는 명소가 돼 보다 많은 불교문화유산들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대표이사 : 혜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불기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

불교중흥이 동국발전이요, 동국발전이 곧 불교중흥입니다.

동국대학교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빛이 되겠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총재 해봉 자승

상 임 이 사 성 월 | 이 사 장 성 우 | 건학위원장 돈 관

WISE캠퍼스총장 이 영 경 | 동국대학교총장 윤 성 이 | 의 료 원 장 채 석 래





WISE캠퍼스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융합인재 양성



서울캠퍼스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인류사회에 공헌



의료원 자비인술과 약사여래의 원력 실현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산하 교육기관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금산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영석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중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금산중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홍제중학교 / 은석초등학교 / 동국대학교 부속유치원 / 동국대학교 DUICA

Photo Essay

연등(燃燈)

작은 불빛 하나가 연등 하나를 채우면
날은 기울어 하늘이 물들고
연등 속의 이름도 물들어 간다.
연등에 걸린 그립고 미안한 이름들이여
날 밝으면 그 이름, 부처님이 모두 읽어주신다네.
내일은 그런 날이라네.
효도하고 싶었던 아들,
다정하고 싶었던 딸,
잘해주고 싶었던 어머니,
마음만은 그렇지 않았던 아버지.
저 붉은 연등 하나에 다 있다네.
부처님이 그 이름들 하나하나 불러주시면
각자 밝힌 연등 안에서 반갑게 만나요.
연등 하나하나에 인연 인연 그렇게 들었네요.
작은 연등 하나가 작은 게 아니네요.
연등 하나 밝히는 일이 그런 일이네요.

글 · 사진=박재완 기자



불기2566년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본사

설악산 新興寺

조실 설악 무산
원로 익산 도후
회주 법검 우송
주지 적광 지혜
선덕 문석
신도회장 일심행

사부대중일동

신흥사 교육기관 / 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 신흥사 복지재단	춘천불교방송
· 신흥사 향성선원	• 반야노인요양원	• 춘천 영서지역 FM100.1Mhz
· 백담사 무금선원	• 반야어린이집	• 속초, 고성 FM93.5Mhz
· 백담사 기본선원	• 룸비니어린이집	• 양양 FM97.1Mhz
· 신흥사 신도회	• 연꽃어린이집	• 강릉, 동해, 삼척 FM104.3Mhz
· 신흥사 불교대학(원각사)	• 춘천노인요양원(연화마을)	
· 재단법인 만해사상 실천 선양회	• 속초종합사회복지관	
· 재단법인 성준장학재단	• 속초시노인복지관	
	• 속초반야지역자활센터	
	• 금강반야마을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1137(설악동 170)
전화 033)636-7044, 7393 팩스 033)636-7556 www.sinheungsa.kr

소통하고 실천하는 전국비구니회가 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본각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1길 56 전화 02)3411-8103~4 www.kbhiksuni.org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본사

제주 관음사

조실·원로의원 삼이 우경

회주 탄해 혜민 주지 무소 허운

교구·본사 신도회장 백련화(김문자) 화주단 도화주 관음행(양정임)

제23교구 사부대중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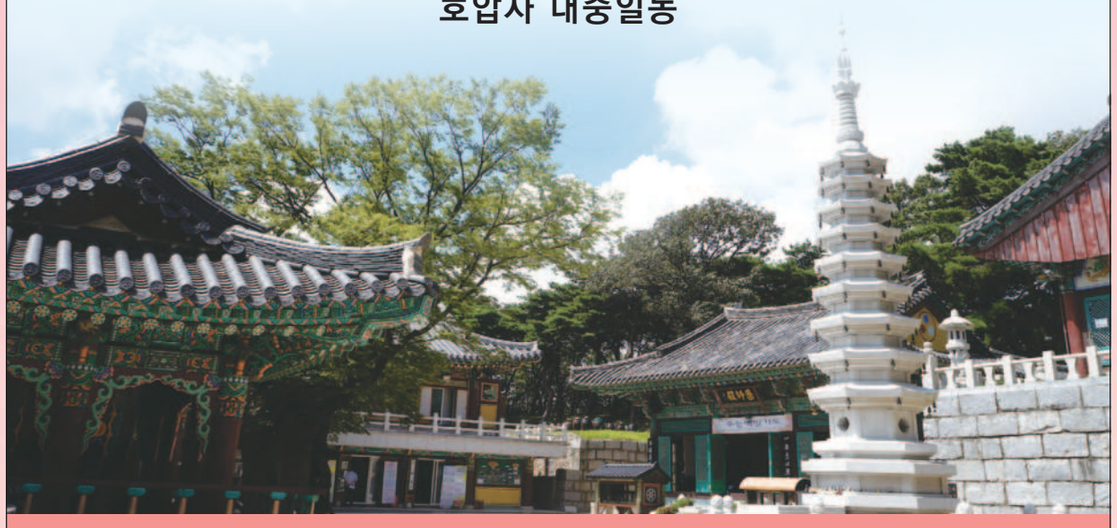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록북로 660
전화 064)724-6830 팩스 064)756-2202 www.jejugwaneumsa.or.kr

대한불교조계종

호암산 호압사

날마다 좋은날 되세요

호압사 대중일동



서울특별시 금천구 호암로 278 (시흥동) www.hoapsa.org
전화 02)803-4779 팩스 02)891-0770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교 구 장 미광 선일
부교구장 육군 능원, 공군 성광, 해군 법원

대한민국 육·해·공군승 일동
대한민국 육·해·공군예비역승단회 일동
대한민국 육군불교신도회 일동
대한민국 해군교육연합회 일동
대한민국 공군불자회 일동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불사

동참계좌: 국민은행 477401-01-237619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동참문의: 군종특별교구 종무실 02.797-7266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興天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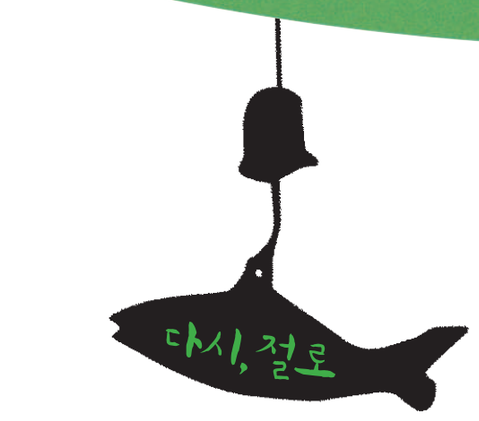
삼각선원 조실 설악 무산

사부대중일동

삼각산 흥천사에서 기도하시면
불자님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주소 서울시 성북구 흥천사길 29(돈암동)
전화 02)929-6611~2 팩스 02)921-1626



다시, 절로

다시 돌아온 일상… 사찰로 향하는 불자들

프롤로그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지침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4월 18일부로 전면 해제됐다. 코로나 사태가 확산된 지 2년 1개월 만이다. 정부당국은 이어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까지 추가로 해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급속히 시작됐던 것처럼, 해제 조치 역시 갑작스레 닥쳤기에 또 다른 변화의 시기가 도래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서로 거리를 두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외부에서는 마스크를 벗은 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사회에서 다시금 살게 됐다. 2년 전 갑작스레 닥친 대면 체제의 공백을 조금이라도 메우기 위해 빠르게 변화해야 했던 것처럼, '일상 회복' 또한 빠르게 시작되고 있다. 어려운 시절을 돌고 돌아 다시 찾아온 '일상', 불교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지난 2년간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많은 것을 바꿨다. 외출조차 쉽지 않았고 함께하는 일상 자체가 멈췄다. 자연스레 대면의 일상은 비대면 일상으로 조금씩, 또는 빠르게 전환됐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맞은 분야 중 하나가 종교계다. 특히 전통종교인 불교는 대면 신행을 기반으로 오랜세월 이어져 온 모든 시스템이 송두리째 흔들리면서 '위기론'까지 대두됐다.

가장 큰 변화는 사찰의 문턱이다.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 전국 사찰들이 산문 폐쇄를 결단했고, 사찰에는 대중스님과 종무원을 제외한 신도들의 발길이 끊겼다. 오랜 세월 사찰을 찾아 스님의 법문을 듣고 기도 등 신행생활을 하거나 불교를 배우며 도반들과 함께 순례했던 일상이 갑작스레 얼어붙은 셈이다.

이로 인한 여파는 전방위적으로 나타났다. 신행, 수행, 포교, 사찰 재정 문제까지 총체적인 위기론이 불교계를 불안으로 빠뜨렸다. 전통사찰과 문화재보유사찰의 경우 참배객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보수·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 마련조차 어려움을 겪는 등 고충이 적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가 처음으로 확인된 예가 2년전 2020년 5월 부처님오신날이다. 당시 우리는 연등도 없고 꽃비도 내리지 않는, 조용하고 어색한 부처님오신날을 보냈다.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전국민·세계인들의 축제로 펼쳐졌던 환희의 법석인 연등회가 전격 취소됐기 때문이다. 이는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계엄령으로 행렬이 진행되지 못한 이후 40년 만의 일이며, 자발적 취소는 사상 최초다.

당시 한국종단협의회와 연등회 보존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심사숙고 끝에 국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으로 부처님오신날 연등회를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윤사월로 한차례 연기했고 주요사찰의 산문폐쇄 결단이 이어지던 시기였다.

>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 2년1개월 만에 전격 해제돼
> 갑작스런 일상 변화 이어져

불교계가 연중 가장 큰 행사인 연등회를 전격 취소키로 함에 따라 불자들은 극심한 변화를 체감했다. 5월 30일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은 한 달 후인 윤사월 기준으로 봉행됐지만, 대폭 축소된 까닭에 예년과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과거 손에 손을 잡고 거리로 나가 밤하늘에 연등의 물결을 수놓았던, 사찰을 참배하고 등을 걸어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고 소원을 빌었던, 스님의 법문을 듣고 비빔밥을 공양하던 부처님오신날이 한순간에 사라진 셈이다.

물론 당시 불교계의 대승적인 결단을 향한 국민들의 호응은 폭발적이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불교계가 입은 상처와 고민도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옳은 판단임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대면시스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이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불교계가 애써 외면해 왔거나 무관심했던 4차 산업혁명시대가 급격하게 도래하면서, 외부로부터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불교계는 비대면 문화로의 전환을 가속화했다.

이후 불교계에는 많은 변화가 일었다. 2021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가 최소한의 대면행사와 사상 최초의 '언택트 연등회'로 진행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코로나 사태 1년이 지나가면서 각 사찰의 주요법회와 행사들 역시 비대면으로 전환됐고, 신도들의 신행 또한 SNS 등을 기반으로 소폭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급격한 발전을 일궈낸 면이 있는 반면, 퇴보하거나 위축된 면도 존재한다. 지역간, 사찰간 격차도 눈에 띈다. 종합적으로 장단점을 섣불리 예단하고 분석할 수 없을 만큼 사례별 격차가 크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그리고 코로나 기간 중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제대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이 유독 힘든 이유다.

그리고 지금, 다시 '리오프닝'이 화두다.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절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일상의 단절이 갑작스러웠던 만큼, 일상으로의 회복 역시 갑작스럽다. 그럼에도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 코로나 기간 중 비대면 시스템의 확산에도, 전통적인 형태의 대면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었던 공백들이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부처님오신날 연등회가 그 변화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작용하고 있다. 다소 낯설지만 2년의 공백은 적었다. 서울 도심을 비롯해 전국 곳곳의 중심지를 가득 메운 수많은 인파, 그리고 환하게 빛을 밝힌 연등의 물결들 덕분이다.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럼에도 이미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신도들의 발길이 '다시 절로' 이어지고 현장에서 스님과 눈을 마주하며 법문을 듣거나 불교교양대학을 찾아 강의를 듣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코로나 기간 동안 중단됐던 국내외 성지순례도 활기를 되찾고 있으며, 전국 사찰도 산문을 활짝 열고 주요법회 및 행사, 축제들을 속속 기획하고 홍보를 시작하고 있다. 불교계 복지관도 재가동을 시작하고 분주한 모습이며 이와 함께 봉사·해외구호 분야도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행과 신행, 포교 분야에서도 그동안 축소됐던 대면활동을 재개하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는 모습이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그림·최주현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본사 智異山大華嚴寺

조 실 금성 명선 대종사
문 장 은산 종국
회 주 송천 종열
주 지 초암 덕문

신도회&사부대중일종

화엄사 전통사경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일시 2022년 3월 17일 ~ 12월 29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4시 (오후반)
저녁 6시 30분 ~ 8시 30분 (저녁반)
장소 화엄사 범음료
강사 多吉 김경호 선생(화엄사 전통사경원 원장)

화엄세상을 만나다 제1회 전통사경 회원전

일시 2022년 5월 12일 ~ 15일
장소 순천문화예술회관 1.2관
주최주관 화엄사전통사경원

주소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전화 종무소 061)783-7600 기도접수처 061)782-0011 www.hwaeomsa.com

불기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다시, 절로

순례 · 템플 · 축제



2021년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사상 최초로 시도된 '언택트 연등회' (왼쪽)와 올해 3년만에 대면 대규모로 재개된 연등회 연등행렬의 모습(오른쪽).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해제된 후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법석이다.

사찰 축제 기대…국내외 순례 · 템플도 들썩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대중 운집했던 사찰 축제 · 행사서
불교계 대면활동 회복세 두드러져
인도 · 태국 해외순례 노선운항 확대
외국인 · 단체 템플스테이 관심 급증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해제되면서 불교계 대면활동이 들썩이고 있다. 사람들이 모일수록 빛을 발하는 사찰 축제 및 행사, 코로나 기간 중 1인 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템플스테이가 대표적이다.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했던 순례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다. 순례는 기본적으로 '이동'을 전제로 하기에, 코로나 기간 중 가장 큰 폭으로 위축됐던 분야이기도 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가장 먼저 확인된 변화는 전국 각 지역에서 진행되는 봉축행사다. 봉축위원회와 연등회보존위원회가 주관하는 연등회(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가 대규모 대면 형태로 거행된 가운데 지역사암연합회와 각 사찰들도 전국 도심지에서 봉축탑 점등식과 연등행렬을 잇따라 거행하고 있다. 지역 봉축행사는 그동안 부처님오신날을 알리는 지역 불교계 축제의 장으로 이어져 왔으나, 코로나 사태가 심화됐던 시기에는 주요 사찰 주지 스님들이 최소한으로 참석한 가운데 봉축탑 점등식만 진행하면서 비대면으로 전환하거나 아예 취소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각 계절에 따라 전국 사찰이 진행해 왔던 축제와 행사들도 벌써부터 대면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찻잎을 따 차를 만드는 시기인 4~5월, 조계종 교구본사 가운데 하동 쌍계사(주지 영담)가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대면 형태의 '선차문화대축전'을 거행했다. 쌍계사는 매년 5월 경 '진감 · 초의 다맥전수법회'를 중심으로 행사를 개최해 왔으나, 2019년과 2020년에는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 외부 홍보 없이 내부적으로 진행했다.

김제 금산사도 5월 1일 금산 도영 대종사 증명, 불일 평상 스님 법문으로 '제1256주년 금산사 미륵강탄재'를 성대하게 봉행했으며, 평창 월정사도 진부연등법회의 일환으로 오대산가요제를 대면행사로 진행했다. 앞서 월정사는 그동안 ZOOM 프로그램을 활용해 온라인 진행했던 월정사문화원 명상학교의 일환에서 대면방식 집중수행 프로그램 '제1회 오대산 명상학교'를 운영하는 등 변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구례 화엄사도 5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제2회 화엄사 요가대축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꽃의 계절인 7월~8월에는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봉원사, 남양주 봉선사가 연꽃축제를 준비중이다. 코로나 기간 중에도 외부공간이라는 특성상 연꽃을 즐기는 데에는 무리가 없었지만, 그동안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인원제한까지 고려하는 등 제한이 있었다. 올해 연꽃축제는 마음껏 연꽃과 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지난해 비대면 · 온라인으로 진행됐던 부여서동연꽃축제와 전남무안군의 무안연꽃축제도 올해는 정상적으로 재개될 방침이다.

축제의 계절인 가을, 10월경 잇따라 선보일 사찰행사도 기대를 모은다. 특히 불교계는 전국 교구본사 등 주요사찰의 개산대제가 10월경 집중적으로 몰려있는데다가 꽃무릇과 애기단풍 등가을 절경으로 장엄한 사찰의 문화행사까지 이어졌지만,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잇따라 취소되거나 대폭 축소돼 아쉬움을 전한 바 있다.

가을을 상징하는 장성 백양사의 애기단풍축제와 구례 화엄사의 화엄음악회, 고창 선운사의 선운문화축제, 해남 대흥사의 서산대사 추계제향, 대구 동화사 팔공산 승시축제, 부산불교연합회의 팔관회, 강화 전등사의 삼랑성역사문화축제, 평창 월정사의 오대산 문화포럼 등 지난 2년간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됐던 행사들이 대표적이다.

올해에는 각 사찰들이 정부 방역지침에 큰 변화가 없는 한 기존 축제 · 행사들을 예전과 같은 대면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지난 2년간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사찰들의 경우, 올해 대면 규모를 확대하면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을 고려하고 있어 더 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순례 활성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우선 해외 성지순례의 경우 인도를 향한 관심이 높다. 인도 관광비자 발급이 정상화된 데 이어 2년간 운항을 중단했던 에어인디아가 인천 · 델리 직항노선을 운항을 재개하는 등 변화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도 높아진 수요를 고려해 6월부터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며, 현지 바라나시와 아그라 등 관광지를 포함해 불교 4대성지를 참배할 수 있는 순례열차 또한 재가동됐다는 소식이다. 태국도 5월부터 입국당일 PCR검사를 폐지하고 의무가입을 요구했던 코로나 보장보험 한도를 2만 달러에서 1만 달러로 낮췄다. 접종완료자의 경우 무격리 입국도 허용됐다.

국내의 경우 각 단체 등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됐던 순례단도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다. 울산불교문인협회가 4월 23일 해남 미황사와 대흥사 등에서 오랜만에 성지순례를 진행했다. 정은영 울산불교문인협회장은 "창립 후 전국 유명사찰을 찾는 성지순례를 꾸준히 진행했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성지순례는 코로나19 등으로 활동이 위축됐던 단체들이 움직이는 시작점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계종 포교원이 걷기명상 확산을 위해 추진중인 도심 속 순례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포교원은 지난 2월 '허응당 보우의 길'에 이어 4월 '창원 용지호수의 길'을 순례했다. 특히 창원 용지호수의 길 순례는 코로나 이후 2년만에 200여명의 경남지역 포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변화를 드러냈다.

순천시와 구미시의 불교연계 사업도 관심을 모은다. 순천시는 올해 '종교문화여행 치유'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보사찰 중 하나인 송광사와 세계문화유산 선암사를 연계해 '다리 위의 힐링, 힘든 세상에 다리가 되어 줄게'를 주제로 한 순례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구미시는 코로나 기간 중 중단됐던 신라불교초전지 단체생활관 및 사찰음식 체험프로그램을 재가동했다. 5월 2일부터 단체생활관 예약시스템이 정상 가동된 상태이며, 사찰음식 체험도 5월 1일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템플스테이도 대폭 확대를 예고했다. 템플스테이는 코로나 기간 중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1인 기준의 제한적 운영을 이어왔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통해 수요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김용태 홍보팀장은 "이미 외국인 · 단체템플스테이 문의와 예약이 이어지는 등 문화관광 분야와 연계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조만간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개별사찰로도 이같은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시, 절로

수행 · 포교 · 교육



코로나 기간 법회 중단으로 텅 비워진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모습(왼쪽)과 최근 초하루법회에 기도를 위해 조계사를 찾아 앞마당을 가득 메운 불자들의 모습(오른쪽).

산문 열었지만…"미래 불교 진흥에 역량 결집을"

곳곳서 재개되는 법회 · 기도
불교대학 교양강좌 인파몰려
코로나 셧다운 여파도 감지
미래 포교 진흥 · 관심 절실해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에 따라 불교계도 이른바 '리오프닝'을 준비하고 있다. 햇수로 3년째 문을 걸어 잠근 기간 비대면 방식에 의존했던 불교계는 조심스럽게 산문을 열고 대중들을 맞이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기도법회 대폭 늘어난 인파 눈길

불교계 변화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분야는 법회와 기도 등 대면 방식의 신행 · 수행 분야다. 코로나로 인하여 법회 중단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참여인원 제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각 사찰들은 제한이 사라짐에 따라 활발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가 5월 1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연 조계사 초하루 법회에서는 이례적으로 500명이 넘는 불자들이 대웅전과 대웅전 앞마당을 가득 메웠다.

이날 법사로 나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도 수행 정진을 강조했다.

원행 스님은 "우리 모든 사부대중은 부처님 법을 따라서 열심히 수행하는데 법회에 참여해서 늘 의식에 참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계사의 경우 코로나 기간 가장 먼저 법회 중단과 함께 방역지침에 따라 법당 내 50명 인원 제한 등을 준수한 사찰이다. 인원 제한 속에 각종 기도는 열려왔지만, 한계가 있었다. 최근 중단됐던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화엄성중 가피순례'를 비롯해 5월 초삼일부터 성역화 불사를 위한 '지혜광명이 열리는 동양금박 기도' 등 대형기도 법회 등이 본격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도심포교의 중심지인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도 각종 기도, 법회 운영 시 인원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에 봉은사가 5월 15일부터 8월 12일까지 진행하는 하안거 관음기도에는 예년보다 2배 넘는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봉은사는 5월 12일부터 10일간 관음보살 청정가피 오후특별기도도 진행한다.

최종현 조계사 기획차장은 "사찰의 법회와 기도는 어르신들의 일종의 일상생활이었다. 그동안 신도들이 도반들을 만나 대화하고, 기도하며 휴식을 취했던 사찰로 발걸음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불자 역량 결집에 나선 포교단체

신행모임과 불자단체들의 활동도 탄력을 받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의 경우 2월 27일 서울 봉은사에서 미타사까지 '전법ON 포교원력 결집 걷기순례'를 진행한 데 이어 4월 16일 경남 창원 용지호수 일대에서 두 번째 '전법ON 포교원력 결집 걷기순례'를 진행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엔데믹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포교신행단체 결집대회 등을 모색하고 있다. 포교사단은 2년간 중단됐던 팔재계 수계법회를 9월 말 경 대대적으로 연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포교원과 지역별 결집대회를 열고 있는 김영석 포교사단장은 "현재 군부대 등에서의 법회와 전법 활동은 해당 주무처의 판단에 달려있지만 많은 부분이 완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1기 73명, 2기 120명에 이어 3기 130명이 입학한 수미산원정대는 4월 23일 보은 법주사에서 템플스테이 형식의 성지순례를 봉행했다. 매주 목요일 진행되는 수미산원정대 수업에서도 참여율이 높아진 상태다.

불교신도교육, 대면 교양강좌로 확대

불교에 관심이 있는 이들을 신도로 양성하는 불교교육 또한 대면 교육이 확대되고 있다. 3월부터 각종 강좌를 개설해 다시 힘을 쏟은 결과 전반적으로 수강생들이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출입이 통제됐던 사찰들은 불교대학 강의와 교양강좌 등으로 새 신도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선운사 불교대학, 불국사 연화사불교대학, 수원 보현선원 보현불교대학, 마곡사 불교대학, 제주 법화사 불교상담대학 등이 최근 조계종 포교원으로부터 신규인가를 받고 신입생들을 받았다. 코로나 기간 불교대학을 열었던 부산 여래선원도 3월 30일 2배가 넘게 늘어난 395명이 3기로 입학해 수업을 듣고 있다. 팬데믹이 극심했던 지난해에는 160여 명이 2기 신입생으로 입학했다.

사찰들은 특색있는 강의를 선보이고 있다. 코로나19가 한창인 지난해 1년 2학기 과정의 조계종 인가 불교대학을 개설해 19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서울 금강선원(선원장 혜거)은 올해 2기 수강생을 모집, 20여 명의 학생들이 매주 수요일 강의를 듣고 있다. 금강선원의 경우 즐거운 행복명상수업, 심리학으로 접근하는 자기성장 표현 예술, 역사인문학 수업 등으로 교양부분을 강화했다.

제주 법화사(주지 도성)가 3월 4일 설립한 불교상담대학도 상담심리학, 심리치료 등에 집단상담, 심리놀이 등을 더해 41명이 현재 수업을 듣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 포교 분야 관심 필요

사찰의 기도법회 및 신행모임, 포교조직이 활발하게 재개되는 반면, 어린이 청소년 포교분야에서는 2년간 신입 회원을 유치하지 못한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어린이 포교단체 동련이 펴내는 새싹 포교지 〈연꽃〉의 경우 코로나 이전 4500부를 보급한 것이 올해 3200부 보급에 그쳤다. 사찰 어린이 법회 등에서 작게는 10부부터 100부 등 어린이법회를 여는 곳에 보급하기에 그만큼 어린이법회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최미선 동련 사무국장은 "2년간 줌과 같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공모사업을 여는 등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어린이들이 사찰에 나오지 않다보니 신규회원을 모집하는 부분에서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동련은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올해 6월 11일부터 1박 2일간 경주 황룡원에서 열리는 지도자 연수에서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청소년 포교를 담당하는 파라미타청소년협회에서도 학년별 활동이 2년간 타격받은 상태다. 김정화 파라미타 차장은 "2년간 활동을 많이 못한 학생들을 보면 안타깝다. 학생조직이 약화된 부분이 있다.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목표를 잡고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을 통해 충분히 참여를 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역섭 자비신행회 사무처장은 "매주 토요일 청소년을 응원하고 간단한 식사와 함께 상담과 명상의 기회도 제공하는 빛고을청소년식당 나르샤를 운영해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불교 각계에서 명상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 청소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불기2566년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본사

황악산 **직지사**

사부대중일동

경북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www.jikjisa.or.kr
전화 (054)429-1700~3, 429-1713~15 팩스 (054)436-3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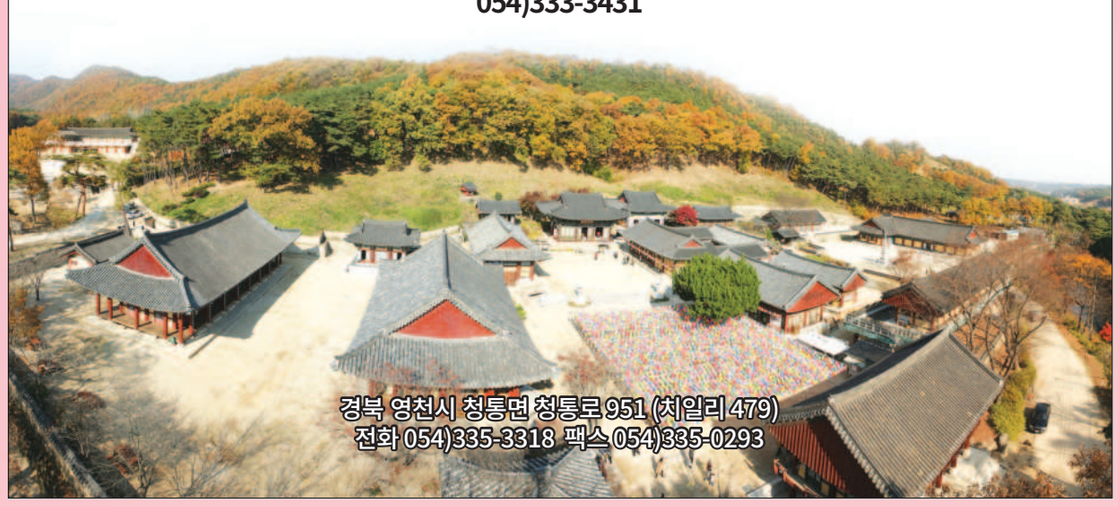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銀 海 寺

사부대중일동

www.eunhae-sa.org
학교법인 동곡학원 / 영천 선화여자고등학교
054)333-3431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951 (치일리 479)
전화 054)335-3318 팩스 054)335-0293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사 **원 당 암**

"혜암 큰스님께서 주석하시던 도량"
사부대중일동



〈법회안내〉

■철 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7일 철야 용맹정진	·음력 7월 1일 ~ 8일 / 음력 12월 1일 ~ 8일	
■재가불자 참선결제	·동안거 결제	음.10월 15일 ~ 1월 15일
	·산 철 결 제	음. 2월 15일 ~ 3월 30일
	·하안거 결제	음. 4월 15일 ~ 7월 15일
	·산 철 결 제	음. 8월 15일 ~ 9월 29일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41-23 http://www.wondangam.org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상담시간 : 오전 8시~오후5시)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모두를 자기와 같이 본다면 그 마음의 향기 에너지가 상대까지 밝아지게 한다.
– 대행 선사 법어 –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중동) | 전화 053)767-3100 | 팩스 053)765-1600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며 함께하는 불교'

안동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도 륜**

회원사찰 일동



경북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 222
전화 054)853-4185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동 명 사

종정 **법 운**

종도 사부대중 일동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전화 054)974-2605 팩스 054)974-2705

불기2566년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부처님오신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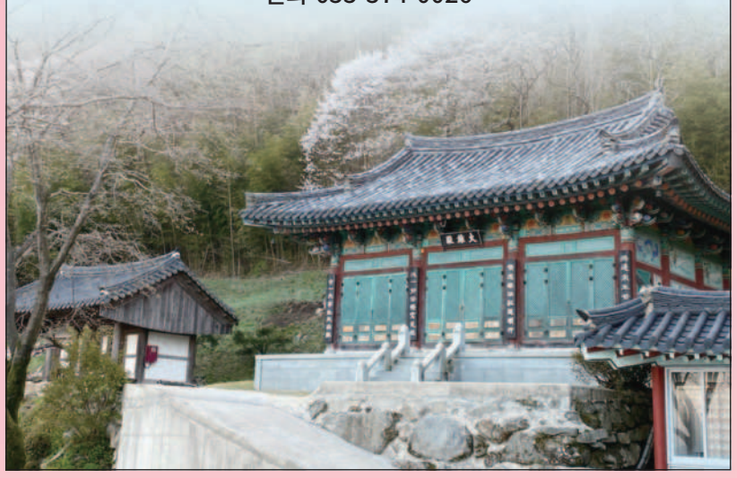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의령 백련암

주지 **도 진**

사부대중일동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자굴산로 1150-142
전화 055-574-0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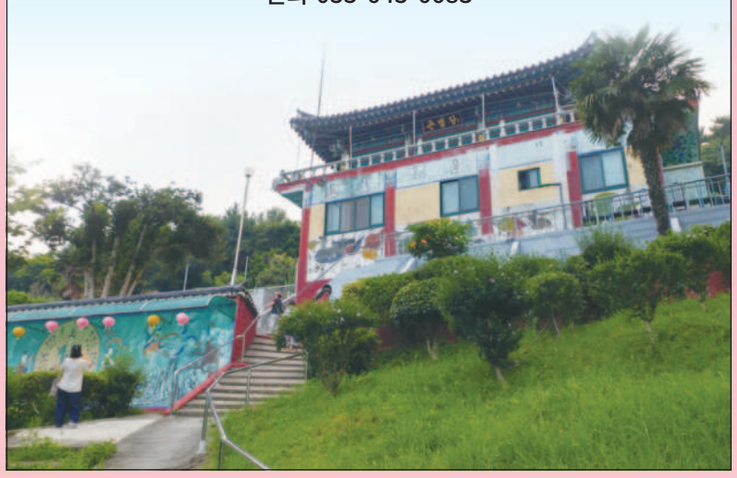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통영 연화사

주지 **도 법**

사부대중일동

경상남도 통영시 진남5길 36
전화 055-645-6683



대한불교조계종

한라산 천왕사

조실 **월 서**
주지 **지 오**

사부대중일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2528-111(노형동)
전화 064-748-8811, 8822



대한불교조계종

창원 봉원사

주지 **지 태**

사부대중일동

경남 마산합포구 현동305
전화 055-241-5333



대한불교조계종

울산광역시 사암연합회

자　　문 **월파(문수사), 눌암(법륜사), 지용(남산사)**
상임자문위원장 **덕진(정토사)**
회　　장 **산옹(백양사)**
감　　사 **혜안(성불사)**
상임부회장 **혜원(해남사)**
부 회 장 **보화(월봉사), 문성(옥천암), 태암(관음사)**
본명(등룡사), 종선(청룡암), 일영(석남사)
총 무 부 장 **효암(여여선원)**
교 무 부 장 **양관(동축사)**
재 무 부 장 **범허(화장사)**
사 회 부 장 **덕송(도솔암)**
포 교 부 장 **정진(태안사)**
복 지 부 장 **명조(선암사)**

부설 울산불교교육대학 학장 **진응(내원암)**
부설 울산사암연합합창단 단장 **기탁(화봉선원)**

회 원 일 동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51(신정동) 성수빌딩6층
전화 052)266-3318~9 팩스 052)261-1285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거제 신광사

주지 **선 안**

신도회일동

경남 거제시 사등면 오랑2길 108
신광사 수목장 상담문의 : 1855-0494, 010-2094-0580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경남지역단

단장 **박해덕**

감　　사 **홍승운 최선옥**
수석부단장 **이용복**
부 단 장 **최성환 안정임**
중부총괄팀장 **정선희** 서부총괄팀장 **박효종**
동부총괄팀장 **김임자** 북부총괄팀장 **김종복**

경남지역단 임원외 포교사일동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96 하이페르상가14층
전화 055)262-1180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산 적멸보궁

와불와산

4백4병 코로나 일시소멸 천일기도 도량
시회대중합장



경남 고성군 개천면 월곡리446
전화 055)673-1007

대한불교조계종

정인사

주지 **원 행**

함께하는마음 즐거운세상
사회복지법인 금강
금강어린이집, 금강노인종합복지관, 금강노인문화센터,
마산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센터, 경상남도 노인보호 전문기관,
경상남도 학대피해 노인전용 쉼터, 마산시니어 클럽,
마산회원 시니어클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천길 118
전화 055)299-5450

다시, 절로

복지 · 구호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년간 전국 복지관들은 개 · 휴관을 수차례 반복했다(왼쪽). 지난해 12월 4일 이후 만발식당의 문을 닫았던 서울노인복지센터는 5월 2일, 반년 만에 배식을 가동했다. 이날 300여 명의 어르신이 식당을 찾았다.(오른쪽)

문 연 복지관 · 기지개 켜는 NGO…'일상으로 한걸음'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2년 넘게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터널을 빠져나오자 일상이 늦봄처럼 다가왔다. 학교 · 경로당 · 복지관 등의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면서 생기가 돈다. 여전히 완전한 일상회복을 말하기엔 '아직' 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각 기관들은 기지개를 활짝 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상태다. 매서웠던 코로나19의 한파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복지관 오니 해방된 느낌이에요"

"집에서 갇혀 있으니까 친구도 못 만나고 답답했는데 복지관 오니까 너무 좋아요. 해방된 느낌이야. 하늘을 날 것 같아요."

거리두기 해제로 복지관 운영이 재개된 4월 25일, 한동안 조용했던 서울 서울노인복지센터가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어르신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어르신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어루만지며 그동안 묵었던 체증을 한 꺼풀 내려보냈다.

이날 오랜만에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들은 모두 조금 들뜬 모습이었다. 지난 6년간 종로구 문화재 지킴이로 활동하며 복지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만발식당도 자주 이용했다던 최영식(71) 어르신은 "복지관이 문을 닫았을 때 너무 슬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었다"면서 "오랜만에 따뜻하게 인사해 주는 직원들을 보니 너무 반갑다"고 웃었다.

복지관 운영 재개를 반기는 것은 어르신들만이 아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계자는 "몸은 더 바빠졌지만 어르신들과 눈을 맞추며 안부를 여쭐 수 있게 돼서 직원들도 반가워하고 있다"면서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외로움과 우울감을 호소하시던 어르신들이 잠시라도 복지관에 나와 직원, 다른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돼 다행이다. 교육실 리모델링과 에어컨 교체, 소품구비 등 이용객들을 맞을 준비를 마친 만큼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4월 25일 전국 경로당, 복지관 등이 일제히 문을 열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닌 만큼 여전히 방역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전국 모든 복지관 이용객은 백신 3차 접종 이상이 필수다. 언제든지 집단 감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에 출입 시 발열체크, 실내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복지관들은 중단했던 각종 대면 교육프로그램과 봉사단, 일자리 등 다양한 사업들의 재가동을 통해 더불어 성장하는 복지공동체를 실현하다는 계획이다. 교육프로그램은 비말 발생이 적은 프로그램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운영이 확대되며 식사는 실내에서 칸막이나 띄어 앉기를 준수해 5월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4월 25일, 복지관들 운영 재개
백신 3차 접종 이상 출입 가능
방역실태 챙겨 일상 회복 전력

국제NGO, 봉사단원 파견 속속
피난민 구호 · 시설 개보수 확대
코로나19 이후 멈춘사업도 재개

서울노인복지센터장 희유 스님은 "이용객들이 불편한 상황 없이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결 상태와 방역 실태를 꼼꼼히 챙기고 철저한 시설관리를 해야한다"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지개' 켜는 국제개발구호NGO

일상회복을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는 곳은 복지관뿐만이 아니다. 그간 제한적인 상황에서 활동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국제개발구호NGO 활동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NGO들은 각 나라별 상황과 연계한 가운데 본격 가동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는 위드코로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미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사업장에 관리급 직원을 다시 파견해 상근시켰다. 현지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올해 2월에는 코로나 발발 후 처음으로 봉사단원 5명을 캄보디아에 파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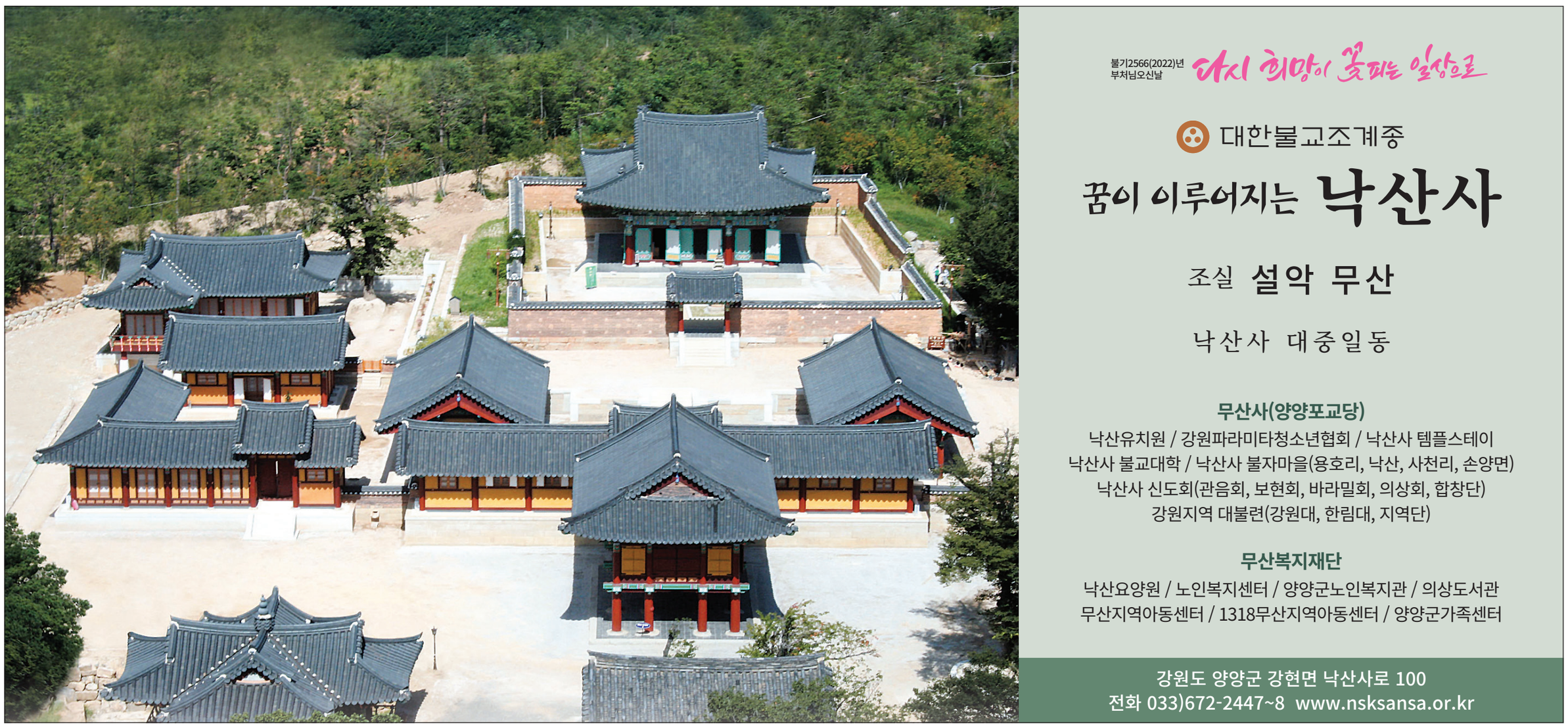
로터스월드는 그동안 미뤄졌던 코이카 협력 사업 역시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4일 코이카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올해 4월 8일에는 라오스 농림부와 업무를 협약, 라오스 비엔티안주 농촌마을 환경개선 및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사업은 2024년 12월까지 이어진다.

더프라미스(이사장 법보)는 먼저 '피난민 구호' 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더프라미스는 최근 '미얀마 피난민 구호' 를 주제로 경기도가 추진한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을 위한 민간제안사업' 에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국경지역 피난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식량 · 방역물품 지원 △여성 · 아동 대상 기초보건 교육 △방역지침 매뉴얼 제작 △고위험군 방역 시스템 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위한 구호 활동은 이미 진행 중이다. 더프라미스는 지난 3월, 독일 베를린 자유대 박사과정 중인 한지애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베를린 중앙역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을 시작했다. 가족 단위 난민들에게 담요와 메트리스뿐 아니라 샴푸, 어린이용 주스, 기저귀 등 위생용품 등이 담긴 키트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는 상태다. 4월 24일에는 묘장 스님(더프라미스 재난구호 이사)과 혜민 스님(더프라미스 이사)이 독일로 출국, 2만불 규모의 물품 지원으로 구호활동을 펼치며 말보다 행동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성우)는 코로나19로 인해 도움의 손길을 보내지 못한 학교들에 대한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굿핸즈 굿스쿨:학교리모델링 프로젝트' 를 통해 6개 국가 학교 개보수 지원사업에 본격 나서는 것. 원활한 활동을 위해 '위드코로나' 변화가 일던 지난해 10월부터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케냐, 미얀마, 네팔 등을 대상으로 개보수가 시급한 학교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지어진 지 5~10년 이상 된 학교 △우기와 홍수, 지진 등으로 타격 받은 학교 △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 방치된 학교 등이다. 지구촌공생회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멈추다시피 한 식수사업지 사후관리, 태양광 펌프 전환, 여성 창업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성우 스님은 "학교시설 리모델링을 아이들에게는 안전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쉬는 시간이나 체육시간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못한 만큼 프로젝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절로

제언 리오프닝, 불교계 관심가질 것은?

‘치유·공감의 불교’가 국민을 사찰로 이끈다

2019년 12월경 중국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몇 개월 만에 지구촌 전체로 확산되는 팬데믹 현상이 되었다. 이후 다양한 변종이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약 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되었으며, 약 6백2십여만 명이 희생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까지 약 2천만 명 가까이 감염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감염의 불안과 죽음의 공포에 직면하면서 갖가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들도 증가하였다. 대면적 접촉으로 이루어지던 종교 활동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냉담자와 무종교인이 급증하는 현상도 이어졌다. 불교계에서도 정기적인 법회들을 중단하고, 일반인들의 사찰 출입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전국의 사찰들은 비대면이 일상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유튜브 방송국의 개설과 함께 이를 통해 법회를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일도 벌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중교육이나 신도교육이 취소되었고, 사찰과 복지기관에서 시행하던 봉사활동도 중단되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방역조치들이 완화되고 사적 모임이나 종교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사찰들은 신도들을 다시 절로 이끌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각종 법회를 정상화하며 와해되었던 신도조직을 재건하고, 신도교육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코로나19가 토착화된 전염병으로 전환된다는 전제하에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사람들의 불안감과 공포심이 다소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에 이미 불교계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종교계는 무종교인 증가로 인한 신앙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2015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우리나라의 무종교인의 비율은 전체 국민의 60%에 도달하였다. 미국에서도 무종교인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25%에 그치고 있으며, 유럽 지역에서도 무종교인의 비율은 30%를 넘지 않는다. 반면에 유독 우리나라에서의 무종교인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은 종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감이 약화되고, 종교계 내부의 불협화음과 모순들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불교계는 출가자 감소와 불자들의 소극적인 신행활동, 경쟁이 치열한 다종교 사회에서 포교역량 저하 등의 여러 요인들이 겹치면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2022년도 들어서면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들의 독성이 약화되고, 치명률도 낮아지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년여 동안 크게 위축되었던 불교계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신도들은 법회와 설법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으며 사찰을 방문하는 불자들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전통사찰 주변을 공원으로 생각하는 지역주민들이 늘어나면서 방문객으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지역 사찰들도 급증하고 있다. 이는 사찰이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과 자연환경이 우울과 불안, 공포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건강 증진과 치유의 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19년 5월 서울 봉은사에 운집한 불자들의 모습. 앞으로 활발발한 불교계 모습이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넘어서 지역주민들이 쉽게 사찰을 방문하고, 불자들의 신행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에 직면하고, 슬픔과 우울, 그리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치유와 공감,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감염병의 위험에서는 벗어났으나 일정기간 후유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따라서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기점으로 하여 1년 동안 모든 사찰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치유와 새로운 정진을 위한 기도법회”를 봉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정진법회를 조금 더 발전시켜 치유명상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불교계가 해야 할 일이다.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치유명상법을 개발하고 이를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치유명상의 대중화도 쉽게 이룰 수 있다.

둘째, 각 사찰마다 핵심신도 양성을 위한 신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사찰이 가장 어려울 때 이를 외호하는 사람들은 신심과 원력을 가진 신도들이다. 각 사찰들은 신도회를 구성하고 신도들의 사찰 운영 참여의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사찰 신도회의 대다수는 임원진 몇 사람만 활동하는 반면에 대다수의 일반 신도와 불자들은 관심이 없는 편이다. 사찰이 지역주민들과의 접촉을 확대하고, 포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교교리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받은 신도들이 많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교육과 연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코로나로 위축된 불교계 활동
새로운 도약위한 준비에 박차
‘치유·공감·공공’ 새 키워드

또한 출가자 감소로 인해서 소임자 스님들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각 사찰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려면 사찰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불자들이 많아야 한다.

셋째, 사찰은 고립된 종교의 섬이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대부분의 전통사찰들은 개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종교에 관계없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다. 또한 국립공원 등에 위치한 전통사찰들은 많은 국가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불교의 사찰들 중 다수는 문화재보호법상의 지원을 받으며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운영되는 공찰들이 많은 편이다. 이러한 유형문화 자산을 지역사회 주민들은 물론이고 온 국민들과 함께 향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축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받았으며, 강화 전등사의 삼랑성 축제와 같이 사찰을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지역축제로 운영되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찰행사들은 연 1회의 음악 공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 지역의 거점 사찰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행사로 발전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문화단체를 결성하여 함께 장단기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템플스테이와 연계된 사찰의 순례길 개발이 필요하다. 지난 몇 년 동안 전국각지에서 순례길을 조성하여 많은 사람들을 모았으나 현재는 대중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불교계에서도 관음도량 성지순례를 제시하고 인증해주는 책자도 발간하였으나 대중의 호응은 크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을 챙기면서 치유 여행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전국의 템플스테이 사찰을 점검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인력 배치가 요구된다.

템플스테이가 가능한 사찰들은 재방문자가 증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자들이 불교를 이해하고 신행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서는 젊은 층에서 템플스테이 참여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청년층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걷기 순례명상 프로그램의 수요가 많아질 수 있다. 최근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단 순례길에 많은 사부대중이 참여한 바 있다. 그리고 현재에도 매월 교구본사 등 주요사찰의 순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순례 과정에서 순례길을 개발하고 각 사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편의시설을 보완한다면 순례와 템플스테이를 동시에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교육기관 인증을 통해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팬데믹 이후 각 사찰들은 불교 사회복지 및 봉사와 후원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봉사활동은 복지시설에 국한하기 보다는 환경, 인권, 문화, 반전 및 반핵운동, 국제구호 등 여러 가지 영역을 다양하게 개발해야만 불자들의 다양한 봉사욕구를 해소할 수 있다.

초기경전인 〈맛지마니까야〉의 ‘에쑤까리의 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봉사의 의미가 잘 나타나 있다. 봉사는 신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게 자발적으로 신심과 지계, 보시와 배움, 그리고 지혜가 향상되도록 실천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각 사찰에서는 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봉사처를 발굴하고, 봉사 매뉴얼 제작과 더불어 전문적인 봉사를 위한 자원봉사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자원봉사는 지역 행정기관에 소속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활동하고, 다른 여러 봉사단체와의 적극적인 교류활동도 필요하다.

불교를 공부하고 신행활동을 한다는 것은 삼보에 귀의하여 계행을 실천하고, 올바로 믿고, 마음속의 인색한 때를 제거하여 베풀고,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갖추기 위함이다. 지혜로운 불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리석음을 있는 그대로 알고 벗어나기 위해서 참회하고 정진한다는 의미이다. 지혜로운 불자라면 코로나19에 대하여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 변화를 예측해 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올바른 일을 찾아 묵묵히 실천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움츠렸던 가슴을 펴면서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될 때가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전국의 각 사찰의 스님들과 불자들은 적극적이고 지혜롭게 준비하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익과 향상, 행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향하는 길’이 열리리라 확신한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5월 8일 (일, 음 4.8)

주 지 벽암 지홍 합장
신도회장 정광자 김희남

법회 및 기도 안내
일요법회 매주(일)10:30
호법법회 매월 첫째 주(수) 10:30
초하루신중기도 매월 음력 초하루 10:30
지장재일기도 매월 음력 18일 10:30

유관기관 안내
행원 사회적협동조합
보리수 지역아동센터
시립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시립 하안누리어린이집
시립 새론어린이집

* 템플스테이 지정사찰 *

법회일 YouTube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 진행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정사 | 주소 경기도 광명시 설월로58(소하2동 341-2) | www.sejon.org
전화 02)898-8200 | 팩스 02)898-1844

불기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화계사

조 실 송원 설정
회 주 성광
주 지 수암
국제선원 정진대중



사부대중일동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계사길 117(수유동)
전화 02)902-2663 팩스 02)990-1885 | www.hwagyesa.org

불기2566년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 능인종

사부대중일동

총무원 :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함마대로905-13(청룡사)
전화 055)585-5300



대한불교조계종

녹색사찰 **백련사**

봉 아름다운 사월초파일 축

주지 **천도**

신도회일동



울산시 울주군 향산 다개로 405-66
전화 052)262-6610

대한불교조계종

사천 **신해사**

회주 **무공**

신해사 말사

진주금천암 주지 **도연**

남해반야용선 주지 **동운**

사부대중일동

경남 사천시 곤명면 경서대로2821-46번길
전화 055)855-1772 팩스 055)855-0247

대한불교조계종

산청 **정취암**

주지 **수완**

사부대중일동



경남 산청군 신등면 둥철산로 675-87(양전리927-2)
전화 055)972-3339

대한불교조계종

진주 **여래사**

사부대중일동



경남 진주시 진주성로188번길 29(상봉동)
전화 055)742-6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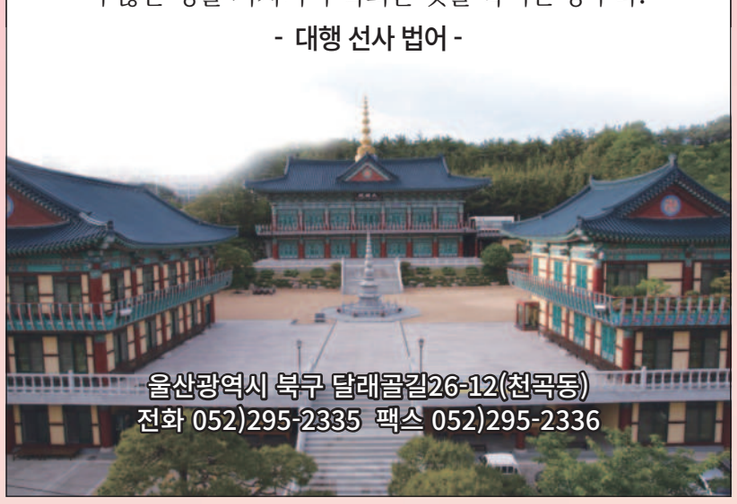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지원장 **혜안**

사부대중일동

정성껏 마음공부를 해보라.
수많은 생을 거치며 누적되온 것을 녹이는 공부다.
- 대행 선사 법어 -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26-12(천곡동)
전화 052)295-2335 팩스 052)295-2336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 말사

대운산 **내원암**

주지 **진응**

사부대중일동

경남 울주군 온양읍 대운상대길382
전화 052)238-5088



대한불교진각종

울산 **정지심인당**

주교 **선덕정사**

금강회일동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183번길33(신정동131-4)
전화 052)271-5212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말사

창녕 **청련사**

주 지 **청산무영**
총무스님 **성휴**
신도회장 **이판암**
총 무 **하보경화**

사부대중일동



경남 창녕군 계성면 청련사길 99
전화 055)521-2185

불기2566년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부처님오신날

한국불교조계종

밀양 삼봉사

주 지 대휴당 녹원
신도회장 김종인, 손경례

신도회일동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단장로379-8.
전화 055)356-0124 부산포교원 051)516-3000

대한불교조계종

화왕산 도성암

불교대학, 예향다회

주지 만천 대휴

사부대중일동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8번지
055)533-2073



함안 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원명
총무 영공
감사 정광

신행단체

함안 불교신도회 회장 조용찬
함안 바웃다합창단 단장 박문자
함안 공무원 불자회장 심은숙

경남 함안군 칠원읍 유원길778(달전사)
전화 055)587-8419

창원시 불교연합회

연합회장 정인 (창원불지사 주지)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사부대중일동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불종거리로 75
사무국 055)222-1393

진주불교회

이사장 상전 홍수승

가야불교대학
학장 : 보선스님
부학장 : 광운 김종윤

무료급식소 보현의집
지도법사 : 원명스님
센타장 : 원명 안정임

붓다기행단
지도법사 : 지현스님
단장 : 혜월 윤재철

만일회
지도법사 : 성각스닝
회장 : 일향 최형석

자비도량참법기도회
지도법사 : 보선스님
회장 : 대명 옥광주

법화경독송회
지도법사 : 지산스님

진불선원
선원장 : 만산 정재영

108인후원회
지도법사 : 원각스님
회장 : 상전 홍수승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1117
전화 055) 747 - 0108

사단법인 울산광역시 불교신도회

회 장 이병호

회원일동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20번길 1 (농민빌딩 4층)
전화 052)271-1310 팩스 052)258-1370

대한불교조계종

미륵산 용화사

주지 종 묵

템플스테이

사부대중일동



경남 통영시 봉수로 107-82(봉평동404)
전화 055)645-3060, 649-3060
템플스테이 : ts6463090@templestay.com

대한불교관음종

진주 약사정사

주지 진 여

사부대중일동

❁ 법화경 기도소원성취도량 ❁



경남 진주시 의병로128
전화 055)761-5382

대한불교조계종

산청 덕산사

주지 동 조

사부대중일동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하 내원로256
전화 055)973-6799

불기2566년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

창포교원 구룡사

주지 무성

사부대중일동

경남 창원시 의창구 천주로56번길 31-1(소답동 909)
전화 055)294-3279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지원장 혜연

사부대중일동

남의 아픔도 둘로 보지 않는 마음
이것이 부처의 마음이다.
- 대행 선사 법어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45-230
전화 055)643-0643 팩스 055)643-0642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사

주지 성륜

신도회일동



경남 진주시 향교로42번길13(옥봉동)
Tel 055)741-4852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산 옥천사

주지 종성

사부대중일동

옥천사템플스테이
체험형『졸졸졸 탁탁탁』
휴식형『물소리바람소리』



경남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로 471-9
전화 055-672-0100 팩스 055)672-0481
템플스테이 055)672-6296 www.okcheonsa.or.kr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울산포교당

해남사

주지 혜원

사부대중일동



울산광역시 중구 기상대로길 13
핸드폰 010-7450-3340 전화 052-211-3340

대한불교조계종

여여선원

주지 효암

신도회일동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88-c1020,8층 (신정동)

대한불교조계종

정토사·불교대학·극락원 납골당

◉ 울산 도심권 영구봉안 납골당 극락원 ☎ 212-7000
- 시내에 위치, 왕래와 참배 용이 • 쾌적한 최신시설
- 사전 예약자 봉안비 혜택

◉ 정토사 불교대학 및 대학원 ☎ 052) 274-3800
- 97년 개교, 1년 과정, 주·야간반, 절 하는 법부터
- 경전반 : 주·야간반, 1년 1경전

◉ 법회 및 신행단체 문화교실 ☎ 052) 258-9944
초하루, 일요, 보름, 지장재일, 관음재일, 다라니·금강경·행원참법 기도 등, 어린이, 학생, 청년, 거사회, 108순례·일요순례회, 신도회, 동문회, 합창단, 요가반, 민화반, 다도반, 난타반, 관현악단, 혼성합창단 등

◉ 장학 복지 봉사단체 사)참좋은세상/ 행복한평생교육원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217번길15(옥동) YouTube '울산정토사'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 말사

울산 덕원사

주지 태여 덕원

신도회일동



울산광역시 중구 성동길 129-10
전화 052)246-8688

대한불교조계종

행복기도도량

지장정사

주지 현우

사부대중일동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37번길 28
전화 052)256-3552





동국대 초대 건학위원장이자 현재 건학위 총재인 자승 스님(사진 앞열 왼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동국대 건학위원들과 불교계 대표 스님 · 학교관계자들이 2021년 4월 19일 건학위 출범식에서 한자리에 모여 불교중흥을 서원하고 있다.

동국발전 불교중흥 첫 돌, 새 아침 맞다

동국대 건학위원회 출범 1년

종립 동국대학교 발전과 불교 중흥을 위해 2021년 4월 19일 힘차게 출범한 동국대 건학위원회(총재 자승)가 출범 1년을 맞았다. 학교 안팎으로 수많은 역경을 딛고 쇄신과 발전을 이끌고 있는 건학위원회의 그동안 활동과 향후 계획을 살펴보았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쇄신과 불교 중흥 기치
'제2 건학'의 새 결사정신 걸어
1년간 조직 구성 및 비전 수립

인재 양성위한 장학불사 나서
불교계의 지원 이끌어 낸 성과
제2 불교병원·역량 결집 추진

상월결사, 동국결사 이어지다

"불교중흥이 동국발전이요, 동국발전이 곧 불교중흥입니다."

건학위원회는 건학위 총재이자 고문인 해봉 자승 스님이 상월결사 이후 "불교중흥이 동국발전이요, 동국발전이 곧 불교중흥"이라는 가르침을 내리면서 설립됐다.

"꽃 피는 좋은 봄날입니다. 건학위가 출범하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기쁘지만 한편으론 마음 무겁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불교는 엄중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출가자와 신도가 나날이 줄어들고, 사찰 살림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종립학교 구성원 조차 부처님 가르침에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는 한국불교의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건학위는 종립학교 구성원의 자기반성과 새로운 다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한국불교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건학위 출범 당시 자승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동국대 건학위 비전을 비롯한 목표와 전략 등이 수립됐다.

건학정신 기리는 조직 구성

동국대는 불교를 중흥하고 나라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를 키워내고자 하는 불교계의 바람이 담겨 건학됐다. 이런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건학위 출범 후 많은 구성원들이 참여해 조직 구성과 역할 분담을 맡게 됐다.

교육과 의료, 지역, 글로벌 등 4개 분과위원회와 건학위 사무국, 13개 산하기관 건학위 등의 체계를 갖췄다. 이를 통해 동국대가 지닌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고 제2건학을 위해 한마음 한뜻을 모았다.

제2건학의 비전 새롭게 수립

건학위원회는 1년간 여러 가지 성과를 냈지만 가장 중요한 성과는 동국대를 중심으로 한 불교계 안팎에 '함께하는 동국발전, 피어나는 불교중흥' 이라는 공동의 목표지점, 즉 비전을 심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불교정신의 사회적 확산과 자부심 고취, 시대를 선도하는 전문지식인 양성, 글로벌 명문사학으로의 인류사회 공헌이라는 목표를 수립했고, 비전 달성을 위한 '삶속 참여' '연계공유' '지속가능성장' '정체성 확립' 의 4대전략을 바탕으로 교육불사, 의료불사, 불교문화 확산, 보시문화 확산을 추진해가고 있다.

건학위원회의 1년 성과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장학' 분야다. 인재양성을 위해 특히 불교계의 성원을 이끌어 낸 점이 건학위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개별적으로 사찰이 진행해오던 장학을 종립대학이 하나로 통합한 지역미래불자육성 장학은 1년간 11회 장학수여가 이뤄질 정도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불교중흥 대작불사 향후 진행

건학위가 1년간 조직구성과 비전 및 계획 수립, 기반사업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동국발전과 불교중흥의 비전에 맞는 중점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1년간 주춧돌을 놓는 작업이 진행됐다면 이제 거대한 불사의 기둥을 세우는 불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건학위는 현재 '제2건학' 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4대 분야, 10대 과제, 5대 핵심사업, 2대 실행사업을 수립한 상태다.

4대 분야는 교육, 의료, 지역, 글로벌 분야로 교육 분야에는 △기관별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 △일상불교 확산 △정체성 확립 체계 구축 △건학이념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선 △불교콘텐츠 생산 및 홍보 등 5개 과제, 의료 분야에는 △제2병원 건립의 1개 과제, 지역 분야에는 △불교인재 양성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 △불교종립학교 연계강화 △기부금 문화 확산체계 구축 등 3개 과제, 글로벌 분야에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건학이념 해외 확산 등 1개 과제가 추진된다.

이와 별개로 5대 핵심사업으로 △학생 장학 및 취업 △중등학교 통합확대 △디지털 대장경 구축 △제2병원 건립 △사이버대학 건립이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2대 실행사업으로는 건학기본기관장연석회의와 동국총조사 등이 있다.

시대흐름 맞는 중점사업 전개

세부적으로는 산하기관별 명확한 비전과 구체적 목표를 수립해 3대 사학의 위상 회복을 모색하는가 하면, 코로나19로 인한 4차산업 혁명 가속화를 대비한 메타버시티 플랫폼 구축, 불교사전 편찬 및 동문열전 '동국의 빛 편찬' 등 건학이념 구현도서 발간, 학령인구 감소 속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장학제도 활성화로 등록금 걱정없는 대학 만들기, 재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동국 잡페어' 개최, 불교중등학교 통합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 디지털 대장경 조성으로 미래형 공유플랫폼 구축, 신도시 거점에 제2불교병원 건립, 온라인교육 및 평생교육 대응 위한 사이버대학 설립, 13개 산하기관 역량결집 위한 동국총조사 실시 등이 추진된다.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동국 발전이 불교중흥이며, 불교중흥이 동국발전이라는 비전 하에 쉼없이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인의식 갖고 정진을"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건학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제2건학의 필요성이 누적되고 절감하던 시기, 자승 스님께서 동국발전이 불교중흥이라는 뜻을 내시고 고문이자 건학위원장의 자리를 진중하게 수락하시며 건학위가 첫걸음을 시작하게 됐다"며 "출범 초기 장학제도 혁신을 통한 인재양성과 완전한 사회진출, 건학의 자긍심을 되살리는 정체성 확립이라는 두 가지 단단한 지침을 제시하였고 이는 건학위원회가 나아가는 길을 밝혀주는 환한 등불이 되었다"고 말했다.

건학위원장으로서 스님은 최근 학교와 학생, 동문을 아우르는 구성원들과 지혜를 모으고 있다. 스님은 "학교의 발전을 위해 수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다양한 조언을 경청해 왔다"며 "동국학원의 설립정신이 역사의 기록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변화에 대한 기대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건학위원회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최근 불교계 안팎에서는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스님은 "1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책임감은 한결같이 무거워 언제나 시작하는 마음 그대로"라며 "동국 구성원 모두가 학교의 주인이자 삶의 주인이라는 지혜로움 속에서 발전과 중흥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자"고 당부했다.







불기2566년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창원 불지사

주지 청계 정인

앞서가는 가르침, 부처님 따라하기

사부대중일동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172
전화 055)262-6663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불모산 성주사

조 실 서해 흥교
주 지 법안
신도회장 보리 김이순

불모의 품속에서 피워온 천년의 향기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곰절길 191(천선동)
전화 055)262-0108~10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진불선원 선불교대학

제13기 신입생 모집

등록기간
2021년 11월~2022년 3월

입학식
2022년 3월 5일(토)

주지 무 아



진불선원·선불교대학
유아어린이청소년법회
창원시 성산구 용호로 112
문의 및 접수. 055)275-3222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

원로의원	구하 (관음정사)	종무원장	환명 (약수암)
원로의원	지현 (해경사)	종무부원장	도각 (선암사)
자문위원	서산 (보광사)	종무국장	자명 (석봉암)
자문위원	월봉 (석봉암)	교무국장	법조 (보현사)
자문위원	세명 (관음정사)	재경국장	명성 (보광사)
자문위원	법안 (청량사)	규정국장	혜각 (수도사)
자문위원	옥산 (화엄사)	문사국장	해진 (승해사)
자문위원	법철 (세심사)	교무과장	법윤 (불정사)
자문위원	석봉 (백운사)	종회의장	정광 (문수암)
포교위원장	황봉 (관음사)	종회부의장	자범 (옥골사)
감사위원장	성각 (기원정사)	중앙종회의원	정광 (문수암)
교육위원장	석봉 (백운사)	중앙종회의원	혜우 (봉연암)
선거관리위원장	만우 (법성사)	중앙종회의원	보행 (법운사)
		중앙종회의원	청호 (관음사)
		중앙종회의원	자범 (옥골사)
중부분원장	혜우 (봉연암)	중부분원총무	자명 (석봉암)
서부분원장	백현 (금봉사)	서부분원총무	자운 (여여암)
남부분원장	자범 (옥골사)	남부분원총무	근해 (무상사)
밀양분원장	승범 (해광사)	밀양분원총무	지원 (부은사)
김해분원장	정광 (문수암)	김해분원총무	무진 (보현정사)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119 현대오피스 1201호
전화 055)298-3634 팩스 055)298-3638

대한불교 천웅사

주지 성 우

사부대중일동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천북로58번안길 12-48
055)545-559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사부대중 합장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35
전화 055)342-6639, 345-9900 팩스 055)346-2179

대한불교조계종

신어산 은하사

회주 서림 대성
주지 만제 혜수

사부대중일동

부설
서림불교대학



경남 김해시 신어산길167
전화 055)337-0101~5

대한불교조계종

가락고찰 불모산 장유사

불교대학 졸업생 및
사부대중일동



경남 김해시 대청계곡길 170-563(대청동)
전화 055)314-2799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장유전법도량

동림선원 동림불교대학 선문화대학

주 지 은암신공
신도회장 노도명화

사부대중일동



경남 김해시 대청 계곡길168-14
전화 055)325-4008

불기2566년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부처님오신날

부산광역시 강서구 불교연합회

고 문 **진철** (숭림사)
회 장 **현엽** (청량사)
기획실장 **자인** (길상사)
수석부회장 **청원** (강서예술촌)
상임부회장 **연담** (용화사)
부 회 장 **정광** (문수암)
진종 (대성암)
사업본부장 **산해** (성불암)
감 사 **심행** (수능엄사)
사무총장 **평산** (산양사)
총무국장 **대일** (여여사)

강서구 불교연합회 회원사찰 주지 일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도로29 전화 051)271-27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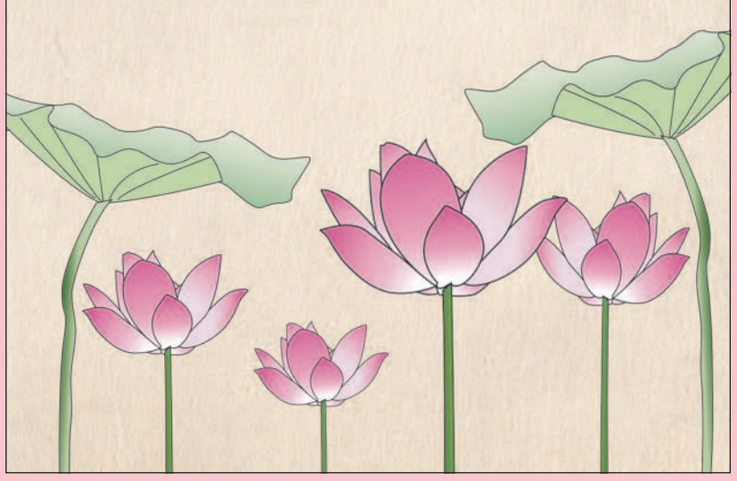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부산비구니

금 련 회

회장 **혜 덕**

회원일동



부산광역시 동래구 불교연합회

중명대범주 명해(소림사)
고 문 대원(금불사) 도문(전등사)
월봉(효자암) 월강(금어사)
혜성(금강사) 자관(자비암)
직전회장 효문(효심사)
회 장 용하(용문사)
자 문 혜민(천불암)
부 회 장 해운(용수달마사) 취산(무량선원)
범관(몽불사)
감 사 무상(미타사) 정호(해동암)
사무총장 범천(무량사)
재무국장 성화(용와사)
홍보국장 지훈(영주암)
포교국장 법광(무량정사)
문화국장 혜륜(혜륜정사)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 321 용문사

마음 편한 절 · 관음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용두산 미타선원

주지 **하 림**

사부대중합장

맑은 마음 밝은 세상

CM 명상상담센터
CLEARMIND

부산시 중구 광복로 77번길 5
용두산공원 에스컬레이터 첫 번째 하차 점
전화 051)253-8687~8

대한불교조계종 비구니

화 엄 회

회장 **상 화**

화엄회 회원 일동



화엄회는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승보종찰조계총림
송광사 부산분원 **관 음 사**



持戒念佛萬日修行道場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다음카페 cafe.daum.net/gwanumsa1

부산시 사하구 제석로 79번길 33 관음사 (당리동39-2)
전화 051)294-9300

(사)향기로운문화동행

기장 청량사

이사장 **보 혜**
후원회장 **정용권**
회 장 **정다금**

기장차문화대학 학장 **이원숙**
부산국제차문화교류회 회장 **원영애**
청량선차문화원 **장외숙**
기장꽃차문화원 **이숙자**
외 임원진 일동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임밖길 12
(지하철 안평역 4번 출구) / 전화 : 051)723-1851

한국불교태고종

동래 읍성

마안산 자 비 암

부산유형문화재 151 육경합부
부산유형문화재 152 선림보훈

주 지 **청 암 자 관**
총 무 **정 웅**

신도일동



부산 동래구 복천로 5번 가길 46
전화 051)552-3320

자비 사랑 행복 나눔을 실천하는 사찰

백양산 참회기도성취도량 **견 강 암**

주 지 **향 공**

정각회, 금강회, 보현회, 관음회, 다도회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934번길 52-35(모라동)
(모라벽산아파트 107동 뒤편) Tel 051)361-8511 Fax 051)317-7665

불기2566년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부처님오신날

부산진구 불교연합회

고 문 월천 혜총
회 장 영제
수석부회장 화산 정현
상임부회장 연산 원타
부 회 장 대유 시광
원상 정사
지명 지원

감 사 태산 보원
재 무 선혜
총 무 해운 도원
의 전 월화 법봉

회 원 백설 인수, 월륜 춘제, 석만 도관, 무심 법지, 승호 원종, 법담, 안국, 우당 무무, 상보, 지공, 원여 도경, 은좌 보현, 지연 보안, 진여

사상구 불교연합회

고 문 청 강(옥천사)
혜 지(낙은사)
경 호(법성사)
자문위원장 혜 산(봉덕사)

회 장 성 문(선광사)
수석부회 성 림(관음사)
부 회 장 지 관(약수암)
대 둔(용운사)
무 문(옥천사)

총무국장 법 경(광명사)
포교국장 은 적(관음사)
사회국장 향 공(견강암)
감 사 자 륜(낙은사)

사상구불교연합회 신도회

신도회장 심인택
신도부회장 전수택
신도회봉사회장 박유진

사상구불교연합회
연합신도회 회원 일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804번길 32-123(선광사) Tel. 051)303-4848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교연합회

고 문 현 각(서림사), 만 일(미륵암)
회 장 법 인(약천사)
부 회 장 혜 원(성불사), 승 공(칠보사)
총무국장 송 우(해장암)
포교국장 자 은(성불사)
조직국장 보 성(무학사)
감 사 선 혜(대부암)
회 원 서 천(미륵암), 정 홍(용주암)
지 화(감로암) 지효(남원정사)외 회원일동

사하구 불교신도연합회 회원 일동

사하 사암 무료급식소

약천사, 성불사, 대부암, 길상사, 해장암,
무학사, 칠보사, 용주암, 감로암, 이경애 외 10명

▷ 운영시간 : 매주 월, 화 오전 9시
▷ 후원계좌 : 부산은행 101-2007-6614-08
사하사암 무료급식소

금정총림포교사회

since2021

회 장 강미자
사무국장 백명구

회원일동

주소: 부산 금정구 상마1길 20 범어사 선문화관
전화 051-508-0102



대한불교조계종

승학산 약 수 암

주 지 혜정

매월 음력 초하루 정기법회
약수불교대학, 생활불교

- 사회복지법인 정향복지재단
- 노인요양원 정향효마을
- 노인요양원 정향행복한마을
- 라온누리(발달장애인 지역밀착형시설)
- 정향재가복지센터
- 황금빛 노인대학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4-45
전화 051)322-3200 팩스 051)322-3205

범내산 관음사

주지 천웅 도광

신도일동

매주 일요일 국수 무료급식

부산시 부산진구 엄광로 384번 나길 72(가남초등학교 앞)
Tel 051) 634-2040 H.P 010-8339-5525



약 수 사

주 지 혜 우
신도회장 김미자
총 무 김정녀

자비회 회원 일동



부산 사하구 감천로139번가길 41
TEL 051)291-9681

대한불교조계종

부산하고도 사상에 있는 옥 천 사

즐겁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768번길 96-10(덕포동)
전화 010-2384-3450

맑은 소리 맑은 나라

월간
낮은 곳에서 참소리를 담아내는 불법 홍포지

도서
출판
Buddhism & Art & Book



맑은소리맑은나라는 선지식의 법문은 물론 불교 에세이, 불교 카툰, 불교 지식 등 다양한 불교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불교 행사를 취재하여 한 달 동안 있었던 불교 소식들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22 동방빌딩 401호 www.puremind-ms.com
Tel. 051)244-0263, 255-0263 Fax. 051-255-0953

서로의 가시를 뽑아주려면…

우승미 작가의
가윤이의 종이접기



그림 · 강병호

앗 따가워!

가윤이는 눈살을 찌푸렸다. 정후가 또 샤프로 등을 찔렀다. 짧고 얕게 콕.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 다시 찌를 것이다. 길고 깊게 꾹. 정후가 뒷자리에 앉은 후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선생님께 자리를 바꿔 달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대차게 쏘아붙여 줄까.

그렇지 않아도 가윤이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수업 시작 전 30분. 이 시간은 독서 시간이었지만, 가윤이네 반에서는 자유롭게 보냈다. 책을 읽는 아이들도 있었고, 종이접기나 마방진 같은 걸 할 수도 있었다. 가윤이는 오늘까지 제출해야 하는 영어학원 과제를 하고 있었다. 어제 과제 하는 시간에 열심히 종이접기를 한 덕분이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어서 단어를 찾아볼 수도 없었다. 머릿속에서 맴돌기만 하는 단어 때문에 한숨만 푹 쉬던 중에 정후가 등을 콕 찌른 것이다.

정후가 하는 행동은 분명 괴롭힘이 맞는데, 그렇다고 학교폭력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샤프심으로 찔러서 '하지 마' 하고 소리치면 '뭘? 뭘 하지 말라는 거야? 난 가만히 있었는데' 하며 어깨를 으쓱했다. 복도에서 마주 걸어오다가 가영이와 눈까지 마주쳤는데도 일부러 어깨를 부딪치고는 '아유 오케이? 잘 보고 다녀야지' 하며 싱긋 웃었다. 정후가 하는 거의 모든 행동과 말이 가윤이를 불쾌하게 했지만, 위협을 느끼지는 않았다.

가윤이는 정후가 다시 찌르기 전에 뒤를 돌아봤다.

"……피비어……"

"뭐라고? 피비?"

"지금 풀고 있는 문제 말이야. 답이 앰피비언스라고. 앰. 피. 비. 언. 스! 단어를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뜻을 생각해봐. 앰피(amphi-)는 둘이라는 뜻이야. 비(-bi-)는 바이오, 라이프, 살다, 라는 뜻이니까 물과 땅 두 곳에서 살 수 있는 동물 앰피비언스."

정후는 영어와 우리말을 섞어 쓰면서 한참을 더 지껄였다. 정후가 영어를 쓸 때는 너무 빨리 말해서 거의 못 알아들었지만, 그중에서 또렷하게 귀에 박힌 말이 있었다. 스투피드. 이 자식이 진짜! 가윤이는 주먹을 꼭 쥐었다. 일생일대의 폭력을 행사해야 할 시기가 가까워졌음을 가윤이는 직감했다. 가윤이는 눈을 감고 맘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며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었다.

"좋아. 그럼 대답해봐. 앰피비언스가 우리말로 뭐지?"

정후의 잘생긴 얼굴이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다가 파랗게, 파랗게 질렸다가 다시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다.

"양서류야. 두 양, 살 서, 무리 류. 양. 서. 류. 그럼 스투피드는 우리말로 뭘까? 여긴 한국이야, 정후야. 네가 여기서 잘 살아가려면 스투피드가 한국어로 뭔지, 그 말에 정말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깊이 생각해봐야 할 거야."

정후가 전학 왔을 때 정후에 대한 아이들의 감정은 극호감에 가까웠다.

정후는 가윤이보다 머리 하나만큼 키가 더 컸고, 길쭉한 다리로 달리기도 잘하고 공도 잘 찼다. 가만히 있어도 웃는 것 같은 눈과 살짝 올라간 입술 끝이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았다. 정후는 다섯 살 때부터 캐나다에서 지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우리말도 꽤 잘했지만 영어가 더 편하다고 했다. 정후 주변은 아이들로 북적였다. 캐나다 날씨는 어떤지, 오로라를 봤는지, 정말 주택가에 곰이 출몰하기도 하는지, 학교생활은 어땠는지, 캐나다 친구들과는 자주 연락하는지 아이들은 묻고 또 물었다.

하지만 곧 시들해졌다. 아이들은 다시 일상의 관심사로 돌아왔다. 신비아파트 새 시즌에 대해서, MMORPG의 베타테스트에 대해서, 최애 아이돌의 생파(생일파티) 이벤트에 대해서 아이들은 이야기했고, 정후는 그 화제 어디에도 끼지 못했다.

게다가 정후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었다. 정후는 도움을 받는 상황이 되는 걸 참지 못했다. 피구 하다가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을 때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쳐버렸다. 어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설명해주려고 하면 인상을 쓰면서 영어로 빠르게 씨부렁거렸는데,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조차도 말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헬이라든지 왓더라든지 F로 시작하는 단어 같은 것은 잘 알아들었다. 아이들은 점점 정후를 피했고, 그 무렵부터 정후는 가윤이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 저마다 가슴에 가시를 품고 살지
> 정후도 무언가 괴로운 게 아닐까
> 그 아이를 자세히 살펴보려무나
> 가시를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괴로운 게 뭐냐면요.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그 애랑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선 바로 뒤에 앉아 있고, 학교 끝나면 피아노부터 방과후 바이올린, 미술학원, 수학학원까지 그 애랑 일정이 겹쳐요. 영어학원 가는 시간만 빼고요. 그 시간에 그 애는 합기도를 가는 것 같더라고요."

가윤은 포교 동아리 '맑고 향기롭게' 동아리방에서 종이접기를 하며 정후에 대해 연신 투덜거렸다. 동아리 활동은 토요일 어린이 법회가 끝난 후에 있지만,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여는 전시회 준비로 요즘은 주중에도 틈틈이 동아리방에 오곤 했다.

"그래? 이거 정말 문제인걸?"

혜원 스님이 빙긋이 웃으셨다. 가윤이는 혜윤 스님의 웃음이 좋았다. 혜원 스님의 맞장구 한 번에 웃음 한 번이면 복잡하고 괴롭게 느껴졌던 온갖 문제가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리스본을 여행할 때 제로니무스 수도원에 갔어. 수도원 벽에는 성 제롬의 생애가 조각되어 있었단다. 성 제롬 앞에서 발을 들고 있는 사자를 봤어. 제롬께서 사막에서 고행하고 있을 때 사자를 만났단다. 사자는 사납게 으르렁거렸지. 제롬은 두려움에 떨었어. 그런데 사자를 가만히 살펴보니 어딘지 이상했어. 사자는 앞발을 들고 있었어. 무척 고통스러운 것 같았어. 제롬께서는 두려움과 싸우며 사자에게 다가가 발을 살펴봤단다. 단단한 가시가 발바닥에 박혀 있었지. 길고 날카로운 가시를 뽑아내자 사자는 온순해졌어. 사자는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울부짖었던 거야. 그 후 사자는 제롬께서 가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했단다.

사람들은 저마다 가슴에 가시를 품고 살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잘 보살피며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 정후도 무언가 두렵고 괴로운 게 아닐까. 그 아이를 자세히 살펴보려무나. 그 아이의 가시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정후는 가시를 뽑아주려고 하면 화를 낼 거예요. 아이들과 어긋난 것도 그런 문제 때문인걸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 가시의 존재를 알아차릴까 두려워서 으르렁거리기도 해. 그걸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니까. 굳이 가시를 뽑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그저 알아봐 주고, 귀 기울여 들어 주고, 같이 아파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기도 하니까."

종이접기가 재미있는 건 평면의 종이로 입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종이접기는 어렵다. 동아리방에서 혜원 스님과 함께 접을 때는 입체를 보고 입체를 만드는 거라 쉬웠지만, 책을 보고 접는 건 어려웠다. 책은 평면으로 입체를 설명하니까.

점심시간에 가윤이는 사자의 엉덩이를 몇 번이나 접었다 다시 풀었다. 아무래도 포기하고 버려야겠다. 사자의 엉덩이가 너덜너덜해져서 어디가 선이고 어디가 면인지 알 수 없게 돼버렸다.

아까부터 정후가 종이 접는 걸 흘깃거리고 있었다. 화를 돋우려면 어느 지점에서 끼어들어야 할지 기회를 엿보는 거겠지. 아니다. 그러기엔 정후의 시선이 진지했다. 가윤이가 틀릴 때마다 안타까움의 감탄사를 내뱉었다.

"혹시 사자 접어본 적 있어?"

"아니. 기린은 접어본 적 있어. 엉덩이 접는 법이 비슷한 것 같아."

"좀 도와줄래? 여기 이 부분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좀 헷갈리지. 여기는 안으로 접고 이쪽은 밖으로 접고, 15도 기울기로 접는 것보다 22도 기울기로 두 번 접는 게 더 잘 표현되는 것 같아. 무조건 책대로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 머릿속에 먼저 그려보면 도움이 돼."

"너 좀 하는구나."

"좋아하니까. 그런데 종이접기는 재미있으려고 하는 거잖아. 가윤이 너는 종이접기 할 때 재미보다는 짜증을 더 많이 내는 것 같아. 그러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접어?"

"종이접기 전시회를 열거든.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음처럼 안 되니까 자꾸 짜증만 내게 되네. 동아리 아이들이랑 공동작품을 내기로 했거든. 지금 드넓은 초원 위에 나무는 접어서 세워놓았는데, 동물이 턱없이 부족해. 초원이 텅 비었어."

"동아리? 전시회?"

정후의 눈이 반짝 빛났다. "관심 있으면 같이 할래?"

종이접기를 하는 동안에는 자연스럽게 수다를 떨게 된다. 이런저런 잡다한 이야기 속에 가끔 속마음이 비치기도 했다.

"캐나다에 있을 때는 영어를 못해서 힘들었어. 나는 차츰 혼자 지내는 게 더 편하게 됐어. 내가 있었던 곳은 북부의 작은 마을이라 한국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 그곳 생활에 겨우 익숙해지고 친구도 사귀었는데, 이젠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거야. 내 머릿속에는 두 개의 폴더가 있는 것 같아. 캐빈 폴더와 정후 폴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나는 자꾸 잘못된 폴더를 여는 것 같아."

가윤이는 정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아주 잠깐 정후의 가시가 반짝 빛난 것 같았다.



우승미 작가는 2005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 '빛이 스며든 자리'가 당선되었고, 장편소설 〈날아라, 잡상인〉으로 제33회 오늘의 작가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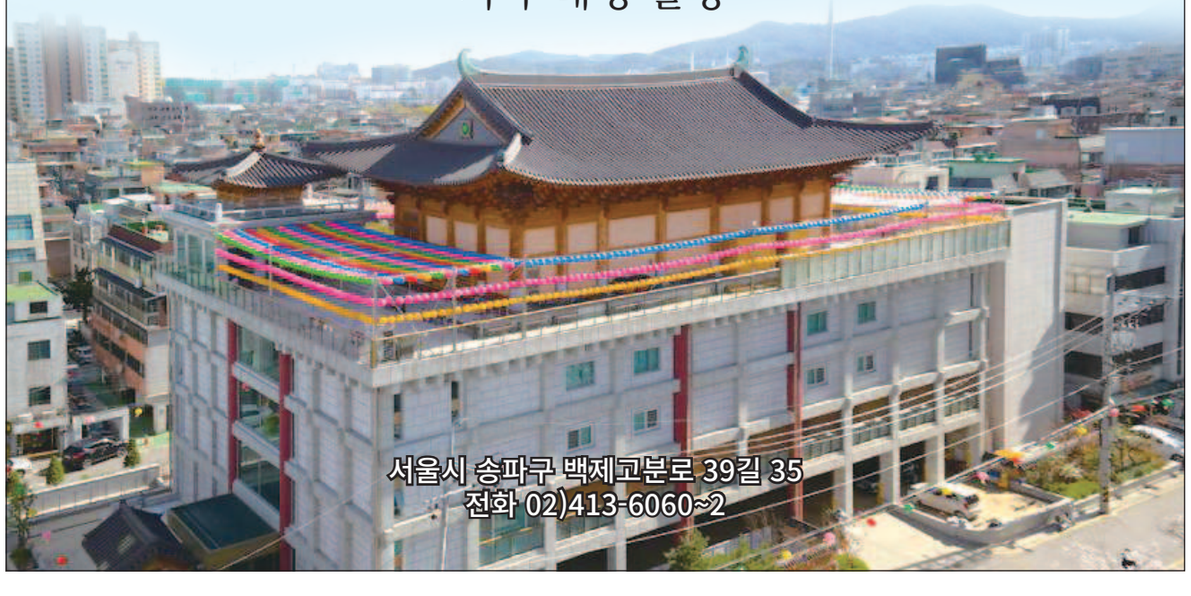
불기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대한불교 조계종 불광사 불광법회

회주 지 정

주지 진 효

사부대중일동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9길 35
전화 02)413-6060~2

불기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구국성사 용성진종대종사 대각사상으로
수행 · 포교하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 사 불심 도문
이 사 봉안 효경
이 사 서해 흥교
이 사 선효 성학
이 사 장산 도업
이 사 월천 혜총
이 사 서주 태원
이 사 금아 혜국
이 사 장산 성춘
이 사 무심 보광
이 사 벽암 지홍
감 사 월암 덕상
감 사 대해 일광
용성문도회 회장 경선
대각회분원 회장 지암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사장 무심 보광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71 전화 02)765-2701 / 팩스 02)741-1385

불기2566년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부처님오신날

은 혜 정 사

주 지 청 암
총 무 청 련 화

사부대중일동

사단법인 대한불교 법음종 총무원 은혜정사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1동 599-7번지 은혜정사
전화 (051)336-0408

광 덕 선 원

주 지 원 담
총 무 금 강 심
사무장 이 경 연

사부대중일동

사단법인 대한불교 법음종

부산광역시 강서구 평강로 299번길 24 광덕선원
전화 010-4435-5660

지 장 암

주 지 수 혜

사부대중일동

사단법인 대한불교 법음종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명촌길천로 14 지장암
전화 010-9193-4624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문경지원

지원장 청 보
총 무 청 훈

사부대중일동

부처님의 향기는 어떤 마음에도 꽃을 피운다.

황토방 템플스테이 운영

경북 문경시 산양면 봉서1길 10
전화 054)555-8871

대한불교조계종

봉 정 사

주 지 함 홍

신도회일동

봉황이 머무른 자리
영산암에서의 하룻밤
하루 템플스테이 특별 템플스테이

세계유산 봉정사

홈페이지 www.bongjeongsa.org
인스타그램 bongjeongsatemplestay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 222
전화 054)853-4181, 4187 / 팩스 054)853-4185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산 축 서 사

주 지 무 여

사부대중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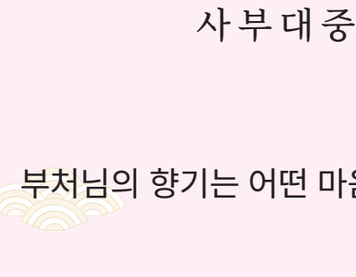
보궁기도
참선법회
템플스테이
불교대학
은빛노인대학



경북 봉화군 물야면 월계길739번길
전화 054)672-7579

풍기정품인삼 풍 삼 정

홍삼의 샤포닌은 성분과향기를 보유하기 위하여
저온에서 72시간을 숙성발효시켜 만든제품



■ 풍삼 정제품 :
풍기정품홍삼액(명품),
순홍삼액골드,
인삼향기홍삼액(골드),
풍기정품홍삼액(골드),
홍삼먹은사과즙, 풍기홍삼,
풍삼정쥬니어홍삼액,
풍삼정홍삼환, 홍삼진액,
홍삼청국장, 백미삼, 수삼





직접재배 가공하여 양심을 속이지 않고 만든
인삼향기 홍삼액 「골드」
100ml × 60포(한달분) ₩128,000원

전화 : 054-636-2174

대한불교조계종

적멸보궁 비 슬 산 **대 견 사**

주 지 법 희

일제 강제 폐사 100년 만에 중창 불사한 도량
국운융성과 민족 통일을 염원하는 대도량
(금,토 철야 정진중)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일연선사길 177
전화 053)746-0020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갓바위 선본사

한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시는
갓바위 부처님!!

경북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로 699
전화 053)851-1868, 853-9877

불기2566년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소 원 정 사

주지 도 계

연꽃향기자비나눔본부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79-5번지
전화 062)279-3332

생명나눔 문화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보 은 사

주지 도 제

사부대중일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촌반촌길 108
전화 062)954-4407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 · 무등산

證心寺

주지 중 현

사부대중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증심사길 177
전화 062)226-0108 팩스 062)222-5997
www.jeungsimsa.org

대한불교조계종

신 광 사

회주 경 주
주지 동 현

대중일동 합장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66번길 42-10
전화 062)261-1529

대한불교조계종

불 갑 사

주지 만 당

사부대중일동



전남 영광군 불갑면 불갑사로 450
전화 061)352-8097

대한불교조계종

신 흥 사

주지 법 공

신도일동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101-1
전화 061)554-2634

무등산 약사기도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약 사 사

회주 범 종
주지 무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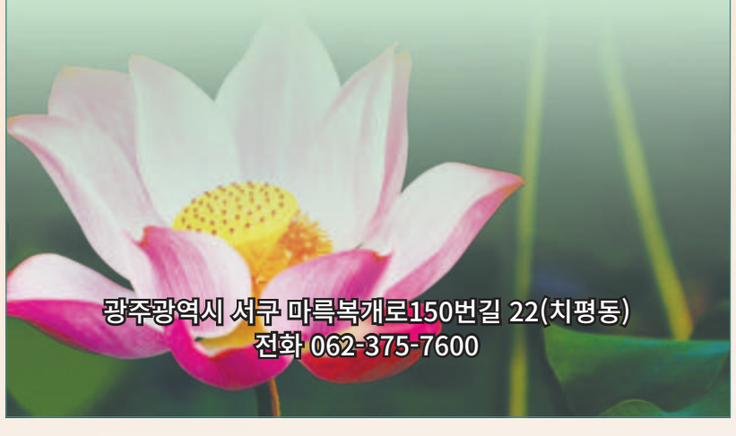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11번지
전화 062)222-9844

대한불교조계종

향 림 사

회 주 수월 혜향
주 지 상범
신도회장 김보덕행
합창단장 조백련화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복개로150번길 22(치평동)
전화 062-375-7600

대한불교조계종

복 암 사

주지 도 성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449번길 68-32

불기2566년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부처님오신날

지혜를 밝히는

강화도 삼.랑.성 전등사

YouTube 〈전등사TV〉

많은 구독바랍니다.

법회, 기도,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전등사로 37-41
전화 032)937-0125, 0025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소서

대한불교조계종 상도선원

회주 미 산 주지 혜 담

사부대중일동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55길 33
Tel 02)815-3391 / Fax 02) 815-0197

네이버 카페
[상도선원]

대한불교조계종

수미정사

불전연구원

사부대중일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백석동길 211
전화 02)395-5946

제2교구 용주사 부모은중 참선도량

수락산 약 사 암
일심선원

주지 공수 성곡

사부대중일동

수목원 용암산 만년결사
제2 무문관 불사 원만성취 발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35길 67-20(상계동)
약 사 암 ☎ 02)937-9132 일심선원 ☎ 02)934-4153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202-806677 (대한불교조계종 약사암)
농 협 351-1161-2896-63 (대한불교조계종 약사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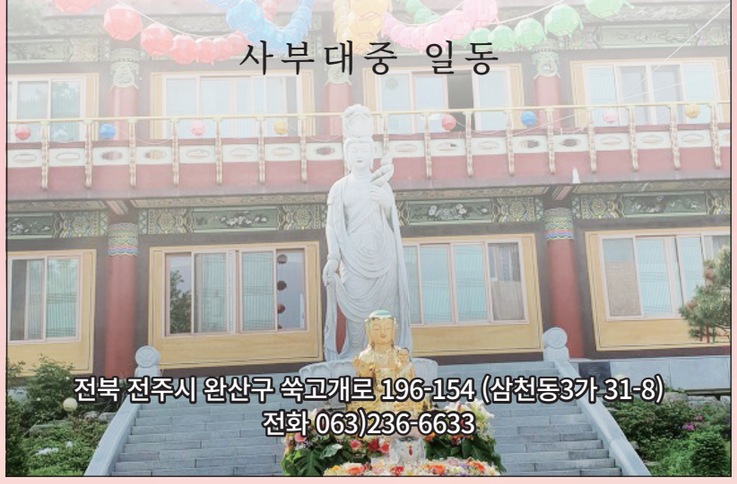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참좋은 우리절

주지 회 일

(사)착한벗들

사부대중 일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196-154 (삼천동3가 31-8)
전화 063)236-6633

대한불교조계종

만 경 사

주지 시 공



광주 동구 무등로557번길 27
전화 062-263-3180

(주)열린기획

대 표

정 성 훈

Stage System Design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506
전화 062)381-7730

예공

Total Design 전문회사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카다로그/브로슈어/리플렛/BI,CI제작
시각Design/인테리어/환경Design
실사, 현수막출력/옥외광고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54-1
대표전화 _ 062·352·7474

연우개발(주)

대표이사

윤 상 준

시설물유지관리업
위생관리용역업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50-1, 302호
(두암동, 두암2차무등파크맨션 상가동)
전화 062)262-0480 팩스 062)262-0481

판화 속 정토 장엄도 보며 극락세계로…

‘영원한 행복의 세계 – 동아시아 정토판화’
고판화박물관 특별전 5월 2일 ~ 6월 26일

한 · 중 · 일 등 정토관련 자료 70여 점 전시
최고 수준 증상사 정토만다라 원목판목 소개
韓 유물 덕주사본 아미타경 아미타래영도 등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세계적인 고판화 전문박물관으로 주목받고 있는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이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특별전을 개최한다. 고판화박물관은 5월 2일부터 6월 26일까지 2022년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진행하는 ‘영원한 행복의 세계-동아시아 정토판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유물은 한선학 관장이 30여 년 동안 수집한 6000여 점의 동아시아 고판화 유물 중 한국, 중국, 일본, 티베트, 베트남 등의 정토관련 자료 70여 점을 선보인다.

고판화박물관은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중을 위해 역병을 물리치는 ‘마음의 백신 다라니’, ‘동아시아 호랑이 판화’ 전 등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특별전 역시 역병이나 기근 등으로 고통 받는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자유와 안락이 보장된 영원한 행복의 세계인 정토를 그리고 판각하여 제작된 정토 장엄도를 대중에게 보여줌으로써 마음의 위안을 주고, 탱화나 전적의 삽화로 등장했던 정토불화를 대중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토만다라를 찍은 증상사 정토만다라 원판 판목이 소개된다. 판목은 정토불교가 가장 발전했다고 할 수 있는 일본 도쿄의 유명한 정토교 사찰인 증상사에서 1845년 판각 완료한 가로 105cm 세로 109cm 대형 목판 원판으로, 대형 산벚나무 세 쪽에 나누어 정토세계를 판각했는데, 조각 솜씨가 정교하고 세밀하여 판각술의 극치를 보여준다. 정토만다라 판목을 살펴본 고판화학자인 박도화 박사(前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실 실장)는 정토불교가 발전한 일본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진 관경만다라 판목 중에서 현존 세계 최고 수준의 작품으로 평가했다. 특히 판목 뒷면에 제작 시기 등이 묵서되어 있어 정토만다라 판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적인 일본 증상사 정토만다라 판목을 고판화박물관이 소장하게 된 인연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 증상사의 정토만다라 목판화를 수집하게 된 한선학 관장은 2020년 12월 야후 옥션을 통해 10여 년 전에 수집했던 정토만다라 목판화의 판목 원판을 치열한 경쟁 끝에 낙찰받은 후 공식절차를 밟아 일본 세관을 통해 무사히 고판화박물관으로 옮겨왔다. 그리고 한국고판화학회, 세계고판화연구보존회 연구원들과 함께 판목을 분석하고 조사하여 특별전을 통해 공개하게 됐다. 한 관장은 “30여 년 동안 고판화에 대한 깊은 관심이 가져온 결실이며, 아미타부처님의 가피가 이어진 것”이라며 “30여 년 동안 최고의 성과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일본 증상사 관경만다라 다색 판화.

이 밖에도 전시회에 처음으로 출품되는 주요한 작품으로는 16세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발원하여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정토만다라 다색판화와 1731년 제작된 지광 정토만다라, 19세기 제작된 무량수경만다라와 불설아미타경 채색판화 등이 소개된다. 정토삼부경의 내용을 판화로 찍고 채색을 올려 극채색화로 제작된 일본 불화판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한국 유물로는 500여 년 전 조선에서 만들어진 덕주사본 아미타경의 아미타래영도(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52호)와 용천사본 아미타경에 등장하는 반야용선도(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53호)를 비롯하여, 실상사판 16관경과 관무량수경 등이 소개된다.

중국 유물로는 명말 청초에 제작된 ‘아미타래영도’ 목판을 비롯하여 광저우 불산에서 제작된 반야용선을 새긴 ‘반야용선도’, 극락세계를 아름다운 채색 석판화로 표현한 남경 금릉각경처의 ‘극락장엄도’ 판화가 소개된다.

정토신앙은 아미타불의 정토에 왕생하려는 신앙으로, 아미타불을 염송함으로써 내세에 서방정토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아미타불의 48대원에 근거한 것이다. 아미타불은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려는 뜻을 세우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48대원을 세웠으며, 오랜 기간의 수행을 거쳐 본원을 성취하고 부처가 됐다. 아미타불은 사바세계에서 서쪽으로 십만억불토를 지나 있는 극락세계에 머물면서 지금까지 설법을 하고 있다. 이 극락세계는 고통이 전혀 없고 즐거움만 있는 이상적인 세계로, 대승불교에서는 정토의 대표적인 곳으로 삼고 있다.

한선학 관장은 “이번에 기획한 특별전은 고판화박물관의 역량이 총망라된 대규모 전시회로, 특히 그동안 수집된 고판화박물관 유물 6000여 점 중 불교회화사와 판화사에서 주목받고 있는 ‘정토’와 관련된 목판과 전적, 불화판화 등 100여 점을 선별했다. 관련학자들과 전문가들 분만 아니라 일반 관람객들에게도 동아시아인들이 꿈꿔왔던 영원한 행복의 안식처인 정토의 세계를 고판화를 통해 더욱 쉽게 이해함으로써 동양문화를 심층적으로 연구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033)761-7885

다시 찾은 성보문화재 만나보세요


완주 위봉사 목조관음보살입입상(사진 오른쪽)과 지장보살입상(사진 왼쪽). 모두 서울 한 사립박물관장 수장고에 은닉돼 있었으나 2016년 발각돼 환수됐다.

불교중앙박물관 ‘환지본처’ 기획전
4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개최

2016년 사립박물관 은닉 성보 확인
대법원서 유죄 및 몰수 명령 확정해
사찰로 환지본처 前 국민들에 공개

1989년 9월 25일 완주 위봉사 보광명전에 봉안됐던 목조관음보살입상과 목조지장보살입상이 문화재 전문 털이범에 의해 도난됐다. 도난과정은 확인되지 못했지만, 범인들은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를 노려 사찰에 침입해 두 보살상을 훔쳤다. 위봉사의 목조관음보살입상과 목조지장보살입상은 도난 후 행방이 묘연했지만, 2016년 서울 종로 사립박물관장 A씨의 수장고서 발견됐다.

A씨의 범행에 꼬리가 잡힌 것은 아들 B씨가 은닉해오던 성보문화재 11점을 사찰 등에 처분하려다가 발각되면서부터다. 결국 은닉 불교문화재 7건 25점은 압류됐고,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에 이운 · 소장돼 있었다. 하지만 본래 자리로 당장 돌아가지 못했다. 몰수 명령이 나지 않아서다.

결국 종단과 피해사찰 7곳은 ‘도난불교문화재 피해사찰협의회’를 구성하고, 압수된 성보를 본래 소유자가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재판을 진행했다. 종단과 협의회의 노력 끝에 성보의 도난과 은닉 관련 재판 최초로 대법원에서 압수물 몰수 선고가 2020년 최종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불교문화재의 유통은 일반적 사례가 아니다”라며 성보문화재의 부적정한 은닉과 처분에 대한 사건에서 중요한 판례를 남겼다. 이는 도난 성보의 불법적인 유통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탄탄)이 4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진행하는 기획전 ‘환지본처(還至本處) - 돌아온 성보문화재 특별공개전’은 종단과 사찰, 정부 기관들의 노력으로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된 성보문화재 32건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자리다.

이번 전시는 총 2부로 이뤄진다. 1부에서는 사립박물관에서 은닉됐다가 몰수 판결을 받아 환지본처하게 된 성보들이 공개된다. 주요 전시 문화재로는 △완주 위봉사 목조관음보살입상 △지장보살입상 △해남 대흥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문경 운암사 목조관음보살좌상 · 대세지보살좌상 △장수 팔성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문경 김룡사 사천왕도 등이다. 2부에서는 도난 성보문화재 환수사례와 가장 많은 도난이 이뤄진 불화에 대한 조명들이 이뤄진다.

전시된 성보문화재들의 면면을 보면 도난 이후 새겨진 아픈 상처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성보 도난 예방과 유통 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준다. 실제, 가장 많은 도난이 이뤄진 불화의 경우 원활한 유통을 위해 문화재 전문 털이범들은 불화를 절취한 뒤 화기(畵記)의 사찰명을 검게 칠해 지우거나 붉게 덧칠하기도 했다. 이는 원소장처를 지우고 도난 문화재임을 감추기 위한 조치들이었다.

한편, 지난 2020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환지본처하는 성보문화재 7건은 전시가 종료되면 원래 봉안처인 사찰로 돌아가게 된다. 성보문화재 환수와 이운을 부처님 전에 고하는 환수고불식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기2566년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문 빈 정 사

사부대중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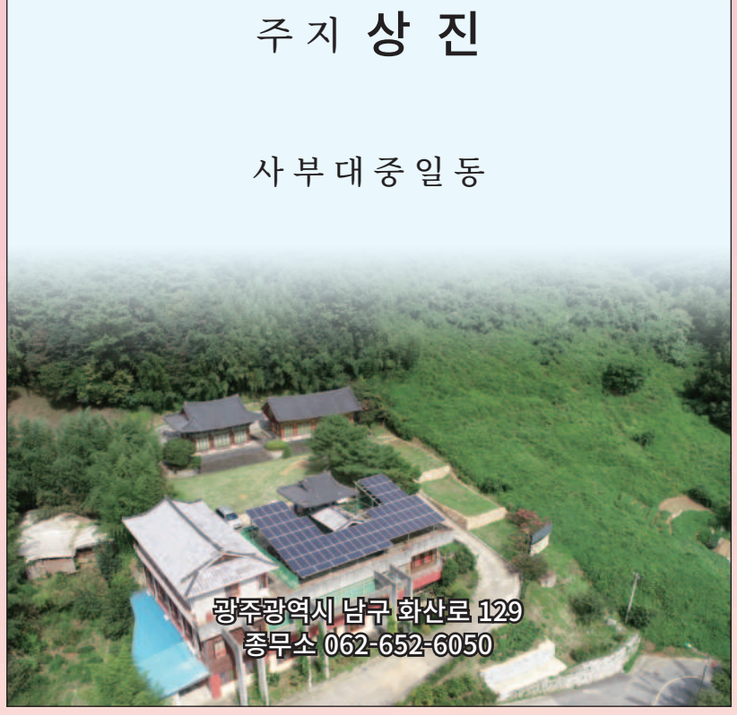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 지 **소 운**

- 관음사 신도회
- 관음사 불교대학(원)
- 붓다스마일 합창단
- 연꽃향기 성지순례회



대한불교조계종

연 화 사

주 지 **명 신**

부 설

연화유치원,어린이집

062)227-0173



대한불교조계종

보 승 사

사부대중일동



대한불교조계종

광 덕 사

주 지 **상 진**

사부대중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무등산 원 효 사

주 지 **해 청**

사부대중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연 화 사

주 지 **지 원**

부설 반야유치원

한국불교태고종

법 륜 사

주 지 **월 인**

신도일동

지장도량

미 륵 사

주 지 **혜 법**

사찰음식 전문점
수자타

불기2566년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내장산 내장사

주지 대원

사부대중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능가산 내소사

주지 진성

사부대중일동





"문화 공동체, 희망 공동체, 수행 공동체"

포교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선운교육문화회관**은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교육, 문화, 복지 활동을 통해
불자 및 고창 군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부처님 오신날을 찬탄합니다.
온 세상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선운교육문화회관 관장 법만 외 사부대중 합장

대한불교조계종

극락도량 약천사

무료시설 **포산승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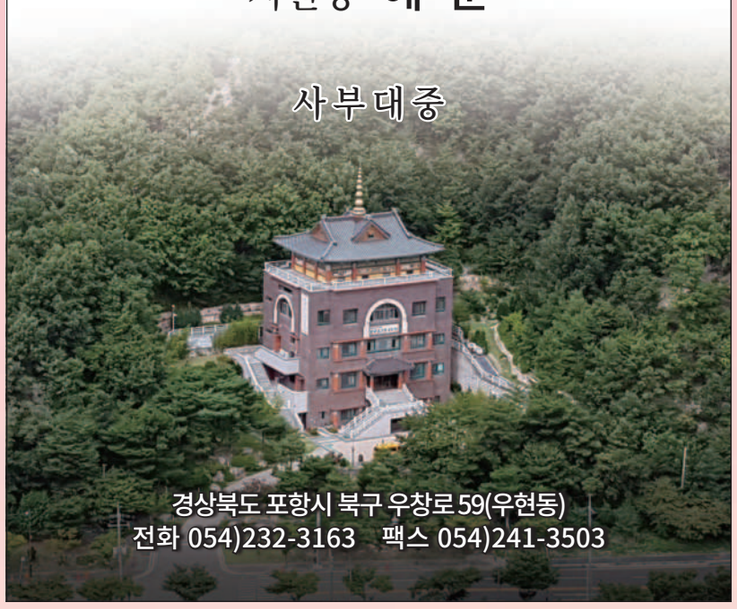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사부대중



'지장천도 영험기도도량'

팔공산 천룡정사

주지 지덕

- 국내 최대 탄생불 봉안
- 국내 최대 반려동물을 위한 축생법당(畜生法堂)개원
- 지장 천도기도도량





중생들의 평안과 다복을 기원하는

八公山 松谷寺

주지 만녕

사부대중일동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팔공로 209
전화 053)657-0108 / 휴대전화 010-3390-2145
https://blog.naver.com/sm20815

큰 사람을 키우는 민족사학
자비와 지혜를 배우는 전법도량

학교법인 능인학원 능인중·고등학교

이사장	**운봉 법광**
교법사	**문수·원경**
능인중학교장	**정영채**
능인고등학교장	**홍은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7 (지산동800)
전화 053-232-9175 / 053-232-9104 / 053-235-4414
법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한불교조계종

자성사

회주 명지

주지 일주

사부대중 일동



불기2566년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동대산 성불사

회주 **만 상**
주지 **혜 안**

신도회일동

울산시 북구 아랫율동2길 262-70
전화 052)287-7200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울산 천마산 서장사

회주 **진옥** 주지 **불 성**

사부대중일동

울산광역시 북구 관문길253
종무소 전화 052)293-0108 010)9741-1188



재)대각문화원

영산정사

주지 **영봉 법웅**

사부대중일동

경남 밀양시 무안면 가례로 233
전화 055)356-0181



대한불교조계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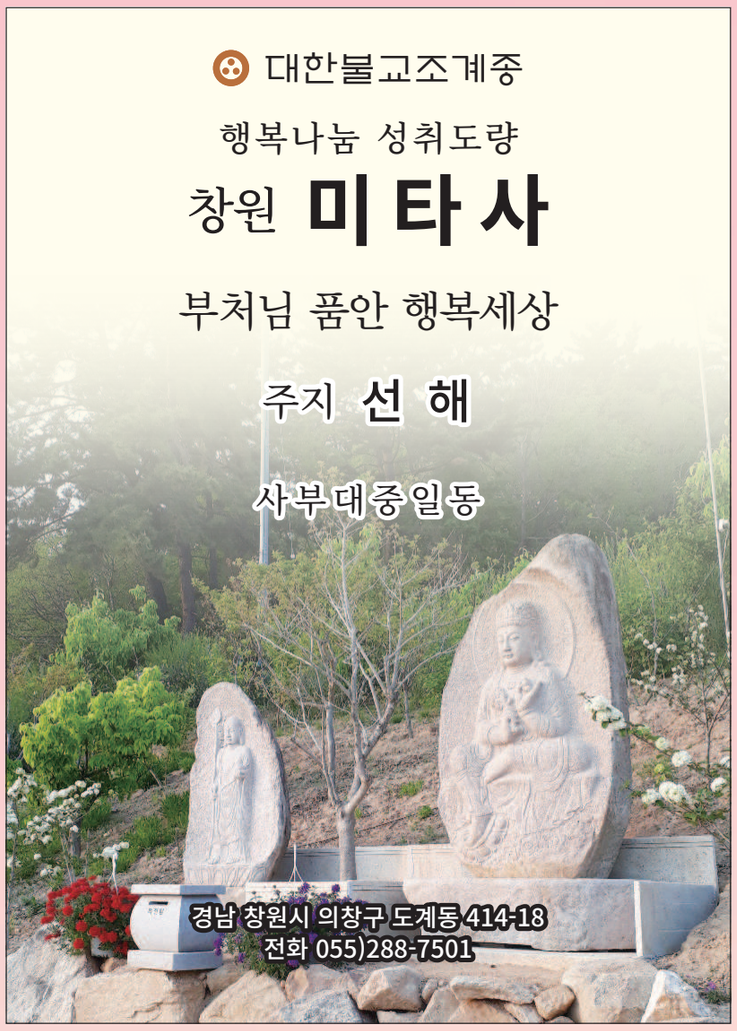
행복나눔 성취도량

창원 미타사

부처님 품안 행복세상

주지 **선 해**

사부대중일동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414-18
전화 055)288-7501

대한불교조계종

칠 불 사

사부대중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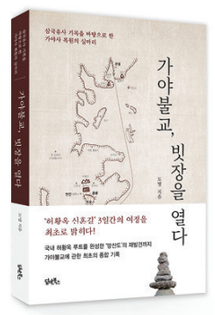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528
전화 055)883-1869

가야불교 빗장을 열다

대한불교조계종

김해 여여정사

불교대학 · 경전반



주지 **도 명**

신도회장 조성진

주소 경남 김해시 가야로30번길1
전화 055)311-2911

대한불교조계종

양산 신흥사

조실 **영 규**
주지 **호 법**

사부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원동로 2282-111

대광전 보물 1120호 / 대광전 벽화 보물 1757호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조실 **현봉 근일**
회주 **남전 호성**
주지 **등운**

고금당선원 선덕 항결선사외 사부대중 일동

부주지 **정우**	화엄승가대학원장 **등현**	총무국장 **도륜**
기획국장 **도선**	교 무 국 장 **혜림**	재무국장 **덕암**
사회국장 **함흥**	호 법 국 장 **등화**	포교국장 **성민**

산하기관 안내

선재어린이집 054) 855-6033
풍기어린이집 054)636-8016
안동청소년문화센터 054)841-2324
의성군노인복지관 054)861-1377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 054)855-7801
재단법인 고운청소년재단 054)841-2324
안계노인복지관 054)862-7900
봉현어린이집 054)637-5179
연꽃어린이집 054)673-09108
영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054)633-6414
고운실버노인요양원 054)833-5900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054)634-3251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054)633-6415
최치원문화관 054)834-8200
의성지역재활센터 054)833-1225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415(구계리1166) | www.gounsa.net
전화 054)833-2324 템플스테이 054)822-6933

대한불교조계종

남장사

대종사 **정강성웅**
주 지 **종호**

사부대중일동

- 영산회 괘불도 보물 제2007호
  지정 : 야외 불교행사인 영산재에 사용된 불화
- 범패 최초 전래지
- 상주시 종합 사회복지관 부설 보광 어린이집 운영



경북 상주시 남장1길 259-22
전화 054)534-6331

日, 방생 통해 생명 소중함 되새겨

세계유산 코후쿠지, 방생 법요식
생태파괴 막기 위해 재래종 방생
코로나이후 첫 일반에 대중 개방
방생지, 성지로 이어나가길 발원

박영빈 객원기자



물고기를 방생하는 코후쿠지 스님들. 사진출처=NHK나라 방송화면 캡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일본 나라(奈良) 천년고찰 코후쿠지(興福寺)에서 방생 법요식이 봉행됐다. 이번 방생에는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재래종 물고기를 절 옆 연못에 방류했다. 연례행사로 봉행되는 방생회에 대해 4월 17일 일본 'NHK 나라' 에서 보도했다.

코후쿠지는 7세기 후반, 당시 세도가였던 후지와라 가문이 창건한 사찰로 토다이지(東大寺)와 함께 나라의 불교문화를 대표하는 사찰로 유명하다. 오랜 역사와 다양한 성보유물로 1998년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도량이다.

코후쿠지는 4월 17일 오전 관수(貫首) 모리타니 에이슌 스님을 법주로 경내 관음당에서 방생법요식이 봉행했다. 2020년과 2021년 방생법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코후쿠지 대중스님들과 사찰 관계자들로만 봉행됐으나, 올해는 일반 대중들에게 법요를 개방하고 물고기를 방류하는 행사는 관광객들에게도 공개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자리를 마련했다.

코후쿠지의 방생 법요식은 그 역사가 몇 백 년을 이어온 정례행사로 현재는 매년 4월 17일에 봉행해 오고 있다. 사찰 옆에 있는 사루자와(猿沢) 연못에 물고기를 방류하는 것으로 방생을 봉행하고 있으며 이 연못은 일본에서도 방생지(放生池)로 유명한 명소다.

코후쿠지에서는 본래 다른 장소에서 사육된 금붕어를 방생하였으나 2년 전 부터는 무분별한 방생이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지적을 받아 재래종을 방생하고 있다. 방생회의 자문을 맡은 긴키(近畿)대학 농학부 키타가와 쥰 교수는 "각지에서 봉행되고 있는 방생회가 코후쿠지의 선례를 따라 친환경적인 형태로 변화하길 바란다"며 재래종 보전과 육성을 위한 방생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방생회에서는 사루자와에 서식하는 생물 개체수 조절을 위해 다른 곳에서 사육된 물고기를 방류하지 않고, 연못에서 포획한 100여 마리의 참붕어 새끼들을 법요식에서 가피하고 다시 연못에 방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코후쿠지 츠지 묘슌 스님은 "전통적인 법요를 이어나가면서 연못 환경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신경 쓰고 있다. 사루자와 연못을 100년 후, 200년 후에도 방생의 성지로 이어나가기 위해 결정한 방생법"이라고 말했다.

물고기를 방생하는 방식도 환경 친화적으로 변경됐다. 통에 담긴 물고기를 그대로 연못에 쏟아 붓는 방식에서 미끄럼틀을 이용해 물고기를 천천히 연못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방생하고 있다.

오사카에서 방문했다는 30대 남성은 "방생에 동참하며 '생명을 소중히 하자' 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면서 "집에 돌아간다면 자식들에게 오늘 본 모습을 전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겠다"고 말했다.

고후쿠지 관수 모리타니 에이슌 스님은 "지금 너무나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똑같이 소중하다" 면서 "모두 함께 생명의 소중함을 소리 높여 세계에 전하는 마음으로 이번 방생회를 봉행했다. 생명의 소중함이 모두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泰, 방콕 국립 박물관 야간 개장

4일간 오후 4시~8시30분 운영
문화광 · 올빼미형 사람 등 초청


방콕 국립박물관의 '초전법륜상' (왼쪽)과 '청동 관세음보살상'. 사진출처=타이PBS

늦은 밤, 어둠 속에서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의 아름다움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태국 방콕 국립 박물관의 야간 개장 운영 소식이 화제다.

태국 공영 방송 '타이 PBS' 는 4월 22일 방콕 국립 박물관 야간 개장 소식을 전했다.

태국 방콕 국립 박물관은 문화광, 미술품 감정가, 올빼미형 사람을 초청해 '박물관의 밤' 을 체험할 수 있는 야간 전시를 기획했다. 참석자들은 태국의 대표 문화재 에메랄드 불상에 이은 두 번째 국가 문화재인 '프라 붓다 싱' 에 경의를 표하고 풋타이싸완 왕좌 전시관에 있는 라타나코신 시대(1786~1932)에 만들어진 벽화를 감상할 수 있었다. 또한 왕실 장인이 만든 다양한 건축물과 유물을 관람했다. 수천 점의 유물들을 본 관객들은 벅찬 감동을 표현했다.

'박물관의 밤' 은 4월 20~24일 매일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운영됐으며 영어 가이드와 함께 하는 박물관 투어는 오후 5시 30분, 태국어 가이드는 오후 6시, 6시 30분, 7시에 시작했다. 모든 관객은 백신패스 및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출입이 가능했다.

이번 야간 개장에서는 특히 눈여겨볼 전시품 2점, '초전법륜상' 과 '청동 관세음보살상' 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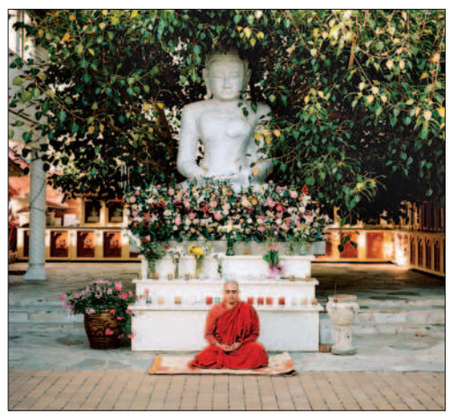
'루앙 뽀르 까오 실라 까오' 라고도 불리는 초전법륜상은 드바라바티(7~8세기 크메르계 민족국가) 양식의 좌불상이다. 이 유물은 불상의 다섯 조각으로 나뉘어 두 개의 사원에서 발견됐다. 머리와 엉덩이는 아유타야 주 왓 프라야콩 사원에서 발견됐으며 가슴과 다리, 발은 나콘 파톰 주에 있는 왓 프라멘 사원에서 발견됐다. 태국의 예술 보존가들이 복원한 유물이다.

태국 만의 서쪽 해안에 위치한 수란타니에서 발견된 '청동 관세음보살상' 은 7세기~13세기 태국과 캄보디아등 동남아를 지배했던 고대 해양왕국 '스리비자야' 의 유물로 13세기에서 14세기에 제작됐다. 해당 불상은 태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명한 불상이며 태국 남부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교류를 증명하는 중요한 유물이다.

방콕 국립 박물관은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박물관으로 1874년 라마 5세에 의해 개관했으며 태국 예술과 역사를 전시하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미국 불교계 속 커지는 라틴계 불교공동체

LA 소재 사라트찬드라 사원
스리랑카 이주민 건립 도량


사라트찬드라 사원의 보리수 아래서 명상하는사나타비하리 스님. 사진출처=더 가디언

전통적으로 가톨릭이 주요한 종교였던 라틴 아메리카 출신들에게 불교가 주목 받고 있다. '더 가디언' 은 4월 15일 미국 내 라틴계 주민들에게 퍼지고 있는 불교에 대해서 특별 보도했다.

로스엔젤레스 노스 할리우드에 소재한 사라트찬드라 사원은 스리랑카 이주민들이 건립한 테라와다 불교 도량이다. 지금도 스리랑카 스님들이 머물며 포교와 수행에 정진하는 이곳은 최근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하는 라틴계 불교도들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사라트찬드라 사원에서 라틴계 불교도들을 지도하는 사나타비하리 스님은 로스앤젤레스 출신 멕시코계 미국인으로 8년 전 스리랑카에서 출가했다. 스님은 동남아 각국에서 안거를 마친 후 이곳에 정착해 포교활동을 시작했다. 스님은 멕시코에서 여러 차례 위빠사나 안거를 주최했고 스페인의 카나리아 제도에 불교센터가 개원하는 것을 지원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신행활동이 각광받기 전부터 라틴계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불교를 배울 수 있는 글로벌 온라인 커뮤니티인 '가르침의 집(Casa de Bhavana)' 를 개설했다.

스님은 "나는 사람들을 개종시키려 하거나 일부러 포교를 통해 사람을 모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스페인어로 말해지는 불교가 여기에 있다"며 자신 있게 이야기 했다.

스님은 "사원을 찾아오는 이들과 스페인어로 대화하고, 가사를 입고 주변을 산책하며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불교를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원 측은 사원을 새롭게 찾는 라틴계 사람들은 영어에 능숙한 스리랑카 스님보다 스페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스님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사원에는 사나타비하리 스님과 함께 2명의 라틴계 출가자들이 머물고 있다.

현재 미국에 얼마나 많은 라틴계 불교도가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2014년에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불교도 12%가 라틴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스님은 라틴계 불교도가 더욱 증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예전이라면 단순한 호기심이나 명상을 배우기 위해 사찰을 방문했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불교도로의 삶을 살며 불교공동체 일원이 되기 위해 사찰을 방문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지역이나, 심지어는 이 도시의 다른 불교 사찰을 방문할 때 종종 라틴계 불교도들을 만나곤 한다. 또 불교 밖에서 좀 더 실용적인 맥락에서 명상이나 불교수행에 관심을 두는 사람도 많다"며 라틴계 불교도의 증가세가 가시적이라고 전했다.

30대 여성신도는 "몇 년 전부터 불교에 관심은 두었지만 스님들과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느껴 사원을 피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편하게 질문하고 상담할 수 있는 스님들이 있어 즐겁게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美불교수행자, 기후 경각심 일깨우려 분신

4월 22일 지구의날 美대법원서



불교수행가로 알려진 미국 환경운동가가 지구의날인 4월 22일 美대법원 계단에서 분신했다.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 콜로라도에서 활동하던 윈 앨런 브루스(50 · 사진)는 이날 오후 6시 30분(현지시간) 법원 앞 광장에서 분신을 시도했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 사망했다. 고인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망날짜와 화재 이모티콘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윈 앨런 브루스의 분신 소식은 전세계 기후위기 활동가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의 SNS기록과 지인의 입장표명 등을 토대로 그의 분신이 단순자살이 아닌 기후위기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실천행동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고인의 SNS는 환경 및 불교에 관한 게시물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콜로라도 불교단체인 샴발라 마운틴 센터에서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삼발라 센터는 초감 트룽파 린포체가 창립한 불교 수행단체다.

그와 함께 명상수행을 해왔다는 기후 과학자 K.크리테 박사는 트위터를 통해 "그의 행위는 자살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실행한 두려움 없는 연민의 행동"이라고 밝혔다.

특히 크리테 박사는 고인의 분신 의미를 알리기 위해 1960년대 베트남 전쟁에 항의하기 위해 베트남인들의 소신행위와 관련, 틱낫한 스님의 가르침을 인용했다. "자신을 불태워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파괴행위가 아니라 중생의 고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고인의 페이스북에는 그를 아는 지인과 기후활동가들의 조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동료 환경운동가들은 이를 추모하기 위한 철야행사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지희 기자

불기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 문 사
주지 방경혜
재 무 이법기
부 전 박대거
거사부전 김법면
사부대중일동
정기법회 : 매월 첫째, 셋째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옥불보전
(우0676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11 / 전화 3460-5300, 팩스 3460-5200

불기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밝히자, 상생과 공존의 등불
대한불교천태종 삼 룡 사
주지 중산 무원
부회장 강영신 연혜숙
사부대중일동
법회안내 매월 둘째주 일요일 오전10시 30분 정기법회
매월 넷째주 일요일 오전10시 30분 경전법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112나길 41 전화 02)496-3839

불기2566년 우리도 부처님 같이 부처님오신날



익산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일 행**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정 각 사

주지 **일 행**

사부대중 일동

정각복지센터

주간보호방문요양
063)841-1355

전북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65-5
전화 063)857-6533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보물 제1842호 관음사 목조보살입상

익산 관음사

주지 **덕 림**

사부대중 일동

부설

이리불교대학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전북 익산시 평동로 9길 72
전화 062)854-1578

지장참회도량

도솔산 참당암

참당선원

선원장 **법 만**

사부대중 일동

전북 고창군 아산면 도솔길 194-77
전화 063)563-3440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성 불 사

전북지방유형문화재 제238호
석가여래행적송

주지 **월은 종명**

사부대중 일동

전북 군산시 경암동 서래내길 34
전화 063)445-3266

포교로 사회를 밝히는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단 장	정 법 김용수
수석부단장	자 광 강대후
부 단 장	법등지 안수빈
	고 경 윤태근
감 사	법 경 강석춘
	서래행 윤은숙
사무국장	김민정
간 사	만 행 이홍복
전주1 총괄 팀장	보현행 오순석
전주2 총괄 팀장	해 월 문병현
전주3 총괄 팀장	진여심 김초순
전주4 총괄 팀장	법성화 김덕순
익산 총괄 팀장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일동

주소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42-13 전북불교회관 2층
전화 063)252-4940 **팩스** 063)252-4941

군산불교 사암연합회

동국사 재 안	흥천사 법 운
성흥사 송 월	보천사 의 종
은적사 석 초	삼보사 법 송
관음사 도 천	수도암 무 진
불주사 덕 운	도안사 명 현
광법사 명 각	대명사 덕 인
회장 상주사 도 연	재무 염불사 혜 윤

사부대중일동

주소 전북 군산시 서수면 함안로 57-29
전화 063)453-7800

한국불교태고종

구미산 일광사

주지 **승 천**

사부대중일동

전북 정읍시 성황산길 50
전화 063)535-3380

한국불교태고종

군 산 성 흥 사

(부설 성흥사 불교대학)

회주 **송 월**
주지 **보 위**

사부대중일동

전북 군산시 성산면 오성로 134-16
전화 063)453-0050

대한불교조계종

금 선 암

주지 **덕 산**

사부대중 일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인1길 377
전화 063)221-8486

마음책 다시 읽기 '그대는 꽃입니다' 7 내가 안아줄게요

▶ 한줄 요약
마음에 꽃피우기 위한 따뜻한 대화의 기술 중 가장 멋진 방법은 포옹이다.

가장 확실한 마음 전달 '포옹'

마음에 꽃피우기 위한 따뜻한 대화의 기술 다섯 번째는 멋진 마무리 수행인 포옹명상입니다. 우리의 스승 틱낫한 스님은 포옹명상을 동서양의 조합으로 보시고 곧잘 티백(tea bag)에 비유합니다. 차는 아시아에서 많이 재배되지요. 산 속 차밭에서 신선한 잎을 골라내어 서늘한 방의 그늘에서 조심스럽게 말립니다. 그 다음 차관에 차를 넣고 약간 더운물을 부은 다음 잠깐 놓아두었다가 마십니다. 차가 서양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아주 빠르고 실용적이며 쉽게 마실 수 있는 티백을 만들었습니다. 티백을 머그잔에 넣고 더운 물을 부으면 몇분 만에 차가 준비되니까요. 그것은 동양과 서양의 지혜가 결합된 것입니다. 이제 틱낫한 스님은 동서양의 화해를 위한 또 다른 멋진 수행을 포옹명상의 형태로 보여주십니다.

서양에서는 친구나 가족끼리 인사할 때 흔히 포옹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인사로 하는 포옹은 짧고 피상적입니다.

대부분 포옹에 별로 신경 쓰지 않죠. 포옹을 하면서 앞으로 맞이할 저녁 일과나 해야 할 다른 일에 대해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포옹이 아닙니다.

틱낫한 스님은 포옹에 명상을 접목한 포옹명상을 진심으로 권합니다. 몸으로 포옹하는 부분은 서양문화에서 왔고 마음으로 포옹하는 부분은 동양문화에서 온 것이죠.



포옹명상 방법

포옹명상은 마음챙김 수행을 하면서 포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옹명상을 할 때는 용수철 장난감처럼 바로 포옹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옹하기전에 먼저 마음을 현재의 순간에 완전히 집중합니다. 두사람은 서로 마주보고 서서 호흡을 따라가면서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도록 집중합니다. 상대방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존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보는 순간 당신은 더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내 아이들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행복과 고통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런 아내가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후에 두 팔을 벌려 안아주면서 그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생각합니다. 이런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당신은 몹시 고통스러울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내 아이들의 아버지예요." 아내는 두 팔을 벌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조용히 또는 큰소리로 말합니다. "세 명의 훌륭한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어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아이들은 당신과 나의 조상들로부터 가장 좋은 점을 물려받아서 너무나 사랑스럽고 재능도 많고 예뻐요."

다시 숨을 들이쉬면서 말합니다. "나는 이 아이들의 아버지인 당신이 나의 팔 안에 이렇게 살아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숨을 내쉬면서 말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숨을 들이쉬면서 말합니다. "만일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비참해질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제 팔 안에서 이렇게 살아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해요."

부모는 아들, 딸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가장 좋은 것을 미래에도 이어갈 거야. 너희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깊이 사랑해온 나의 아들과 딸이란다. 너희들은 나의 미래와의 연결이며 연속이고 앞으로 나의 희망과 포부를 간직해 갈 거야."

아들과 딸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면서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 아버지는 저희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이예요. 지금 아버지를 품에 안을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어머니, 나의 어머니! 어머니는 연약하시지만 강한 분이세요. 용감하신 어머니! 어머니는 언제나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위험에 맞서 오셨고 모든 어려움을 감당해 오셨어요. 저희들 인생에 주어진 이 소중한 보물을 제가 품에 안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동생이 누나와 포옹할 때도 포옹명상을 하십시오. 잠시 동안 누나를 바라봅니다. 포옹을 하면서 누나 안에 남아 있는 어머니와 어머니의 따뜻한 성품을 찾아보세요. 포옹하면서 생각합니다. "아, 내가 누나를 안고 있어서 얼마나 기쁜가. 동시에 부모님도 함께 안아주고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나는 누나들 안에서 내 부모님의 모든 성품을 볼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합니다."

북미에 살고 있어서 자주 만나지 못하는 베트남 출신의 여학생이 명상하러 플럼빌리지에 오는 날이면 나는 그녀와 포옹으로 인사합니다. 그녀를 보고 두 팔을 벌리면서 생각하죠. "이 사람은 베트남의 딸이며 서양의 딸입니다. 이 젊은 여성에게는 두 가지 문화가 공존합니다. 그녀는 틱낫한 스님에 의해 설립된 이 곳 아름다운 실천의 공동체에 의해 마음이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했고, 더 많은 아름다움을 북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이 곳에 왔습니다."

나는 그녀를 꼭 안고는 그녀의 존재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녀가 플럼빌리지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그렇게 먼 길을 왔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포옹명상을 합니다.

> **마음챙김 수행의 포옹 방법**
> **마음의 현재 순간에 집중해**
> **상대방을 깊게 생각하는 것**
> **사랑과 감사의 표현에 적합**

30년 결혼생활 후 첫 포옹명상

콜로라도에서 틱낫한 스님과 함께하는 안거가 열렸습니다. 그 곳에 한 심리치료사가 참석했는데 그는 포옹명상을 하며 마음챙김 수행하는 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는 안거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갔을 때 공항에 환영 나온 아내에게 이 새로운 수행법을 시도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아내를 보고 바로 포옹을 하지 않고 처음에는 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그윽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 두 팔을 벌리고 오랫동안 그녀를 안아 주었습니다. 그의 사랑이 완전히 전달되었다고 느꼈을 때까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의 포옹이 이전과 달라진 것을 느낀 아내는 놀라워하며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우리가 30년 동안 같이 살아 왔지만 당신이 이렇게 저를 안아준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한 스님께 이 방법을 배웠어요. 이 것은 마음챙김 포옹이라는 겁니다." 그녀가 물었죠.

"스님이 저를 그렇게 안아 주라고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 스님이 누구시죠? 저도 만나 뵙고 싶어요."

그래서 그녀는 틱낫한 스님의 다음 안거에 참석했고, 차명상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이 명상안거에서 돌아왔을 때 저를 안아 주었던 방식이 저를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저도 남편과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포옹을 할 때마다 그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마음챙김포옹명상을 배우러 왔습니다."

포옹명상은 아주 깊은 효과를 주는 간단한 수행법입니다. 이것은 '마음에 꽃피우기' 시간을 마무리하거나 또는 언제든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깊은 감사를 표현할 때 쓰는 훌륭한 수행방법이죠.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포옹명상

내가 아는 한 가정은 다섯 명의 성인 자녀들이 서로 낯선 사람처럼 지내고 있었죠. 내가 그들 가정의 가톨릭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네 명의 아들이 서로 간에 큰 갈등을 안고 있었어요. 그들은 다른 형제들이 집에 있으면 절대 집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는 이 사실을 그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장례식에서 아버지의 관이 막 닫히려 할 때 나는 아버지의 시신을 가리키며 그들에게 말했죠.

"이 몸은 당신 아버지의 한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당신의 아버지 안에 있는 훌륭한 점들, 그의 마음과 재능, 아름다움과 자애로움은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들어 있습니다. 당신 형제들이 서로 포옹하고 다시 아버지를 포옹해 드리세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향이 들어 있습니다. 부디 아버지의 살아있는 몸을 당신의 품 안에 꼭 껴안으세요!"

그들은 한 명 한 명씩 서로를 껴안으면서 큰 소리로 울더군요. 그들의 어머니는 자녀들이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5년간 크리스마스나 새해에도 전혀 연락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이죠.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포옹명상

우리가 버몬트에서 주최한 3주간의 명상안거 동안 서로에게 아주 매정하게 행동했던 한 부부가 있었어요. 명상안거 중에 아내는 남편에게 격노하여 가솔린을 부어 불 질러 버리겠다고 위협까지 했죠. 그녀의 분노는 엄청났습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불을 지르려고 한다고 남편이 신고를 해서 경찰까지 왔었습니다.

내가 '마음에 꽃피우기' 수행에 관한 발표를 한 후에 남편이 나에게 와서 말을 걸더군요.

"스님, 제 아내가 화가 나서 저한테 불을 지르겠다고까지 하네요. 저는 아내가 스님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스님께서 '마음에 꽃피우기'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그의 아내를 초대하여 다음 주에 함께 이야기를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 후 두 사람을 만났죠. 만남이 끝나갈 때 즈음 나는 그들에게 포옹명상법을 알려주었어요.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울더군요. 다음날 그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매우 행복한 포옹명상이었습니다.

저자 : 찬콩 스님 〈사유수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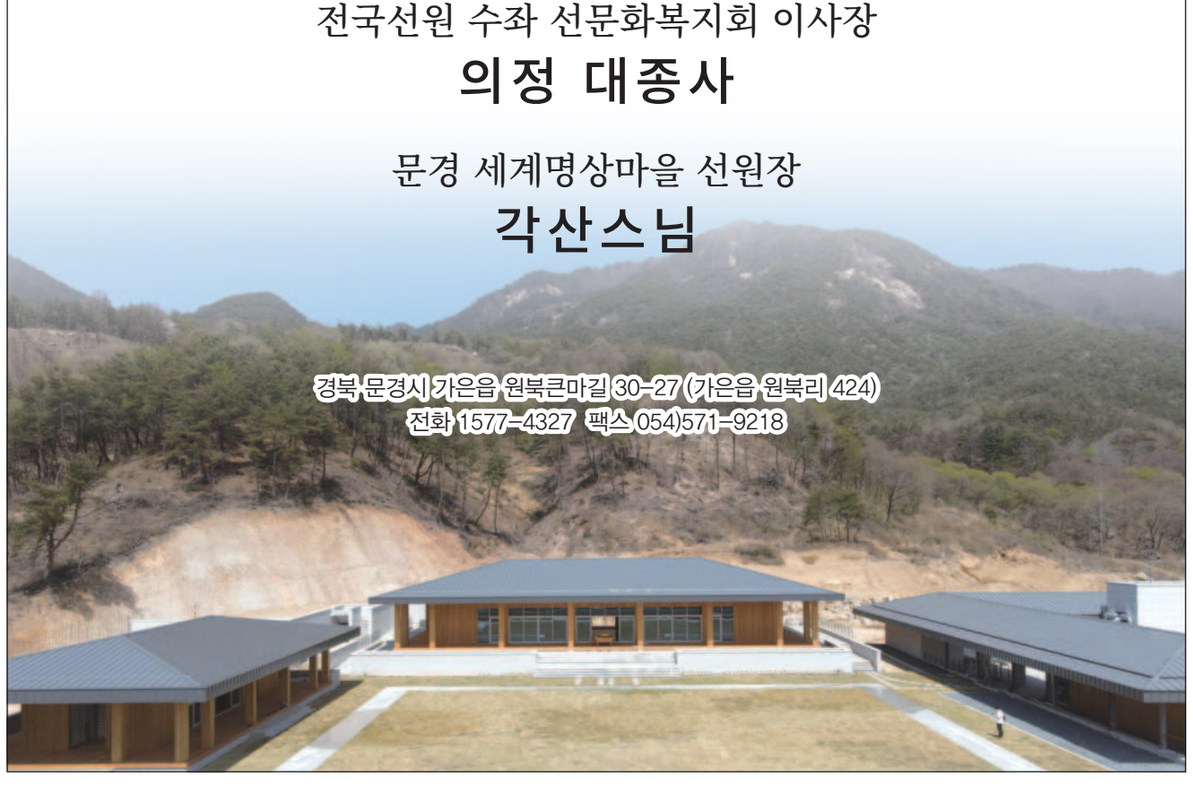
불기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전국선원 수좌 선문화복지회 이사장
의정 대종사

문경 세계명상마을 선원장
각산스님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큰마길 30-27 (가은읍 원북리 424)
전화 1577-4327 팩스 054)571-9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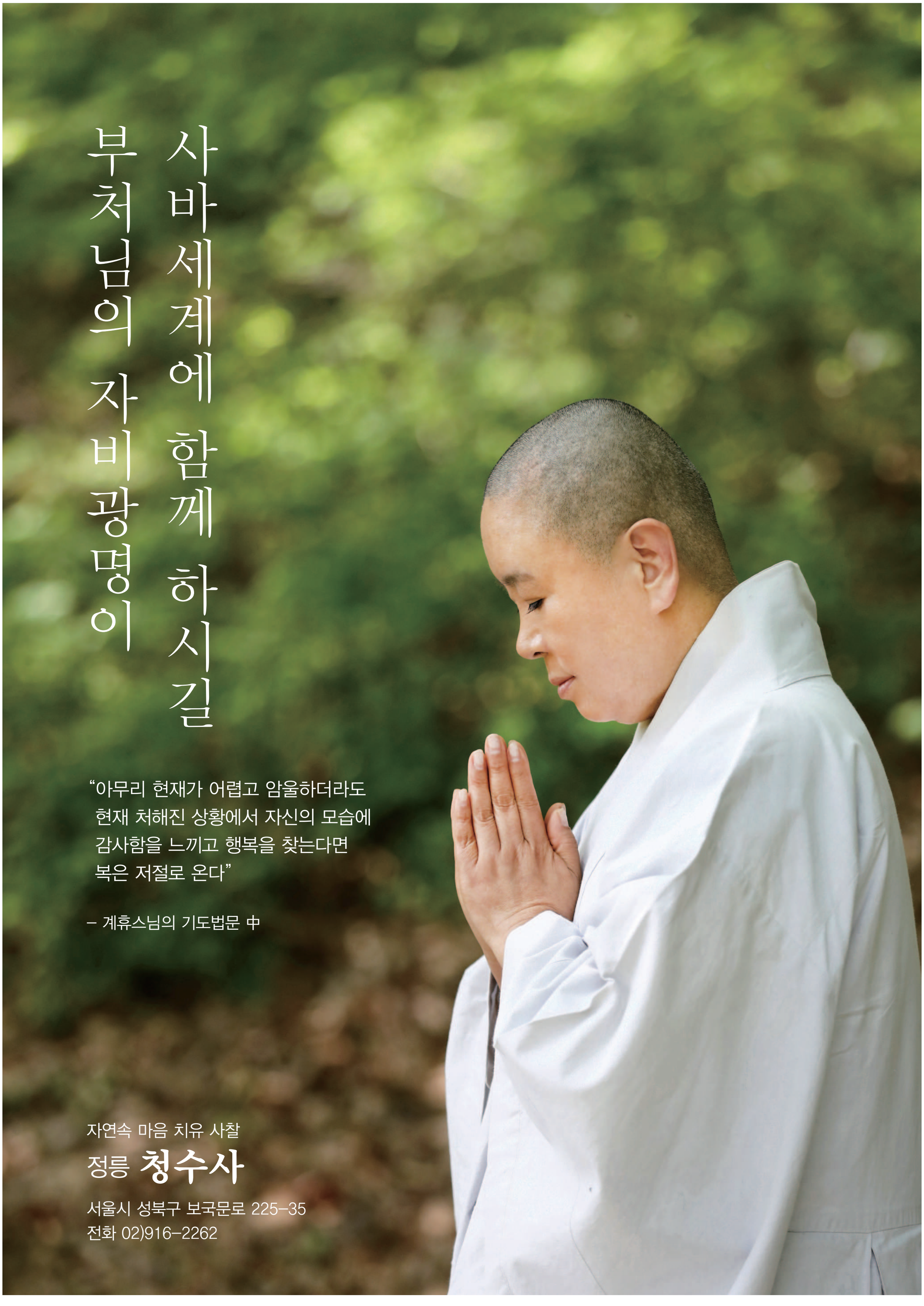
불기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성남 봉국사

주지 혜일
사부대중일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로 79
전화 031)755-0329 팩스 031)722-3761
http://www.bongguksa.or.kr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사바세계에 함께 하시길
"아무리 현재가 어렵고 암울하더라도
현재 처해진 상황에서 자신의 모습에
감사함을 느끼고 행복을 찾는다면
복은 저절로 온다"
– 계휴스님의 기도법문 中
자연속 마음 치유 사찰
정릉 청수사
서울시 성북구 보국문로 225–35
전화 02)916–2262

잊혀진 佛母 발굴해 낸 '미술 평론 대부'



윤범모 관장은…1951년 충남 천안에서 태어났다. 1977년 동국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 · 박사를 마쳤다. 1984~1986년 호암갤러리 큐레이터, 1993~1999년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회장, 1994~2016년 가천대 교수, 2007~2009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을 역임했다. 2011~2015년 한국큐레이터협회 회장, 2012~2016년 고암미술문화재단 이사, 2014년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 큐레이터, 2015년 박수근미술상 운영위원장, 2016년 한국민화센터 이사장,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예술총감독, 2017~2019년 동국대 석좌교수, 2018년 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을 거쳐 2019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008년 〈시와 시학〉 신춘문예 등단했으며, 저서 〈한국현대미술 100년〉〈평양미술기행〉〈한국근대미술〉〈나혜석, 한국근대사를 거닐다〉〈한국미술론〉〈백년을 그리다—김병기〉, 시집 〈노을 씨, 안녕〉 〈토함산 석굴암〉 등이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테마人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대담=김주일 국장 · 정리=박재완 기자

2월 25일 국립현대미술관장 재임명

미술한류 등 '새로운 3년 비전' 제시

2005년 〈불교평론〉 발표 논문 통해

한국불교미술의 창조성 부재 지적해

"한류, 이제는 순수예술로 이어져야"

"미술로 감동과 영감을 주는 사회를 만드는 데 미술관이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으로 재임명된 윤범모 관장의 '새로운 3년 비전'이다. 국립미술관의 관장으로서 이 시대에 제시할 수 있는 비전으로 이만한 것이 없을 것 같다. 이 사회가 미술의 힘으로 감동과 영감을 받아 지속되는 사회가 된다면, 즉 문화의 가치가 사회의 원동력이 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훨씬 긍정적인 사회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평소 "한국미술의 역사 절반이 불교미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불교미술과 불교를 모르면 우리 문화의 전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윤 관장이기에 그가 제시하는 비전의 전모에 관심이 모인다. 윤 관장의 비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의 비전속 '미술'에 오늘날의 불교미술과 불교의 총량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의 지론 속 '불교미술과 불교'의 시제가 '과거형'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말한 그의 비전에서 알 수 있듯이 국립현대미술관장이라는 자리는 우리나라 예술문화의 방향성에 깊게 관여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 중의 하나다. 우리 예술 · 문화의 근간에 불교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윤 관장이기에 그의 '앞으로 3년'이 불자들에게는 '불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윤범모 관장을 만났다.

한국불교미술의 미래를 묻다

"장르는 얼마든지 나눌 수는 있는데, 하여튼 생활 속에 함께 어우러지는 미술이 되어야합니다. 불교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생활 속에서 같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 무엇이 되어야지 울타리 안에 갇혀 있으면 그건 박제된 거라고 생각해요."

걱정은 예상대로였다. 윤 관장뿐만 아니라 많은 대중이 알고 있는 '불교미술'과 '불교'는 최소한 '한국의 미술'이라는 영역에서는 '과거형'에 가까웠다. '근간'이었던 것이 이제는 전 방위적으로 쓰이지 않는 모티브이고 오브제가 되었다. '불교미술'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불사'라는 의미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불교적 소재나 사상을 바탕으로 한 미술이나 예술 활동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미술'이라는 커다란 그림 속에서의 불교미술과 불교의 총량은 미미한 것이다. 불보살의 상호를 그려내는 것만으로 '미술'이라는 커다란 스팩트럼 속의 한 색깔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그 형식과 내용이 신라, 고려, 조선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면 더욱 더 그렇다는 것이다. '불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시작된 불교미술이 오늘날의 우리 현대미술의 근간이 되기 위해선 불교미술과 불교가 우리의 생활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과제인 것이다.

"미술과 예술이라는 말 자체에는 창의성이라는 개념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건축을 하던 불상을 새기든 불화를 그리든 넓게 보면 모두 미술 활동인데, '불사'라는 의미에 갇혀 신라 · 고려시대 작업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안타까운 것이죠. 신라시대의 미술은 신라시대의 정신이 반영된 미술이기 때문에 '신라미술'이라 부르고 당시에는 당당히 '미술'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 시대에서 '미술'로 불리려면 이 시대의 생각과 정신이 반영된 미술이어야 하는 것이죠."

윤 관장은 2005년 불교평론을 통해 발표한 논문에서 '한국불교미술의 창조성 부재'를 이야기한 바 있다. 윤 관장은 한국불교미술이 한국현대미술의 한 축이 되기 위해선 사부대중의 의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라시대에 '미술'이었던 것이 똑같은 모습을 하고도 지금은 미술이 아닌, '불사'로 불리는 것은 현대화 내지는 동시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유 중에는 사부대중의 생각이 '신라'에 멈춰있다는 것이다. 불교 안에 살고 있는 사부대중이 그 시대를 건너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관장이 새롭게 제시한 3년의 비전은 크게 4가지이다. △확장과 연결 △미술한류 △생태미술관 △디지털혁신이다. 그 4가지 비전 중에서 '미술한류'가 불교미술의 미래와 연결된다.

"전시나 출판, 교육 등 미술관 고유 업무로 연결해서 우리 문화를 튼튼히 하는 데 국립현대미술관이 일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K-pop 등 대중문화가 한류를 이루었다면 이제 순수예술이 그 뒤를 이어가야죠. 미술이 그 첫 번째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술 한류'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올해를 원년을 삼으려고 합니다. 해외에서 우리 현대미술 특별전이 여러 군데서 열릴 예정입니다."

윤 관장이 이야기하는 '미술 한류'에 한국불교미술이 함께할 수 있을까. 한국의 미술 자체가 국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못한 상황에서 '미술 한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할까. 윤 관장은 우선 국제시장에서 우리 미술의 이해도를 높이는 게 우선 과제라고 했다. 그 노력에는 우리 전통미술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바로 '채색전통'이다. 그리고 그 채색전통의 중심에는 불교미술이 등장한다.

"우리 민족이 원색을 좋아해요. 건축(단청)만 봐도 알 수 있죠. 완전 오방색 중심으로 쓰잖아요. 그 채색문화를 다시 조명하는 것이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고구려 고분벽화부터 고려와 조선시대 불화 궁중회화 이른바 민화까지, 우리 생활 속에서 늘 함께해왔던 '채색'을 다시 연구하고 재조명해 부활시키면 우리만의 독자성을 부각시킬 수 있고, 우리 미술에 대한 정체성을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2면에 계속

INSIDE

C5
기획연재
정찬주 소설 '아쇼까 대왕'

C10~11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화보

C15
기획연재
김선희 '변상도 바로 읽기'

“미술 한류는 불교미술의 미래와 직결”



2021년 전국 국공립미술관장 회의에 참석한 윤범모 관장(우측 네 번째).



1980년 중반 뉴욕 백남준스튜디오에서 백남준 등과 함께 기념촬영. 좌측 두 번째 윤범모 관장.

‘윤범모 관장’ C1면에서 계속

그리고 그 채색전통을 이야기하려면 탱화를 비롯한 많은 불교미술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불화가 만들어내고 써왔던 그 채색전통의 보루는 사찰입니다. 사찰에는 화승의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찰이 가지고 있는 채색전통에 대한 체계적인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조계종 종정으로 추대되신 성파 스님 같은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져오는 전통과 새로운 창조를 쉼 없이 모색하고 있는 성파 스님은 전통 미술의 재료와 기법을 다 꿰고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채색화 특별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붓다로드’서 한국불교미술을 다시 보다

“길 위에서 길이 어디냐고 묻는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고 있다. 길이 어디예요? 길 위에서 길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래서 행장을 꾸렸다. 그동안 참 많이도 걸었다. 많은 곳을 다녔다. 아니 더 정확한 표현은 방황이었다. 방랑이나 산책과 같은 단어는 하나의 사치였다. 아, 길은 어디에 있는가.”

윤 관장은 2017년 本紙에 ‘윤범모의 불도(佛道)기행’을 연재한 바 있다. 그는 1988년 실크로드와 인도의 붓다로드를 걸으며 ‘깨달음’과 ‘아름다움’에 대해 깊어간다. 부처와 미술에 대해 깊어간다. 연재는 윤 관장이 길 위에서 그 두 가지에 깊어가는 이야기다.

그는 부처의 흔적을 지닌 길, ‘붓다로드’를 걸으며 우리미술을 다시 보게 된다. 아니 정확한 표현으로는 한국불상을 다시 보게 된다.

“불상은 나름대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래도 속인의 눈으로 ‘최고의 불상’ 단 하나만을 골라보라 한다면, 나는 토함산 석굴암을 꼽을 것이다. 만약 한반도가 침몰되어 단 하나의 아이템을 골라야 한다면 나는 토함산 석굴암을 건질 것이다.”

그는 불상을 보러 다니면서 많은 의문들을 품게 됐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길은 어디에 있는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깨달은 이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궁금했다. 불상이 깨달은 이의 모습이라고 생각한 그는 불상들을 바라보다 또 다시 생각한다. 불상을 누가 만들었을까. 그 많고도 많은 지구상의 모든 불상을 누가 만들었을까. 불상을 만든 이들을 불모(佛母)라고 부른데, 그들은 모두 깨달았단 말인가. 그는 이어지는 자문을 발자국삼아 걷고 또 걸었다.

“불교 전래의 길, 아니 불도, 그 깨달음의 길, 노상에서 나는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래서 나의 화두는 깨달음과 아름다움이 되었다. 미술이라는 단어 하나에 담기에는 무언가 아쉽게 하는, 물론 절에서는 미술 역할을 ‘장엄’이라고 한다. 나는 이 ‘장엄’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사찰은 불교미술관이지 않은가. 그렇다고 절을 세울 때, 미술관을 건립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사찰은 미술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사찰 순례는 미술관 탐방의 길이었다. 바로 깨달음의 길이면서 아름다움의 길로 안내하는 것과 같았다.”

그렇게 윤 관장은 하나의 길에서 두 개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그는 그 길을 ‘방황’이었다고 했다. 그 ‘방황’의 시작은 스무 살 청년 윤범모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대산에서 다시 태어난 스무 살 윤범모

“무슨 인연이었을까. 우연히 나는 어떤 장소로 잠입해 들어갔다. 거기가 바로 강원도 오대산이었다. 오대산, 그렇다! 오대산. 거기서 나는 종지부를 찍으려 했다. 그것은 죽음이어도 무관했고 새로운 탄생이어도 무관했다. 무엇인가의 변화가 절실했다.”

삶의 무게는 어느 날 갑자기 무거워지는 것일까. 갑자기 불어난 물살처럼, 거대한 파도처럼 스무 살 윤범모의 삶은 스무 살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스무 살의 윤범모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남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실패’라고 불렀다. 그런 그를 끌어당긴 것은 오대산이라는 거대한 숲이었다. 그리고 그 숲은 불문의 내력이 가득한 곳이었다.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인연’ 뿐이었다. 죽음과 새로운 탄생 사이에 섰던 스무 살 윤범모는 다시 살기로 했다.

청년기 방황 때 오대산 찾아 삶 전환
‘깨달음’·‘아름다움’ 무엇인가 화두로

1988년 실크로드, 붓다로드에서 만행
붓다로드서 한국불미술 다시 보게 돼

本紙서 ‘윤범모의 불도기행’으로 연재
묻혀진 불모인 김복진 발굴한 업적도



“강원도 산자락에서 우두커니 한 철을 보냈다. 그리고 하산을 했다. 그냥 세속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부끄러움만 주머니를 가득 채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열병과 같았던 통과의례는 퇴색되었다. 오대산은 새로운 세월을 안게 해주었다. 어쩔거나 스무 살 언저리의 오대산 시절은 그렇게 지나갔다.”

청년 윤범모는 한 철 머문 오대산에서 새로운 윤범모로 깨어난다. 자신이 한 철 머문 곳이 부처들의 산이었다는 사실, 적멸보궁, 월정사, 탄허, 자장법사 이야기…. 오대산에서의 이야기를 묶어낸 저서 〈아하! 절에 불상이 없네〉에서 그는 “오대산. 상처. 나의 비밀. 나의 그리움”이라고 적고 있다. 깨달음과 아름다움의 길이었던 붓다로드, 어찌 보면 그 만행의 불씨는 오대산에서 채화된 것이 아닐까. 오대산이 없었다면 그 길이 ‘깨달음’과 ‘아름다움’이라는 화두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 그때, 아름다움에 대해 깊어질 수 있었던 윤범모는 훗날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이 된다.

불상에 근대 옷 입힌 불모, 김복진

한국불교미술사에서 근대사라고 할 수 있는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실제로 역사가 없었던 것인지, 역사는 있었지만 묻혀버린 건지 알 수 없다. 하여튼 기록으로 남아있는 역사는 많지 않다. 결과적으로 한국불교미술의 근현대사의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다. 그 기근 속에서도 빛나는 기록이 있다.

윤 관장의 많은 이력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미술평론가’이다. 윤 관장은 1982년 동아일본 신춘문예에 미술평론가로 등단한 후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미술평론가로서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는 근현대 예술가 발굴과 재평가일 것이다. 윤 관장은 나혜석과 김복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미술사에서 누락됐던 두 작가를 찾아냈다. 특히 김복진의 연구는 좀 더 주목된다.

약 30년 동안 김복진의 뒤를 쫓았던 윤 관장은 2010년 펴낸 〈김복진 연구(동국대 출판부)〉을 통해 예산 정혜사 관음보살상과 금산사 미륵전 본존상과 속리산 법주사 미륵대불(미완성)이 김복진의 작품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김복진(1901~1940)은 일제강점기에 한국 근대미술의 토대를 이룩한 선구적인 작가로 평가된다. 그는 일반 조소작가와는 달리 전통적 불상예술에도 일가를 이루어 근대기 불상조각의 새로운 양식을 선보인 근현대 불모(佛母)라고 할 수 있다. 도쿄미술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한 김복진은 짧은 생에서 5년 반 동안의 옥중생활까지 하면서도 10년 정도에 불과한 짧은 기간 동안 근대기 조소작가로서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윤 관장은 책에서 “일제강점기에 한국 근대미술의 토대를 이룩한 김복진이 미륵상을 주로 조소하면서 신라불상의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고 근대미술로서의 가치를 부여했다”고 평가했다. 김복진은 조소예술계에서 ‘정관파’를 형성할 만큼 한국미술사에 선명한 업적을 남겼지만 전해지는 작품이 전혀 없어 그의 존재와 가치를 알 수 없었다. 사라졌던 불모 김복진의 발굴은 미술사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한국불교미술의 역사를 넓힌 불사라고도 할 수 있다. 불모를 찾아내는 일 역시 또 다른 불모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윤범모, 그가 걸어온 길을 더듬어보면 지금의 이름이 있기까지 많은 소임의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소임과 소임 사이사이에는 적지 않은 불사의 업적이 있었다. 이제 그의 새로운 소임에 더욱 커다란 불사를 기대해본다.



새단장한 연등사

불기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봉사와 나눔으로 실천하는 자비도량

사단법인 불교정중종 망이산성 안성 연등사

주지 도 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
생활풍수 CEO 총동문회장 도심

총동문회 사무처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금일로 48-37
전화 031)674-5765 | 팩스 031)674-5769 | 핸드폰 010-3714-9351

불기2566년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도량

신 흥 사

회주 **성 일**

주지 **선 관**

대중일동·신도일동

부처님교화공원,
청소년수련원
불교대학, 경전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신흥사길 17-34
전화 031)357-3916, 2695
팩스 031)357-8687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회주 **계 호**

주지 **법 해**

사부대중일동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길 73
전화 02)359-8410
www.jinkwansa.org

대한불교조계종

아차산 영 화 사

사부대중일동

서울시 광진구 영화사로 107
전화 02)444-4321, 7215

대한불교조계종
중부제일의 독성기도 도량

삼각산 삼성암

주지 **수봉 세민**

사부대중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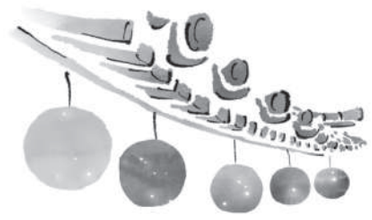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23길 235
전화 02)988-1996, 9300 / www.samsungam.org

대한불교조계종

삼선포교원
삼선불학승가대학원

사부대중일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마길 40
전화 02)923-0582

대한불교조계종

청 계 사

회 주 **대궁 종상**
주 지 **성행**
신도회장 **무상행**

사부대중일동

부설 의왕시 희망나래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거주시설 녹향원
청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대궁 어린이집



경기도 의왕시 청계로 475 (청계동)
전화 031)426-2348, 2221 / Fax 031)426-3666

대한불교
조계종

포 교 사 단

포교사 일동

포교가 곧 수행
수행이 곧 포교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5층
전화 02)927-0588 / 팩스 02)927-5390

(재)한국불교총화종 총본산

천마산 수 진 사

이사장 **전남정**
총 무 **김지오**

신도일동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로 115-13(호평동)
전화 031)591-7710, 팩스 031)591-7121

대한불교조계종

왕 산 사

주지 **왕 산**

사부대중일동

경기도 포천시 호병골길 193
전화 031)533-3245 / 팩스 031)553-3246
www.wangsansa.org

글씨로 그린 부처님

대한불교
본조계종

보 문 암

주 지 **지 호**

사부대중일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199, 3층
(부평동 10-975번지)
전화 010-5482-8559

한국불교태고종

정 인 암

신도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143-1
전화 062)523-0035

한국불교태고종

만 덕 사

회주 **시 각**
주지 **혜 성**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남구 구성로 22
전화 062)363-6617

불기2566년 우리도 부처님 같이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동 원 사

회주 **지 각**

주지 **지 장**

광주광역시 동구 지호로 164번길 54
전화 062)227-3516

대한불교조계종

비 전 사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 2동 489-22번지
전화 062)951-3562

대한불교조계종

봉 덕 사

주지 **대천 현오**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1안길 21
전화 062)674-2888

대한불교조계종

선 덕 사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밤실로 136번길 8-21
전화 062)263-4660

대한불교조계종

정 안 사

주지 **동 초**

신도회일동

광주광역시 북구 분토길 90
전화 062)265-0801

대한불교조계종

쌍 봉 사

지금 이 순간 행복도량

회주 **영 조**

주지 **증 현**

전남 화순군 이양면 쌍산의로 459
전화 061)372-3765~66

대한불교조계종

자 운 사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지호로 106번길 8-8
전화 062)222-8296

대한불교조계종

천 룡 사

주지 **무 등**

＊신행기도회＊
매월 둘째 일요일(명산명찰순례)

＊묘법연화경 독송모임＊
매월 음력 1일~7일

＊다라니 독경 모임＊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신묘장구 대다라니 독송기도회)

＊성덕회＊
성덕사 포교원 개설을 위한 준비모임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길 26-23
전화 062)234-1338 팩스 062)234-0108

한국불교태고종

운 천 사

운천사마애여래좌상

주 지 **각 인 법 진**
신도회장 **옥 담 김병남**
관음회장 **감로화 길미선**
총 무 **월광화 정미화**

운천사 관음회 일동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운천길 85-15

오백나한 도량

도 선 사

주지 **도 원**

총무 윤경화 신환의 합장

신도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길 61-6
전화 062)234-7633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64



▶ 65회 예고
수상 라다굽따는 아쇼까에게 새 왕비를 들이게 해서 관심을 돌리려고 한다. 그러나 잔혹해진 아쇼까는 궁녀들까지 살해한다. 새 왕비는 충격을 받고 괴로워하다가 아쇼까의 아들 꾸날라의 아름다운 큰 눈에 반해버린다.

아쇼까왕, 신하들을 살해하다

아쇼까가 왕위에 오른 지 3년.

아쇼까왕은 밤늦게 수상 라다굽따를 침전으로 불렀다. 정궁에서는 신하들이 옆에 있으므로 은밀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침전으로 라다굽따를 부른 것이었다. 침전 정문에 있던 친위대장이 라다굽따를 발견하고는 잰걸음으로 다가왔다. 친위대장도 아쇼까가 왕위에 오를 때 칼라따까나 라다굽따 못지않게 공을 세운 인물이었다. 따라서 친위대장은 아쇼까의 신임이 두터웠다. 친위대장이 말했다.

"수상님,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왕께서 나를 찾는다기에 급히 왔소."

"아마도 신하들 때문일 것입니다. 왕자들을 다 제거하고 나니 이제는 알게 모르게 왕자들과 내통해 왔던 신하들이 문제입니다."

"나도 눈치는 챘소. 세상이 바뀌었으니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싶소."

"왕궁이 싫으면 스스로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누렸던 온갖 혜택에 길들여져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위인이 있기는 하오."

왕권이 바뀐 지 3년이 지났는데 신하들 대부분이 빈두사라왕 시절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수십 명의 왕자들에게 줄을 대서 출세를 했고, 그들을 통해서 빈두사라왕의 환심을 샀던 것이다. 그런데 왕자들과 등을 진 아쇼까가 왕위를 잇자 그러한 혜택이 사라져버렸으므로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상님, 새 술의 향기와 맛을 보려면 새 항아리에 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바뀌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오. 그러나 원한은 원한을 낳는다고 했소. 원한을 사지 않고서서히 바꿔가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친위대장은 라다굽따를 좋아하면서도 결코 의지하지는 않았다. 그는 칼라따까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지금의 지위까지 오른 위인이었다. 수십 명의 왕자들이 그의 날랜 군사들에게 붙잡히어 소리 소문 없이 죽었으므로 아쇼까의 왕권이 확고해졌다고 믿는 무장이었다. 친위대장은 철저하게 칼의 힘을 믿는 신봉자였다.

아쇼까왕이 라다굽따를 맞았다. 침전 다실에는 꾸날라가 앉아서 짜이를 마시고 있었다. 아쇼까왕이 말했다.

"요즘은 꾸날라가 나를 위로한다오."

"이 악기는 아버지께서 구해주신 공후입니다."

꾸날라가 의자 옆에 놓아두었던 공후를 집어들더니 가슴에 품으면서 말했다.

"꾸날라야, 수상이 오셨으니 이제 왕자별궁으로 돌아가거라."

"예, 친위대 조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조장이 데려다 준다고 하니 안심이 되는구나."

꾸날라가 침전 다실에서 나가고 나자, 아쇼까가 말했다.

"마음이 울적할 때마다 꾸날라를 불러 공후 연주소리를 듣소."

"배은망덕한 신하들 때문에 그러하십니까?"

"그렇소. 어찌하면 좋겠소."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하들을 지방관리로 파견하면 어떻겠습니까? 옛 아반띠국이나 앙가국, 꾸루국 등의 관리들이 현지 호족들이어서 부왕을 이용해 횡포가 자못 심하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하들을 지방관리로 보내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말을 듣는 시늉만 하는 신하들이 지방에 가서 잘한다는 보장이 있소? 그러니 기회를 보아 정리하는 것이 왕국을 위해 도움이 될 것 같소."

"어떻게 정리하신다는 것인지요?"



라다굽따는 아쇼까왕의 눈에서 살기를 느끼고는 몸을 떨었다. 네 군데의 벽에 기름불이 켜진 침전 다실은 아쇼까의 표정이 보일 만큼 환했다. 창 반대쪽 벽면의 기름불 불꽃이 흔들렸다. 혹서기에는 항상 창을 열어두기 때문에 강가강의 강바람이 시나브로 불어왔다. 라다굽따는 얼굴에 닿는 바람결을 느꼈다. 그날따라 바람결이 예리한 칼날처럼 서늘했다. 아쇼까왕은 한참만에 입을 열었다.

"나도 생각하는 바가 있지만 수상께서 계책을 내놓아보시오."

"아둔한 제가 감히... 계책이 허술했다가는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하하하."

아쇼까왕이 라다굽따의 완곡한 거절에 호탕하게 웃었다. 그런 뒤 술을 한 잔 하면서 말했다.

"칼라따까 수상이 그립소. 칼라따까 수상이라면 계책을 말했을 것이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능력이 모자란 저를 수상에 임명하시던 날 저는 기쁘기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소?"

"말씀해 주신다면 더 잘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니 술이나 한 잔 드시오."

라다굽따는 자신 앞에 놓인 술잔을 들었다. 낮에는 주로 짜이가 나오지만 밤에는 술이 나왔다. 술상을 놓고 간 침전궁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은밀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것이므로 아쇼까왕이 침전궁녀의 출입을 엄금한 듯했다. 라다굽따가 술잔을 들었다가 놓자 아쇼까왕이 말했다.

"내가 칼라따까를 수상으로 연임시키지 않고 옛 까시국 부왕으로 보낸 이유가 있소."

"남은여생을 편히 보내라고 배려하신 것이 아닙니까?"

"물론이오. 그런데 그런 이유만으로 보내지는 않았소. 칼라따까는 나를 왕으로 만든 위인이오. 때문에 그의 머릿속에는 나보다 자신이 위에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오. 그러나 왕 위에는 신이 아닌 이상 그 누구도 있을 수가 없는 법이오."

"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라다굽따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서늘한 전율을 느꼈다. 아쇼까왕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칼라따까를 그때그때 이용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신하들을 정리할 나의 계책은 내일 회의에서 보게 될 것이오. 신하들을 정궁에 빠짐없이 모이도록 하시오."

"예, 확인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밖은 동굴 속처럼 컴컴했다. 라다굽따는 잠시 방향을 잃었다.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나온 탓이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라다굽따에게 친위대장이 다가와 옆에 있는 친위 군사에게 지시했다.

"수상님 댁까지 잘 모시게."

친위대장은 왕궁에 피바람이 몰아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아쇼까왕이 내일부터 정궁의 경비를 강화하라고 명했기 때문이었다. 전시가 아닌데도 그렇게 명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래서 친위대장은 친위대 군사들에게 오늘 밤 자정 부로 비상을 발령했다. 정궁의 경계근무 강화를 위한 비상이었다.

비상이 걸리면 철저한 검문검색이 이뤄졌다. 성민들의 왕궁 출입이 성문에서부터 금지되었고, 수상 이하 모든 신하들이 친위대 조장에게 몸수색을 당했다. 아침 일찍 정궁에 들면서 몸수색을 당한 신하들이 황당한 표정으로 수군거렸다.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오?"

"확인해 봐야 하겠소."

"아무래도 무슨 사고가 발생한 것 같소."

"나도 그런 생각이 드오."

아쇼까왕이 입장하기 전에 라다굽따와 친위대장이 정궁 회랑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상님, 새벽에 왕명을 받았습니다."

"무슨 명을 받았소?"

"아침 회의에서 왕명을 거역하는 신하들을 밖으로 끌고나가 목을 베라고 하셨습니다."

친위대장의 말에 라다굽따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회랑 기둥에 도마뱀 한 마리가 기어가고 있었다. 그제야 라다굽따가 겨우 짧게 한 마디 했다.

"알겠소. 입실합시다."

친위대장이 아쇼까왕에게 불려가 끔직한 지시를 받은 것은 사실이었다. 아쇼까왕이 자신의 명을 거역하는 신하의 목을 먼저 치면 친위대장의 군사들도 곧바로 신하들을 궁중정원으로 끌고나간 뒤 가차없이 목을 베라는 잔혹한 왕명이었다.

이윽고 정궁 회의실에 아쇼까왕이 입장했다. 아쇼까왕 좌우로 신하들이 도열했다. 좌측에는 라다굽따 수상과 문신들이, 우측에는 친위대장과 무신들이 서열에 따라 줄을 섰다. 아쇼까왕이 좌우로 서 있는 신하들을 둘러보면서 말했다.

"신하들 중에 나를 능멸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소. 과연 그러한가?"

"대왕이시여, 어느 누가 그러하겠습니까?. 악의적인 소문일 뿐입니다."

라다굽따 옆에 있는 젊은 제관이 말했다. 그러자 아쇼까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들이 나에게 얼마나 충성을 하는지 시험해 보겠소."

"대왕이시여, 말씀하십시오."

"정궁을 나가면 궁중정원이 있소. 정원에는 꽃나무와 황금야자수들이 있소. 오늘부터 정원 안에 가시나무를 심고 꽃나무와 황금야자수를 꺾어 울타리를 만드시오."

모든 신하들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라다굽따는 아쇼까왕이 왕명거역죄로 처단하기 위해 일부러 말이 안 되는 지시를 했다고 판단해 입을 다물고만 있었다. 제관이 또 아쇼까왕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대왕이시여, 울타리는 가시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꽃나무와 황금야자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정궁 회의실은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신하들은 긴장감에 숨이 막혔다. 아쇼까왕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대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왕명을 거역하지 말라."

문관들이 도열한 중간쯤에서 한 신하가 말했다.

"대왕이시여, 그러한 왕명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아쇼까왕의 목소리가 커졌다. 분노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세 번째 명한다. 꽃나무와 황금야자수를 꺾어 가시나무를 보호하도록 하라."

이번에는 경비대장이 아쇼까왕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아무도 왕명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왕명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왕명거역죄를 저지르고도 알지 못하는구나. 나는 그대의 목을 벨 수밖에 없다."

아쇼까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경비대장에게 다가가더니 옆구리에서 칼을 뽑아 휘둘렀다. 그러자 친위대 군사들이 일시에 회의실로 들어와 신하들을 붙잡아 갔다. 끝내 궁중정원 여기저기에 신하들의 붉은 피가 흩뿌려졌다.

아쇼까왕은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꾸날라를 불렀다. 꾸날라의 공후 연주소리를 들으며 화를 삭였다. 꾸날라는 궁중정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공후를 연주했다. 아쇼까왕은 공후 연주소리를 듣고 나서야 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위로를 받았다.

"꾸날라야, 너는 참으로 연주를 잘하는구나."

"여러 악기 중에 저는 이 작은 공후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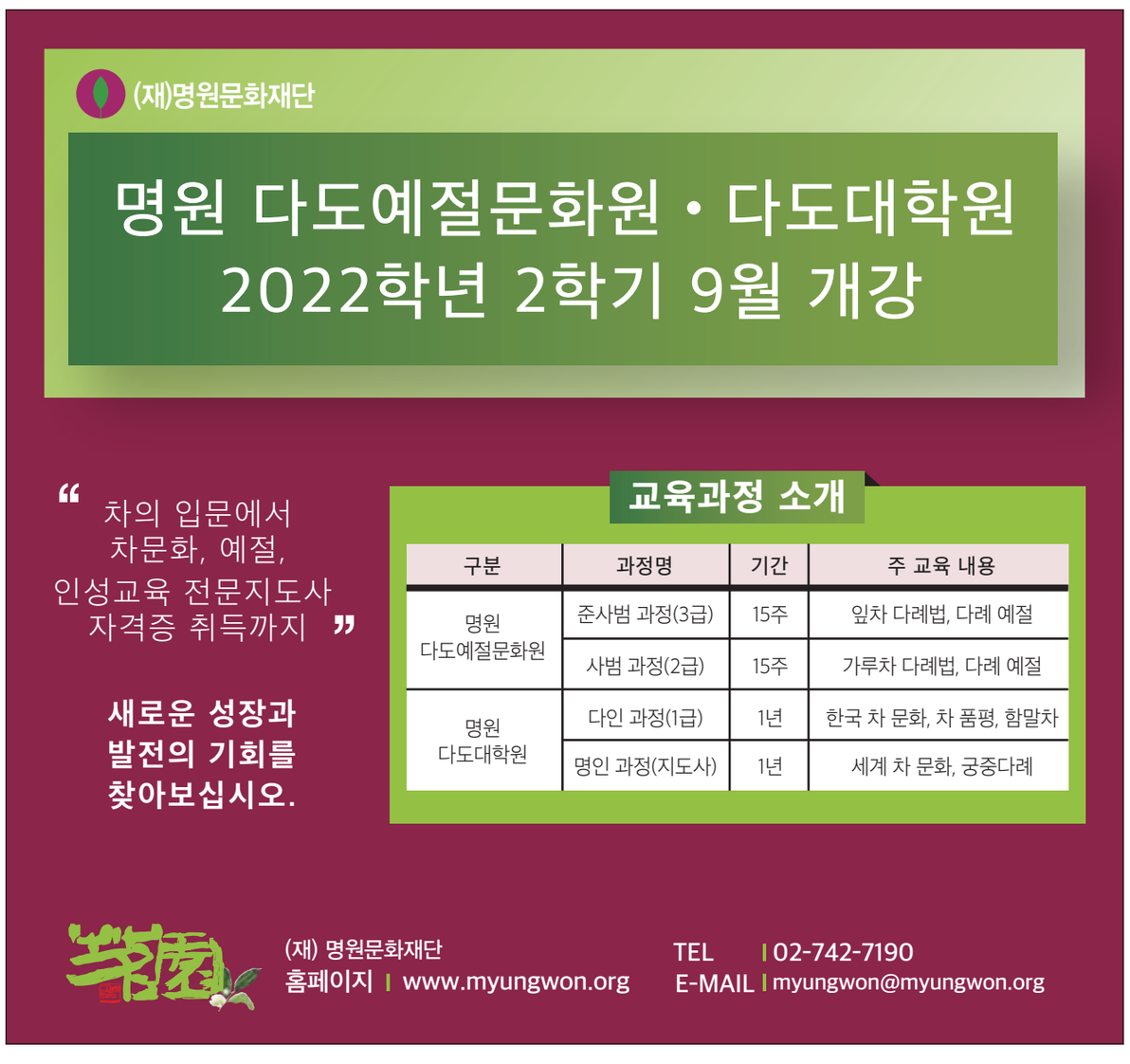
"궁중악대장이 고른 공후란다. 마음에 들어 하니 나도 좋구나.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구나."

"아버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왕궁이 맞지 않습니다. 탁실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다면 내년쯤 보내주마. 나도 열일곱 살에 탁실라로 갔었단다."

꾸날라는 왕궁에서 끊이지 않고 벌어진 피비린내 나는 살해사건에 진작부터 질려 있었다. 꾸날라의 성정에는 도저히 맞지 않는 왕궁생활이었다. 꾸날라는 성민들이 소박한 변방의 탁실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계속〉





불기2566년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용구산 용흥사

주지 덕유

사부대중 일동

전남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 574
전화 061)382-0574

대한불교조계종

두 타 사

불 사 회
두 타 회
단 나 회
108산사순례단
가릉빈가합창단
통영해병전우회

해병 영혼의 집

사부대중일동

경남 통영시 용남면 삼화리 95-1
전화 055)648-1477, 648-1366

한국불교태고종

보 현 사

회주 혜화 주지 묵원

신도회장 유대암 반야회장 최진광월
관음회장 정반야월

경남 통영시 도리7길 37
055)645-6448

자비나눔 실천도량
사단법인 나누우리

이사장 도산

사무국 : 경남 통영시 도리7길 37
전화 055)641-7731

대한불교조계종

옥천사 청련암

주지 원각

사부대중일동

정토만일봉사회 53구법성순례단

경남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1로 430-34
전화 055)672-0078

대한불교조계종

용 화 사

주지 현덕

신도회일동

경남 울주군 상북면 천전길54
전화 052)262-0518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신도회

신도회장 장세철

사부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 1 (도학동 35)
전화 010-3510-9985
사무국장 이달용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비슬산 은 적 사

은적사 부설 룸비니 유치원

회주 일응당 지성
주지 원일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순환로 574-120(봉덕동)
전화 053)653-1275 팩스 053)653-2765

보 현 사
신용협동조합

스님…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스님들의 고민!!!
30년의 전통 전국유일의 불교신협
보현사신협이 확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찰매매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기타 대출상담

自利利他 (자리이타)
남도 이롭게 하면서 자기 자신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대구 중구 중앙대로 67길 10 (상1가 101호)
보현사신협 문의 : 053)428-1133

운불련 호출택시

호출은 053-766-7777

Google play 에서
운불련을 검색하세요!

회장 조신제

한국 운전기사 불자 연합회
대구지역회

합동석물(주)

석재가공 석공사
전문건설업체

대표 탁진규

사부대중 일동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714-10
전화 054)955-8200 ~ 1
팩스 054)955-8202

우리 시대의 힘 인재양성

보광명문화
장 학 재 단

“당신과 함께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만원 후원금으로
재단 후원회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 신한 : 562-069-8443-4636
대구 : 505-10-201229-4
예 금 주 : (재)보광명문화장학재단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4길 39(삼덕동2가)
(갤러리 영도다움 3층)
전화 053)710-3700, 053)523-2886
팩스 053)252-2886

高靈 Goryeong Rooftile Tile Solution



(주)고령기와가
불교 건축문화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주)고령기와는 국내 1위
한식형 그을림기와 전문업체로서
지난 60년간 국내 주요 사찰을 비롯해
궁궐 및 각종 문화재 복원사업과
그 외 주요 건물에
기와를 생산, 공급해 왔습니다

(주)고령기와
Goryeong Rooftile Co., Ltd.

www.rooftile.co.kr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400-1번지
전화 054)954-8008(代) 팩스 054)954-5335

김진무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⑨ 불타선사(佛陀禪師) · 석승조(釋僧稠)



▶ 한줄 요약
남북조시기에 수많은 고승들이 출현하여 활약했다. 이 시기 북방 '습선'의 가장 대표적인 고승은 불타선사와 승조이다.

본격적인 중국선 토대 제공한 불타 · 승조

중국은 북방 소수민족들의 침공으로 서진(西晋)이 망하고, 남하하여 지금의 남경(南京)에 동진(東晋)을 세웠고, 북방에는 16국이 난립하게 되었다. 이후 남방은 송(宋) · 제(齊) · 양(梁) · 진(陳)의 왕조들이 명멸하여 이를 남조(南朝)라 칭하고, 북방에는 북위(北魏)가 16국을 통일하였지만, 동위(東魏) · 북제(北齊)로 분열되고, 그를 서위(西魏) · 북주(北周)가 계승하게 되는데, 이를 북조(北朝)라고 칭하며, 이 시기를 통칭하여 남북조(南北朝)라고 한다. 이 남북조는 중국역사에서 가장 복잡한 시기이지만, 오히려 이 시기의 불교는 학문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대세를 이루어 시대사조(時代思潮)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겠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남북조시기에 이루어진 불교적 담론은 이후의 중국불교에서 논해지는 거의 모든 주제와 내용이 등장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그 이후의 불교는 모두 이 시기에 제시된 사상들의 정리와 종합이라고 평가하는 학자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남조와 북조의 불교는 명확하게 차별이 존재한다. 우선, 정치권력과 불교의 관계로부터 보자면, 남조는 여산 혜원(慧遠)의 영향으로 정교(政敎)분리를 유지하였지만, 북방은 16국을 통일한 북위로부터 '승관제도(僧官制度)'를 실시하여 불교를 황권 아래 제도적으로 복속시켰다. 이후의 중국왕조는 모두 북방계열에 속하기 때문인지 수(隋) · 당(唐)을 비롯하여 청대(淸代)에 이르기까지 불교는 철저하게 황권에 복속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흔히 '삼무일종(三武一宗)'의 '폐불(廢佛)'이 모두 북방에서 발생하는데, 정치권력에 귀속된 불교가 통치자의 성향에 따라 처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남조와 북조의 정교관계는 불교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교가 분리된 남조에서는 자유롭게 새로운 사상을 제시하는 것에 비하여 북조에서는 황제의 명에 따라 하나의 경전 혹은 하나의 교의(敎義)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후대에 종파(宗派)가 출현하고, 이른바 하나의 소의경전(所依經典)을 중시하는 학풍은 바로 이러한 조건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학풍에 따라서 "남의북선(南義北禪)"이라고 하여 남방은 의리(義理)를, 북방은 선정(禪定)을 중시하는 풍조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남북의 사상적 경향에 따라 이른바 '습선(習禪)'은 주로 북방에서 더욱 많이 배출되었다. 〈고승전〉과 〈속고승전〉의 여러 승려들과 '습선편'에 보이는 많은 습선자들 가운데 남방에서 활동한 이도 있지만 대부분 북방에 속해 있으며, 이들의 전기로부터 대부분 선수학(禪數學)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남북조시기에 수많은 고승들이 출현하여 활약하였지만, 이 시기에 북방의 '습선'의 가장 대표적인 불타선사(佛陀禪師, ?~?)와 승조(僧稠, 480~560)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들의 사상은 이후 본격적인 중국선의 토대를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효문제는 칙명을 내려 소실산(小室山)에 불타선사를 위해 '소림사'를 지어 불타선사를 머물게 했다.

남북조시대 불교, 학문 · 신앙 대세
효문제, 불타 위해 '소림사' 불사해
불타, 禪定관련 법 편 것으로 짐작

불타 이어 소림사 2대 寺主된 승조
열반경 '성행품' 사념처 의지해 수행

불타선사는 도선(道宣)의 〈속고승전(續高僧傳)〉에 그의 전기가 실려 있는데, 그에 따르면 본래 천축국(天竺國) 출신이며, 서역의 제국을 유행하다가 중국에 들어와서 북위의 도읍 항안(恒安, 현 山西省 大同)에 이르러 효문제(孝文帝, 471~499)를 만났는데, 황제는 그를 존경하여, "따로 선림(禪林)을 짓고, 돌을 뚫어 감실(龕室)을 만들었으며, 무리를 모아 정념(定念)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후 북위의 수도를 낙양(洛陽)으로 옮기면서 사찰을 마련해 주석하게 하였으나 산림에 머물기를 좋아하여 여러 차례 숭산(嵩山)에 은둔하였다. 그에 따라 도읍을 옮긴 2년 후(太和 20年, 496)에 효문제는 칙명을 내려 소실산(小室山)에 오직 불타선사만을 위한 선사를 수조(修造)하였는데, 이 사찰은 소실산의 산림에 있기 때문에 '소림사(少林寺)'라고 칭하였다. 불타선사는 사찰이 완성된 후에 "이 소림정사는 각별하게 신령(神靈)의 지킴이 있으므로, 한 번 세워진 후, 끝까지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고 하였으며, 그 후에 "각지의 사문들이 명성을 듣고 모여든 자가 항상 수백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소림사는 불타선사를 위해 건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불타선사의 선사상은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또한 제자인 도방(道房)에게 사문 승조(僧稠)를 제도하여 정업(定業)을 가르치게 하였다."는 구절로부터 주로 선정(禪定)과 관련된 법을 펼쳤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승조의 전기에는 도방으로부터 '지관(止觀)'을 수습하였다고 한다. 이 불타선사를 계승하여 소림사의 2대 사주(寺主)가 된 이가 바로 승조이다.

〈속고승전〉에 실린 승조의 전기에 따르면, 속성이 손(孫)씨이며 창려(昌黎) 출신으로, 어려서 세속의 경전을 부지런히 배웠고, 경사(經史)에 통달하여 태학박사(太學博士)에 등용되었지만, 우연히 불법을 만나자 세간의 번거로움을 싫어하게 되어 28세에 경명사(景明寺)의 승식(僧寔)법사를 은사로 출가하였다. 그 후에 불타선사의 제자인 도방에게서 '지관'을 받아 정주(定州) 가어산(嘉魚山)에서 열심히 수행하였지만 전혀 얻는 바가 없었다. 그에 따라 선정 수행을 포기하고 〈열반경(涅槃經)〉에 집중하고자 하였으나 어떤 승려를 만나 결코 선정을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계연(繫緣)하면, 구하여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권고에 따라 수행하여 드디어 선정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로부터 5년 동안 항상 〈열반경〉의 '성행품(聖行品)'에서 설하는 사념처(四念處)를 의지하여 수행하였다.

그 후에 조주(趙州) 장홍산(漳洪山) 도명(道明)선사에게서 '십육특승법(十六特勝法)'을 사사받아 오래도록 깊이 연구였으며, 음식을 절제하며 수행에 몰두하였다고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십육특승법'은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성실론(成實論)〉에서 나타나는 선정에 드는 열여섯 단계의 관법이라고 하겠다. 승조는 이를 오랫동안 수습하여 스스로 깨달아 얻은 바가 있어, 소림사로 가 불타선사를 찹알하여 자기가 증득한 바를 말하였더니, 불타선사는 "내가 총령(蔥嶺)을 넘어서 동쪽으로 와서 보니, 선학(禪學)이 가장 수승하였는데, 그대가 바로 그 사람이도다"고 인정받아 바로 심요(深要)를 전수받았다.

이후 승조는 소림사 근처의 숭악사(崇岳寺)로 가서 머물다가 왕옥산(王屋山)을 거쳐 마두산(馬頭山)에서 주석하였는데, 크게 명성을 떨쳐 북위의 효명제(孝明帝)가 세 차례 조서를 보내 청하자 "넓은 천하가 왕의 영토가 아닌 것이 없는데, 산에서 도를 닦아 대통(大通)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답하자 효명제는 많은 공물을 보내면서 허락하였다. 그러나 북제의 문선제(文宣帝)가 천보(天保) 2년(551)에 칙명을 내려 청하자 승조는 마지못해 산에서 내려가자 문선제는 친히 궁전으로 모셨다고 한다. 40일 동안 궁전에 머물면서 가르침을 베풀자 문선제는 선정을 얻었고, 외호(外護)의 시주를 발원했다고 한다. 승조는 다시 머물던 산으로 돌아가자 문선제는 천보 3년(552) 업도(鄴都) 근처에 운문사(雲門寺)를 창건하여 승조를 주석하게 하였다. 그 후에 문선제는 매달 조서를 보내 국가의 대소사에 자문을 청했으며, 수시로 방문하였다. 황문시랑(黃門侍郞) 이장(李獎)이 여러 선덕들과 함께 선정의 요지를 찬술해줄 것을 청하자 승조는 〈지관법(止觀法)〉 2권을 찬술하였으며, 많은 이들이 이에 의거하여 수행하였다고 하지만 현존하지는 않는다.

승조는 건명(乾明) 원년(560) 4월 13일 진시(辰時)에 아무런 병환 없이 단좌(端坐)하여 산사에서 입적하였는데, 세수 81세였고, 법랍은 50년이었다.

승조의 선사상은 그의 저술이 유실되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의 전기에 보이는 "'십육특승법'을 받아서 오래도록 깊이 연구하였다. 음식을 절제하여서 마음을 몰아쳤는데, 90일 동안 줄곧 한 끼만을 먹는데, 오직 쌀 4두(斗)만을 먹었다. 어떤 때는 익지 않은 음식을 먹고서, 마음을 거두어[攝心] 입정(入定)하였다."는 내용은 그대로 안세고(安世高) 계통의 '선수학(禪數學)'에서 강조하는 '수식관(數息觀)'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이른바 '십육특승법'은 '지식입(知息入)'과 '지식출(知息出)'로부터 '관기사(觀棄捨)'에 이르는 16가지 관법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상 〈열반경〉의 '성행품'에서 설하는 '사념처'를 의지하였다."라는 구절로부터 '선수학'과는 다르게 대승경전의 선관(禪觀)을 운용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속고승전〉을 찬술한 도선은 승조와 비슷한 시기에 북방에서 유행한 달마(達摩)의 선법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다.

"두 종(宗)을 살펴보면, 곧 두 바퀴 축을 타고 달리는 것이다. 승조는 염처(念處)를 품었으며, 청범(淸範)하여 존경할만하다. 달마의 허종(虛宗)은 현지(玄旨)가 그윽하고 깊다. 존경할 만하다는 것은 곧 상황이 쉽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윽하고 깊다는 것은 곧 이성(理性)이 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승조의 선법은 '사념처'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달마의 선법은 '허종', 즉 '반야공관(般若空觀)'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아마도 도선의 안목에는 승조와 달마의 차별을 소승선과 대승선의 차별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도선은 승조의 정학이 비교적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불법이지만, 달마의 허종은 일반적인 '이성'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깊은 법이라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선은 비록 "중원(中原)의 정원(定苑: 定學)에 강령(綱領)을 세우고 전개하게 한" 공로를 인정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이 동으로 흘러와, 여기에서 성하였구나!"라고 하여 승조를 높이 평가하지만, 행간에는 달마의 선법을 더욱 수승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여실하게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불타선사와 승조가 중국선에 대하여 수립한 공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업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안세고 계통의 선수학을 대승 선관과 결합하여 전개한 승조의 선사상은 이후 '불성'과 '반야'의 화회(和會)로 전환되는 중국선의 과도기적 환절(環節)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상사적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前 동국대 불교문화원 부교수〉





불기2566년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부처님오신날

금정구 불교연합회

고 문 경선(범어사) 춘광(광명사)
계천(국청사) 월인(승가종 종정)
동원(연화종 종정)
자문위원 조연(법연원 회주)
회 장 고담(천불정사)
수석부회장 지홍(보광정사)
상임부회장 홍일(법전사)
부 회 장 법일(법장사)
사무총장 동암(금용사)
감 사 운곡(관음사)
기획국장 석산(안국선원)
문화국장 지광(대운사)
사회국장 혜공(구룡사)
포교국장 현수(홍법사)
재무국장 박분순(달오사)
사서국장 심일(천불정사)
회 원 승공(칠보사) 진여(다보사) 청명(분다사)

금정구 불교연합회 회원 사찰 주지 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230-9
천불정사 內 | 전화 051)583-9233

부산불교복지기관의 상호교류와
불교사회복지 역량강화에
부산광역시 불교복지협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사)부산광역시 불교복지협의회

Since 1999

회장(대표이사) 정 여
수석부회장 범 산
상임이사 원 광

이 사 명현, 성문, 심산, 정오, 보혜, 김수현
감 사 박용하, 이륭우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 불교회관 3층
전화 051)243-3531 http://www.bswia.org

"수행이 곧 포교, 포교가 곧 수행"
포교현장을 찾아가는 포교사
전법의 선원을 실천하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단 장 송재린
자문위원 최덕수 심재덕 강수대 이승표 정분남
감 사 강재실 이수임
부단장 서영우 이양희 임한규 주태돈
사무국장 강태산
총괄팀장 최정자 황용대 조봉례 김영신 천경덕
김옥희 윤영준 외 포교사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유원골든타워오피스텔 501호
전화 051) 633-3011, 3015 팩스 051) 633-3012
www.pogyosadan.org
http://cafe.daum.net/bgpogyosadan

부산광역시

남구불교연합회

회 장 회중 지원 문수사
수석부회장 동명불원
부 회 장 도오정사 남도심인당
감 사 능 후 대연정사
대 각 옥천암
사무총장 호 명 무문홍법사
사무부총장 혜 광 대연사
사무국장 대혜법사

남구불교연합회 회원 사찰 주지 일동
남부경찰서 경승 일동

남구불교연합회 신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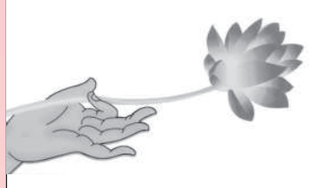
신도회장 신선덕행
부 회 장 광혜 성재곤

부산시 남구 홍곡로 336번길 41 (용당동)
문수사內 전화 051)623-9253

대한불교진각종 부산교구

교구청장 진 광
종무국장 도 오
신도회장 인 덕 륜

부산교구신도회
신교도 일동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9
전화 051)464-0668

부산광역시

부산불교문인협회

실상문학상운영위원장 혜총 대종사

회 장 차정연
수석부회장 이석래
부 회 장 김윤선, 명은애, 박숙자, 박혜숙, 서경남, 손순이, 양은순, 윤기선, 윤유점, 이순선, 이초우, 최선희, 보혜스님
편집주간 양원식
사무국장 홍종원
재무국장 김현옥
편집국장 이소정
사무차장 고순옥, 이석란
회원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유원골든타워717호
☎ 051)816-4181
http://cafe.daum.net/bulg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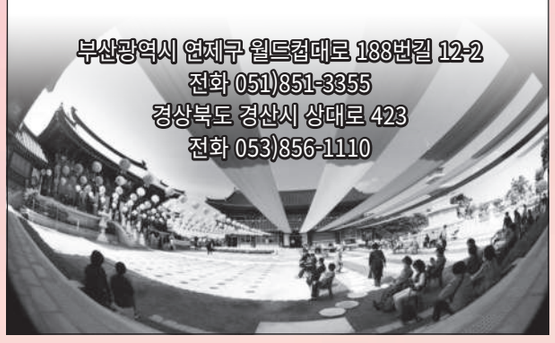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여래선원 경산 삼성사

주지 평 중 효 산

사부대중 합장

· 여래불교대학 : 매주(수) 주간10시 야간 오후7시
· 경전반 : 매주(화) 주간 10시 야간 오후7시
목요시민선방 오후7시
금요자비참법기도 오전10시
· 매월 첫째주 금토 다라니기도 오후7시



지장기도도량

천 불 정 사

주 지 선 묵 고 담
법 사 범 성
부 전 법 경
원 주 조정자

신도회회장 이정민 변호사
신도회부회장 양귀임 박상옥
신도회총무 김영애
거사림회장 이경철
고담나누미회장 신희숙

사부대중 신도일동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 230-9 (장전동)
전화 051)583-9233 팩스 051)583-6362

대한불교조계종

황령산 홍 제 사

황령선원(재가선원)

회 주 금아 혜국
주 지 성문

매월 음력 초하루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신중기도 (3일간)

사회복지법인 화엄도량
- ❖ 노인요양시설 효림원(부산)
- ❖ 정토노인복지센터(부산)
- ❖ 노인요양시설 정효원(제주도)
- ❖ 무료양로원 법성원(충주시)

부산시 부산진구 진남로304번길 34(전포동)
전화 051)802-0130 / 팩스 051)804-1037
www.hjsa.or.kr

대한불교조계종

광 명 사

주 지 무 아

신 도 일 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창로14번길 46
전화 051)646-0843

대한불교조계종

대 원 각 사

범어사 정통 호국무예
세계금강승불무도협회
달빛명상센터

주 지 안 도

매월 음 14일 달빛 걷기명상
매월 음 15,16,17일 달빛 다라니기도
템플스테이, 녹차 체험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산로 427-291
전화 051)701-8827

좋은 기획, 좋은 디자인,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담해북스

출판문화그룹 DAM&BOOKS

서울_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23(내수동)
경희궁의 아침 4단지 805호
T.02)765-1250
damnbooks@hanmail.net

부산_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 82(대연동)
T.051)244-1251
hdbooks21@hanmail.net

불기2566년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부처님오신날

부산광역시 영도구불교연합회

증명대법주 도 성 큰스님
정 각 큰스님

고 문 혜주, 해정, 법공
명준, 해문
회 장 호법
부 회 장 혜도, 해암, 혜진
정오, 혜각, 현여
사무총장 석인정사
이 사 대범, 성연, 청우
대수, 진명
감 사 해암, 혜진

회원 일동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310-78
발원사內 전화 051)405-2326

불교TV 염불공양회

고 문	김유리자 강명자 김정순
회 장	하정선
수석부회장	정승자
부 회 장	윤미자
음악선생	임춘지
감 사	윤정희, 강지원
총 무	강행순
재 무	안상희
팀 장	신미자 최옥희 최말순 김숙희



회 원 일 동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102번길 16-10
동양빌딩 7층(범일동) | 전화 051)633-4020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

회 장 정종원
상임고문 최주덕
고 문 박영근 박수관 박순곤 허인구 설동근
김재운 김재진 조효식 이윤희 권청길
이시영 장남인 이상수 정홍섭 김수현
부 회 장 배영호 배상진 공정근 최삼섭 양재생
최금식 류재호
감 사 최상곤 정연식
사무총장 장병주 재무총장 이현수
총무이사 안천일 친목이사 배도정
홍보이사 박차수 기획이사 박창근
섭외이사 이헌호 대외협력이사 안병호
자문이사 김상훈
이 사 강갑균 공영석 김선일 김성규 김윤곤
김종한 노종헌 박상호 박효근 윤경석
회 원 강석진 곽방보 김선조 김인석 방택훈
손만형 신기열 신상해 안경수 양승찬
이경칠 이권주 이근욱 이성원 이오식
이정출 이학우 진남일 최대경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1705호 (부전동, 유원골든타워)
전화 051)334-0108 팩스 051)867-4397

(社)釜山佛敎實業人會 妙光禪院

正法弘布를 위하여
進一步登一段하는

회 장 김윤환
고 문 강병중 서춘석
최 찰 이상태
하문원 박수복
부 회 장 이근철 이달수
강양수 정영철
감 사 지호경 박신욱
총무이사 이환길
재정이사 송우근
사업이사 이종환
관리이사 이규인
연수이사 박주영
부 총 무 양동회

회 원 일 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37
부산불교실업인회관 4층

청정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여여선원
(양정시장 꽃상가 5층)

[부설 자선단체]
사단법인 세상을 향기롭게
선원장 정여 (前범어사 주지)

영도대흥사 주지 정여
대연동 붓다선원 주지 도경
서 울 진여선원 주지 도일
삼랑진 여여정사 주지 도명
김 해 여여정사 주지 도명
해운대 여여선원 주지 도우
거 제 여래선원 주지 효산
사량도 관음낙가사 주지 효원
울 산 여여선원 주지 효암
단장면 자모선원 주지 효문
양 산 보현선원 주지 효범

여여선원 신도회 명예회장 김경환

부산시 부산진구 동평로420번길 18, 5층(양정상가 아파트)
전화 051)853-5486~7, 팩스 051)863-6422
(사)세상을 향기롭게 : 전화 051)702-9944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 근본도량
대한불교조계종
감 로 사

조실 현담 의현 대종사
회주 수봉 세민 대종사

주 지 혜총 부주지 경성
총 무 경원 교 무 경무
재 무 경증 사 회 경동
포 교 경소 복 지 경지
연 수 경상 교 육 경증
군포교 경제, 경진, 법설
해외포교 경적, 경본
사 서 경여

감로사 신도 일동

부산시 부산진구 진남로432(전포동)
전화 051)809-0926

대한불교조계종
청 심 사

YouTube 밝은마음TV

주 지 법 진

사부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139번길 14-8
전화 051)315-7282



참회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사

회주 법 흥
주지 지 원

신도회장 신선덕행 외 신도일동

사회복지법인문수복지재단
사단법인 위드아시아
용호 종합사회복지관
용호 종합 어린이집
문수 노인 통합지원센터
문현 노인 복지관

부산시 남구 홍곡로336번길 41 (용당동)
전화 051)624-3754, 7848
팩스 051)623-9253

대한불교조계종
청 량 사

주지 운암 현엽

(재)청미단 운암장학회
(사)청미단 생활문화 학림원
마에뜨리아 불교대학
포교사반(1년) · 입문자반(3개월)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도로 29 (명지동)
전화 051)271-2774 팩스 051)271-0936

대한불교조계종
자비도량 원오사

(재)꿈나무가꾸기 명정장학재단
원오사 부설 명정지역아동센터

회 주 고원 명정
주 지 대원 정관
신도회장 김종흔
부 회 장 김기명

부산시 해운대구 윗반송로 124-5
전화 051)542-7949 www.wonosa.or.kr

사회봉사단체
부산불교 보현회
보 현 정 사

회 장 안성이
재 무 조영희
총 무 전영자 윤점자
최본자성
감 사 김선언
홍보부장 유기선
청년회회장 전진호
찬불가지도 이복금
피아노연주 김순옥

회 원 일 동

부산시 동구 좌천동 532-1
전화 051)636-4531

한국불교조계종
황령산 옥 천 암

주 지 대각 금산
원 주 월하 도진
연등회 회장 김선숙
보현회 회장 이춘화
지장회 회장 김감애
관음회 회장 배기매

사부대중 일 동

부산시 남구 황령대로 90번 나길 23(문현동)
전화 051)634-5689

밤하늘 밝힌 10만 연등행렬…'다시 일상으로'

불기 2566년 연등회

사진=박재완 · 노덕현 기자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하는 연등회가 3년 만에 화려한 막을 올렸다. 202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후 처음 열리는 연등회는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동국대와 종로 일원에서 어울림마당, 연등행렬, 회향 한마당으로 진행됐다.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연등회는 매년 열려왔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열리지 못했다.

4월 30일 오후 4시 30분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어울림마당'에서는 연희단이 신명나는 율동을 통해 침체된 우리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상징적인 모습을 연출했다. 각 사찰과 불교단체의 어린이 · 청소년 · 청장년들은 음악에 맞춘 활기찬 율동으로 대중들을 축제의 장으로 이끌었고, 참석대중들은 연희단의 신명나는 무대에 환호로 화답했다.

이어 봉행된 연등법회는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지도자들과 조계사 · 봉은사 · 도선사 등 주요사찰, 포교사단 · 국제포교사회 등 사부대중 1만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C11면에 계속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연등회가 4월 30일 개막했다. 오후 4시30분 동국대에서 열린 '어울림마당' 후 연등행렬이 이어졌다. 사진은 한마음선원 장엄등 행렬 모습.












봉축위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지도자들.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불기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종정예하 **혜강당 석능인 대종사**
원로의장 **성법스님**

원로위원 **범아스님 법장스님 효천스님 홍광스님 귀천스님** 중앙종회의장 **무아스님**

총무원장 **원산스님**
중앙선원장 **혜광스님**
사정원장 **상호스님**
승정원장 **대웅스님**
교육원장 **문수스님**
포교원장 **도법스님**

호계원장 **혜현스님**
문화원장 **봉화스님**
염불원장 **두현스님**
비구니원장 **범해스님**
총무부장 **도연스님**
재무부장 **보우스님**

교육부장 **정만스님**
포교부장 **해주스님**
문화부장 **지연스님**
규정부장 **광명스님**
호법부장 **정로스님**

경북종무원장 **여산스님**
대구종무원장 **법연스님**
충북종무원장 **길상스님**
충남종무원장 **금담스님**
경남종무원장 **보영스님**
울산종무원장 **정로스님**
전남종무원장 **문수스님**

전북종무원장 **담화스님**
제주종무원장 **보경스님**
경기종무원장 **정림스님**
서울종무원장 **진광스님**
인천종무원장 **불산스님**
부산종무원장 **두현스님**
법사회 회장 **김용규법사**

팔부대중여러분
본 종의 창종한지 22년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찰들이 가입을 하고 탈종과 제적을 해왔지만 종지종풍이 바로 세워져있는 본 종은 불조의 혜명아래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실천하는 유일한 종단으로 굳건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불교역사 속에서도 역대조사스님들의 발자취에 이어 법통과 법맥을 이어오는 본 종은 종도들의 결집아래 수많은 법회를 주최주관을 해왔으며 이제는 국외에서 인정받는 종교단체로 군림하고 있으며 또한 본 종 종립 국제승가대학을 운영함에 따라 많은 종도들이 참여하여 교학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음력 5월14일(양 6월12일) 오전 10시 본 종 전계대법왕 우각당 도일대선사 다례재를 봉행하오니 문중 문도스님께서 동참 바라옵고 초청하지 않은 스님들은 일체 사양하오니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입종 및 사찰등록 항시 접수 (현 전국 158개 사찰)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5길 197 총본산 각황사 종무실 : 전화 053)325-0400 총무 010-7283-0089 팩스 053)325-4848 Email : sambo111@hanmail.net

“따뜻한 희망과 치유의 등 밝히자”



4월 30일 오후 4시 30분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3년 만에 다시 펼쳐진 연등회 어울림마당에는 수많은 불자들이 운집해 부처님 오심을 찬탄했다.



4월 30일 서울 동국대에서 열린 어울림마당.









▶C10면에서

오후 7시부터는 서울 동대문에서 조계사까지 연등행렬을 펼쳤다. 올해 연등행렬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불교계가 처음으로 봉행하는 대규모 대면행사이자, 연등회가 2020년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메인무대이기도 하다. 서울 주요사찰과 불교계 단체 50여 곳의 불자들은 직접 제작한 장엄등과 함께 행렬등을 들고 행렬을 펼쳤다.

오후 9시부터는 연등회의 마지막을 장식할 회향한마당이 종각사거리 특설무대에서 펼쳐졌다. 밤하늘을 수놓으며 동대문에서 종각까지 연등행렬을 마친 불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회향한마당은 시민과 불자, 내국인과 외국인, 남녀노소 구분을 뛰어넘은 대화합의 법석이었다. 쏟아지는 꽃비 아래 손을 맞잡고 신나게 축제를 즐기던 대중들은 사회자의 안내에 맞춰 강강술래로 신명을 나눴다.

연등회는 5월 1일 서울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열린 ‘전통문화마당’으로 이어졌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연등회의 일환으로 진행된 전통문화마당은 이날 오후 12시부터 ‘나눔마당’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사단법인 세계불교교황청
World Buddhism Monarchy Corporation

불기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본 세계불교교황청은 세계불교승가연합재단과 부처님탄생지 룸비니에서 국외 종단과 국내종단들과 유대를 하여매년 세계적인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네팔룸비니내 세계불교교황청 마하라니사찰을 설립하여 현재 불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 세계불교교황청 네팔본부 룸비니 마하라니사찰

국내종단 (대표 고문단)

대한불교정토선종	종정 정암큰스님	대한불교동산조계종	종정 진관큰스님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현불큰스님	대한불교벽암조계종	종정 해안큰스님
대선불교조계종	종정 혜승큰스님	세계불교미륵천태종	종정 천호큰스님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종정 법장큰스님	세계선불교조계종	종정 현중큰스님
불대한불교조계종	종정 명성큰스님	대한불교대명조계종	종정 용기큰스님
대한불교조계종육조선원	종정 혜암큰스님	대한불교선율조계종	종정 혜광큰스님
대한불교홍제종	종정 운봉큰스님	대한불교선불조계종	종정 용산큰스님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정 능인큰스님	대한불교반야조계종	종정 지우큰스님
대승불교임제종	종정 법장큰스님	대한불교미타조계종	종정 대영큰스님
대한불교연조계종	종정 효천큰스님	동국불교조계종	종정 자화큰스님
대승불교재단법왕종	종정 운봉큰스님	한국불교법왕종	종정 돈오큰스님
한국호국선불교조계종	종정 자승큰스님	호국불교승가회	대표 성호큰스님
세계불교일화조계종	종정 청암큰스님	호국불교조계종	대표 현광법사

이사회장 석능인
상임이사 무아, 상호, 대웅, 운봉, 선재람샬, 반테비베카
법인이사 원산, 도법, 혜현, 범해, 자명, 대원화
특임이사 광명, 정로, 진광, 정만, 법연, 지연, 해주
도연, 누룹, 앙도아, 갤리, 템바, 히세, 라쥬
상임감사 봉화 특임감사 길상, 보우

각 종단 및 사찰가입환영

종단 단체등록증 발급함.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수계증발급함.
세계불교승가연합재단인정 법계(품계)영문증서발급함.
등록한 개인사찰 소유권인정(관리운영일체 관여하지 않음).
소속사찰 재개발시 이전 보상금에 대한 적극 협조함.
본 청에 소속된 승려는 입적후 절차에 따라 사십구재 및 영구제사 부도탑 설치.

●세계불교교황청 한국본부 :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 중앙대로 291, 2층(90평) ●홈페이지 : www.monarchywbc.com ●Email : buddhasangha@naver.com ●청장실 : 053)321-5008 ●팩스 : 053)321-6008

불기2566년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부처님오신날

보건복지부지정 장기이식등록기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본 부 장 심산
부본부장 자인, 목종, 고담, 해암, 이동권, 이승표, 이욱태
감 사 최상곤, 이영숙
총무이사 성문, 권인자
기획이사 마나, 최성은
재무이사 성관, 김법영
홍보이사 혜산, 배종권
이사 일동

<주요사업>
장기기증 희망등록사업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자살예방사업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63번길 1,2층(수정동,은정빌딩)
전화 051)853-0429 팩스 051)853-0439

대 한 불 교 조 계 종

대광명사

대광명불교대학
해운대백병원 불교법당
서울분원 지금선원

YouTube 불바보TV

주지 목종

사부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73
(로데오아울렛 3층)
전화 051)742-7610 팩스 051)742-7606
www.daekangmung.com

부산교수불자연합회

부처님 오신 날, 성불합시다.

"대학생불자활성화 108후원"모집

불교인구 감소와 탈종교 시대에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현재이자 미래인 대학교 불자동아리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108후원회'에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부산교수불자연합회 회원일동 합장

자동이체 : 1만원/월
계좌번호 : 농협 301-0169-1519-21
(예금주 : 부산교수불자연합회)
문의 : 010-7268-9959 (회장 장상목 교수)

대한불교조계종

제주 제석사
부산 대연정사

사부대중 합장

신도회, 거사림회, 관음회,
지장회, 산우회, 바라밀합창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성로10길 23
전화 (064)725-2123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69번길 8(대연동)
전화 (051)625-3886
홈페이지 www.dytemple.net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봉사일번지

사단법인 미소원

상담 · 봉사
수행 · 후원

이사장 **장유정**

[자원봉사 인증 등록기관]

지역 독거어르신 영양식 반찬봉사
만성질환자 죽봉사 어르신 심리상담
생활상담 및 심리상담
결핵환우 밑반찬 및 후원활동

대한불교조계종 직할포교원

진여원불교대학
(사)진여사회복지원

회 주 **혜 총**
원 장 **남보타월**
봉사단장 **정보덕심**

신도 일동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664(구포2동) 3-4층
전화 051)338-1008, 337-1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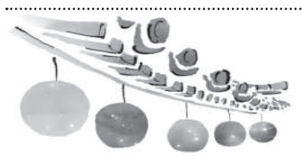
동국한의원

일체에 감사의 마음
올리옵니다

동국한의원 직원일동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로 56 한나타워 209호
전화 051)413-1155

락서암



주지 **수 월**

락서암 신도 일동

부산광역시 서구 망양로 227-3
전화 051)254-0820

대한불교조계종

가 야 사

주지 **정 현**

✽ 가야사 다도회 모집
(매주 월요일 10시~12시)
: 차의 세계와 문화, 다법과 예절(다례), 차명상과 참선
✽ 금강경 수업반 모집
(매주 1회 19시~21시)
문의 : 051)893-0428

< 운영지원기관 >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보현어린이집,
부산진시니어클럽, 연제시니어클럽,
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복센터

※ 만60세 어르신으로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이나 어르신들의 채용을 원하는 단체는 언제든지 문의 전화 부탁드립니다.

부산진시니어클럽 ☎ 051) 893-9060
연제시니어클럽 ☎ 051) 851-2190

(주)엘티유이엘씨

전기공사
전문소방공사
일반건축
실내건축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1길4, 102호
전화 051)728-5562 팩스 051)557-5587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금 강 암

주지 **정 만**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
전화 051)508-4509 팩스 051)508-4870

"부처님 어서 오세요~"
보현행원으로 보리이루리

무 량 사

주지 **법 천**

부산 동래구 금정마을로 59-9번길 온천2동
전화 010-2426-1766

불기2566년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정혜결사도량 오백나한기도도량
팔공산 거조사(암)
주지 태 관
사부대중일동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622
전화 054)335-1369 팩스 054)335-2609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광 덕 사
주지 운 성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190-2
전화 053)763-0068

대한불교조계종
금 용 사
(금용 복지회관)
혜 선
신도회 일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13(성당동)
전화 053)628-5404

대한불교조계종
대 운 암
주지 지 인
신도일동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청매로 117-320
전화 054)372-1433

대한불교조계종
대 전 사
사부대중일동
경북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226
전화 054)873-2908 팩스 054)874-9137

대한불교조계종
법 성 사
주지 부 용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6동 386-3
전화 053)553-5371

대한불교조계종
보 리 사
보리불교대학
학장 증 악
사부대중일동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신묘장군대다라니독송법회(문화강좌안내)
선체조 / 다도 / 어린이 천자문 교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958-10
전화 053)522-7611 팩스 053)522-7612

대한불교조계종
불 광 사
경북불교대학
"나와 이웃과 자연이 함께하는 삶"
학장 운곡 돈관
www.gbbc.or.kr
(우리나라 두꺼비 최대서식지)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444
전화 053)792-1353,1181 팩스 053)791-4951

'수행과 교육의 산실'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동화사
직할포교당 **보현사**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중구 문우관길 65
전화 053)431-5400 팩스 053)255-5629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는
신행 기도 도량
대 원 사
주지 현 정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09길 41(학정동)
전화 053)327-0408

대한불교조계종
석 불 사
사부대중일동
[休息];
하던 일을 멈추고...
지친몸과 마음을 위한 휴식
마포나루 한강변 300년 고찰(古刹)
석불사 템플스테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4다길 23-6
(마포동 394)
전화 02)712-1765

부처님 오신 날 대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 미륵정토종
미 륵 정 토 사
초무한참나선원
<나는 깨달았다> 비대면 설법
"초무한자 또는 짜가스님"
YouTube 검색
사부대중일동
미륵정토사
충남 공주시 계룡면 양화길 19
전화 041)855-3566
초무한참나선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94
전화 02)912-1050

불기2566년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아 미 사

주지 **덕 현**

신도일동

대구시 동구 지묘동 팔곡로 91길14(지묘236)
전화 053)983-1816

대한불교조계종

오 어 사

주지 **종 천**

사부대중일동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어로 1
전화 054)292-2083 팩스 054)291-4190

대한불교조계종

원 효 암

'기도와 수행의 천년고찰'

주지 **활 안**

사부대중 일동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로 386-73
전화 053)852-0963

대한불교조계종

월 인 사

회주 **포전 혜관**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로 85길 52
전화 053)767-3971

대한불교조계종

죽 림 사

주지 **선 지**

신도회 일동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죽방길 279-57
전화 054)334-1261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파계사

관음기도도량
파계사 원통전 보물 제1850호 지정



조실 **청운 도원**
주지 **허주**

대구광역시 동구 파계로 741(중대동)
전화 053)984-4550 팩스 053)985-7118
www.pagyesa.org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산 통천사

주지 **선 지**

『부처님 진신사리 모신 적멸보궁』

사부대중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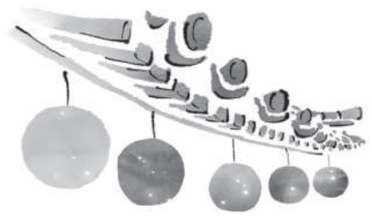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3-1(아양교옆)
전화 053)941-3503, 053)953-4481

韓國佛教太古宗

八公山 冠岩寺

住持 **滿 虛**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갓바위로 350(능성동)
Tel (053) 982-6666, Fax (053) 243-2580

재단법인 선학원

기원정사

주지 **우록 법륭**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33길 6(불로동)
전화 053)982-9329 팩스 053)983-1698

(사)한국불교선조계종

염속산 광불사

회주 **혜 원**
주지 **도 광**
재무 **도 웅**

사부대중일동

사훈 | 비교하지를 말라 따지지를 말라 의심하지를 말라

경북 김천시 조마면 금감로 678-3
전화 054)435- 9885

대한불교조계종

수 안 사

회주 **세 민**

사부대중일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68길 30
전화 02)587-4677, 팩스 522-5666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대전포교원

용 수 사

주지 **설 문**

통도사대전불교대학
학장 **설 문**

사부대중일동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191 2층
전화 042)531-1332
cafe:cafe.daum.net/yongsoosa

김선희 교수의 변상도 바로 읽기 ⑨ 약사여래변상도



▶ 한줄 요약
〈약사경〉을 기반으로 한 약사여래신앙은 4~5세기 남인도에서 출현해 중국을 거쳐 한반도에 들어와 성행했다. 이를 도상화한 약사여래변상도는 돈황 막고굴에서 110점이 있을 정로 많이 조성됐다.

약사여래신앙 요체를 담아내다

대승불교가 사상적으로 성숙해가고 있던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3세기까지의 사이에 수많은 대승경전이 나타났다. 이러한 불교경전의 출현은 새로운 신앙운동에 발맞춰 형식화된 전통불교를 붓다 근본정신으로 돌아가자는 불교혁신 운동으로 전대의 상좌부불교(소승불교)의 모순을 극복했다. 특히 공(空)사상에 입각한 새로운 불교해석은 대승불교(大乘佛敎)의 기본 교리로서 중생제도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대중을 지향하는 불교임을 표방하였다. 이 대승불교가 석가모니의 존재를 초역사화 · 초인격화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과 다른 '여래(如來)', '붓다'로 바꿔 놓았다. 그리고 석가모니의 여러 성격과 정신을 실체화 혹은 형상화함으로서 약사 · 비로자나 · 아미타 등 여러 붓다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때 비로소 불교는 종교적 색채와 성격을 가진 종교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윤리적 불교가 종교적인 불교로 변화하는 과정 중에는 불상의 출현은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불교를 말할 때는 필히 불상이 있는 불교를 연상하게 된다. 말할 것도 없이 오늘날의 불교와 붓다 전교 시대의 불교와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유일하게 교리는 변하지 않고 있다.

불교와 다른 종교도 별반 다르지 않지만, 불교는 붓다와 중생이 평등하며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어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붓다는 사람이 된 것이며, 신이 아니며, 조물주나 만물의 주재자도 아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불상의 성립 배경과 불교사상의 변천은 곧 '윤리적'으로부터 '종교적'으로의 변화이며 초인격의 붓다를 숭배하는 대승불교 사상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형성된 불교미술(변상도)이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피는 것이 우리의 탐구과제이다.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사랑받고 숭배돼 온 불상을 중심으로 본 연재를 이어가고자 하며, 그 첫 번째로 현세이익을 추구하는 붓다인 약사여래 변상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1. 돈황 막고굴 제417굴 굴천정 후방에 그려진 약사정토변상도. 수나라 시기에 그려졌다.



그림2. 돈황 막고굴 제220굴 북벽에 그려진 약사정토변상도. 초당 시기에 조성됐다.

약사여래신앙의 연원

약사불의 전체 이름은 '약사유리광여래(藥師琉璃光如來)'이며 또는 약사여래, 대의왕불, 의왕선서(醫王善逝), 12원왕(願王), 동방유리세계교주로도 알려져 있다. 불교 경전에 따르면, 과거 전광여래(電光如來) 재세 시, 어떤 한 브라만이 발보리심을 내어 중생을 구제하고 중증 환자에게 복리를 가져다줬다. 전광여래를 '의왕(醫王)'이라고 불렀는데 이 의왕은 각고의 수행을 통하여 홍법을 전파했으며 마침내 동방유리광여래가 됐다. 그의 두 아들 일조(日照)와 월조(月照)는 약사여래 신변의 양대 보살이 됐는데, 일광편조보살 · 월광편조보살 또는 일요보살과 월정보살이라고도 한다.

약사신앙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퍼졌으며, 많은 사찰의 대웅전에는 삼세불을 모시고 있는데, 중앙에 석가모니불, 오른쪽에는 아미타불, 왼쪽에는 약사여래를 안치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다. 단독의 약사전을 두고 있는 사찰도 흔한 예이다.

인도 초기 고고학 발굴에서도 약사불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인도 후기 불교 이미지와 전적에서 아주 희소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서역 구법 고승들도 인도의 약사불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인도에서 약사 신앙이 그렇게 주요시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국내외 학자들이 오랫동안 약사 신앙의 기원에 대해 논의해 왔으나 여러 쟁점이 있다.

중국에서 〈약사경〉의 초기 출현을 인도 불교사상에 기반을 두고 중국 도교 및 무의(巫醫) 관념이 결합돼 나타난 것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다. 가장 초기의 〈약사경〉과 약사신앙은 4, 5세기에 남인도에 나타나 6, 7세기 인도 북부와 카슈미르로 퍼졌거나 카슈미르에서 나타난 다음 중국에 소개됐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약사경〉의 기원에 대한 학계의 합의된 정설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약사경〉은 비교적 늦게 출현한 대승경전으로 경문은 대략 5000자로 구성돼 있다. 석가모니 붓다가 비사리국(毘舍離國) 음수(音樹)에 머무르고 계실 때 문수보살의 청에 의해 여러 보살 · 비구 · 천인 · 호법 등에 설한 내용이다. 약사여래가 동방세계에 불국토를 건설하여 유리광국이라 하고 그 세계의 교주가 된다. 그리고 12가지 큰 서원을 세워 일체중생의 질병을 치료하며, 다시 무명의 고질적인 병까지도 치료하겠다고 서원한다. 12대원은 일상생활의 매우 현실적인 소망을 담고 있어서 약사신앙은 일반대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앙체계로 자리잡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고려시대에 크게 유행하였다.

약사신앙 4~5세기 남인도서 출현
〈약사경〉 토대해…한국서도 성행
돈황에는 '약사경 변상' 제일 많아
110여점 존재, 만당 · 오대서 절정

약사도상과 약사경변

돈황 막고굴은 약사여래 도상 즉, 이미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독존상, 군상, 약사설법도, 약사경변 등이 있다. 경변화는 경전에 의거해 그려진 회화작품으로 주제가 뚜렷하고 내용이 선명해 스토리의 흐름이 없는 독존상이나 설법도와는 구별된다. 돈황에는 '약사경 변화'가 110점이 있는데, 수대 4점, 초당 2점, 성당 3점, 중당 23점, 만당 32점, 오대 32점, 송대 9점, 서하 10점이다. 약사신앙은 만당에서 오대에 절정을 이뤘고, 송과 서하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그러면 돈황 막고굴의 수대와 초당시기의 약사경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수대 '약사경 변상'

수대의 '약사경 변상'은 막고굴 제394 · 417 · 433 · 436굴 4곳에 분포돼 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약사경 변도'로 혜간본(慧簡本) 〈관정장구발출과제새사열반경(灌頂章句發出過罪生死涅槃經)〉을 근거로 그려진 것이다. 수대 약사경변상의 내용은 간단하며 아직 초보적 발전단계이다. 설법도의 구성은 중앙에 약사불, 양측에 일광 · 월광보살 또는 8대보살을 배치하고 있다. 약사경변상의 주요 특징은 12약차(藥叉)대장이 약사 속명의 등륜이나 긴 채색 번을 들고 있다. 약사불은 지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아직 출현하지 않은 약사정토를 묘사하고 있다. 그려진 위치는 일반적으로 굴의 천정이나 문에 있으며 주요한 위치는 차지하지 않고 있다. 대응하거나 상관된 위치에는 '아미타변상도'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수대의 '약사경변' 신앙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그림①)

막고굴 제417굴 약사불은 중앙에 결가부좌로 앉아있으며, 수인은 약기인을 하고 있다. 양측에는 4존의 보살이 연화대에 서있는데, 이들은 망자를 맞이하는 약사 8대 접인보살로 관음 · 대세지 · 문수 · 미륵 · 약왕 · 약상 · 무진의 · 보담화이다. 세인이 임종할 때 약사불을 명호하면 8대보살이 바로 망자를 받아들인다.

8대보살의 출현은 당시 약사정토 신앙과 서방정토 신앙의 밀접한 연관성을 반영하며, 8대보살이 망자를 서방정토나 동방약사정토로 인도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성당시대 이후로는 8대보살이 '약사경변도'에서 더 이상 눈에 띄게 묘사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그 당시 약사신앙에 대한이 관념이 변화하고 신심이 옅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약사불 앞에는 등(燈)이 있는데, 이는 위험을 해소하고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일곱 겹의 등이다. 등의 양측에는 여섯 명의 약차장군이 있는데, 보관을 쓰고 천의를 입었으며 무릎을 꿇고 등을 밝히고 있다. 신번(神幡), 연등(燃燈)은 '약사경변'의 중요한 특징으로 수대의 '약사경변'에 자주 등장하며 그 후에도 중요한 주제로 나타나는데, 표현의 형태는 점차 진화해 더욱 웅장 · 화려해지고 다채로워졌다. 이 '약사경변도' 앞에는 흑, 백, 홍의 3색으로 구성된 높은 누대(플랫폼)가 있으며 그 앞 중간에는 다채로운 급류가 앞쪽으로 흐르고 양측에는 많은 연꽃이 둥둥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초당 시기 약사정토변상도

막고굴 제220굴 약사정토변상도은 가장 아름다운 약사경변이다. 이 굴은 초당 시기 적통(翟通)이 건조한 가족 동굴이다. 구성이 웅장하며 전경식(全景式, 파노라마) 동방약사정토를 대규모의 변상도로 그려졌는데, 성당 시기 약사경변도의 토대가 되는 작품이다. 이 시기는 대당(大唐)의 성세가 시작되는 시기로 정치적 안정, 경제 발전, 국태민안으로 예술과 종교가 개방적이고 자유로워 이런 걸작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시대적 환경이 마련돼 있었다.

경변의 하단에 있는 발문에 따르면, 이 벽화는 당대 정관16년(貞觀, 642)에 대운사(大雲寺) 율사(律師) 홍우(弘于)에 의해 제작되었다. 당시 유행한 〈약사경〉은 남조 유송(劉宋)의 혜간본(慧簡本)과 수대 달마급다본(達磨笈多本)중 후자에서만 약사칠불을 언급하고 있다. 이로 미뤄보아 이 벽화는 기본적으로 수대의 번역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그림②)

막고굴 제220굴 '약사정토변상도' 중앙 연못에는 두 가지 색의 유리 보석궁이 있고, 약사칠불이 복련 좌대 위에 평행하게 일자(一字)로 줄지어 시립하고 있다. 칠불은 각각 수인을 취하거나 보물이나 염주 혹은 발우 등 지물을 들고 있다. 약사칠불은 동방 7불국의 각각의 부처님이다. 혹자는 약사불의 약함은 경전에 의거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약사불 발우형상은 수대에서 부터 비롯하지만 보편적인 것은 아니라고 한다.

제220굴 약사정토변은 발우를 들고 있는데, 이 그림은 일반적으로 중원에서 온 것으로 여겨진다. 대부분의 약사불은 지물을 들지 않고 설법인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은 비교적 경전에 가깝다고 하겠다.

〈동국대 연구교수(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불기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 봉

종도일동

KBB한국불교방송주식회사, KBB한국불교방송신문, 월간시사뉴스, KBB한국불교방송자문위원회, KBB한국불교방송불자총연합천불회

사)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총본산
총무원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4 문경백봉사 전화 1577-1016, 054)571-6973,1030(협의회) / 팩스 054)571-7498
방송국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새동네로 107, 예림빌딩 전화 1670-2010

불기2566년 **우리도 부처님 같이**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문 수 사

주지 **덕 화**

회장 **김광석**

사부대중일동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인두리 151
전화 054)285-8516

대한불교조계종

해 운 정 사

부설 청명노인복지센터

주 지
센터장 **청 명**

육재일 법회안내
(음) 1월 하루 (음) 15일 보름
(음) 7일 아라한재일 (음) 18일 지장재일
(음) 8일 약사재일 (음) 24일 관음재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2길 35
전화 053)621-6237 팩스 053)621-5933
cjdaud6237@naver.com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부설
학 교 법 인 **동곡학원**
영천 선화여자고등학교

이 사 장 **도광 덕조**
교 장 **김무상**
교 감 **한승철**
행정실장 **신수영**
법인사무국장 **강희종**

「새롭게 도약하는 선화여자고등학교에
새로운 교육의 가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경북 영천시 화룡동 산 7번지
전화 054)333-3431 팩스 054)333-3432

대한불교천태종

대 성 사

주지 **김도원**

부설
· 동 해 유 치 원 053)652-5760
· 대구금강불교대학 053)624-0133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520-3
전화 053)624-0542 팩스 053)623-0265
www.daesungsa.or.kr

대한불교천태종

해 동 사

주지 **박 도 선**

사부대중 일동

경상북도 안동시 태사길 167(법흥동)
전화 054)852-6320
https://haedongsa.com

'효' 종찰 기도도량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도량

까치산 길 조 암

주지 **보 현**

「길따라 …
土樂 토락」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 3리 471
전화 054)931-5204

대한불교용화법원미륵종

불 종 사

종정 **보원 현진**

사부대중일동

경상북도 경산시 남방1길 5-6 (남방동)
전화 053)802-4043

재단법인 선 학 원

서 봉 사

회주 **경 희**
주지 **명 음**

사부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439-2
Tel 053)471-4812, Fax 053)471-4813

"생활불교 실천불교"

대한불교진각종
대 구 교 구 청

교구청장 **증 혜**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584-1
전화 053)255-1450,1411
팩스 053)292-0751
홈페이지 www.jingak.or.kr

관음기도도량

수 국 사

주지 **지 원**

사부대중일동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 3리
전화 054)932-9847

불기2566년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운 흥 사

주지 **월 암**

신도회일동

경남 고성군 하이면 와룡2길 248-28
전화 055)835-8656 핸드폰 010-4252-8656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김해포교당

바라밀선원

주지 **수담인해**

신도회장 보현화

신도회일동

경남 김해시 분성로3번길235
전화 055)327-2601 팩스 055)328-2601

한국불교태고종

정 관 암

주지 **대 활**

사부대중일동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대밭길118(하작마을)
핸드폰 010-4517-0097

한국불교태고종

석 봉 암

주지 **월 봉**

사부대중일동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원곡2길 77-42
전화 055)223-6801

대한불교조계종 18교구 포교당

금음산 불 인 사

주지 **송 산**

고불학당(불교대학)
불인사 파라미타

신도일동

경남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46번길 3
전화 055)343-1638 팩스 055)343-1637

대중불교 전법도량

봉화산 정 토 원

원장 **법공**

총무스님 길상 등명
사단법인 이사장 선건
사무국장 **이수홍** 감사 **장임순, 제효정**
고문 **김영준, 이재우**

사단법인 봉화산정토원신도봉사회
회장 **이장명**
부회장 **박영옥 이수홍**, 총무 **김지원**
지도법사 **황재연 조세균**, 간사 **김대진**

메아리음악단 단장 **김수복**

신도일동

김해시 진영읍 장방로136-200
전화 055)342-2991~2
www.bonghwasan.org

영축총림 통도사

영축문화재단

이사장 **이산 현문**

이사 : **상우, 운성, 산옹**
법진, 명신, 정우, 재원,
동진, 오심, 동주, 수진행

감사 : **영산, 도광록세무사.**

사무국장 : **홍성표**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전화 055)382-7081

밀양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진 각**(표충사 주지)

상임부회장 **환명**(약수암)
사무총장 **정무**(용궁사)
재무부장 **지공**(어룡사)
포교부장 **현송**(대원암)
사회부장 **덕우**(운수사)
감 사 **성정**(수덕사)
교무부장 **도청**(신명사)
홍보부장 **덕향**(미덕사)

회원사찰일동

경남 밀양시 북성로1길 8-1
전화 055)355-4518 팩스 055)354-5622

한국불교태고종

밀양 약 수 암

주지 **환 명**

사부대중일동

경남 밀양시 단장면 국전로879-119
전화 055)356-1844

한국불교태고종
(나누우리 이사장)

밀양 법 성 사

주지 **만 우**

신도회일동

경남 밀양시 상동면 고정2길 159-11
전화 055)351-0374

대한불교조계종

산청 심 적 정 사

사부대중일동

경남 산청군 산청읍 꽃봉산로133번길 15
전화 055)973-1388

대한불교조계종 13교구 쌍계사 말사

통영 대 성 암

사부대중일동

경남 통영시 남해안 대로 654(무전동)
전화 055)643-2186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생활

1386호 | C18 | 전면광고

물은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된다.
하지만 물 그 자체는 모양이 없는 것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수능엄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대지 : 25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
◎ 매가 : 40억5천

◎ 위치 : 부산시포교원
◎ 입지좋은근린상가
◎ 건평 : 약100평
◎ 주차,공원,아파트
◎ 매가 : 12억5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가람

- 경북 영덕 저렴한 토굴 매매
- 부지 총면적 : 393㎡(119평)
- 건물 총면적 : 122㎡(37평)
- 가액 : 1억8천만원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매매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잡종지내의 대지 143평
- 가액 : 1억5천(조정 조금 가능)
- 가전제품 보시합니다.
- 당일법회 가능합니다.
- 현재 운영중입니다.
- 법사님, 보살님도 환영합니다.

010-4180-1788

3층 상가주택 안내

- 위치 : 김천시 부곡동
- 대지 약 98평
- 1층 : 상가3칸 세나옴
- 2층 : 주택 전세3천
- 3층 : 학원하던곳, 포교당자리
- 가액3억에서 3천만원 빼드림

010-4999-56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가곡리 344~43번지
- 대지 : 500평
- 법당 : 30평
- 요사채 : 20평
- 가액 : 6억

010-3640-3128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 대지 : 350평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4억 8천만원

010-7710-8334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 한림면 사찰
- 2층건물 70평, 법당, 친견실, 산신당, 용왕당, 칠성당, 샤워실, 공양간및 주방
- 권리금 협의가능
- 전세금 500만원
- 월세금 45만원

010-3945-8859

아름다운 사찰안내

- 전원주택형 요사채 25평, 법당 33평
- 정자(3m×5m) 원목 산사음악회 무대
- 총대지 300평 (정원 조성 잘되어있음)
- 진주 합천 중간지점(각 20분 소요)
- 삼존불, 영단, 신중단, 지장단, 소불(한쪽벽면),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언제든 양도가능, 경남 의령군 소재
- 가액 : 협의(은행융자 5천만원)

010-2607-7114

예쁜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내권
- 대지 : 약 173평
- 건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 4평
- 요사채1동 약20평, 2층 약5평 1동 약25평
- 가액 : 3억 3천(절충가능)

010-4999-562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제천시 명지동
- 건물 30평(법당1, 방5)
- 시내와 인접
- 권리금 가격만 받음
- 가액 : 7천만원

010-2596-62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삼산면 바닷가 근교
- 부지 : 510평(대지 220평, 전 290평) 법당, 산신각, 요사채 3동
- 토지 : (전)신축 가능
- 가액 : 2억 5천

010-3871-221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

010-5421-1536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314쪽 | 12,6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우주광명 「누진통」「천안통」 시공을 초월한 수행법

단 한시간이면 업장소멸, 번뇌가 사라져 무상무념이 되고 해탈이 되어 매일 선정과 삼매에 들어 깨달음을 이루고 병고액난의 고통과 삼악도에서 벗어날수 있음.

일광 합장 010-3586-6091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합

010-5412-8040 법광

불 교 용 품 고 가 매 입 전 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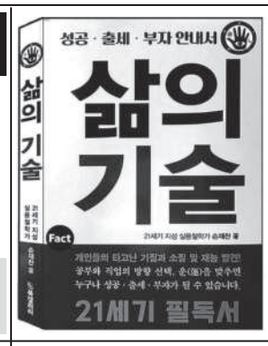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작법무 연수원

천수바라부터 작법 및 염불, 사물 행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밀히 지도합니다.

010-2635-9386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성공 · 출세 · 부자 안내서
삶의 기술
21세기 필독서
Fact

추천 - 책이름 검색 해보세요 !!

49재 · 천도재 · 점안의식대행

(바라, 작법무, 화청, 살풀이, 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사찰건축전문

문화재기능962호

대웅전 종 각
일주문 삼성각

원명 010-4300-9104

• • •

청주 봉은사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 • •

010-5883-2255

• • •

아미타불, 약사여래불, 특수불 각 한분씩
(높이105cm, 좌대30cm)
모셔갈분 찾습니다.

• • •

010-5353-3936

• • •

경상도 고향인 30대 후반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주소 : 함안군 군북면 밀림사
주지 : 지웅 합장(76세)

• • •

010-6893-5040

• • •

부전(기도)스님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 •

010-8620-4303

• • •

부전스님
모십니다.

• • •

010-2078-9595

잘 사는 방법을

스님께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성명학 · 타로 · 절간사주 · 비법

절간사주 · 타로 · 인상학 · 수상
특별비법 비구니 스님께만 전수 수강료 100만원
★간절하게 꼭 배우고 싶은 비구니 스님만 문의 주세요★
아로마테라피 1급강사 ◈ 아로마테라피와 싱잉볼명상 전수해드림 ◈

문의전화 010-6284-6172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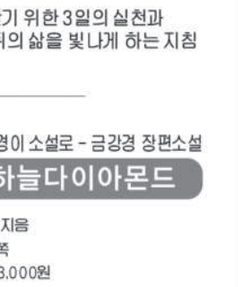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

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엽 스님의
자연힐링차
⑧ 차와 코로나19

뜨거운 물 · 영양차 '면역증진' 도움



면역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차 중 하나인 구기자차.

코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인과
'생명윤리관' 인식 재발 막아야

'면역력' 키워 제2의 코로나 대비
뜨거운 물 · 영양차 수시로 마셔

호모사피언스인 인간은 유일한 지구의 독재자로서 오랫동안 군림해 왔다. 38억 년 전부터 30억 개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구별에는 1000억 개의 관측 가능한 우주 동식물 800만 종과 개체수와 종은 다 알 수 없는 수많은 생명체가 공존해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체생명체인 유정, 무정. 태란습화의 사생과 육도 삼계 25류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중생들로 구성되어 눈에 보이는 큰 중생.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박테리아. 세균, 바이러스 X에 대해 인간의 수명과 건강이 전 세계적으로 위험받고 있다.

사람들은 잔혹한 인류의 변화에 대해 그동안 알지 못했다. 인간만이 우성이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지배욕과 동식물에 대한 정복의 욕구를 생태계에서도 이제는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세상은 결코 덩치가 크고 힘이 세다는 강자와 약자, 약육강식의 생태원리로만 돌아가지 않음을 전 세계가 지금 실감하고 있다. 인간과 자연, 사람과 동물, 사람과 사람, 그 사이에는 새롭고도 놀라운 생명체들이 공생하며 존재한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인과의 법칙이 수시로 가동하고 있다.

동물을 작은 우리에 가두어 사육하고 길들여 생명을 쉽게 도축하며 일회용 생산용품처럼 가벼히 여겼던 인간욕심이 자본의 원리로 생각하고 경시하며 동물을 사육했던 생각도 이제는 무참히 버려야 할 시점이 되었다.

동물을 가볍게 살생하며 무자비했던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발생한 보이지 않는 재앙으로 바이러스를 통한 숙주 세균 등이 자본의 팽창화속에 인구의 증가. 산업화 78억 인구집중화 되었던 고통이 시작되어 너무도 처참하게 죽음으로 내몰리는 지금의 상황에 지난 인류의 삶과 각자의 삶을 되돌아 볼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동식물 너나 할 수 없이 편안히 공기를 서로 나누며 호흡했던 삶의 공간에서 숙주 없이 살 수없는 무생물과 무성생식을 통해 유생물 단백질과 유전물질 머리카락 직경보다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

이제는 진실로 겸허히 수없이 많은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하며 과잉의 살생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감을 참회해야 한다. 그동안 세균들은 독립된 세포, 생존과 번식을 했다. 그러나 지금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스스로 단독으로 생명활동을 할 수 없다. 숙주를 매개체로 증식을 통해 기침 콧물 눈물 호흡만 같이 해도 감염이 된다.

바이러스는 인수공통감염이라서 이제는 어디에도 안전하게 편안히 호흡을 하기 어렵다. 바이러스 수용체 열쇠가 있다. 변이를 통해 변이를 또 일으킨다. 바이러스 결합력이 떨어진다.

박쥐바이러스 aec2와 결합 스필오버니바 바이러스 지카바이러스, 에볼라. 수많은 변이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일이며 인류를 지키는 일이며 생태계에 생명 경시로 인해 수많은 인류는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앞으로 더 많은 바이러스로 인해 더 두려워지며 현재와 미래 바이러스에 대처법은 생명윤리관을 깨달아야 하며 우리일상의 면역 대처법으로는 스스로 뜨거운 물과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는 영양 많은 차를 수시로 마셔야 한다. 그리고 자주 염도 있는 소금물로 입안을 깨끗이 하여 개인의 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리고 집에서는 꼭 물을 끓여 마실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따뜻한 차는 스트레스로 시달리는 마음과 정신의 긴장감을 이완시키고 해소기능이 뛰어나다. 커피는 3차에 걸친 로스팅을 통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된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특히나 우리의 몸의 냉병과 저체온으로 인한 위장장애 불임, 호흡기 질환 등으로 고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호흡기 면역력이 강조되는 시기에 일차 호흡기관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우리는 지금 현재 먹고 마시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 스스로 점검을 해보아야 할 때이다.

〈체질별약차 전문점 마음정원 대표〉



박주용의
소금&건강
⑧ 세계 2위 소금 수입국 대한민국

한국 심층수 소금 경쟁력 충분해

우리나라는 국토의 3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특별한 시기가 아니면 소금에 있어 그리 큰 곤란을 느끼지 않으면서 살아왔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참 축복 받은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많은 국가에서는 과거 소금의 생산과 공급을 둘러싸고 수탈, 민란과 혁명이 끊이지 않았다.

소금은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목숨 줄과 같은 것이었기에 위정자들이 수탈의 한 방편으로 소금 전매제도를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소금 부족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죽음에 이르렀고, 탄압에 맞서 싸우다가 처형되기도 하였다.

지금도 계속되는 아프리카의 사막에서의 소금 대상 행렬, 티베트에서의 마방에 의한 소금 공급 길을 보면 소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먼 길을 거쳐 어렵게 공급이 되는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천일염과 정제염이 소금 생산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물론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생산하는 소금이라고 해봐야 연간 50만t 내외로 우리나라가 연간 필요로 하는 소금 300만t의 1/6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 소금은 수입소금이다. 수입된 250만t은 대부분 화학공업용으로 사용되며 일부는 식품 공업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대부분 멕시코와 호주에서 수입되며, 중국 등 일부 아시아권에서 일부 수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수입되는 소금은 대부분이 천일염이다. 호주와 멕시코의 드넓은 사막에서 만들어지는 값싼 천일염을 대량 수입해서 화학공업용으로 주로 사용한다. 드넓은 사막은 무한정 내리쬐는 햇빛과 비가 오지 않는 최적의 기후로 인해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소금의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세계적인 가격 경쟁력 품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제주 돌 소금 염전(갯벌이 없는 제주도는 돌 위에서 소금 제조)

한국이 소금 수입 세계 2위이고, 세계 1위의 소금 수입국은 일본이다. 일본은 연간 800만t 정도의 소금을 수입한다. 국내산은 150만t 정도로 소비량의 15% 정도를 자체 생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국토의 3면이 바다이고 다양한 소금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소금을 그렇게 많이 수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소금이 천일염이었는데 그 천일염이 국제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없애 버리고 있다. 2005년까지는 가지고 있던 염전을 포기하는 소금 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억지로 없애버리려고 했다. 현재는 태양광 시설이 염전을 차지해 나가고 있다. 드넓은 염전이 태양광 패널로 덥혀 사라지는 현질은 참으로 안타깝다. 심지어는 생산된 천일염은 이물질이 많다는 이유로 2008년까지 광물로 구분하여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소금 산업은 점점 열악해졌고 시설 현대화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그 틈을 비집고 서구의 고급 소금과 값싼 소금들이 소금 수입자유화의 물결을 타고 우리나라로 밀려들어 왔고, 급기야 9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저급시장은 물론 고급시장 또한 그 자리를 수입소금에 내어주었다.

한국은 소금 수입을 하는 와중에도 소금을 조금씩 수출해왔다. 구운 소금, 죽염 등이 그 예이다. 독특한 제조 방법으로 만들어진 질 좋은 소금은 세계 어디에도 통용이 되기 때문이다. 해양오염이 심각해지는 요즈음 깨끗한 해양심층수로 만든 소금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해양심층수 소금은 생산하는 나라가 몇 안 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관련 생산 설비와 기술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술적인 자립도 가능하다. 해양심층수가 가진 청정성과 미네랄 특성을 잘 살린 소금을 대량으로 생산 판매를 한다면 건강 소금으로 세계 시장에 수출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의 소금 산업은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넓은 천일염전을 가지고 있고 구운 소금, 죽염 같은 한국만의 독특한 소금 제조방법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시장에서는 아직 초보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다. 세계 제1의 소금 수입국인 일본이 이웃나라이고,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중국시장이 옆에 있다. 중국 소금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불신이 높으므로 우리나라 소금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수출은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세계 최대의 소금 시장인 중국 시장은 한국 소금이 진출할 수 있는 최대 시장이고 중국에 없는 심층수 소금을 중심으로 한 수출이 예상된다.

한국 소금이 세계 시장에서 올바르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소금의 제조과정과 품질과 미네랄 성분 함량을 분명히 하고 한국 소금에 포함된 미네랄 성분이 어떠한 특성과 효능이 있는지를 밝혀나갈 필요가 있다. 높은 품질의 소금에 멋진 제조 이야기를 담아나간다면 승산이 충분이 있다. 한국은 세계 2위 소금 수입국에서 고급소금의 수출국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

〈(주)오씨아드 이사〉

불기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자비의 등불
함안 미륵산 용 화 사
회주 무 불
천상의 향기 캄보디아 침향


❶ 8mm 1벌 10만원 (10벌이상 5만원)
❷ 10mm 1벌 15만원 (10벌이상 10만원)
침향 구입문의 : 010-2033-6636 / 055)584-0998

불기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사) 대한불교 법화종
북한산 무 량 사
(전통사찰 경기등록 제1호)
주 지 무 량
신도회장 송순남 사무총장 정보경

사부대중일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서문길 184(북한동)
전화 02)385-7777, 351-3789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날

대장부를 만드는
지름길은 인내와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다

대행선사법어

재단이사장 혜 수
주 지 혜 솔
신도회장 이동복

사부대중 합장

국내지원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TEL(043)877-5000 FAX(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황사평6길 176-1 (영평동)
TEL(064)727-3100 FAX(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동삼동)
TEL(051)403-7077 FAX(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04번길 23-1 (치평동)
TEL(062)373-8801 FAX(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 26-12 (천곡동)
TEL(052)295-2335 FAX(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 (중동)
TEL(053)767-3100 FAX(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35
TEL(055)345-9900 FAX(055)346-2179
●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
TEL(055)746-8163 FAX(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위안양골길 157-61
TEL(041)852-9100 FAX(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 (우현동)
TEL(054)232-3163 FAX(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교서로 109
TEL(043)259-5599 FAX(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하평5길 29 (포남동)
TEL(033)651-3003 FAX(033)652-0281
● 통영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TEL(055)643-0643 FAX(055)643-0642
● 목포지원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266번길 31-1(상동)
TEL(061)284-1771 FAX(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봉서1길 10
TEL(054)555-8871 FAX(054)556-1989

국외지원

● 미국 뉴욕 플러싱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직통)070-7883-5239 TEL:(1-718)460-2019
● 미국 워싱톤지원(Washington D.C.)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1-703)560-5166 FAX:(1-703)560-5166
● 미국 로스엔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1-323)766-1316
E-mail : hanmaumla@naver.com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1-847)674-0811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1-416)750-7943 FAX:(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ó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TEL:(54-11)4921-9286 FAX:(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án,
T4107CHN, República Argentina
TEL:(54-381)425-1400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49-2131)969551 FAX:(49-2131)969552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Ekkama,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인터넷전화:(070)8258-2391 TEL:(66-2)391-0091
● 브라질 상파울로지원(Brasil)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
01127-000 - Brasil TEL:(55-11)3337-529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www.hanmaum.org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석수동) **T) 031-470-3100 F) 031-470-3116**